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7

ISBN 979-11-92238-20-3



대전형 지역복지 안전망

함께해U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송지현, 신희정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7

ISBN 979-11-92238-20-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진]

책임연구원 송지현(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신희정(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차 례

요 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조사추진체계	7
제2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11
제1절 한부모가족의 정의	11
제2절 한부모가족 현황	13
1.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13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현황	16
제3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9
1.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률	19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23
제3장 설문조사 결과	35
제1절 조사 개요	35
1. 조사 대상	35
2. 조사 내용	35
3. 조사수행 및 자료 처리	37
제2절 분석 결과	39
1. 일반적 특성	39
2.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42
3.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59

4. 경제활동	66
5. 건강	76
6. 경제상태	81
7. 주거 환경	86
8. 양육비	89
9. 복지서비스	92
제4장 초점집단면접 결과	109
제1절 조사 개요	109
1. 초점집단면접의 필요성과 목적	109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109
3. 조사내용 및 분석	111
제2절 분석 결과	113
1. 한부모가족 가구주 경험 분석	113
2. 서비스 제공자 경험 분석	133
제5장 결론 및 제언	167
제1절 주요 결과	167
1. 설문조사 결과	167
2. 초점집단면접 결과	172
제2절 제언	174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174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175
참고문헌	189
부 록	191
[부록 1] 한부모 특성별 실태 및 욕구	193
[부록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표	360

표 차례

〈표 2-1〉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정의	12
〈표 2-2〉 한부모가구 현황	13
〈표 2-3〉 시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14
〈표 2-4〉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현황	15
〈표 2-5〉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15
〈표 2-6〉 지원근거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16
〈표 2-7〉 대전광역시 한부모가구 현황	16
〈표 2-8〉 대전광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현황	17
〈표 2-9〉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17
〈표 2-10〉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18
〈표 2-11〉 대전광역시 지원근거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18
〈표 2-12〉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
〈표 2-1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주요 내용	22
〈표 2-1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3
〈표 2-15〉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4
〈표 2-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25
〈표 2-1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유형별 제공 서비스	26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7
〈표 2-19〉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내용	28
〈표 2-20〉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수행기관	28
〈표 2-21〉 대전광역시 자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0
〈표 2-2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31
〈표 3-1〉 조사표 구성과 내용	35
〈표 3-2〉 응답자 특성	40
〈표 3-3〉 가구 특성	41
〈표 3-4〉 함께 살고 있는 가족	42
〈표 3-5〉 함께 살고 있는 자녀 특성	43
〈표 3-6〉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외 가족 특성	44
〈표 3-7〉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45

〈표 3-8〉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46
〈표 3-9〉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47
〈표 3-10〉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47
〈표 3-11〉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	48
〈표 3-12〉 미취학 자녀의 양육 어려움	48
〈표 3-13〉 초등학생 자녀 돌봄 유형	49
〈표 3-14〉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50
〈표 3-15〉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50
〈표 3-16〉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51
〈표 3-17〉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51
〈표 3-18〉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	52
〈표 3-19〉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 어려움	53
〈표 3-20〉 한부모가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초등학생	53
〈표 3-21〉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복수응답, N=104)	54
〈표 3-22〉 향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N=105)	55
〈표 3-23〉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55
〈표 3-24〉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56
〈표 3-25〉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56
〈표 3-26〉 중학생 이상 자녀의 양육 어려움	57
〈표 3-27〉 한부모가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중학생 이상	58
〈표 3-28〉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복수응답, N=68)	58
〈표 3-29〉 향후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N=68)	59
〈표 3-30〉 평일 평균 활동 시간	59
〈표 3-31〉 평일 활동 시간	60
〈표 3-32〉 주말 평균 활동 시간	60
〈표 3-33〉 주말 활동 시간	61
〈표 3-34〉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61
〈표 3-35〉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62
〈표 3-36〉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집안일	62
〈표 3-37〉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돈이 필요할 때	63
〈표 3-38〉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본인이 아플 때	64
〈표 3-39〉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아이가 아플 때	64
〈표 3-40〉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생활관련	65

〈표 3-41〉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66
〈표 3-42〉 부당한 일, 차별 경험	66
〈표 3-43〉 경제활동 여부	67
〈표 3-44〉 직업	67
〈표 3-45〉 종사상 지위	68
〈표 3-46〉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68
〈표 3-47〉 월평균 임금	69
〈표 3-48〉 일주일 중 휴무일 수	69
〈표 3-49〉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70
〈표 3-50〉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70
〈표 3-51〉 구직활동 여부	71
〈표 3-52〉 구직 경로	71
〈표 3-53〉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72
〈표 3-54〉 원하는 지위의 일자리	72
〈표 3-55〉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73
〈표 3-56〉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73
〈표 3-57〉 직업훈련 경험 여부	74
〈표 3-58〉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74
〈표 3-5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75
〈표 3-6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75
〈표 3-61〉 평소 건강상태	76
〈표 3-62〉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제한 여부	76
〈표 3-63〉 건강검진 받은 경험	77
〈표 3-64〉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77
〈표 3-65〉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77
〈표 3-66〉 규칙적인 운동 현황	78
〈표 3-67〉 우울한 정도	78
〈표 3-68〉 집단별 우울한 정도	79
〈표 3-69〉 우울감 해소 방법	80
〈표 3-70〉 자기효능감 평가	80
〈표 3-71〉 집단별 자기효능감 평가	81
〈표 3-72〉 월평균 가구소득	82
〈표 3-73〉 주 소득원	82

〈표 3-74〉 월평균 가구 지출	83
〈표 3-75〉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83
〈표 3-76〉 부채 여부	84
〈표 3-77〉 빚을 지게 된 원인	84
〈표 3-78〉 월평균 부채 상황 금액	85
〈표 3-79〉 신용불량 상태 여부	85
〈표 3-80〉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86
〈표 3-81〉 주거 형태	86
〈표 3-82〉 주택 형태	87
〈표 3-83〉 주택 환경 만족도	87
〈표 3-84〉 주거 환경	88
〈표 3-85〉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88
〈표 3-86〉 비양육부모와 교류 여부	89
〈표 3-87〉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89
〈표 3-88〉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	90
〈표 3-89〉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90
〈표 3-90〉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	91
〈표 3-91〉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91
〈표 3-92〉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92
〈표 3-93〉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92
〈표 3-9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93
〈표 3-9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93
〈표 3-96〉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94
〈표 3-97〉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필요한 것	94
〈표 3-98〉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95
〈표 3-99〉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95
〈표 3-100〉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96
〈표 3-101〉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필요한 지원	96
〈표 3-102〉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97
〈표 3-10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98
〈표 3-104〉 가장 필요한 지원	99
〈표 3-10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N=225)	100
〈표 3-1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이유	100

〈표 3-1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	101
〈표 3-108〉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02
〈표 3-109〉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정보 획득 경로	102
〈표 3-110〉 지원시설 서비스의 도움 정도	103
〈표 3-11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103
〈표 3-11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	104
〈표 3-113〉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05
〈표 3-114〉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	106
〈표 4-1〉 초점집단면접 구성 및 연구참여자의 특성_한부모가족 가구주	110
〈표 4-2〉 초점집단면접 구성 및 연구참여자의 특성_서비스 제공자	110
〈표 4-3〉 한부모가족 가구주 질문 구성	112
〈표 4-4〉 서비스 제공자 질문 구성	112
〈표 4-5〉 한부모가족 가구주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13
〈표 4-6〉 한부모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33

그림 차례

[그림 1-1] 조사추진체계	7
[그림 5-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홈페이지	183

부표 차례

〈부표 1-1〉 가구원 수	193
〈부표 1-2〉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194
〈부표 1-3〉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1+2순위 종합 (1))	195
〈부표 1-3〉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1+2순위 종합 (2))	196
〈부표 1-4〉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197
〈부표 1-5〉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198
〈부표 1-6〉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199
〈부표 1-7〉 초등학생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1))	200
〈부표 1-7〉 초등학생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2))	201
〈부표 1-8〉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202
〈부표 1-9〉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204
〈부표 1-10〉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205
〈부표 1-11〉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206
〈부표 1-12〉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208
〈부표 1-13〉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 어려움 수준	210
〈부표 1-14〉 한부모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수준: 초등학생	211
〈부표 1-15〉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1)	212
〈부표 1-15〉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2)	213
〈부표 1-16〉 향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1)	214
〈부표 1-16〉 향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2)	215
〈부표 1-17〉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216
〈부표 1-18〉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217
〈부표 1-19〉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1+2순위 종합 (1))	218
〈부표 1-19〉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1+2순위 종합 (2))	219
〈부표 1-20〉 중학생 자녀의 양육 어려움 수준	220
〈부표 1-21〉 한부모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수준: 중학생	221
〈부표 1-22〉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종합 (1)	222

〈부표 1-22〉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종합 (2)	223
〈부표 1-23〉 향후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종합 (1)	224
〈부표 1-23〉 향후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종합 (2)	225
〈부표 2-1〉 평일 활동 시간: 가사 시간	226
〈부표 2-2〉 주말 활동 시간: 가사 시간	227
〈부표 2-3〉 평일 활동 시간: 돌봄 시간	228
〈부표 2-4〉 주말 활동 시간: 돌봄 시간	229
〈부표 2-5〉 평일 활동 시간: 여가 시간	230
〈부표 2-6〉 주말 활동 시간: 여가 시간	231
〈부표 2-7〉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집안일	232
〈부표 2-8〉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돈이 필요할 때	233
〈부표 2-9〉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본인이 아플 때	234
〈부표 2-10〉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아이가 아플 때	235
〈부표 2-11〉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생활관련	236
〈부표 2-12〉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집안일(1+2순위 종합)	237
〈부표 2-13〉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돈이 필요할 때(1+2순위 종합)	239
〈부표 2-14〉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본인이 아플 때(1+2순위 종합)	241
〈부표 2-15〉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아이가 아플 때(1+2순위 종합)	243
〈부표 2-16〉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생활관련(1+2순위 종합)	245
〈부표 2-17〉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동네/이웃주민	247
〈부표 2-18〉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학교/보육시설	248
〈부표 2-19〉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가족/친척	249
〈부표 2-20〉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직장/일터	250
〈부표 2-21〉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공공기관	251
〈부표 2-22〉 부당한 일, 차별 경험: 동네/이웃주민	252
〈부표 2-23〉 부당한 일, 차별 경험: 학교/보육시설	253
〈부표 2-24〉 부당한 일, 차별 경험: 가족/친척	254
〈부표 2-25〉 부당한 일, 차별 경험: 직장/일터	255
〈부표 2-26〉 부당한 일, 차별 경험: 공공기관	256
〈부표 2-27〉 한부모가 된 이후 변화 수준	257
〈부표 3-1〉 경제활동 여부	258

〈부표 3-2〉 직업	259
〈부표 3-3〉 종사상 지위	260
〈부표 3-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261
〈부표 3-5〉 월평균 수입	262
〈부표 3-6〉 일주일 중 휴무일 수	263
〈부표 3-7〉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264
〈부표 3-8〉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266
〈부표 3-9〉 구직활동 여부	267
〈부표 3-10〉 구직 경로	268
〈부표 3-11〉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269
〈부표 3-12〉 원하는 지위의 일자리	270
〈부표 3-13〉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272
〈부표 3-1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273
〈부표 3-15〉 직업훈련 경험 여부	275
〈부표 3-16〉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276
〈부표 3-17〉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77
〈부표 3-1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278
〈부표 4-1〉 평소 건강상태	280
〈부표 4-2〉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제한 여부	281
〈부표 4-3〉 건강검진 받은 경험	282
〈부표 4-4〉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283
〈부표 4-5〉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284
〈부표 4-6〉 규칙적인 운동 현황	286
〈부표 4-7〉 우울한 정도	288
〈부표 4-8〉 우울감 해소 방법	289
〈부표 5-1〉 월평균 가구소득	291
〈부표 5-2〉 주 소득원(1+2순위 종합)	292
〈부표 5-3〉 월평균 가구지출	294
〈부표 5-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2순위 종합)	295
〈부표 5-5〉 부채 여부	297
〈부표 5-6〉 빚을 지게 된 원인	298

〈부표 5-7〉 월평균 부채 상환 금액	299
〈부표 5-8〉 신용불량 상태 여부	300
〈부표 5-9〉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01
〈부표 6-1〉 주거 형태	303
〈부표 6-2〉 주택 형태	305
〈부표 6-3〉 주택 환경 만족도	306
〈부표 6-4〉 주거 환경 평가 수준	307
〈부표 6-5〉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공공임대 등 주택 제공	308
〈부표 6-6〉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주거비 지원	309
〈부표 7-1〉 비양육부모와 교류 여부	310
〈부표 7-2〉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311
〈부표 7-3〉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	312
〈부표 7-4〉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314
〈부표 7-5〉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	315
〈부표 7-6〉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316
〈부표 7-7〉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318
〈부표 8-1〉 한부모가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319
〈부표 8-2〉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생계급여	320
〈부표 8-3〉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의료급여	321
〈부표 8-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주거급여	322
〈부표 8-5〉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교육급여	323
〈부표 8-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324
〈부표 8-7〉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325
〈부표 8-8〉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필요한 것	327
〈부표 8-9〉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328
〈부표 8-10〉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329
〈부표 8-11〉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331
〈부표 8-12〉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필요한 지원	333
〈부표 8-13〉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335
〈부표 8-1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1+2순위 종합)	337
〈부표 8-15〉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종합)	339

〈부표 8-16〉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N=225)	341
〈부표 8-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이유	343
〈부표 8-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345
〈부표 8-19〉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47
〈부표 8-20〉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정보 획득 경로	349
〈부표 8-21〉 지원시설 서비스의 도움 수준	351
〈부표 8-2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352
〈부표 8-2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1+2순위 종합)	354
〈부표 8-24〉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순위 종합 (1))	356
〈부표 8-2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필요한 지원(1+2순위 종합)	358

요 약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부분 차지
 - 2021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1,509,958가구로 전체 가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368,584가구임.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은 43,401가구로 대전광역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1,661가구임.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려움 경험
 - 고립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변화된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음.
-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시행
 -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낮은 정책 체감 수준
 -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함.
-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2. 연구내용 및 방법

-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한부모가족 관련 학술지 및 타 시도 선행연구와 법률, 정책 자료 등을 분석함.
-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욕구 파악을 위해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건강, 경제상태, 주거 환경, 양육비, 복지서비스 등임.

- 한부모가족의 심도있는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부모가족 가구주 12명과 서비스 제공자 9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 한부모 관련 지원과 서비스 만족,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추가적인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부모의 삶에 대한 인식, 한부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경험, 대전광역시 제언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
-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평가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함.

II.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가운데 일방이 사망, 유기, 별거, 나아가 제도적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혼자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한쪽의 부 또는 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칭함(문은영·김보람, 201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함.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함.
- 대전광역시는 2013년에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지칭함.
-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법적으로 미혼, 사별, 이혼으로 인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으로 보고자 함.

2. 한부모가족의 현황

- 한부모가족은 2021년 기준 총 1,509,958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9%를 차지함.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보면, 모자가구가 1,136,222가구, 부자가구가 373,736가구임.
-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368,548가구이며, 전체 한부모가족의 24.4%를 차지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5,461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12.3%를 차지함. 지원근거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가 30,838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구가 154,623가구임.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은 2021년 기준 43,401가구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함.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보면, 모자가구가 32,655가구, 부자가구가 10,746가구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11,661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26.9%임.
-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389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14.7%를 차지함. 지원근거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가 962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구가 5,427가구임.

3.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법률로서, 기초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복지급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취약가족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복지급여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나누어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해당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함.
-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있음.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으로 나누어짐. 취약가족 지원서비스로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과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가 있음.

(2) 대전광역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의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교구교재비, 월동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은 크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구분됨.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은 미혼모자·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교재교구비 지원, 하계수련회 비용 지원이 있음.
-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3개소,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1개소임.

Ⅲ.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225명이며, 구조화된 웹 조사표에 의한 온라인 조사를 함.
- 조사내용은 총 9개 영역으로 응답자 특성,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건강, 경제상태, 주거 환경, 양육비, 복지서비스 등임.

2.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 성별은 여성이 85.8%, 남성이 14.2%로 나타남.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8세임.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8.9%로 가장 많음.
- 응답자의 28.0%가 25년 이상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56.0%가 10년 이상 거주함.
- 가족 유형은 모자가족이 80.4%, 부자가족 14.2%, 청소년 한부모가족 5.3%임.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 자녀가 39.1%로 가장 많음.
- 한부모가 된 이유는 이혼이 67.6%로 가장 많고, 미(비)혼 모/부 25.8%, 사별 6.7% 등의 순임. 한부모가 된 기간은 7년 이상이 33.3%로 가장 많고, 평균 기간은 5.8년임.

2) 가족관계 및 자녀돌봄

- 가구원 수는 2명이 63.1%로 가장 많고, 3명 25.3%, 4명 이상 11.6% 순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자녀를 제외하고 모 5.8%, 부 4.0%, 형제·자매 3.6% 등임.
- 자녀 수는 1명 69.3%, 2명 23.6%, 3명 이상 7.1% 순이며, 평균 자녀 수는 1.4명임. 성별은 남성이 52.1%로 여성보다 많음. 연령은 7세~13세 미만이 41.6%로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9.4세임. 자녀의 1.9%가 취업상태이며, 2.2%는 장애가 있음.
- 자녀 외 가족은 여성이 57.6%로 남성보다 많음.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9.4%로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46.6세임. 가족의 57.6%가 취업상태이며, 6.1%만이 장애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실태를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미취학 자녀의 경우 직접 돌봄이 50.6%로 가장 많고, 돌봄보육시설(어린이집) 21.2%, 유치원 20.0% 등의 순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7.4%로 가장 많음.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주요 방법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 34.6%로 가장 많고, 학원 20.2%, 본인이 직접 돌봄 20.2% 등의 순임.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41.2%로 가장 많음.
-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미취학 자녀 19.0%(하루 평균 4.7시간), 초등학생 자녀 51.4%(하루 평균 3.3시간), 중학생 이상 자녀 55.9%(하루 평균 3.7시간)로 나타남.
-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의 경우 보육서비스 활성화 52.4%, 자녀 등·하원 서비스 19.0%, 식사 제공 서비스 10.7%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생 자녀에게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는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47.6%,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12.4%,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 11.4% 등의 순임.
-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이상 자녀 모두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한부모가족의 양육 어려움은 모든 연령대에서 '양육비·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미취학 자녀부터 중학생 이상 자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85% 이상의 한부모가 양육비·교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 쇼핑, 외식, 문화예술관람 등이 많음.

3)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 한부모의 평일 활동시간은 돌봄 시간 4.3시간, 가사 시간 2.8시간, 여가 시간 1.5시간임. 주말 활동시간은 돌봄 시간 6.7시간, 가사 시간 4.0시간, 여가 시간 2.7시간임.
-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80.0%,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78.7%, 집안일 부담 증가 75.5%, 경제적 어려움 64.0% 등임.
- 한부모들은 집안일, 돈이 필요할 때, 본인과 아이가 아플 때, 생활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도 낮지 않음.
- 한부모는 동네나 이웃주민(43.0%), 공공기관(37.0%), 직장 및 일터(32.4%), 가족 및 친척(32.4%), 학교나 보육시설(28.3%)로부터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4) 경제활동

- 한부모 69.8%가 현재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직업은 사무 종사자(30.6%), 서비스 종사자(17.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4%), 판매 종사자(12.1%) 등의 순임.
- 근로 중인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53.5%로 가장 많고, 임시직 17.8%, 기타 종사자 15.3% 등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으로 나타남.
- 현재 일하고 있는 한부모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8.0%로 가장 많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34.4%에 불과함. 한부모의 69.4%가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음.
- 한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25.5%,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35.0%,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21.0%,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19.1% 등임.
-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한부모들의 29.4%가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가 45.0%로 가장 많음.
-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31.8%,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27.3%,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싶어서 18.2% 등임.
- 최근 3년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2%에 불과함.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한부모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25.9%,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19.9% 등임.

5) 건강

- 한부모의 54.2%가 평소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9.6%임.
-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60.4%임.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는 33.3%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45.3%, 진료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32.0% 등의 순임.
- 한부모의 50.7%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32.4%로 나타남.

- 한부모의 우울장애유병률을 확인한 결과, 중간정도의 우울인 10점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 한부모의 43.5%를 차지함. 우울감을 느낄 때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혼자서 참는다 46.2%,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18.7%, 술을 마신다 13.8% 등으로 나타남.

6) 경제상태

-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0.0%로 가장 많고, 응답자의 58.2%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임.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주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이 58.0%, 정부지원 24.6%, 같이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6.3% 등임.
-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지출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0.4%로 가장 많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식료품비가 34.7%, 자녀교육비 24.9% 등의 순임.
- 한부모의 56.9%가 부채가 있으며, 빚을 지게 된 원인으로는 주거유지비 43.0%, 생활비 28.9%, 기타 14.1%, 자녀 교육비 7.0% 등의 순임.
-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33.3%, 소득이 높은 일자리 25.3%,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 19.1% 등임.

7) 주거 환경

-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 27.1%, 보증금 있는 월세 19.6%, 자가 14.2%, 전세 14.2% 등의 순이며, 한부모의 40.0%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음 56.4%, 난방상태가 좋음 53.7%, 통풍 및 채광이 좋음 50.6%, 치안 상태가 좋은 46.7%, 교육환경이 좋음 42.2%, 가구원 수 대비 공간이 적당함 42.0%,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 39.5%, 방음상태가 좋음 26.7%로 나타남.
-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서비스 중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과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도를 알지 못함의 비율은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이 19.1%, 주거비 지원이 18.2%로 나타나, 대다수 응답자가 주거서비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한부모는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이 24.9%, 주거비 지원이 32.9%로 나타나,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에 비해 이용 경험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8) 양육비

- 한부모의 50.2%가 비양육부모와 연락 또는 교류하지 않는다고 함. 한부모의 58.7%가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14.7%에 불과함.
-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가 29.5%로 가장 많고,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17.4%,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13.6% 등임.
- 한부모의 69.7%가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8.9%만이 향후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함.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 34.6%,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18.9% 등임.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 지급 제도 도입 55.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21.3% 등임.

9)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을 살펴보면, 한부모의 48.0%가 현재 받고 있으며,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 71.3%, 의료급여 64.8%, 주거급여 82.4%, 교육급여 80.6%임.
-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게 된 이유로는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43.5%,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서 13.0%,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13.0% 등의 순임.
-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필요한 지원은 주거관련 지원이 34.8%로 가장 많고, 교육비 지원 30.4%, 의료비 지원 21.7% 등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한부모의 41.8%가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함.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다가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27.8%,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받게 되어서 22.2%,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11.1% 등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 가장 아쉬운 지원은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27.8%, 자녀교육비 지원 22.2%, 양육비 지원 16.7% 등임.
-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

- 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27.7%,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19.6%,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16.1% 등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42.9%, 구청 또는 주민센터 25.7%, 한부모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66.7%,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8.9%,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7.6% 등의 순임.
 - 한부모가 지금까지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살펴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1.3%,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0%, 사회복지관 12.4% 등의 순임.
 - 한부모의 44.4%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28.0%,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22.2%,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22.0% 등의 순임.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37.6%,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19.2%,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16.0%,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12.8% 등의 순임.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37.8%, 가족구성원 등 돌봄문제 16.4%, 자녀의 교육문제 12.5% 등이며, 어려움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69.8%)이 가장 많음.

IV. 초점집단면접 결과

1. 조사 개요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설문조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실태와 욕구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 초점집단면접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대전광역시 거주 한부모가족 가구주 12명(3집단)과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자 9명(2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함.

2. 분석 결과

○ 한부모가족 가구주 경험 분석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의	-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 - 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치열함과 고독감/위태로움 - 멋있는 부·모
	경제적 실태	- 기준중위소득 30% 내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 - 쉬지 못할 정도로 일하거나 부가적인 소득으로 충당 -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 친정 부모 등 가족의 도움 - 주요 지출 영역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주거 실태	- 자가, 일반 월세,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집, LH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에서 거주 - 한부모가족/미혼모 등 사회복지시설 활용
	자녀 양육 실태	-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 자녀가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관계 실태	-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생활 여건 - 한부모 간 교류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실태	-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병 - 휴식이 없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생계 지원	- 현행 생계급여 제도의 한계 - 자립심 저하에 대한 우려 - 의료비 및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만족감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효과와 한계
	주거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 LH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감과 현행 제도의 한계 -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 양육비 수령의 어려움 -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적 조치의 한계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법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경험 없는 이유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못 받음 - 자녀가 차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원 미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지원 받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임이 원치 않게 공개되는 현실 - 성별이 다른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의 특수성
	현행 서비스 개선	- 수급 및 각종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 현실화 - 양육비 이행 강제화 및 선지급제 도입 -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기타 정책의 지원 방식 개선
	추가적인 지원 필요 영역	- 돌봄 및 가사 지원 - 전문가 상담 및 한부모 멘토 제도 등 심리정서적 지원 - 자녀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 제공자 경험 분석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특성	한부모로서의 경험	- 폭력적인 경험으로 인한 한부모의 취약한 특성 - 준비 없이 양육책임자가 되어 지원이 요구됨 -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부모 확대 가능성 우려와 그들의 문제와 욕구 특성 - 취약계층인 한부모들 간 상호 연대하고자 하는 특성
	최근의 한부모 이슈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들에 대한 인식과 저항감 : 개인주의 성향 등 -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의지와 역량, 욕구의 차이가 다양해지고 있음
	한부모의 사회 관계적 특성	- 사회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 경험 -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 한부모 관련 서비스 자원기관에서의 편견과 차별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문제와 욕구	경제적 취약성	-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의 욕구이자 한 부모가족 서비스 지원의 조건 - 한부모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급 조건으로 실 질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어려움 - 주거 및 취업 등 경제적 기반 취약으로 어려움 - 경제적 관리역량 부족으로 빈곤의 악순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욕구	- 사회적 참여를 위해 자녀 돌봄 문제해결 요구됨 - 돌봄 우선순위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돌봄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한 욕구 - 양육 기술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
	심리 정서적 취약성	- 사회적 좌절과 위축에 대한 심리적 지지 필요 - 스트레스 등 치료적 접근까지 요구됨 - 삶에 대한 지원 필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욕구	- 장애가 있는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 - 고령의 미혼모의 복합적 욕구 - 다문화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 - 사례관리 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
한부모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어려움	빈곤정책과 연계된 제도적 한계	- 자립을 추구하기 힘들게 하는 제도적 한계 - 한부모의 욕구와 문제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라기보다 저 소득 가족을 선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도적 한계로 실 질적인 어려움
	현행 한부모 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려움	- 시설중심의 서비스로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만 한계가 있고, 서비스 만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한부모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 고, 사후적인 서비스에 그쳐 한계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달체계가 없어 통합적 접근에 한계 - 한부모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도 미흡하여 대상자 발 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려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한부모 정책목표의 변화	- 저소득 대상으로 경제적 욕구를 보충하려는 한부모 관련 정책의 관점 변화 필요 - 저소득 한부모 제도에 의존이 아닌 자립이 되도록 지속 적인 과정의 서비스 개선 필요 - 탈수급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 빈곤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관련 논의	- 한부모 중 특별한 욕구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부모를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반면, 한부모 전담기관보다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들의 연계 강화 강조 - 한부모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은 인테이크 창구와 플랫폼의 역할을, 민간은 한부모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접근으로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V. 제언

1. 제도적 개선방안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개정
- 한부모가족의 근로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 방안 마련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2. 실천적 지원방안

-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전달체계 마련
- 한부모가족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정착금 확대
-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정책 확대
- 한부모가족의 가사지원서비스 마련
- 생애주기적 관점의 부모교육 지원
- 한부모가족의 정신건강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자조모임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내 서비스 공급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에 따른 가구 구성의 변화, 가족의 돌봄 및 양육 사회화로 인한 가족기능 변화 등 급격한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진혜민, 2017; 송이은, 2018; 김영란 외, 2021; 여성가족부, 2021). 특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며, 한부모가족이 더 이상 예외적 가족유형이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1,509,958가구로 전체 22,022,753가구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368,584가구이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도 2021년 기준 43,401가구로 대전광역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1,661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적응 문제에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지 외, 2018; 양수진 외, 2019; 김병인 외, 2021; 배호중 외, 2021; 장수정, 2021; 장수정 외, 2021). 특히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 가족보다 부나 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변화된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부모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의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저하와 빈곤화를 동반할 수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원으로 전체 가구 486.8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산 수준은 전체 가구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부모의 상당수가 취업상태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장시간 근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뿐만 아

나라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문제로 인한 시간부족에 시달리고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고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전 배우자와도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지나 네트워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변화된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한부모가족인 모자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족을 포함하였다.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수용 욕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또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직업능력개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양육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에 비해 한부모가족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며,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생계와 주거,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 학교, 공공기관,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기반으로 수립하여,

한부모가족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전국 조사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표본수가 적다. 이에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조사의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조사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근거,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는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등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고 주요 지원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응답자 특성, 가족관계 및 자녀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건강, 경제상태, 주거 환경, 양육비, 복지서비스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부모가족 가구주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 한부모 관련 지원과 서비스 만족 및 어려움,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추가적인 서비스 욕구, 대전광역시 제언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한부모의 삶에 대한 인식, 한부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경험, 대전광역시 제언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한부모가족의 정의, 현황, 지원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법률, 정책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타 시도 한부모가족 관련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조사 현황과 지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전국 및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한부모,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내용 및 방법 등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설문 내용과 조사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는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검토와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3) 설문조사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및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수정된 조사표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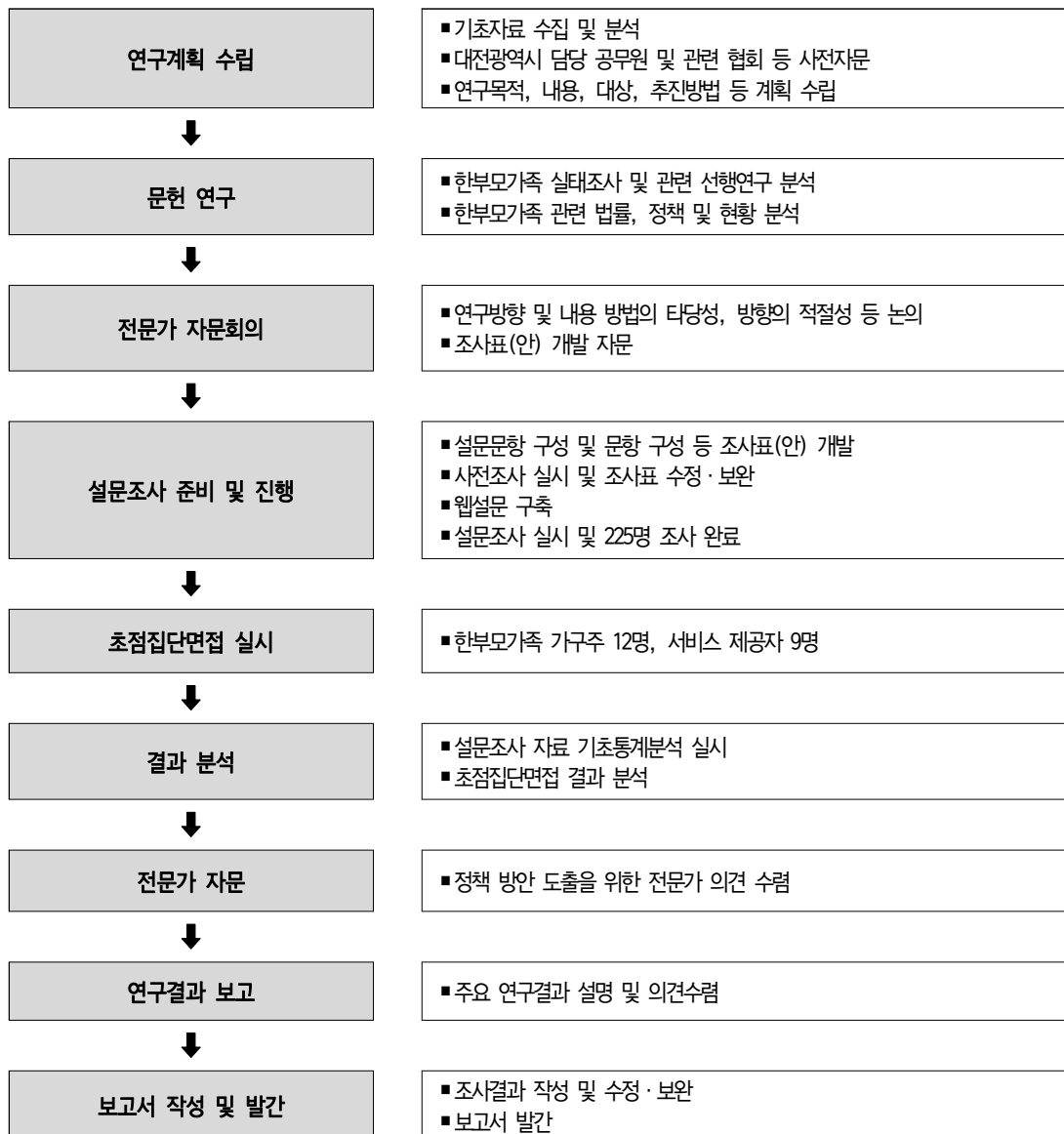
4) 초점집단면접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실태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가구주 12명과 서비스 제공자 9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부모 당사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 반영하였다.

제3절 조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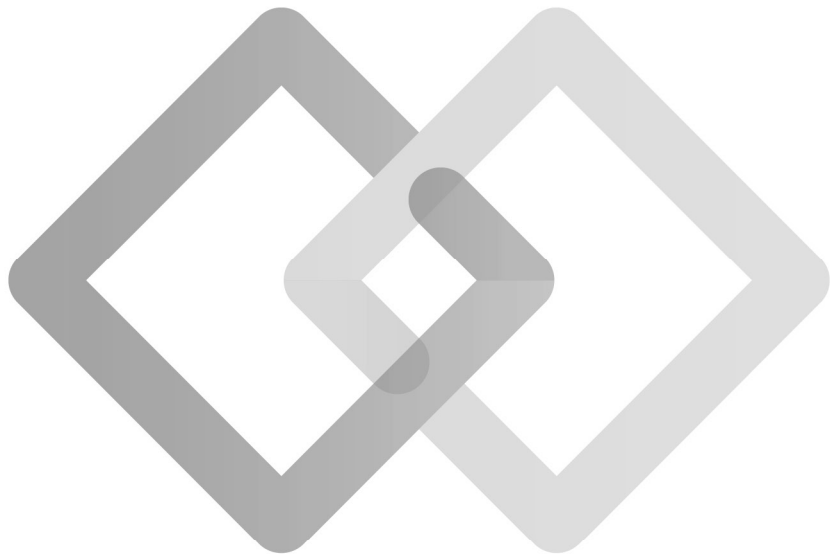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조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수행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림 1-1] 조사추진체계



제2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제2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가운데 일방이 사망, 유기, 별거, 나아가 제도적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혼자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한쪽의 부(父) 또는 모(母)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칭한다(문은영·김보람, 2010). 과거에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나 모(母)를 편부 혹은 편모가족이라고 불렀으나, 이 용어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위 결손가족의 범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쪽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되었지만, 충분하고 온전한 가족의 형태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된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를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는 「모자복지법」에서 출발한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모가 세대주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었으며, 아동교육비 및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 모자보호시설과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2년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자가족도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모·부자복지법」은 2007년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한부모가족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호·지원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지칭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미혼, 사별, 이혼으로 인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으로 보고자 한다.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둔 이유는 성년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한부모의 문제와 욕구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전광역시 거주자라는 조건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정의

조항	내용
제4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제2절 한부모가족 현황

1.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총 1,509,958가구로 전년 대비 22,793명(1.5%) 감소하였다.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7.8%, 2017년 7.6%, 2018년 7.5%, 2019년 7.3%, 2020년 7.1%로 전반적으로 한부모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모자가구가 1,136,222가구(75.2%), 부자가구가 373,736가구(24.8%)로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의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와 부자가구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자가구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연도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2016년	19,837,665	1,539,868(100.0)	1,144,096(74.3)	395,772(25.7)	7.8
2017년	20,167,922	1,533,166(100.0)	1,140,714(74.4)	392,452(25.6)	7.6
2018년	20,499,543	1,539,362(100.0)	1,147,928(74.6)	391,434(25.4)	7.5
2019년	20,891,348	1,529,151(100.0)	1,144,881(74.9)	384,270(25.1)	7.3
2020년	21,484,785	1,532,751(100.0)	1,152,020(75.2)	380,731(24.8)	7.1
2021년	22,022,753	1,509,958(100.0)	1,136,222(75.2)	373,736(24.8)	6.9

자료: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수(시도/시/군/구)

2.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경기도가 383,632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290,818가구, 부산 118,178가구, 인천 101,665가구, 경남 91,359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44.7%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 비율을 시도 인구 비율로 살펴보면, 인천이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 8.2%, 대구 7.7%, 제주 7.4%, 광주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시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시도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전국	22,022,753	1,509,958(100.0)	1,136,222(75.2)	373,736(24.8)	6.9
서울	4,191,171	290,818(100.0)	228,893(78.7)	61,925(21.3)	6.9
부산	1,447,194	118,178(100.0)	90,954(77.0)	27,224(23.0)	8.2
대구	1,013,488	77,781(100.0)	59,258(76.2)	18,523(23.8)	7.7
인천	1,216,719	101,665(100.0)	76,101(74.9)	25,564(25.1)	8.4
광주	625,511	45,808(100.0)	34,937(76.3)	10,871(23.7)	7.3
대전	648,593	43,401(100.0)	32,655(75.2)	10,746(24.8)	6.7
울산	460,289	29,223(100.0)	20,830(71.3)	8,393(28.7)	6.3
세종	147,347	6,111(100.0)	4,602(75.3)	1,509(24.7)	4.1
경기	5,492,783	383,632(100.0)	286,459(74.7)	97,173(25.3)	7.0
강원	682,635	42,823(100.0)	31,448(73.4)	11,375(26.6)	6.3
충북	713,434	43,546(100.0)	31,623(72.6)	11,923(27.4)	6.1
충남	947,235	53,416(100.0)	38,211(71.5)	15,205(28.5)	5.6
전북	785,218	50,815(100.0)	37,916(74.6)	12,899(25.4)	6.5
전남	788,992	44,751(100.0)	32,323(72.2)	12,428(27.8)	5.7
경북	1,178,040	65,936(100.0)	48,067(72.9)	17,869(27.1)	5.6
경남	1,405,646	91,359(100.0)	67,033(73.4)	24,326(26.6)	6.5
제주	278,458	20,695(100.0)	14,912(72.1)	5,783(27.9)	7.4

자료: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수(시도/시/군/구)

2.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주: 2021년 12월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368,548가구로 전년 대비 4,677가구(1.3%) 감소하였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전체 한부모가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29.0%, 2017년 27.7%, 2018년 26.5%, 2019년 25.1%, 2020년 24.4%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표 2-4〉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구	19세 이상 자녀 둔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구 비율
2016년	1,539,868	445,801	1,094,067	29.0
2017년	1,533,166	425,046	1,108,120	27.7
2018년	1,539,362	408,378	1,130,984	26.5
2019년	1,529,151	384,114	1,145,037	25.1
2020년	1,532,751	373,225	1,159,526	24.4
2021년	1,509,958	368,548	1,141,410	24.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주: 18세 이하 및 19세 이상 구분은 자녀 중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

2021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85,461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2019년 182,606가구, 2020년 184,006가구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자가구가 144,792가구(78.1%)로 가장 많고, 부자가구 37,205가구(20.1%), 청소년 모자가구 2,181가구(1.2%), 조손가구 1,056가구(0.6%) 등의 순이었다.

〈표 2-5〉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비율
		소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청소년 모자가구	청소년 부자가구	
2019년	1,529,151	182,606	140,709	37,559	897	3,031	410	11.9
2020년	1,532,751	184,006	142,637	37,292	864	2,845	368	12.0
2021년	1,509,958	185,461	144,792	37,205	1,056	2,181	227	12.3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021년 12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근거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가 30,838가구(16.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구가 154,623가구(83.4%)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구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원근거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소득 한부모가구	185,461	100.0	30,838	16.6	154,623	83.4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 한부모가족 지원법률구분별 가구수, 수급자수

주: 2021년 12월 기준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현황

대전광역시 한부모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43,401가구로 전년 대비 940가구(2.2%)가 감소하였다.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대전광역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7.7%, 2017년 7.5%, 2018년 7.4%, 2019년 7.2%, 2020년 6.9%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구 또한 전체 한부모가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모자가구가 32,655가구(75.2%), 부자가구는 10,746가구(24.8%)로 나타나 모자가구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자가구와 부자가구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대전광역시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연도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2016년	596,752	45,895(100.0)	34,111(74.3)	11,784(25.7)	7.7
2017년	604,490	45,333(100.0)	33,795(74.5)	11,538(25.5)	7.5
2018년	608,260	45,169(100.0)	33,728(74.7)	11,441(25.3)	7.4
2019년	616,363	44,601(100.0)	33,424(74.9)	11,177(25.1)	7.2
2020년	639,020	44,341(100.0)	33,296(75.1)	11,045(24.9)	6.9
2021년	648,593	43,401(100.0)	32,655(75.2)	10,746(24.8)	6.7

자료: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수(시도/시/군/구)

2.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대전광역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1,661가구로 전년 대비 325가구(2.8%) 감소하였다. 대전광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한부모가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31.7%, 2017년 30.4%, 2018년 29.1%, 2019년 27.6%, 2020년 27.0%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또한 전국 한부모가구와 마찬가지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표 2-8〉 대전광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구	19세 이상 자녀 둔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구 비율
2016년	45,895	14,542	31,353	31.7
2017년	45,333	13,774	31,559	30.4
2018년	45,169	13,161	32,008	29.1
2019년	44,601	12,318	32,283	27.6
2020년	44,341	11,986	32,355	27.0
2021년	43,401	11,661	31,740	26.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주: 18세 이하 및 19세 이상 구분은 자녀 중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389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2019년 6,608가구, 2020년 6,438가구로 나타나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모자가구가 5,058가구(7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자가구 1,170가구(18.3%), 청소년 모자가구 116가구(1.8%), 조손가구 32가구(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구 비율
		소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청소년 모자가구	청소년 부자가구	
2019년	44,601	6,608	5,139	1,271	33	145	20	14.8
2020년	44,341	6,438	5,054	1,201	32	137	14	14.5
2021년	43,401	6,389	5,058	1,170	32	116	13	14.7

자료: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지원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자치구별로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서구가 1,991가구(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구 1,289가구(20.2%), 중구 1,259가구(19.7%), 대덕구 990가구(15.5%), 유성구 860가구(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 유형별로는 모든 자치구에서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0〉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소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청소년 모자가구	청소년 부자가구
대전시	6,389	5,058	1,170	32	116	13
동구	1,289	1,012	248	7	21	1
중구	1,259	985	236	2	32	4
서구	1,991	1,592	354	6	34	5
유성구	860	699	138	6	14	3
대덕구	990	770	194	11	15	0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 한부모가족 가족유형별 가구수/수급자수

주: 2021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지원근거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가 962가구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구는 5,427가구로 8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대전광역시 지원근거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소득 한부모가구	6,389	100.0	962	15.1	5,427	84.9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 한부모가족 지원법률구분별 가구수, 수급자수

주: 2021년 12월 기준

제3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률

1)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리나라는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인 모자가족을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부자가족까지 확대하였다. 2007년에 이 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어머니인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족과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자가족뿐만 아니라 부자가족 역시 증가함에 따라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모·부자복지법」은 201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또한 사망, 생사불명, 장애, 장기복역 등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조부·조모로 이루어진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아동은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활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현재 여러 차례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또한 실시하고 있다.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여는 가구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하고, 급여별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30%)이어야 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구원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2〉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이외에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이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조성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법률로서,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3)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 제7조에 근거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동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여 아동이 부모의 결혼상태와 관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중요한 양육비가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공공 사안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에서 이행관리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4)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대전광역시는 2013년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지원,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며, 다양한 사업을 제공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2-1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함
제3조의2 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3조의3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제4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6조 지원사업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지원,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lis.go.kr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이며,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미혼모·부 초기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의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표 2-1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및 내용	사업대상	수행기관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감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연 500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 공단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 복지급여 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는 자녀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한부모가족에게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 3.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을 지원하며,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표 2-15〉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있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으로 나뉘어진다. 기본생활지원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 해당된다. 공동생활지원형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

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자립생활지원형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이 대상이다.

부자가족복지시설 역시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생활지원형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이 해당되며, 공동생활지원형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이다. 현재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자립생활지원형은 없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으로 구분된다. 기본생활지원형은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공동생활지원형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모(母)의 건강을 해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와 아동이 해당되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생계를 지원해 준다.

〈표 2-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 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 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시설 유형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2-1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유형별 제공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및 제공 서비스
모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모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주거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양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모와 아이의 질병 진단치료입원, 예방접종비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자립지원 - 직업교육,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21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122개소이며, 이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이 48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이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이 9개소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가장 많고, 부자가족복지시설이 가장 적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별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서울이 27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 11개소, 부산과 대구가 각각 9개소, 인천과 경북이 8개소 등의 순이다. 한부모가족 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가 적으며, 특히 부자가족복지시설이 전국에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모여 있다.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유형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22	27	9	9	8	6	6	4	11	3	3	4	8	5	8	6	5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42	6	6	5	1	2	1	1	2	1	1	2	4	2	5	2	1
	공동생활 지원	2	-	-	-	1	-	-	-	-	-	-	-	-	-	1	-	-
	자립생활 지원	2	-	-	-	-	-	-	-	-	-	1	-	1	-	-	-	-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2	1	-	-	1	-	-	-	-	-	-	-	-	-	-	-	-
	공동생활 지원	1	1	-	-	-	-	-	-	-	-	-	-	-	-	-	-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23	6	2	1	1	1	1	1	3	1	-	1	1	1	1	1	1
	공동생활 지원 (미혼모자)	39	11	1	2	3	3	3	1	5	1	1	1	1	2	1	2	1
	공동생활 지원 (미혼모)	2	1	-	-	-	-	-	-	-	-	-	-	-	-	-	-	1
일시지원복지시설		9	1	-	1	1	-	1	1	1	-	-	-	1	-	-	1	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시도별) <https://gsis.kwdi.re.kr>

(3) 취약가족지원서비스

취약가족지원서비스로는 미혼모·부 초기 지원을 위한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과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먼저, 권역별 미혼모·부 초기 지원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 중절·유기·입양 등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한 미혼여성 등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약하다. 특히 초기 위기 발생 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종합적인 상담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한부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시설 종사자 교육, 한부모상담전화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은 심라정서 지원, 출산양육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자원 연계 등이 있다.

〈표 2-19〉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심리정서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 진행 (온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자의 부모상담, 자녀양육상담 등)
출산양육 지원 (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 출산비 및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임파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양육용품 지원 - 자녀양육에 필요한 분유, 기저귀, 의류(계절에 따른 내의 및 겉옷), 유모차, 장난감 등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교육 및 경제적 자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 - 미혼모부자 간의 자립경험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운영
자원 연계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연계 지원 - 신청 가정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사업 <http://www.kihf.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전국에 17개소가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대전시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0〉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역	사업 수행기관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구,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가족센터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광주	광주남구가족센터
대전	대전시가족센터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가족센터
경북	칠곡군가족센터
경남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가족센터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사업 <http://www.kihf.or.kr>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이 있으며, 세대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단, 주택임대지원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교구교재비, 월동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크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구분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는 시설 6개소 운영비와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 사업은 미혼모자-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교재교구비 지원, 하계수련회(가족캠프) 비용 지원이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6개 시설 입소자에게 춘계부식비, 월동용김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개 시설 종사자에게 종사자정액급식비와 종사자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여성복지시설 거주자 피복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자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 대전광역시 자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단위: 천원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지원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사비 74,300
	질병치료비 지원	-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받은 자로 신청일 전 1년 이내 병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인 자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주택임대 지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 세대당 300만원 이내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문화 체험 활동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자녀 / 1인당 연 12만원	사비 553,295 구비 531,295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 1인당 연 5만원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생필품 지원 / 가구당 연 22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중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사비 2,317,594 구비 44,150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시설 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세대 / 세대별 5,000천원 - 교재교구비: 모자가족 보호시설 입소아동 / 1인당 3만원(2회) - 하계수련회: 모자보호시설 입소 세대 / 연1회, 세대당 11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춘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정액급식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소) - 여성복지시설 거주자 피복(일시지원복지시설)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대전광역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이 3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어서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부자가족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형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부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부자가족복지시설이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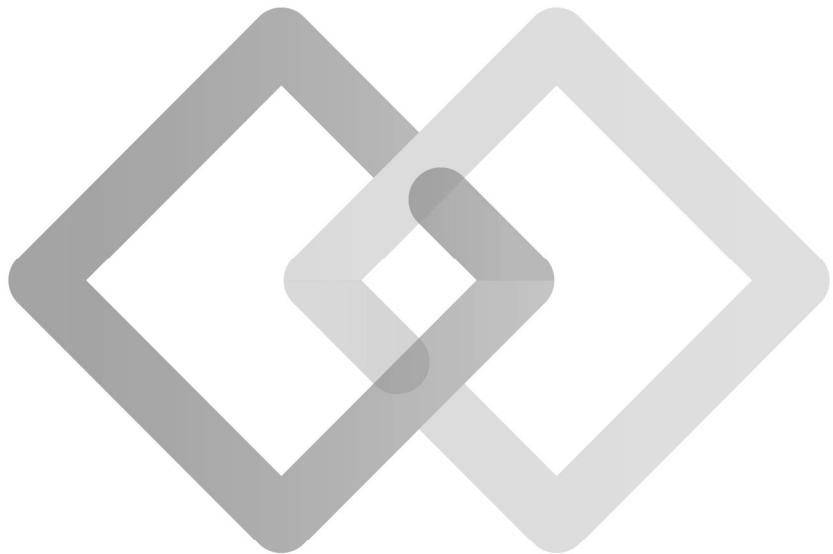
〈표 2-2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대상 및 기능	정원	입소기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루시모자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20세대	3년(2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대전자모원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숙식 무료제공 및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직업교육, 상담지도 등)	34명	1년(6개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아침뜰	-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자립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10세대	2년(1년)
	햇살누리의집		5세대	
	대전클로버		5세대	
일시지원복지시설	구세군 대전여성의집	-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입소 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족 -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35명	6월(6월)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제3장

설문조사 결과



제3장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배우자 없이 아동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없이(법률혼·사실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이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2021)에서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외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1)에서 수행한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의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타 시도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다수 조사항목을 참고하였다.

개발된 조사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한부모가족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사전조사와 연구진 회의, 조사수행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특성,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특성,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건강, 경제상태, 주거 환경, 양육비, 복지서비스 등 9개 영역에 대해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조사표 구성과 내용

조사 영역	항목	세부 내용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거주지역, 대전 거주기간, 장애 여부, 주된 장애 유형, 출신 국적,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한부모가 된 기간
2.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가족 구성원	한부모와의 관계, 만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취업 여부, 장애 여부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이유,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자녀가 혼자 있을 때 필요한 서비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돌봄 유형,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이유,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자녀가 혼자 있을 때 필요 서비스,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향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학생 이상 자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일과 후의 활동,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향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3.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생활세계	평일과 주말 동안 가사, 돌봄, 여가 활동 평균시간
	사회적 관계	도움을 구할 사람 및 기관 유무, 주위에 한부모가족임을 말한 경험 유무, 차별 경험, 한 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4. 경제활동	직업 현황	경제활동 여부, 직업, 종사상 직위, 주간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일주일 정기 휴 무 일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구직 현황	구직활동 여부, 구직 경로, 구직 시 어려운 점, 원하는 종사상 지위,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직업훈련 및 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여부,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5. 건강	건강	평소 건강상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건강검진 수 검 여부,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및 가지 못한 이유, 운동 빈도, 우울감 경험 정도, 우울 감 해소 방식, 자기효능감
6. 경제상태	경제상태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의 주 소득원, 월평균 가구 지출, 부담되는 지출항목, 부채 여 부, 부채 발생 원인 및 상환 규모, 신용불량 상태, 경제적 지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7. 주거 환경	주거 환경	거주 형태, 주택 형태,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 환경 상태, 주거서비스 이용 경험
8. 양육비	양육비	비양육부모 교류 정도, 최근 1년 동안 양육비 수령 여부 및 받지 않은 이유,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 및 이용 의사 없는 이유, 양 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시급한 제도

조사 영역	항목	세부 내용
9.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 경험 및 현재 지원받는 급여, 지원받은 기간,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수급에서 벗어난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이용 경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아쉬운 지원,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시설 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미이용 이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정보 취득 경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의 도움 정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개선사항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

3. 조사수행 및 자료 처리

1) 조사 준비

본 조사는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홍보하고 한부모가족 가구주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대전충청지회,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대전여민회 등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한부모를 조사 대상자로 섭외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복지기관과 한부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개별로 접촉하여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섭외한 대상자를 토대로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구축하였으며, 사전 전화 면접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적격 여부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위해 개발한 웹조사 링크를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하여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조사를 하여 문항 이해도 측정, 조사항목 구성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소요시간 파악 등을 파악하였다. 사전조사는 응답자의 연령대, 거주유형(시설/재가),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한부모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2) 본 조사 실시

본 조사는 2022년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7주 동안 구조화된 웹 조사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조사 감독원으로서 조사 진행률과 조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표본수 확보를 점검하고 조사 내용에서의 의문 사항이나 조사 진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웹 조사 페이지상 응답 오입력 방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데이터 클리닝 및 이상값 확인 등 총 3단계의 자료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된 오류 중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답 대상자와 접촉해 재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총 225명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모자가족 181명(80.4%), 부자가족 32명(14.2%), 청소년한부모가족 12명(5.3%)이다.

3) 자료 분석

최종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는 에디팅, 코딩, 편칭,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 유형, 가장 어린 자녀 기준 자녀 연령, 한부모가 된 이유,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을 기준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는 조사 내용(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건강, 경제상태, 주거 환경, 양육비, 복지서비스)을 기준 변수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4) 참고 사항

통계표 및 도표 내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전체 합이 100.0%에서 $\pm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 응답은 전체 합이 100.0%를 넘길 수 있으며, 응답자 특성 간 비교 분석에서 표본수가 30개 미만이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문항에서 데이터 클리닝 절차에 의해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문항의 사례수와 전체 사례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2절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225명이며,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4.2%(32명), 여성이 85.8%(193명)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42.7%(9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33.8%(76명), 20대 이하 16.9%(38명), 50대 이상 6.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최소 18세에서 최대 58세까지 있으며, 평균 연령은 37.8세이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8.9%(11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41.8%(94명), 중학교 졸업 이하 5.8%(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중구가 31.1%(7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구 20.0%(45명), 동구 18.2%(41명), 유성구 16.0%(36명), 대덕구 14.7%(33명)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전 거주 기간은 25년 이상이 28.0%(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18.2%(41명), 3년 미만 14.2%(32명), 10년 이상~15년 미만 12.0%(27명), 3년 이상~5년 미만 11.6%(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0%가 대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94.7%(213명)가 장애가 없으며, 5.3%(12명)만이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12명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33.3%(4명), 지적장애 25.0%(3명), 청각장애 25.0%(3명), 언어장애 8.3%(1명), 정신장애 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 국적은 대한민국이 97.3%(2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1.3%(3명), 베트남 0.4%(1명), 러시아 0.4%(1명), 기타 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225	100.0	-
성별	남성	32	14.2	-
	여성	193	85.8	
연령대	20대 이하	38	16.9	37.8(8.0)
	30대	96	42.7	
	40대	76	33.8	
	50대 이상	15	6.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3	5.8	-
	고등학교 졸업	94	41.8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110	48.9	
	대학원 재학 이상	8	3.6	
거주지역	동구	41	18.2	-
	중구	70	31.1	
	서구	45	20.0	
	유성구	36	16.0	
	대덕구	33	14.7	
대전 거주기간	3년 미만	32	14.2	-
	3년 이상~5년 미만	26	11.6	
	5년 이상~10년 미만	41	18.2	
	10년 이상~15년 미만	27	12.0	
	15년 이상~20년 미만	15	6.7	
	20년 이상~25년 미만	21	9.3	
	25년 이상	63	28.0	
장애 여부	있다	12	5.3	-
	없다	213	94.7	
장애 유형 (N=12)	지체장애	4	33.3	-
	지적장애	3	25.0	
	청각장애	3	25.0	
	언어장애	1	8.3	
	정신장애	1	8.3	
출신 국적	대한민국	219	97.3	-
	중국	3	1.3	
	베트남	1	0.4	
	러시아	1	0.4	
	기타	1	0.4	

2) 가구 특성

응답자의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모자가족이 80.4%(18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자가족 14.2%(32명), 청소년 한부모가족 5.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 자녀 39.1%(88명), 미취학 자녀 37.8%(85명), 중학생 이상 자녀 23.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혼이 67.6%(15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비)혼 모/부 25.8%(58명), 사별 6.7%(15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 된 기간은 7년 이상이 33.3%(7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미만 25.2%(56명), 3년~5년 미만 22.5%(50명), 5년~7년 미만 18.9%(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한부모가 된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0년이며, 평균 기간은 5.8년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구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가족 유형	모자가족	181	80.4	-
	부자가족	32	14.2	
	청소년 한부모가족	12	5.3	
	계	225	10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자녀	85	37.8	-
	초등학교 자녀	88	39.1	
	중학생 이상 자녀	52	23.1	
	계	225	100.0	
한부모가 된 이유	미(비)혼	58	25.8	-
	이혼	152	67.6	
	사별	15	6.7	
	계	225	100.0	
한부모가 된 기간	3년 미만	56	25.2	5.8(4.4)
	3년~5년 미만	50	22.5	
	5년~7년 미만	42	18.9	
	7년 이상	74	33.3	
	계	222	100.0	

2.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1) 가족관계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2명이 63.1%(14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명 25.3%(57명), 4명 이상 11.6%(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자녀를 제외하고 모가 5.8%(1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 4.0%(9명), 형제·자매 3.6%(8명) 등의 순이었다. 가구원 구성은 모자가족이 73.8%(166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자가족이 13.8%(30명), 모자와 기타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6.7%(15명),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4.4%(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구원 수	2명	142	63.1
	3명	57	25.3
	4명 이상	26	11.6
	계	225	100.0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복수응답)	자녀	225	100.0
	부	9	4.0
	모	13	5.8
	형제·자매	8	3.6
	친구 등 비혈연	1	0.4
	계	256	113.8
가구원 구성	모자가족	166	73.8
	모자가족+기타	15	6.7
	부자가족	30	13.8
	부자가족+기타	2	0.9
	청소년 한부모가족	10	4.4
	청소년 한부모가족+기타	2	0.9
	계	225	100.0

(2) 함께 살고 있는 자녀 특성

응답자의 자녀 수는 1명이 69.3%(15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명 23.6%(53명), 3명 이상 7.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이며, 평균 자녀 수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성이 52.1%(164명), 여성이 47.9%(151명)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연령은 7세~13세 미만 41.6%(13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세 미만 30.5%(96명), 13세~18세 미만 24.4%(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최소 0세에서 최대 23세이며, 평균 연령은 9.4세이다.

취업 여부는 취업이 1.9%(6명), 미취업이 98.1%(309명)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장애 여부는 장애 있음이 2.2%(7명), 장애 없음이 97.8%(308명)로 나타났다.

〈표 3-5〉 함께 살고 있는 자녀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315	100.0	
자녀 수	1명	156	69.3	1.4(0.6)
	2명	53	23.6	
	3명 이상	16	7.1	
성별	남성	164	52.1	-
	여성	151	47.9	
연령대	7세 미만	96	30.5	9.4(4.9)
	7세~13세 미만	131	41.6	
	13세~18세 미만	77	24.4	
	18세 이상	11	3.5	
취업 여부	취업	6	1.9	-
	미취업	309	98.1	
장애 여부	있다	7	2.2	-
	없다	308	97.8	

(3)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외 가족 특성

자녀 외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 성별은 남성이 42.4%(14명), 여성이 57.6%(19명)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9.4%(1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이하 36.4%(12명), 50대 15.2%(5명), 40대 9.1%(3명) 순이었다. 자녀 외 가족의 연령은 최소 8세에서 최대 74세이며, 평균 연령은 46.6세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이 57.6%(19명), 미취업이 42.4%(14명)로 나타났다. 가족의 장애 여부는 장애 있음이 6.1%(2명), 없음이 93.9%(31명)로 나타났다.

〈표 3-6〉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외 가족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33	100.0	-
성별	남성	14	42.4	-
	여성	19	57.6	
연령대	30대 이하	12	36.4	46.6(19.0)
	40대	3	9.1	
	50대	5	15.2	
	60대 이상	13	39.4	
취업 여부	취업	19	57.6	-
	미취업	14	42.4	
장애 여부	있다	2	6.1	-
	없다	31	93.9	

2) 자녀돌봄

(1) 미취학 자녀(만 7세 미만)

① 돌봄유형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8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주요 방법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돌봄이 50.6%(4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돌봄보육시설(어린이집) 21.2%(18명), 유치원 20.0%(17

명), 조부모 4.7%(4명), 친인척 2.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주요 방법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돌봄보육시설(어린이집)이 21.2%(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돌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각각 20.0%(17명), 조부모 15.3%(13명), 유치원 9.4%(8명), 친인척과 학원이 각각 3.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17	20.0
본인이 직접	43	50.6	17	20.0
조부모	4	4.7	13	15.3
친인척	2	2.4	3	3.5
돌봄보육시설(어린이집)	18	21.2	18	21.2
유치원	17	20.0	8	9.4
학원	0	0.0	3	3.5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1	1.2	17	20.0
민간 베이비시터	0	0.0	2	2.4
학습지, 방문과외 등	0	0.0	0	0.0
이웃이나 친구	0	0.0	1	1.2
기타	0	0.0	3	3.5
전체	85	100.0	85	100.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응답자(23명)가 매우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는 기타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7.4%(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와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각각 13.0%(3명),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주지 않아서가 각각 8.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가 아파서 등이 있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가 각각 13.0%(3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보육시설 및 기관을 믿지 못해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8.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7.4	3	13.0
비용이 부담되어서	3	13.0	2	8.7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2	8.7	2	8.7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0	0.0	3	13.0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2	8.7	1	4.3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0	0.0	2	8.7
보육시설 및 기관을 믿지 못해서	0	0.0	2	8.7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0	0.0	1	4.3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주지 않아서	2	8.7	1	4.3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3	13.0	2	8.7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0	0.0	1	4.3
기타	7	30.4	3	13.0
계	23	100.0	23	100.0

②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미취학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있다 19.0%(16명), 없다 81.0%(68명)로 조사되었다.

〈표 3-9〉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6	19.0
없다	68	81.0
계	84	100.0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4시간~8시간 미만이 46.2%(6명)로 가장 많았으며, 4시간 미만 38.5%(5명), 8시간 이상 15.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9시간을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은 4.7시간이었다.

〈표 3-10〉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4시간 미만	5	38.5	4.7(2.8)
4시간~8시간 미만	6	46.2	
8시간 이상	2	15.4	
계	13	100.0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 활성화(야간, 휴일 등)가 52.4%(4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 등·하원 서비스 19.0%(16명), 식사 제공 서비스 10.7%(9명),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6.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2순위 응답은 자녀 등·하원 서비스가 26.2%(2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사 제공 서비스 23.8%(20명),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15.5%(13명), 보육서비스 활성화(야간, 휴일 등) 14.3%(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육서비스 활성화(야간, 휴일 등)	44	52.4	12	14.3
자녀 등·하원 서비스	16	19.0	22	26.2
식사 제공 서비스	9	10.7	20	23.8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5	6.0	13	15.5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3	3.6	5	6.0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7	8.3	11	13.1
기타	0	0.0	1	1.2
계	84	100.0	84	100.0

③ 자녀양육 어려움

미취학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살펴보았다. 미취학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으로 응답자의 85.7%(대체로 그렇다+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81.0%, 자녀양육 스트레스 69.1%, 자녀의 생활지도 어려움 69.0%, 학습지도 어려움 65.5%,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 58.4%,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5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미취학 자녀의 양육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14.3	27.4	40.5	17.9	84	2.6(0.9)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7.1	27.4	40.5	25.0	84	2.8(0.9)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1.2	13.1	34.5	51.2	84	3.4(0.8)
자녀를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4.8	14.3	39.3	41.7	84	3.2(0.9)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0	25.0	38.1	31.0	84	2.9(0.9)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6.0	25.0	44.0	25.0	84	2.9(0.9)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8.3	33.3	39.3	19.0	84	2.7(0.9)

(2) 초등학교 자녀(만7세 이상~만13세 미만)

① 돌봄 유형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주요 방법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 34.6%(3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원과 본인이 직접 돌봄이 각각 20.2%(21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2.5%(13명), 조부모 4.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주요 방법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학원이 23.3%(2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돌봄 21.4%(22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10.7%(11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7%(10명), 조부모와 학습지, 방문과의 등, 기타가 각각 7.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누나, 동생, 언니 등 형제·자매가 돌봐준다는 응답과 혼자 집에 있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표 3-13〉 초등학교 자녀 돌봄 유형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36	34.6	11	10.7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3	12.5	10	9.7
돌봄공동체	0	0.0	0	0.0
학원	21	20.2	24	23.3
조부모	5	4.8	8	7.8
친인척	2	1.9	3	2.9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3	2.9	5	4.9
민간 베이비시터	0	0.0	0	0.0
학습지, 방문과의 등	3	2.9	8	7.8
본인이 직접 돌봄	21	20.2	22	21.4
아웃이나 친구	0	0.0	4	3.9
기타	0	0.0	8	7.8
전체	104	100.0	103	100.0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은 이유(N=51)를 살펴보면,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41.2%(2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와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가 각각 9.8%(5명), 비용이 부담되어서 7.8%(4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여러 학년이 섞여 있어서 등이 있었다.

〈표 3-14〉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5.9
비용이 부담되어서	4	7.8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1	2.0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5	9.8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5	9.8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2	3.9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2	3.9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1	2.0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주지 않아서	3	5.9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21	41.2
기타	4	7.8
계	51	100.0

②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있다 51.4%(54명), 없다 48.6%(51명)로 조사되었다.

〈표 3-15〉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54	51.4
없다	51	48.6
계	105	100.0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4시간 미만이 56.6%(3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시간~6시간 미만 37.7%(20명), 6시간 이상 5.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7시간을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은 3.3시간이었다.

〈표 3-16〉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4시간 미만	30	56.6	3.3(1.4)
4시간~6시간 미만	20	37.7	
6시간 이상	3	5.7	
계	53	100.0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면서 지낸다가 61.1%(3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제 등 공부를 한다 14.8%(8명), TV 시청, 라디오나 음악 듣기, 잡지나 책을 읽으며 지낸다 13.0%(7명),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7.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TV 시청, 라디오나 음악 듣기, 잡지나 책을 읽으며 지낸다	7	13.0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면서 지낸다	33	61.1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2	3.7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돌본다	0	0.0
쉬거나 잠을 잔다	0	0.0
숙제 등 공부를 한다	8	14.8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4	7.4
청소년 시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0	0.0
아르바이트를 한다	0	0.0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한다	0	0.0
계	54	100.0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가 47.6%(5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12.4%(13명),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와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가 각각 11.4%(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가 23.8%(2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15.2%(16명),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14.3%(15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 11.4%(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50	47.6	16	15.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7	6.7	12	11.4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	12	11.4	11	10.5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12	11.4	15	14.3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2	1.9	9	8.6
자녀 등하교 서비스	4	3.8	9	8.6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13	12.4	25	23.8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4	3.8	4	3.8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0	0.0	3	2.9
지역사회 비상연락망 서비스	1	1.0	0	0.0
기타	0	0.0	1	1.0
계	105	100.0	105	100.0

③ 자녀양육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으로 응답자의 91.4%(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 76.6%, 자녀양육 스트레스 67.6%,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6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 생활지도의 어려움(25.7%),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인한 어려움(9.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표 3-19〉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23.5	45.7	21.9	8.6	105	2.2(0.9)
자녀의 학업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10.7	31.1	35.9	22.3	103	2.7(0.9)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1.0	7.6	23.8	67.6	105	3.6(0.7)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3.8	19.0	42.3	34.3	105	3.1(0.8)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8	28.6	38.1	29.5	105	2.9(0.9)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41.0	33.3	20.0	5.7	105	1.9(0.9)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64.8	25.7	9.5	0.0	105	1.4(0.7)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6.7	32.4	41.0	20.0	105	2.7(0.9)

한부모가 된 이후, 초등학교 자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살펴 보았다. 한부모 이전 대비 자녀의 변화 중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나빠진 편이다)는 항목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좋아졌다(좋아진 편이다+매우 좋아졌다)는 항목은 자녀와 나의 관계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33.4%,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와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32.4% 등의 순이었다.

〈표 3-20〉 한부모가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초등학교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이다	변화가 없다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계	평균 (표준편차)
자녀의 학교 성적	1.1	12.8	66.0	17.0	3.2	94	3.1(0.7)
자녀와 나의 관계	2.9	7.6	47.6	30.5	11.4	105	3.4(0.9)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2.9	3.8	61.0	21.0	11.4	105	3.3(0.8)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1.9	10.5	58.1	22.9	6.7	105	3.2(0.8)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3.8	13.3	50.5	26.7	5.7	105	3.2(0.9)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1.0	9.5	56.2	28.6	4.8	105	3.3(0.7)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	3.8	31.4	32.4	27.6	4.8	105	3.0(1.0)

④ 자녀와의 여가활동

최근 1년 동안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 104명 중 46.2%(48명)가 TV시청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외식 32.7%(34명), 문화예술관람 27.9%(29명), 쇼핑 23.1%(24명), 산책 17.3%(18명), 여행 14.4%(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복수응답, N=10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TV시청	48	46.2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29	27.9
컴퓨터 게임	10	9.6
쇼핑	24	23.1
외식	34	32.7
놀이공원 가기	12	11.5
산책	18	17.3
스포츠 활동	7	6.7
스포츠 경기 관람	2	1.9
여행	15	14.4
종교활동	1	1.0
주말농장 가꾸기	2	1.9
자원봉사 활동	0	0.0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1	1.0
계	203	195.2

향후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 105명 중 48.6%(51명)가 문화예술관람을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놀이공원 가기 34.3%(36명), 여행 29.5%(31명), 외식 21.9%(23명), 스포츠 활동 20.0%(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향후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N=105)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TV시청	3	2.9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51	48.6
컴퓨터 게임	2	1.9
쇼핑	18	17.1
외식	23	21.9
놀이공원 가기	36	34.3
산책	4	3.8
스포츠 활동	21	20.0
스포츠 경기 관람	9	8.6
여행	31	29.5
종교활동	0	0.0
주말농장 가꾸기	7	6.7
자원봉사 활동	2	1.9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0	0.0
계	207	197.2

(3) 중학생 자녀 이상(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

①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평일 일과 후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있다 55.9%(38명), 없다 44.1%(30명)로 조사되었다.

〈표 3-23〉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38	55.9
없다	30	44.1
계	68	100.0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4시간~6시간 미만이 52.6%(2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시간 미만 39.5%(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이상 자녀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을 혼자 지내고 있으며,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은 3.7시간이었다.

〈표 3-24〉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4시간 미만	15	39.5	3.7(1.3)
4시간~6시간 미만	20	52.6	
6시간 이상	3	7.9	
계	38	100.0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지낸다가 29.4%(2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19.1%(13명),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14.7%(10명), 숙제 등 공부를 한다 11.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쉬거나 잠을 잔다가 23.5%(1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제 등 공부를 한다 20.6%(14명),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지낸다 16.2%(1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25〉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TV시청, 음악듣기, 잡지나 책을 읽으며 지낸다	7	10.3	7	10.3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지낸다	20	29.4	11	16.2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10	14.7	5	7.4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돌본다	5	7.4	2	2.9
쉬거나 잠을 잔다	3	4.4	16	23.5
숙제 등 공부를 한다	8	11.8	14	20.6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13	19.1	11	16.2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	1.5	0	0.0
아르바이트를 한다	0	0.0	0	0.0
동아리,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한다	0	0.0	1	1.5
기타	1	0.4	1	1.5
계	68	100.0	68	100.0

② 자녀양육 어려움

중학생 이상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살펴 보았다. 중학생 이상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으로 응답자의 91.2%(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진로지도의 어려움 91.1%, 자녀의 학업성적 70.6%,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6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인한 어려움(25.0%), 자녀와 대화의 어려움(32.4%), 자녀의 생활지도의 어려움(32.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26〉 중학생 이상 자녀의 양육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11.8	55.9	25.0	7.4	68	2.3(0.8)
자녀의 학업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10.3	19.1	50.0	20.6	68	2.8(0.9)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0.0	8.8	30.9	60.3	68	3.5(0.7)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0.0	8.8	48.5	42.6	68	3.3(0.6)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4	30.9	33.8	30.9	68	2.9(0.9)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44.1	23.5	20.6	11.8	68	2.0(1.1)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57.4	17.6	13.2	11.8	68	1.8(1.1)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7.4	26.5	51.5	14.7	68	2.7(0.8)

한부모가 된 이후, 중학생 자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살펴 보았다. 한부모 이전 대비 자녀의 변화 중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나빠진 편이다)는 항목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좋아졌다(좋아진 편이다+매우 좋아졌다)는 항목은 자녀와 나의 관계가 5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38.3%고,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한부모가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중학생 이상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이다	변화가 없다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계	평균 (표준편차)
자녀의 학교 성적	0.0	18.8	59.4	18.8	3.1	64	3.1(0.7)
자녀와 나의 관계	0.0	5.9	41.2	47.1	5.9	68	3.5(0.7)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0.0	14.7	54.4	20.6	10.3	68	3.3(0.8)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0.0	7.4	54.4	22.1	16.2	68	3.5(0.9)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0.0	13.2	55.9	14.7	16.2	68	3.3(0.9)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0.0	5.9	60.3	16.2	17.6	68	3.5(0.9)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	0.0	25.0	50.0	16.2	8.8	68	3.1(0.9)

③ 자녀와의 여가활동

최근 1년 동안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 68명 중 36.8%(25명)가 쇼핑을 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TV시청 30.9%(21명), 문화예술관람과 외식이 각각 26.5%(18명), 여행 16.2%(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복수응답, N=68)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TV시청	21	30.9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18	26.5
컴퓨터 게임	4	5.9
쇼핑	25	36.8
외식	18	26.5
놀이공원 가기	7	10.3
산책	5	7.4
스포츠 활동	7	10.3
스포츠 경기 관람	5	7.4
여행	11	16.2
종교활동	6	8.8
주말농장 가꾸기	1	1.5
자원봉사 활동	1	1.5
기타	1	1.5
계	130	191.5

향후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 68명 중 45.6%(31명)이 문화예술관람을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외식과 스포츠 활동이 각각 26.5%(18명), 쇼핑 23.5%(16명), 여행 22.1%(15명), 놀이공원 가기 14.7%(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29〉 향후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N=68)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TV시청	1	1.5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31	45.6
컴퓨터 게임	2	2.9
쇼핑	16	23.5
외식	18	26.5
놀이공원 가기	10	14.7
산책	6	8.8
스포츠 활동	18	26.5
스포츠 경기 관람	8	11.8
여행	15	22.1
종교활동	1	1.5
주말농장 가꾸기	3	4.4
자원봉사 활동	5	7.7
계	134	197.5

3.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1) 생활세계

한부모가족의 일상 시간 사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사, 돌봄, 여가의 활동에 대해 평일, 주말 시간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평일 활동 시간은 돌봄 시간 4.3시간, 가사 시간 2.8시간, 여가 시간 1.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평일 평균 활동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가사 시간	213	2.8	1.8
돌봄 시간	212	4.3	3.2
여가 시간	213	1.5	1.4

평일 활동 시간을 사용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사 시간은 2시간~4시간 미만이 55.9%(11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시간 미만 19.2%(41명), 4시간~6시간 미만 18.3%(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시간은 4시간~6시간 미만이 29.2%(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시간~4시간 미만 27.8%(59명), 6시간 이상 24.1%(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은 2시간 미만이 54.0%(11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시간~4시간 미만 38.5%(82명), 4시간~6시간 미만 7.0%(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평일 활동 시간

단위: 명, %

구분	가사 시간		돌봄 시간		여가 시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시간 미만	41	19.2	40	18.9	115	54.0
2시간~4시간 미만	119	55.9	59	27.8	82	38.5
4시간~6시간 미만	39	18.3	62	29.2	15	7.0
6시간 이상	14	6.6	51	24.1	1	0.5
계	213	100.0	212	100.0	213	100.0

응답자의 주말 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돌봄 시간 6.7시간, 가사 시간 4.0시간, 여가 시간 2.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주말 평균 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가사 시간	177	4.0	2.0
돌봄 시간	176	6.7	4.4
여가 시간	178	2.7	2.1

주말 활동 시간을 사용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사 시간은 4시간~6시간 미만이 38.4%(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시간~4시간 미만 32.8%(58명), 6시간 이상 18.6%(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시간은 6시간 이상이 53.4%(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시간~4시간 미만 21.0%(37명), 4시간~6시간 미만 14.8%(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은 2시간~4시간 미만이 40.4%(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시간 미만 30.3%(54명), 4시간~6시간 미만 20.2%(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주말 활동 시간

단위: 명, %

구분	가사 시간		돌봄 시간		여가 시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시간 미만	18	10.2	19	10.8	54	30.3
2시간~4시간 미만	58	32.8	37	21.0	72	40.4
4시간~6시간 미만	68	38.4	26	14.8	36	20.2
6시간 이상	33	18.6	94	53.4	16	9.0
계	177	100.0	176	100.0	178	100.0

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을 살펴본 결과,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가 80.0%(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78.7%, 집안일 부담 증가 75.5%, 경제적 어려움 6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2.7	7.6	25.8	28.9	35.1	225	3.9(1.1)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1.3	4.9	15.1	39.1	39.6	225	4.1(0.9)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2.2	2.7	19.6	36.4	39.1	225	4.1(0.9)
형제, 자매, 친척과 멀어졌다	19.1	28.4	25.3	17.8	9.3	225	2.7(1.2)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4.4	13.8	33.8	30.2	17.8	225	3.4(1.1)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2.7	4.9	12.4	33.3	46.7	225	4.2(1.0)
자녀와 긴밀해졌다	0.9	5.3	36.9	36.0	20.9	225	3.7(0.9)
일가 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7.1	12.9	41.3	28.9	9.8	225	3.2(1.0)

3) 사회적 지지망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44.4%(100명)가 집안일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48.0%(108명),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때 62.2%(142

명),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때 62.2%(140명),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을 때 58.7%(132명)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3-35〉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225	100	44.4	125	55.6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225	108	48.0	117	52.0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225	142	62.2	85	37.8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225	140	62.2	85	37.8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225	132	58.7	93	41.3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1순위에서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5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과 친구나 동료가 각각 10.5%(10명), 민간기관 5.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40.4%(3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18.1%(17명), 민간기관 9.6%(9명), 공공기관 8.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6〉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집안일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59	62.1	6	6.4
친인척(형제, 자매 등)	10	10.5	38	40.4
전 배우자	3	3.2	5	5.3
친구나 동료	10	10.5	17	18.1
이웃(종교단체 포함)	4	4.2	7	7.4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3	3.2	8	8.5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5	5.3	9	9.6
한부모자조모임	0	0.0	0	0.0
기타	1	1.1	4	4.3
계	95	100.0	94	100.0

갑자기 돈이 필요한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1순위에서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1%(6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 19.4%(20명), 친구나 동료 9.7%(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45.1%(4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22.5%(23명), 부모 9.8%(10명), 전 배우자 5.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돈이 필요할 때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66	64.1	10	9.8
친인척(형제, 자매 등)	20	19.4	46	45.1
전 배우자	0	0.0	6	5.9
친구나 동료	10	9.7	23	22.5
이웃(종교단체 포함)	1	1.0	5	4.9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1	1.0	4	3.9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4	3.9	4	3.9
한부모자조모임	0	0.0	0	0.0
기타	1	1.0	4	3.9
계	103	100.0	102	100.0

본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1순위에서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9%(7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 14.8%(21명), 친구나 동료 12.0%(17명) 민간기관 7.7%(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8.4%(5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21.0%(29명), 부모 14.5%(20명), 전 배우자 5.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본인이 아플 때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78	54.9	20	14.5
친인척(형제, 자매 등)	21	14.8	53	38.4
전 배우자	3	2.1	8	5.8
친구나 동료	17	12.0	29	21.0
이웃(종교단체 포함)	3	2.1	8	5.8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2	1.4	6	4.3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11	7.7	7	5.1
한부모자조모임	1	0.7	2	1.4
기타	6	4.2	5	3.6
계	142	100.0	138	100.0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1 순위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6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 18.6%(26명), 민간기관 9.3%(13명), 전 배우자 7.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4.1%(4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20.0%(27명), 부모 17.8%(24명), 전 배우자 11.9%(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9〉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아이가 아플 때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66	47.1	24	17.8
친인척(형제, 자매 등)	26	18.6	46	34.1
전 배우자	11	7.9	16	11.9
친구나 동료	10	7.1	27	20.0
이웃(종교단체 포함)	4	2.9	3	2.2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3	2.1	5	3.7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13	9.3	9	6.7
한부모자조모임	2	1.4	1	0.7
기타	5	3.6	4	3.0
계	140	100.0	135	100.0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을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1순위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3.6%(4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26.6%(34명), 친인척 14.1%(18명), 민간기관 10.2%(13명), 공공기관 9.4%(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1.3%(4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 18.8%(24명), 민간기관 16.4%(21명), 공공기관 12.5%(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생활관련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43	33.6	9	7.0
친인척(형제, 자매 등)	18	14.1	40	31.3
전 배우자	2	1.6	4	3.1
친구나 동료	34	26.6	24	18.8
이웃(종교단체 포함)	1	0.8	8	6.3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12	9.4	16	12.5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13	10.2	21	16.4
한부모자조모임	3	2.3	4	3.1
기타	2	1.6	2	1.6
계	128	100.0	128	100.0

4) 한부모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한부모가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을 동네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 및 일터, 공공기관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주위에 한부모 임을 밝혔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9.3%(111명)가 가족 및 친척에게 밝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40.9%(92명), 공공기관 36.0%(81명), 직장 및 일터 35.6%(80명), 동네나 이웃주민 35.1%(79명)로 나타났다.

〈표 3-41〉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네나 이웃주민	225	79	35.1	146	64.9
학교나 보육시설	225	92	40.9	133	59.1
가족 및 친척	225	111	49.3	114	50.7
직장 및 일터	225	80	35.6	145	64.4
공공기관	225	81	36.0	144	64.0

응답자가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을 살펴본 결과,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43.0%(3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 및 일터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 37.5%(30명), 공공기관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 37.0%(30명), 가족 및 친척 32.4%(36명),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 28.3%(26명)로 나타났다.

〈표 3-42〉 부당한 일,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네나 이웃주민	79	34	43.0	45	57.0
학교나 보육시설	92	26	28.3	66	71.7
가족 및 친척	111	36	32.4	75	67.6
직장 및 일터	80	30	37.5	50	62.5
공공기관	81	30	37.0	51	63.0

4. 경제활동

1) 경제활동 여부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9.8%(157명)가 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30.2%(68명)는 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3-43〉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157	69.8
아니오	68	30.2
계	225	100.0

2) 취업자

(1) 직업 및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현재 하는 일은 사무 종사자가 30.6%(48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17.2%(27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4%(21명), 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각각 12.1%(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4〉 직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관리자	1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13.4
사무 종사자	48	30.6
서비스 종사자	27	17.2
판매 종사자	19	1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	2.5
단순노무 종사자	19	12.1
기타	18	11.5
계	157	100.0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53.5%(8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직 17.8%(28명),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15.3%(24명), 일용직 7.0%(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5〉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상용직	84	53.5
임시직	28	17.8
일용직	11	7.0
자영업자	6	3.8
무급가족 종사자	4	2.5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24	15.3
계	157	100.0

(2) 근로시간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상이 48.7%(7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시간 미만 27.6%(43명), 10시간~40시간 미만 23.7%(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이었다.

〈표 3-46〉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10시간 미만	43	27.6	28.8(17.0)
10시간~40시간 미만	37	23.7	
40시간 이상	76	48.7	
계	156	100.0	

(3) 월평균 임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8.0%(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1.0%(33명), 100만원 미만 16.5%(26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26	16.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3	21.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4	28.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	15.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	10.8
400만원 이상	12	7.7
계	157	100.0

(4) 일주일 중 휴무일 수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매 1주마다 이틀 휴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4%(1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14.0%(22명), 정해진 휴일 없음 7.6%(12명), 토요일 격주 휴무·일주일 매주 휴무 7.0%(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8〉 일주일 중 휴무일 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	109	69.4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11	7.0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22	14.0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1	0.6
정해진 휴일 없음(불규칙함)	12	7.6
기타	2	1.3
계	157	100.0

(5) 일을 구할 때 및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응답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25.5%(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를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돌봐줄 데가 없어서 23.6%(37명),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21.0%(33명),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12.7%(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12	7.6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40	25.5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5	3.2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20	12.7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33	21.0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37	23.6
기타	10	6.4
계	157	100.0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가 35.0%(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21.0%(33명),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19.1%(30명), 불투명한 직업 전망 11.5%(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0〉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30	19.1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33	21.0
장시간 근로	0	0.0
불투명한 직업 전망	18	11.5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55	35.0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10	6.4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0	0.0
기타	4	2.5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7	4.5
계	157	100.0

3) 미취업자

(1) 구직 여부 및 경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8.2%(26명)가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32.4%(22명), 구해본 적 있다 29.4%(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1〉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해본 적 있다	20	29.4
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	26	38.2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22	32.4
계	68	100.0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구직 경로는 50.0%(10명)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직장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25.0%(5명),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 방문 10.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2〉 구직 경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 방문	2	10.0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5	25.0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1	5.0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를 통해	10	50.0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	0	0.0
기타	2	10.0
계	20	100.0

(2)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근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가 45.0%(9명)로 가장 많고,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30.0%(6명),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20.0%(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3〉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1	5.0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4	20.0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0	0.0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0	0.0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9	45.0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6	30.0
계	20	100.0

(3) 원하는 지위의 일자리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거나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고 응답한 한부모가 가장 원하는 지위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5.8%(11명)가 상용직 시간제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용직 전일제 29.2%(7명), 임시직 시간제 16.7%(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4〉 원하는 지위의 일자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상용직 시간제	11	45.8
상용직 전일제	7	29.2
임시직 시간제	4	16.7
임시직 전일제	0	0.0
일용직 시간제	0	0.0
일용직 전일제	0	0.0
자영업자	1	4.2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1	4.2
계	24	100.0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주된 사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표 3-55〉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이를 돌보려고	15	100.0
가사일 때문에	0	0.0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0	0.0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0	0.0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0	0.0
계	15	100.0

(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 31.8%(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27.3%(6명),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싶어서 18.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6〉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재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0	0.0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0	0.0
수입, 근로시간, 업무 등이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2	9.1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6	27.3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	4	18.2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예: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받지 못할까봐	1	4.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	31.8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1	4.5
기타	1	4.5
계	22	100.0

4) 직업훈련

(1) 직업훈련 경험 여부

최근 3년 이내에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26.2%(59명), 아니다가 73.8%(166명)로 나타났다.

〈표 3-57〉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그렇다	59	26.2
아니다	166	73.8
계	225	100.0

(2)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9.5%(도움이 된 편이다+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표 3-58〉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3.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	27.1
도움이 된 편이다	32	54.2
매우 도움이 되었다	9	15.3
계	59	100.0

(3)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이 50.0%(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투명한 직업 전망 22.2%(4명), 전문성 부족 16.7%(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문성 부족	3	16.7
불투명한 직업 전망	4	22.2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	0	0.0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9	50.0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 부족	0	0.0
기타	2	11.1
계	18	100.0

(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25.9%(4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19.9%(33명), 기타 12.7%(21명),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9.0%(15명),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8.4%(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업 중, 일하고 있어서 등이었다.

〈표 3-6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간이 없어서	43	25.9
근처에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3	1.8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6	3.6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7	4.2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14	8.4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으로 훈련을 받아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9	5.4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15	9.0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33	19.9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8	4.8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7	4.2
기타	21	12.7
계	166	100.0

5. 건강

1) 건강상태

응답자가 지각하는 평소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다가 44.4%(10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좋은 편이다 41.3%(93명), 매우 나쁘다 9.8%(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2%가 평소 건강상태를 나쁘다(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좋다	10	4.4
좋은 편이다	93	41.3
나쁜 편이다	100	44.4
매우 나쁘다	22	9.8
계	225	100.0

2)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19.6%(44명), 아니다가 80.4%(181명)로 나타났다.

〈표 3-62〉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제한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그렇다	44	19.6
아니다	181	80.4
계	225	100.0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60.4%(136명)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3〉 건강검진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136	60.4
아니오	89	39.6
계	225	100.0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33.3%(75명)가 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4〉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75	33.3
없다	150	66.7
계	225	100.0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45.3%(3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료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32.0%(24명), 자녀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16.0%(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5〉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제적인 이유로	34	45.3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1	1.3
자녀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12	16.0
교통편이 불편해서	0	0.0
진료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24	32.0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	1.3
증상이 가벼워서	0	0.0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3	4.0
계	75	100.0

3) 규칙적인 운동 현황

규칙적인 운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가 32.4%(7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번 17.8%(40명), 한 달에 2~3번 16.9%(38명), 일주일에 2번 12.9%(29명), 일주일에 3번 8.9%(20명)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0.7%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표 3-66〉 규칙적인 운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하지 않는다	73	32.4
한 달에 2~3번 정도	38	16.9
일주일에 1번	40	17.8
일주일에 2번	29	12.9
일주일에 3번	20	8.9
일주일에 4번	8	3.6
일주일에 5번	5	2.2
일주일에 6번	5	2.2
매일	7	3.1
계	225	100.0

4) 우울감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우울감 평균은 9.4점으로 가벼운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나, 10점에 가까운 점수이다. 한편 중간 정도의 우울인 10점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43.5%로 응답자들의 우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67〉 우울한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총점
0~4점(우울 없음)	59	26.2	9.4
5~9점(가벼운 우울)	68	30.2	
10~14점(중간 정도 우울)	49	21.8	
15~19점(중간 정도 우울, 치료 권장)	30	13.3	
20~27점(심한 우울, 적극적 치료 필요)	19	8.4	
계	225	100.0	

주: 1.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그렇다 1점, 일주일 이상 그렇다 2점, 거의 매일 그렇다 3점

2. 총점 0점~4점: 우울증 상 없음, 5점~9점: 가벼운 우울, 10점~14점: 중간 정도 우울(치료 권장), 15점~19점: 중간 정도 우울(치료 권장), 20점~27점: 심한 우울(적극적 치료 필요)

우울한 정도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에서는 무직의 응답자가 상용직보다 우울한 정도가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300만원 이상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집단별 우울한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25	9.4	6.4	-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9.5	6.5	.66
	부자가족	32	9.5	6.0	
	청소년한부모	12	7.3	5.7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9.9	6.8	.62
	아동	88	8.8	6.1	
	중학생 이상	52	9.5	6.3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9.8	6.8	.22
	이혼	152	9.3	6.3	
	사별	15	8.7	6.6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7.4	5.3	5.82***
	임시직	28	9.6	6.0	
	일용직	11	8.5	6.7	
	자영업자	10	8.7	5.7	
	기타 종사자	24	7.8	5.2	
	무직	68	12.6	7.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3.4	7.5	6.78***
	100~200만원 미만	90	9.7	5.8	
	200~300만원 미만	31	8.6	5.5	
	300~400만원 미만	20	4.8	3.0	
	400만원 이상	26	7.4	6.8	
	잘 모름	17	7.9	5.2	

*p<.05, **p<.01, ***p<.001

응답자가 우울감을 느낄 때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혼자서 참는다가 46.2%(10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18.7%(42명), 술을 마신다 13.8%(42명), 운동 등 취미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12.9%(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의료기관, 센터 전문가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우울감을 해소하기 보다는 혼자 참거나 가족, 친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울감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69〉 우울감 해소 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혼자서 참는다	104	46.2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42	18.7
술을 마신다	31	13.8
운동 등 취미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29	12.9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의사의 진단, 약 처방 등)	11	4.9
지역사회의 전문가(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와 상담한다	2	0.9
기타	6	2.7
계	225	100.0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인간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손세희·한창근, 2016),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GSS)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18개 항목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평균은 3.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70〉 자기효능감 평가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225	3.2	0.6

자기효능감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 집단별 자기효능감 평가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25	3.1	0.6	-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1	0.5	4.81**
	부자가족	32	3.4	0.4	
	청소년한부모	12	3.3	0.9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1	0.6	1.32
	아동	88	3.2	0.5	
	중학생 이상	52	3.2	0.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1	0.6	.23
	이혼	152	3.2	0.5	
	사별	15	3.1	0.6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2	0.5	1.04
	임시직	28	3.2	0.9	
	일용직	11	3.2	0.6	
	자영업자	10	3.3	0.7	
	기타 종사자	24	3.1	0.6	
	무직	68	3.0	0.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0	0.6	1.94
	100~200만원 미만	90	3.1	0.6	
	200~300만원 미만	31	3.1	0.5	
	300~400만원 미만	20	3.4	0.3	
	400만원 이상	26	3.3	0.6	
	잘 모름	17	3.2	0.6	

*p<.05, **p<.01, ***p<.001

6. 경제상태

1) 소득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0.0%(9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 18.2%(41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8%(31명),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9%(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2%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나타났다.

〈표 3-72〉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41	18.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0	4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	13.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	8.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	4.0
500만원 이상	17	7.5
잘 모름	17	7.6
계	225	100.0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주 소득원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본인 근로소득이 58.0%(13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 24.6%(55명), 같이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6.3%(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정부지원이 30.9%(6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15.5%(34명), 본인 근로소득 13.6%(30명),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11.4%(25명),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10.9%(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없음, 장학금 등이었다.

〈표 3-73〉 주 소득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근로소득	130	58.0	30	13.6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12	5.4	24	10.9
같이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14	6.3	9	4.1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5	2.2	34	15.5
정부지원(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55	24.6	68	30.9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4	1.8	25	11.4
금융기관 대출	4	1.8	16	7.3
사채 등 개인적 빚을 얻어서	0	0.0	3	1.4
기타	0	0.0	11	5.0
계	224	100.0	220	100.0

2) 지출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지출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40.4%(9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8%(49명), 100만원 미만 20.9%(4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74〉 월평균 가구 지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47	20.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1	40.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9	21.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	5.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	3.6
500만원 이상	7	3.1
잘 모름	10	4.4
계	225	100.0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1순위)은 식료품비가 34.7%(78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24.9%(56명), 주거 및 관리비 13.8%(31명), 대출금 상환 10.2%(23명) 등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자녀교육비가 20.5%(46명)로 가장 많고, 주거 및 관리비 17.4%(39명), 식료품비 16.5%(37명),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13.4%(3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75〉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료품비	78	34.7	37	16.5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14	6.2	30	13.4
자녀교육비	56	24.9	46	20.5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학비, 직업훈련비 등)	9	4.0	12	5.4
주거 및 관리비(집세,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31	13.8	39	17.4
의료비 및 보험료	8	3.6	23	10.3
교통통신비(교통비, 핸드폰비 등)	5	2.2	11	4.9
문화생활비(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1	0.4	7	3.1
대출금 상환	23	10.2	19	8.5
계	225	100.0	224	100.0

3) 부채 및 신용불량

부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6.9%(128명)가 부채가 있다고 답하였다.

〈표 3-76〉 부채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28	56.9
없다	97	43.1
계	225	100.0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주거유지비가 43.0%(5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28.9%(37명), 기타 14.1%(18명), 자녀 교육비 7.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기 피해, 사업 부도, 전 배우자의 부채 또는 사업 실패 등이었다.

〈표 3-77〉 빚을 지게 된 원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거유지비(전월세 보증금 마련, 주택 구입 등)	55	43.0
자녀 교육비	9	7.0
가족 의료비	4	3.1
생활비(식료품, 의복 등 생활필수품, 공과금 지불)	37	28.9
현대전화 명의대여 및 소액결제	5	3.9
기타	18	14.1
계	128	100.0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채 상환 금액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 이 50.0%(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1.0%(39명), 100만원~150만원 미만 11.9%(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부채 상환 금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평균 금액은 57.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78〉 월평균 부채 상환 금액

단위 : 명, %, 만원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50만원 미만	63	50.0	57.7(62.5)
50만원~100만원 미만	39	31.0	
100만원~150만원 미만	15	11.9	
150만원 이상	9	7.1	
계	126	100.0	

대출금이나 신용 카드 이용 대금 등을 장기간 연체하였거나 이로 인해 신용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4.9%(56명)가 신용불량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표 3-79〉 신용불량 상태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56	24.9
없다	169	75.1
계	225	100.0

4)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33.3%(7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일자리 25.3%(57명),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 19.1%(43명),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 9.8%(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주거지원 등이 있었다.

2순위에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이 27.1%(6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19.1%(43명), 소득이 높은 일자리 11.6%(2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80〉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이 높은 일자리	57	25.3	26	11.6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75	33.3	43	19.1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	43	19.1	61	27.1
직업훈련, 취업교육, 알선 등	10	4.4	12	5.3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육체적 건강)	22	9.8	19	8.4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마음(심리적 건강)	8	3.6	23	10.2
실직이나 휴업 시 보조금 지급	4	1.8	31	13.8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3	1.3	6	2.7
기타	3	1.3	4	1.8
계	225	100.0	225	100.0

7. 주거 환경

1) 주거 현황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공공임대가 27.1%(6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19.6%(44명), 자가와 전세가 각각 14.2%(32명),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11.1%(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비율이 14.2%로 낮게 나타나, 주거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81〉 주거 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가	32	14.2
전세	32	14.2
보증금 있는 월세	44	19.6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9	4.0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25	11.1
무상으로 친구집에서	0	0.0
공공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61	27.1
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쉼터)	22	9.8
계	225	100.0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40.0%(9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8.7%(87명), 단독주택 14.7%(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있었다.

〈표 3-82〉 주택 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33	14.7
아파트(주거전용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90	4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87	38.7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5	2.2
오피스텔	4	1.8
기타	6	2.7
계	225	100.0

2) 주거 환경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0.0%가 만족한다(매우 만족하다+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났다.

〈표 3-83〉 주택 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만족한다	15	6.7	2.7(0.9)
만족한다	75	33.3	
보통이다	95	42.2	
만족하지 않는다	31	13.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	4.0	
계	225	100.0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음 56.4%(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고, 난방상태가 좋음 53.7%, 통풍 및 채광이 좋음 50.6%, 치안 상태가 좋음 46.7%, 교육환경이 좋음 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4〉 주거 환경

단위 :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가구원 수 대비 공간이 적당함	4.9	24.0	28.9	30.7	11.3	225	3.2(1.1)
통풍 및 채광이 좋음	3.3	8.9	36.9	36.4	14.2	225	3.5(1.0)
난방상태가 좋음	1.3	8.9	36.0	36.4	17.3	225	3.6(0.9)
방음상태가 좋음	11.1	20.0	42.2	19.6	7.1	225	2.9(1.1)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짐	13.3	17.3	29.8	30.2	9.3	225	3.0(1.2)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음	2.2	10.2	31.1	42.2	14.2	225	3.6(0.9)
교육환경이 좋음	4.0	15.6	38.2	29.8	12.4	225	3.3(1.0)
치안 상태가 좋음	3.6	10.2	39.6	35.6	11.1	225	3.4(0.9)

3) 주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서비스 중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과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를 알지 못함 비율은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 19.1%, 주거비 지원 18.2%로 나타나 대다수 응답자가 주거서비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 24.9%, 주거비 지원 32.9%로 나타나,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에 비해 이용 경험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85〉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현재 이용함	이용한 적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	225	24.9	9.9	46.2	19.1
주거비 지원	225	32.9	6.2	42.7	18.2

8. 양육비

1) 비양육부모와 교류

비양육부모와 연락 또는 교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연락하지 않는다가 50.2%(11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있다 20.0%(45명),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2.0%(27명),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11.1%(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6〉 비양육부모와 교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27	12.0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있다	45	20.0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25	11.1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듣는다	12	5.3
연락하지 않는다	113	50.2
기타	3	1.3
계	225	100.0

2) 양육비 지원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8.7%(132명)가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정기적으로 받는다 16.4%(37명), 정기적으로 받는다 14.7%(33명), 일시적으로 받았다 10.2%(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3%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

〈표 3-87〉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기적으로 받는다	33	14.7
부정기적으로 받는다	37	16.4
일시적으로 받았다	23	10.2
받지 않는다	132	58.7
계	225	100.0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가 29.5%(3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양육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17.4%(23명),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13.6%(18명), 전 배우자(비양육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2.9%(17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표 3-88〉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39	29.5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18	13.6
친부/친모를 인지하지 못함	5	3.8
친부/친모를 인지하였으나, 양육비 청구에 따르는 불편/어려움으로 청구안함	4	3.0
전 배우자(비양육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7	12.9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3	2.3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4	10.6
비양육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23	17.4
기타	9	6.8
계	132	100.0

3) 양육비 이행확보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7%(145명)이며, 모른다는 응답은 30.3%(63명)로 나타났다.

〈표 3-89〉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안다	145	69.7
모른다	63	30.3
계	208	100.0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를 살펴보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8.9%(81명)이며,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61.1%(127명)로 나타났다.

〈표 3-90〉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81	38.9
없다	127	61.1
계	208	100.0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가 34.6%(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18.9%(24명),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 14.2%(18명),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11.0%(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1〉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10	7.9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 정보를 얻지 못해서	5	3.9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24	18.9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14	11.0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	18	14.2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	44	34.6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봐	8	6.3
기타	4	3.1
계	127	100.0

4)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이 55.1%(1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21.3%(48명),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8.4%(19명) 등의 순이었다.

〈표 3-92〉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124	55.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18	8.0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19	8.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48	21.3
기타	16	7.1
계	225	100.0

9. 복지서비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경험

(1) 지원 경험 여부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을 살펴본 결과, 현재 받고 있음이 48.0%(1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29.3%(66명), 제도를 알지 못함 12.4%(28명),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10.2%(2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1,728,389가구이며, 수급률은 4.6%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2022). 이와 비교하여 응답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93〉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현재 받고 있음	108	48.0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23	10.2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66	29.3
제도를 알지 못함	28	12.4
계	225	100.0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71.3%,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64.8%,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82.4%,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80.6%로 나타났다.

〈표 3-9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단위 : 명, %

구분	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생계급여	108	71.3	28.7
의료급여	108	64.8	35.2
주거급여	108	82.4	17.6
교육급여	108	80.6	19.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인 29.6%(3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25.0%(27명), 1년 미만 21.3%(23명), 5년 이상~10년 미만 18.5%(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년 미만	23	21.3
1년 이상~3년 미만	32	29.6
3년 이상~5년 미만	27	25.0
5년 이상~10년 미만	20	18.5
10년 이상	6	5.6
계	108	100.0

(2) 탈수급 요인 및 탈수급 이후 정책 욕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더 이상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가 43.5%(1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서와 비양육부모(아이의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가 각각 13.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6〉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10	43.5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서	3	13.0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1	4.3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2	8.7
비양육부모(아이의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3	13.0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를 받게 되어서	2	8.7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0	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	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1	4.3
기타	1	4.3
계	23	100.0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필요한 것은 주거관련 지원이 34.8%(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 30.4%(7명), 의료비 지원 21.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7〉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의료비 지원	5	21.7
교육비 지원	7	30.4
주거관련 지원	8	34.8
자활관련 지원	3	13.0
계	23	100.0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경험

(1) 지원 경험 여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현재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8%(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28.0%(63명), 제도를 알지 못함 22.2%(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8〉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현재 받고 있음	94	41.8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18	8.0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63	28.0
제도를 알지 못함	50	22.2
계	225	100.0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지속해서 받고 싶은 지원은 양육비 지원이 36.2%(3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관련 지원 24.5%(23명), 자녀교육비 지원 23.4%(22명), 창업자금 지원 5.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9〉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양육비 지원	34	36.2
자녀교육비 지원(고교생 교육비, 방과후보육 바우처 등)	22	23.4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4	4.3
주거관련 지원	23	24.5
창업자금 지원	5	5.3
취업교육 지원(직업전문학교 입학, 여성발전센터)	3	3.2
기타	3	3.2
계	94	100.0

(2) 탈수급 요인 및 탈수급 이후 정책 욕구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다가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를 받게 되어서 22.2%(4명),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 11.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0〉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5	27.8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2	11.1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	0.0
비양육부모(아이의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0	0.0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를 받게 되어서	4	22.2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2	11.1
가족의 병이 나아서	0	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2	11.1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어서	2	11.1
기타	1	5.6
계	18	1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이 27.8%(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지원 22.2%(4명), 양육비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이 각각 16.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1〉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양육비 지원	3	16.7
자녀교육비 지원(고교생 교육비, 방과후보육 바우처 등)	4	22.2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5	27.8
주거관련 지원	2	11.1
창업자금 지원	3	16.7
취업교육 지원(직업전문학교 입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	0.0
기타	1	5.6
계	18	100.0

(3)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27.7%(3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19.6%(22명),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16.1%(18명),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과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름이 각각 13.4%(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2〉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31	27.7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18	16.1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22	19.6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	15	13.4
담당자(공무원, 담당기관 직원 등)가 정책을 잘 모름	15	13.4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6	5.4
기타	5	4.5
계	112	100.0

(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가 42.9%(7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청 또는 주민센터 25.7%(45명), 한부모 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 11.4%(20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7.4%(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와 구청 또는 주민센터가 각각 18.9%(3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17.8%(30명),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11.8%(20명), 한부모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 11.2%(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3	7.4	7	4.1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75	42.9	32	18.9
구청 또는 주민센터	45	25.7	32	18.9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3	1.7	16	9.5
한부모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	20	11.4	19	11.2
사회복지관	2	1.1	7	4.1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0	0.0	1	0.6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	0.0	4	2.4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8	4.6	20	11.8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9	5.1	30	17.8
기타	0	0.0	1	0.6
계	175	100.0	169	100.0

(5) 가장 필요한 지원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 66.7%(1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8.9%(20명),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7.6%(17명),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5.8%(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23.1%(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18.2%(41명), 직업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11.6%(26명),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9.3%(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적 인식 및 차별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강화가 있었다.

〈표 3-104〉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150	66.7	21	9.3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17	7.6	41	18.2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13	5.8	38	16.9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20	8.9	52	23.1
직업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7	3.1	26	11.6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5	2.2	13	5.8
사회적 인식, 차별 개선	4	1.8	11	4.9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4	1.8	10	4.4
자조모임	1	0.4	3	1.3
심리·정서적 지원	4	1.8	8	3.6
기타	0	0.0	2	0.9
계	225	100.0	225	100.0

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경험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여부

지금까지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응답자 225명 중 21.3%(48명)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0%(36명), 사회복지관 12.4%(28명), 모자가족복지시설 11.1%(25명), 일시지원복지시설 10.7%(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100명)로 나타났다.

〈표 3-10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N=225)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모자가족복지시설	25	11.1
부자가족복지시설	3	1.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48	21.3
일시지원복지시설(쉼터 등)	24	10.7
한부모가족지원센터	36	16.0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24	10.7
사회복지관	28	12.4
기타	2	0.9
이용한 적이 없음	100	44.4
계	290	128.8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한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2.8%(1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혼 출산 때문에 19.0%(15명), 경제적 어려움으로 16.5%(13명),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13.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갈 곳이 없어서	18	22.8
자녀 양육 때문에	10	12.7
미혼 출산 때문에	15	19.0
가정폭력 때문에	6	7.6
경제적 어려움으로	13	16.5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11	13.9
인근 교통편리 등 접근성이 좋아서	5	6.3
주변 환경이 안전하여	1	1.3
좋은 시설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0	0.0
계	79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생계(생활)지원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26.0%(19명),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서비스 13.7%(10명), 양육지원 서비스 8.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생계(생활)지원 서비스가 23.3%(1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16.4%(12명), 양육지원 서비스와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서비스 13.7%(10명), 상담·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12.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19	26.0	12	16.4
생계(생활)지원 서비스	26	35.6	17	23.3
양육지원 서비스	6	8.2	10	13.7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서비스	10	13.7	10	13.7
임신·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5	6.8	4	5.5
상담·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4	5.5	9	12.3
문화, 여가 지원 서비스	1	1.4	6	8.2
퇴소 후 사후 상담 서비스	2	2.7	5	6.8
계	73	100.0	73	100.0

(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미이용 이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28.0%(2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와 공동생활이 불편해서가 각각 22.0%(22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12.0%(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8〉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28	28.0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소득 기준 초과 등)	22	22.0
지원시설이 너무 멀어서	4	4.0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22	22.0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8	8.0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12	12.0
기타	4	4.0
계	100	100.0

(4)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관련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가 30.4%(3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관기관 연계 21.6%(27명), 친구 및 지인 소개 17.6%(22명), 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12.8%(16명), 민간단체 소개 10.4%(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9〉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16	12.8
유관기관 연계(상담소, 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27	21.6
친구 및 지인 소개	22	17.6
민간단체 소개(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	13	10.4
대전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6	4.8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38	30.4
시설 홍보물	2	1.6
기타	1	0.8
계	125	100.0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받은 서비스가 응답자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거 55.2%, 본인 학업 및 취업 교육 54.4%, 경제적 자립 53.6%, 건강 유지 4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0〉 지원시설 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	1.6	18.4	26.4	33.6	20.0	125	3.5(1.1)
안정적인 주거	1.6	8.8	34.4	35.2	20.0	125	3.6(1.0)
정서적 치유	1.6	7.2	44.0	34.4	12.8	125	3.5(0.9)
자녀 돌봄	1.6	8.0	23.2	46.4	20.8	125	3.8(0.9)
본인 학업 및 취업 교육	4.8	12.0	28.8	34.4	20.0	125	3.5(1.1)
건강 유지	4.8	12.8	33.6	26.4	22.4	125	3.5(1.1)
멘토 및 친구	4.8	16.8	37.6	26.4	14.4	125	3.3(1.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가 29.6%(3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22.4%(28명),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20.8%(26명),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12.8%(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26	20.8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6	4.8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2	9.6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37	29.6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16	12.8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28	22.4
계	125	100.0

(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이 37.6%(4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19.2%(24명),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16.0%(20명),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12.8%(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이 22.4%(2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20.0%(25명),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각각 14.4%(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47	37.6	16	12.8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24	19.2	28	22.4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16	12.8	18	14.4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7	5.6	18	14.4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20	16.0	25	20.0
생활시설 입주 자격 기준 완화	7	5.6	18	14.4
기타	4	3.2	2	1.6
계	125	100.0	125	100.0

4) 코로나-19 관련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37.3%(8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16.4%(37명), 자녀의 교육 문제 12.4%(28명),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8.4%(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자녀의 교육 문제가 18.5%(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 15.3%(33명),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13.0%(28명), 근로시간 단축 및 해고 등 일자리 문제 11.6%(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3〉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84	37.3	24	11.1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37	16.4	28	13.0
근로시간 단축 및 해고 등 일자리 문제	16	7.1	25	11.6
자녀의 교육 문제	28	12.4	40	18.5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19	8.4	22	10.2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	0	0.0	9	4.2
가사노동 등 집안일 부담	9	4.0	15	6.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	14	6.2	33	15.3
온라인 사용 어려움(앱 설치 및 프로그램 활용 등)	1	0.4	5	2.3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6	2.7	14	6.5
기타	2	0.9	1	0.5
어려움이 없었음	9	4.0	0	0.0
계	225	100.0	216	100.0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69.8%(15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11.1%(25명),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과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각각 5.8%(13명) 등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과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이 각각 26.2%(5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4.2%(32명),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11.1%(25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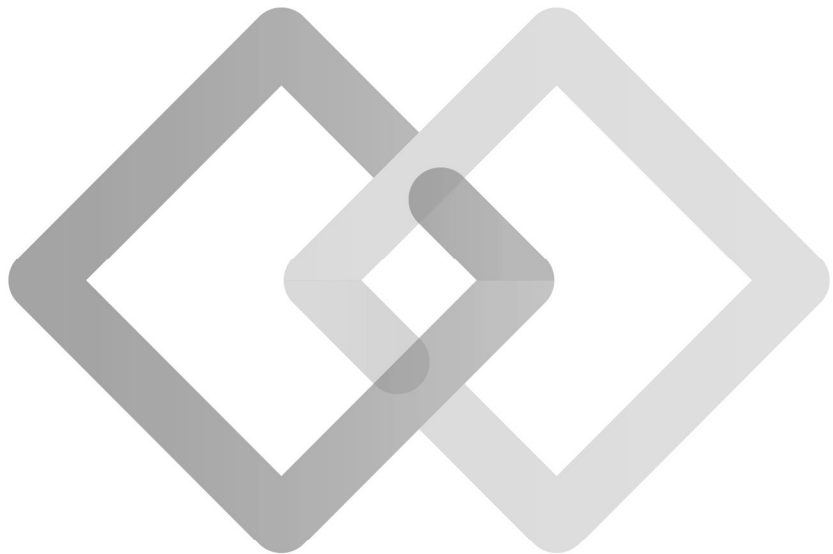
〈표 3-114〉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157	69.8	21	9.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13	5.8	59	26.2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25	11.1	59	26.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3	5.8	32	14.2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7	3.1	25	11.1
심리상담 지원	9	4.0	18	8.0
자원이 필요 없음	1	0.4	9	4.0
기타	0	0.0	2	0.9
계	225	100.0	225	100.0

제4장

초점집단면접 결과



제4장 초점집단면접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1. 초점집단면접의 필요성과 목적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설문조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실태와 욕구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대전광역시 거주 한부모가족 가구주와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자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여 설문조사로 담아내지 못한 풍부한 맥락을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은 연구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이 초점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Stewart et al., 2007).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욕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부모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로 3개 초점집단에 12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집단으로 나누고,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모자가구를 연령, 한부모가 된 이유, 욕구,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모자가구 집단은 경제적 욕구가 강한 집단과 경제적 욕구와 돌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집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기관의 형태와 참여 의사를 기준으로 추천을 통해 구성된 자들로 2개 초점집단에 9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초점집단은 두 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는 한부모 관련 생활시설의 종사자들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생활시설 외에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로 5개의 초점집단면접에 총 21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초점집단면접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초점집단면접 구성 및 연구참여자의 특성_한부모가족 가구주

그룹	ID	성별	만 연령	한부모 이유	자녀 수	자녀 만 연령
FGI 1	A1	여성	45세	이혼	1명	17세
	A2	여성	30세	미(비)혼모/부	1명	4세
	A3	여성	48세	이혼	2명	15세
	A4	여성	39세	이혼	1명	4세
FGI 2	B1	여성	49세	이혼	1명	14세
	B2	여성	28세	미(비)혼모부	2명	7세
	B3	여성	42세	이혼	1명	10세
	B4	여성	25세	미(비)혼모/부	1명	4세
	B5	여성	50세	이혼	2명	12세
FGI 3	C1	남성	49세	이혼	1명	14세
	C2	남성	52세	사별	2명	16세
	C3	남성	40세	이혼	1명	14세

〈표 4-2〉 초점집단면접 구성 및 연구참여자의 특성_서비스 제공자

그룹	ID	성별	업무	기관 유형	직급	자격 유형	경력(현 기관 경력)
FGI 4	A1	여성	입소자 및 행정관리	생활시설	과장	사회복지사	20년(11년)
	A2	여성	입소자 및 행정관리	생활시설	관리	사회복지사	10년(10년)
	A3	여성	행정/회계 관리	생활시설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8년(23년)
	A4	여성	입소자 관리	생활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8년(4년)
	A5	여성	입소자 관리	생활시설	관리	사회복지사	18년(3년)
FGI 5	B1	여성	창업지원	이용시설	팀장	사회복지사	20년(4년)
	B2	여성	사례관리	이용시설	과장	사회복지사	7년(7년)
	B3	여성	사업 총괄	이용시설	과장	사회복지사	9년(9년)
	B4	여성	통합사례관리	이용시설	팀장	사회복지사	9년(9년)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집단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에 조사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소개하고, 면접 과정에서 진술된 정보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의 질문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답변과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모든 연구참여자가 토의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토의 중 다른 연구참여자의 의견에 부연하여 설명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 도중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내용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3. 조사내용 및 분석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한 질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질문 목록은 연구진의 여러 차례에 회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삶, 서비스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질문, 한부모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등을 공통으로 질문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은 달리 구성하였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주요 조사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삶,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및 해결 노력, 정책적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조사내용은 종사자가 인식하는 한부모가족의 삶, 종사자가 파악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과 욕구,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서비스 제공 시 경험하는 한계와 어려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질문 목록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한부모가족 가구주 질문 구성

구분	탐색영역	질문
도입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 한부모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주요 질문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경제적 실태(소득, 취업 등)는 어떻습니까?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주거 실태는 어떻습니까?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자녀양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사회적 관계 실태는 어떻습니까?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위의 영역과 그 외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한부모 관련 자원과 서비스 만족 여부 및 어려움	- 한부모 관련 서비스 지원 자격 및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 한부모 관련 서비스 전달 인력 및 기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추가적인 서비스 욕구	- 기존의 한부모 지원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이외에 요구되는 서비스 욕구(대상)가 있는지, 혹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무리	대전광역시에 제언	- 대전광역시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문 목록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서비스 제공자 질문 구성

구분	탐색영역	질문
도입	한부모의 삶에 대한 인식	- 본인이 지원하는 한부모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요 질문	한부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	- 서비스 이용자인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서비스 이용자인 한부모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 서비스 이용자 과정에서 한부모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한부모 관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	- 한부모 관련 서비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대상의 특징, 욕구 및 문제의 특징 등) -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한계 및 어려움, 고민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대전광역시에 제언	- 한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집단면접에서 사용된 질문은 Morgan & Krueger(1998)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고려하여 시작 시기, 포커스그룹 도중, 포커스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그룹 종료 후의 4단계 지침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 연구 시작 시기에서는 연구진이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주요 질문과 하위 질문을 결정하고 연구진의 검토를 거쳤다. 2단계에서 연구진은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하여 경청하고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내용을 수정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단계 초점집단면접 후에 연구진은 토론 중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는 것, 기대와 달랐던 내용, 특히 사항을 점검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종료 후 4단계에서는 녹음한 내용을 즉시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과 현장 노트를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전사한 내용을 읽어가며, 단어, 맥락, 감정표출, 실제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공통된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의미의 유사성 및 구별성에 맞게 주제와 범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한부모가족 가구주 경험 분석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등 3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제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한부모가족 가구주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의	-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 - 홀로 책임져야 하기에 생기는 치열함과 고독감/위태로움 - 맛있는 부·모
	경제적 실태	- 기준중위소득 30% 내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 - 쉬지 못할 정도로 일하거나 부가적인 소득으로 충당 -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 친정 부모 등 가족의 도움 - 주요 지출 영역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주거 실태	- 자가, 일반 월세,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집, 내 임대주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 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에서 거주 - 한부모가족/미혼모 등 사회복지시설 활용
	자녀 양육 실태	-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 자녀가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관계 실태	-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생활 여건 - 한부모 간 교류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실태	-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병 - 휴식이 없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생계 지원	- 현행 생계급여 제도의 한계 - 자립심 저하에 대한 우려 - 의료비 및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만족감
	양육수당	양육수당의 효과와 한계
	주거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 LH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감과 현행 제도의 한계 -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 양육비 수령의 어려움 -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적 조치의 한계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법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경험 없는 이유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못 받음 - 자녀가 차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원 미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지원 받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임이 원치 않게 공개되는 현실 - 성별이 다른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의 특수성
	현행 서비스 개선	- 수급 및 각종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 현실화 - 양육비 이행 강제화 및 선지급제 도입 -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기타 정책의 지원 방식 개선
	추가적인 지원 필요 영역	- 돌봄 및 가사 지원 - 전문가 상담 및 한부모 멘토 제도 등 심리정서적 지원 - 자녀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1)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1)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의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으로 사는 삶에 대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한부모임을 감추게 되며, 홀로 경제생활부터 자녀 양

육까지 전적으로 해내야 하기에 치열하고, 책임감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힘들고, 고독한 면이 있다는 점도 짚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비양육부모의 몫까지 해내는 한부모가 멋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①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재가 한부모야. 뭐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해버리다 보니까 ...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는 거 감추고 그냥 표 안 내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F2 - B1)

제가 한부모인지 ...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희망은 많죠. ... 어찌 됐든 간에 한부모든, 한부모든 뭐 저소득이든 어찌 됐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가 없다는 거. (F2 - B1)

약간 주홍글씨.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직을 할 때 서류를 내거나 뭐 가족수당을 받을 때 이제 서류를 내거나 이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 그 몇만 원 안 받고 서류 안 낼까? 뭐 이런,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이 가족관계증명서 낼 때 이렇게 좀 뭐 달라졌더라고요. (F2 - B3)

안 좋은 시선이에요. 이제 저도 어린애 애기도 어리잖아요.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나가면 동생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아니요. 아들이예요. 이러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F2 - B4)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좀 어렵다. (F3 - C3).

② 홀로 책임져야 하기에 생기는 치열함과 고독감, 위태로움

한부모로 사는 건 생각보다 치열하다. (F2 - B5)

한부모로 사는 거, ... 내 자식은 책임져야 된다. 아, 이번 생에는 나는 글렀구나, 다음 생애를 나는 기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조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또 적응해서 나름대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F3 - C2)

고독하다. ... 누군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나 오늘 이래서 힘들었잖아. 이런 감정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통로가 좀 없어요. 그런 점이 많이 고독한 것 같아요. (F1 - A4)

해야 할 거, 그리고 감당해야 할 거 이런 건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더라고요. (F2 - B5)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요. 공 위에서 중심 잡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애들 같이 생활하고, 환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흘러 떨어질지도 모르고. 위태로운 그런. 중심 잡기 참 힘들어요. 내 삶에. (F3 - C2)

③ 멋있는 부모

그게 조금 있고 뭐 다른 건 그냥 말대로 그냥 멋있다. (F2 - B1)

한부모는 참 멋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네. 정말 다들. 뭐 모든 엄마들이 멋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비교하자면 혼자서 아빠 일까지 하시는 우리 엄마들이 저는 아직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 스스로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F2 - B2)

(2) 경제적 실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참석자들의 경우, 급여별 기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 내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는 참석자들의 경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 근로소득을 확보하거나 암 발병 후 받은 진단자금으로 재테크를 하고서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의 주된 지출 영역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었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① 기준중위소득 30% 내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

급여는 14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한부모 수당도 받고 있고 아동수당도 받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겨우 최저 지급 정도 되게 이제 맞춰서 살고 있는, 수당까지 다 맞춰서. (F1 - A2)

수급 유지하면서 살려면 그 기준을 맞춰. 라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사실 일을 더 하더라도 괜찮은 직장을 얻고 싶고. (F1 - A2)

경제적으로 최악이죠, 솔직히. 이제 정부에서 이게 주는 급여가 있고 돈이 있고 또한 제가 이제 일을 해서 그건 똑같아요. 조건부터 보니까 일을 안 하면 너 이거 지원 못 해줘. 이제 그런 식이니까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인 가정이니깐 2인 가정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한 100? 110 이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수급비로 주고 절반은 급여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최악이에요, 경제적으로. (F2 - B1)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150은 받는데 그거를 벌게 되면 수급자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거의 10년 동안 변하는 게 없거든요. (F2 - B2)

둘째 임신했을 때 당구장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받으면서. 낮에 청소해주는 3시간 알바만 했는데 바로바로 일급으로 주니까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

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살려면 당장에,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F2 - B2)

남는 게 한 많아야 20~30? 그걸로 이제 애기 맨날 일주일에 1번씩 밥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없긴 없어요. (F2 - B4)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도 최근에 하게 됐는데. 거의 4시간짜리밖에 안 돼서, 거의 소득이 100 정도밖에 안 돼요. (F3 - C3)

② 쉬지 못할 정도로 일하거나 부가적인 소득으로 충당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저는 많이 버는데 중요한 건 그 많이 버는 건 제가 저를 갈아 넣어서 버는 거예요. ... 제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세 사람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럴 정도로 저는 완전 저를 갈아서. (F1 - A4)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월급으로 정말 빠듯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더 해줄 것도 없고 정말 월급을 받기 전까지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그 아프게 된 게 이제 전환이 된 게 진단 자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넉넉해지고 재테크가 됐던 거지. (F1 - A3)

저는 한, 월평균 따지면 250 정도? (F3 - C2)

③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자활에서 일하면 월급이 최저 시급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아기 이런 거 9시 6시에 칼퇴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기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봐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됐고. (F1 - A2)

수급 생활을 8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미용을 해야 되겠다. 5년 정도 했었으니까.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이가 있고 주말에 빼고 7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말 장사를 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써주는 곳이 없어서. (F2 - B2)

(지금으로서는 답이) 아예 안 보여요. 해봤자 이제 그냥 하는 것처럼 보험설계사. 그 제의도 들어오긴 했는데 센터 선생님하고 막 상의를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불규칙하니까, 수익이. 지금 한창 애가 커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더 들 텐데. (F2 - B4)

④ 친정 부모 등 가족의 도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조금 제일 미안한 거는 제일 이때까지 생각한 거는 지금 제일 죄송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같이 신세를 지고 하니까. (F1 - A1)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친정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집을 구할 때도, 집을 살 때도 거의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F2 - B5)

⑤ 주요 지출 영역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어차피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지만 생계비야 그렇지만 의료비하고 진짜로 교육비가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커. 그러다 보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F2 - B1)

큰 아이가 자사고를 다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사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아주 공부를 못하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은 해줘서 그나마 힘든 거는, 심리적인 힘든 거는 이 아이가 좀 해결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고2고 1년만 버티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사교육비요. (F2 - B5)

집 담보를 해서 그거 준 것 때문에. 그 빚만 없으면 어떻게 살 만한데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F3 - C2)

사교육비 비싸죠. 월 하더라도 다 몇십만 원씩이니까. 웬만한 그런 것들이 부담이 엄청 큰데. (F3 - C2)

(3) 주거 실태

참석자들은 대체로 LH 임대주택, 자가, 월세, 다른 가족의 집에서 함께 거주 등 현재는 집에 거주하는 중이었다. 미혼한부모 참석자들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LH 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전에 미혼한부모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① 자가 거주

자가로 돼 있어요. 저는 그래도 대전에 좀 둔산동에 살고 있어 갖고 집이요. 집은 오래됐지만 나름대로 집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F3 - C1)

② 일반 월세 거주

저는 그냥 (주거) 지원받는 게 없고요. 그냥 월세로 살고 있어요. (F3 - C2)

③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집

(주거 같은 경우 따로 독립을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랑 이렇게 상의하고 해야 되니까. ... 사실 저는 들어갈 때는 수월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가 되니까 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를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 조금 더 벌었다고 나가게 되면 내가 이 월세 보증금 내고 집 구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F1 - A1)

④ LH 임대주택 거주

아기가 어린 한부모는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들어온 건데.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해야 이게 다음에 재계약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수급자로 들어갔고 한부모로 들어갔고 하니까. (F1 - A2)

저는 LH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 ... 전세임대니까 전세집만 제가 찾아오면 됐거든요. ... 부모님 바로 옆에 살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고 집도 안정되고 그랬어요. (F1 - A4)

LH만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전세 임대받고. (F2 - B2)

저는 이제 LH 다가구 임대로 살고 있어요. (지원받아서 거주한 지) 3년 됐어요. (F3 - C3)

⑤ 한부모가족/미혼모 등 사회복지시설 활용

대전에 처음 와가지고 간 게 시설이었고 아침들도 있었고 처음에. 네. 11년 전에. (웃음) ... 처음 낳을 때부터 이제 시설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총 한 모자원까지 해서 세 군데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F2 - B2)

(4) 자녀 양육 실태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에서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자녀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서의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참석자들의 경우, 비양육부모와 같이 살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타냈다.

한편,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자가족 참석자, 부녀가족 참석자에게서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①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하원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제일. 물론 지금 있는 데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얘기하면 내 업무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갈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괜찮은 직장 갔을 때는 내가 어쨌든 직장을 잡게 되면 이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F1 - A2)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었고 2년 동안 휴가는 안 갔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주말 되면 놀아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 애들아, 집에 있어. 그러고 나가서 이제 한 8시간 일하다가 또 오고. (F2 - B2)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뭐 개인적인 자원이나 뭐 친척이나 이렇게 해서 말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F2 - B3)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지역아동센터. 인원도 적고 무조건 더 어려운 애들부터 찾고. (F2 - B4)

오늘도 이제 애기가 어리면 아이 돌봄을 쓸 수 있잖아요. 아이 돌봄 선생님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마저도 저를 계속 찾고 있대요, 지금. (한숨) (F2 - B4)

어린이집이 늦게까지 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장 직책이라는 게 매장 전체를 케어해야 되고, 인력이 갑자기 뺄까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직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일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웠거든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F3 - C3)

② 자녀가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아이가) 계속 물어보고 아빠 얘기 물어보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 아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걸 배워오고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다 나오는 노래, 가족사진 내는 거 약간 그런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걸려요. ... 혹시 알게 모르게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F1 - A2)

아직까지는 진짜 다 엄마 아빠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F1 - A3)

(지역아동센터는) 초등 6학년까지만. 네. 그 위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변에 친구들 다 학원으로 가니까 거기는 안 가려고 이렇게. (F2 - B1)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서 담임선생님들은 어차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개인 성향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예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 할머니랑 엄마랑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준비물 못 챙기겠네요? 뭐 이렇게 미리 그냥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 못 챙긴 적이 없는데. (F2 - B3)

내가 진짜 학교를 보내도 되나. 학교를 보내야 되나. 차라리 홈스쿨링을 해야 되나. 그런데 홈스쿨링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수급비가 잘리니까 굶어 죽게 생겼고. (F2 - B4)

③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키우면서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다. (F1 - A3)

엄마가 2명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하나니까 정말 오냐오냐하고 예뻐만 해주고 싶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나는 아이가 처음인데, 나는 5학년 아이가 처음인데 이 시기에 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이 6학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키우는 방법. (F2 - B2)

두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해야 되면 진짜 배 이상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F2 - B5)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나 학교 안 가. 아니 학교에, 저는 직장 왔는데, 애가 안 왔다. 뭐 이랬을 때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갔니?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 삶이 질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저도 귀찮다 보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이제 아이하고 소통이 단절돼 있는 상태고. (F3 - C2)

④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아이가 이제 마음에 있는 애기를 안 하는데요,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돼서 내가 가장 피해 본 사람이다. 하면서 좀 울더라고요. 같이 이제 잡고 이제 울었거든요, 같이. (F3 - C1)

⑤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아빠가 찾는 게 제일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아빠 관련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걱정되고 아무래도 할아버지랑 삼촌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지만 여쭙든 남자 어른들을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F1 - A2)

저도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나 걱정이고 (F1 - A4)

아빠를 너무 찾아요.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F2 - B4)

⑥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거의 사춘기잖아요. 이게 조금 성별도 다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여학생들한테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좋다는 표현으로 한 건데 그게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 성교육을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문제는 제일 크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교육을 안 가르쳐줬구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줬구나. (F1 - A1)

저희 집의 구성원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하나잖아요. 아이가, 여자들이 기가 세서 그런가 남자아이가 남자답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F1 - A3)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나 학교 안 가. 아니 학교에, 저는 직장 왔는데, 애가 안 왔다. 뭐 이랬을 때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갔니?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 엄마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떤 여자의 입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되고. 또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속옷도 사고 싶은데 아빠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 (F1 - C2)

(5) 사회적 관계 실태

한부모로서 우리 사회 내에서 받는 불편한 시선, 나아가 부당한 편견과 차별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일과 자녀 양육, 가사까지 혼자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기 어렵고, 기존에 맺어오던 관계들마저 단절되는 점 또한 비슷하게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고독함이나 고립감 등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고, 한부모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 번 갔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안 갔었거든요. 한 번 갔는데 전부 다 쳐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아니야? 친구들이. 그런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야. 젊지? 막 그래요, 그냥.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있는데 저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F2 - B2)

결국은 사람들 눈초리가 어땠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F2 - B2)

(택시 기사가) 남편은 어디 갔어요? 해서 남편 없어요. 혼자 키울 수 있죠. 혼자 키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저한테 진짜 딱 그 사람 한 말이 당장 가서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합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이제 난생 처음으로 어른한테 욕을 했어요. (F2 - B4)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시선은. 끝. (F2 - B4)

(한부모임을 말하기가) 꺼려지죠. ...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걸 좀 수치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갖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족보에서 빼버려, 너 빼버리겠다고. 왜 이런 식까지 하니까. (F3 - C1)

②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생활 여건

친구가 없다 보니까 대전에. 놀 일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냥 애만 키우게 되니까. (F2 - B2)

다른 엄마랑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다고 어울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그런 것도 잘 안 하고요. (F1 - A2)

괜히 가면 나 같아도 이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서로 갈 때 어디 갈 때도 아기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데리고 가야 되는 데가 있고 (F1 - A2)

(사회 관계까지 그렇게 하나둘씩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온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있고.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사 다 귀찮아

질 때도 있고. 많죠. 그 때 뭐 엉뚱한 생각 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서 막 자기 탓 하는 것들도 많죠. (F3 - C2)

저는 어쨌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돌 케어를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모임을 안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단절되더라고요. (F3 - C3)

③ 한부모 간 교류의 필요성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자조모임이라는 걸 처음 엄마들하고 이렇게. 지금 같은 이게 아이가 이렇게 특수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그런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추천해 주시면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F1 - A1)

이렇게 자조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간 마음적으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옷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물려받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애는 옷을 물려받고 했지만 물려줄 데도 없는 거예요. ... 주변에 이렇게 얘기 나눌 만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한 번씩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F1 - A2)

가끔 한다면야 하면서 애들 이제 같이 사회성 키우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F3 - C1)

저는 (모임이) 있다면 한번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자기 고민들을. (F3 - C2)

대전에서 오픈 채팅방을 검색했는데 한부모 가정 세종,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상 들어가 봤는데 애들 애긴 별로 없고 자기네들 그냥 만나서 술판 벌이고 이런 것뿐이라. 그냥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있고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 (모임이라든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면은 어쨌든 더 말도 잘 통하고, 서로 같이, 똑같이 힘든 거 겪고 이런 거니까.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F3 - C3)

(6) 신체적·정신적 건강 실태

참석자들은 대체로 업무나 육아, 가사 등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생긴 참석자나 암 등 신체적인 질병을 얻은 참석자들도 있었다.

①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병

제가 또 건강도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F2 - B1)

제가 사실은 애들 키우다가 지금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F1 - A3)

지금도 그렇고 우울증이 있어요. 약간 조울이라고 봐야 되죠. (F1 - A3)

이혼을 하고 어렵고 막 이런 과정이 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 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서 직장생활의 관계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직장생활을 되게 못 했어요, 그때. ... 가난하다고 느낀 거예요, 내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도 받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애기랑 먹고 살 일을, 돈을 벌어야지 뭐 상담할 필요한 돈을 내가, 뭐 보통 10만 원 부르시더라고요. 1시간에 10만 원씩 내가 어떻게 해. (F2 - B3)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아예, 어느 때는 이렇게 자살 충동까지. 우울증까지 와갖고 이제 정신과 가서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갖고 약을. 이제 힘들 때만 좀 복용하다가 좀 풀어졌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무난히 지나간 것 같아요. (F3 - C1)

② 휴식이 없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제 시간이 또 없는 것도. 무조건 퇴근하고 바로 아기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은 오로지 이제 아기만을 위해서 보내고. 그래서. (F1 - A2)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정말 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막 달리고 허겁지겁 와서 애들 밥 먹이고 맨 마지막으로 데려오는 애가 아니게 하려고 정말 엄청 달려요. 그냥 하루 내가 끝내야 될 일을 끝내서 어쩔 때는 점심도 안 먹고 할 정도로 정말 갈아 넣는다는 말에 공감되는 게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 잠잘 때까지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F1 - A3)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하루는 봄이랑 이제 온전히 놀아주고 그냥 제 인생이 없어요. 저를 위한 날이나 시간이 없어요. ... 서울에서 대전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너무 이제 저는 어쨌든 제 시간이 없는 생활을 지금 3-4년을 해오고 있는 거 같아요. ... 제가 너무나 여유가 없고 힘들다 보니까 애랑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애한테 막말 할까봐 엄청 무서운 거예요. ... 제 어떤 스트레스 레벨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수해가기가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F1 - A4)

솔직히 아직 젊으니까 놀고 싶잖아요. 나도 막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도 가고 놀고 싶은데 이제 동생이나 친구나 이제 친구 부모님이 애기를 봐주신다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신나가 지고 가자. 우리 술집 가자. 막 이라고 갔는데 애기가 엄청 운다고 연락이 와서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 (F2 - B4)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1) 생계 지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참석자들은 대체로 수당 및 수급 기준이 비슷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이 과정에서 곤

란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소득이 소액만 높아져도 그보다 더 큰 수준의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한편, 의료비 지원이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참석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① 현행 생계급여 제도의 한계

너무 약간 이게 슬라이딩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툭 떨어져야지 이게 가는 거지 지금 이런 게 진짜 너무 너무 와 닿았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이거 초과해서 조금 벌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다른 현행 유지를 해 주면서 그러면 너의 미래를 준비해 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넘었어? 그러면 년 끝이야. 이러니까 진짜 너무 의지가 없어지는 느낌. (F1 - A4)

다른 일을 알바를 해보고 싶어, 알바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리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 하면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장에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오버가 되면 그게 조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못 해요. 그래서 제일 어렵죠, 그게. (F2 - B1)

예전에 수급자 생활했을 때 좀 이렇게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에 ... 어린이집을 보내면 나라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동사무소가. 왜 일 안 하시냐고. ...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가 몸이 정말 확실하게 아파야 돼요. ... 이게 그냥 내가 정말 자잘하게 온몸이 아픈 건데 이거(증빙서류)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온몸이 아픈 거야, 너무. ... 그거 갖다가는 해주지도 않거든요. 일하라고 해요. (F2 - B2)

이 엄마가 아이랑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금전적인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전기세 감면되고 뭐 내 뭐 이런 거 주거 지원 이게 되고 하더라도 120은 턱도 없이 모자라요. 네. 정말로. (F2 - B2)

② 자립심 저하에 대한 우려

가만히 그냥 뭐 사이버 대학만 해도, 자격증 공부만 해도, 컴퓨터만 다녀도 120을 주는데. 그럼 취업하고자 하는 게 더 떨어지거든요. 결국 최종 취업은 해야 돼요. 자립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F2 - B2)

③ 의료비 및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만족감

의료비 지원 그런 게 크게 도움이 됐어서. (F1 - A4)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혜택을 보니까. 예예. 그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고 치료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F2 - B1)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많이 좋아진 게 에너지 바우처랑 수급자 전기세 감면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안 내요. 많이 내봤자 한 3~4천 원? (F2 - B4)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참석자들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① 양육수당의 효과와 한계

(양육 수당 20만원도) 뭐든 얼마든 도움이 되죠. 주면 뭐라도 비축해 놓을 수 있으니까. (F1 - A2)

(양육수당 20만원) 별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수당 자체가 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의료지 비원 그런 게 크게 도움이 되어서. (F1 - A4)

(3)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을 이용 중인 참석자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자격 내 소득 기준이 낮다 보니 소액이라도 소득이 높아져 재계약이나 이사할 때 주거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될까 불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짚어졌다.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

20살에 임신해가지고 집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시설에 갔어요. 신탄진에 자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러고 이제 문화동의 아침뜰이라는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됐든 간에 나도 사람인데 살아야지 하고서는 이제 자활하면서. (F2 - B4)

시설에 있던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구하라고 저한테 독촉을 하시거든요.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집을 네가 이제 알아봐. 이런 식으로 도움은 전적으로 주시지는 않거든요. 나갈 때는. 그냥 이런 게 있어 한번 신청해봐. 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글씨가 안 읽히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F1 - A2)

② LH 임대주택

지금은 괜찮은 집에 살고 있어요. 둘이 사는데 집 평수도 넓고 방도 크고 약간 괜찮은 집에 사는 데. (F1 - A2)

LH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처음 될 때 너무나 화났어요. 왜냐면 이제 딱 이제 다 결정을

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는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내 지원이 필요한데 부모랑 살고 있으면 안 된대. ... 그리고 나서 내 전세임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받았던 그 모든 지원들 중에서 내 전세임대가 최고였고 지금 그래서 주거 안정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F1 - A4)

주거는 지금 어차피 저는 내 대상이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되게 좋은 편이라. ...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 임대료 14만 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F3 - C3)

신청하기는 했는데 지금 소득이, 애 아빠 수당 받는 걸로 해서 좀 많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F1 - A1)

한부모면 210 정도인가. 2인가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더 벌고 나머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 저는 들어갈 때는 수월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가 되니까 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중예를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 조금 더 벌었다고 나가게 되면 내가 이 월세 보증금 내고 집 구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F1 - A2)

(4)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참석자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법정에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또한 직장인 특성상 점심시간 밖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데 담당자도 점심시간으로 공석이 있거나 담당자가 조치에 미흡했던 경험, 작성하고 마련해야 할 서류가 방대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어지기도 했다.

①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적 조치의 한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해봤었는데 결론은 못 받았었어요. ... 법원은 다 포기하고 양육비 관리원에다가도 장황하게 글을 올렸어요. 그간에 겪은 일이라 당신들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렇게 속상한 내용을 좀 적어서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포기하고 살았죠. ... 매스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아닌 그쪽 가족을 통해서 주겠다. 양육비 주겠다고. (F1 - A3)

양육비 소송을 냈는데도 승소를 했는데도 안 줘요. (F3 - C2)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법원 서비스의 문제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후다닥 나와서 가정 법원 가서 점심도 안 먹고 왔는데 여기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양치

하고 뭐 하고 오니까 1시 20분에 오더라고요,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꼭 참고 이제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애 아빠가 대전에 사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원본이 거기 가면 그걸 다시 받아와라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알려주니까 그걸 찾는 데만 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F1 - A3)

뺨기를 박은 게 법원 직원이 제가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못 받아요. 맥이 빠지더라고요. (F1 - A3)

양육비이행관리원에다가 한 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증거자료와 내가 자필로 쓴 3장의 A4용지와 증인과 상대방의 주민번호, 이름.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취소했어요. (F2 - B2)

(5) 경험 없는 이유

참석자들에게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을 때, 지원 기준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한 사례, 지원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임이 알려져 자녀들이 차별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 등이 언급되었다.

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못 받음

3인 기준에 210만 원 이상 이하였다고 하는데 뭐 저는 우선적으로 그게 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F1 - B2)

② 자녀가 차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원 미신청

제가 선택한 거기도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 이러니까 나 좀 고려해 줘. 이런 말을 할 수, 제가 그거는 자제했던 것 같고. 저는 애들 요만할 때 사실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직장이 탄탄했던 편이라 내가 이걸 신청해서 내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어려워도 버티자. 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F1 - A3)

3)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도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받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임이 원치 않게 공개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이 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점과 성별이 다른 자녀를 기르

는 부모, 특히, 부녀 가정에 대한 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짚어졌다.

① 지원 받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임이 원치 않게 공개되는 현실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오픈되는 걸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깐. (F1 - A3)

우리 자체가 조금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실 버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 보호자처럼 양육비를 안 주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고. (F1 - A3)

이력서를 내게 되면 요즘에 사실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는 세상인데도 의외로 가족 관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채용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쓰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개인적인 거와 또 일은 별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굳이 처음부터 내가 그런 부분들을, 치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픈해야 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F2 - B3)

② 성별이 다른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의 특수성

아빠가 딸을 키우는 거는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저는 그냥 아들까지도 그냥은 그냥 키우기는 했지만 아빠가 만약에 딸을 키운다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원을 원가 해줘야 된다. 싶거든요. (F1 - A3)

(2) 현행 서비스 개선

현행 서비스 개선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재 각종 수당 및 수급 제도에서 정한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을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강제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하는 등의 선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도 언급되었다.

① 수급 및 각종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 현실화

(200만원을 넘어야)그 정도는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주거비도 끊기고 해도 월세랑 총당을 하려면. (F1 - A2)

빚 안지고 그냥 근근이 산다고 하면 저는 250은 돼야하지 않을까. 300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아무리 못해도요. 아무리 입고 쓰는 건 최소한으로 한다 해도 대단히 학원을 큰 걸 보내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낸다 해도. (F1 - A3)

주거 지원 그런 종류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치면 2인일 때 200은 넘어야 된다. (F1 - A4)

이게 슬라이딩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톱 떨어져야지 이게 가는 거지 지금 이런 게 진짜 너무 너무 와 달았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이거 초과해서 조금 벌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다른 현행 유지를 해 주면서 그러면 너의 미래를 준비해 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넘었어? 그러면 넌 끝이야. 이러니까 진짜 너무 의지가 없어지는 느낌. (F1 - A4)

사람들이 저소득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 기본 최하 200은 벌어야 돼. 그래야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 일반인들도 월급 200만 원 받아갖고 빠듯하잖아요, 솔직히. 뭐 보험료 내고 휴대폰료, 뭐 공과금. 빠듯하잖아요. 애들 학원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빠듯해요. 그럼 빚으로 또 생활을 하는 거야. (F2 - B1)

양육비를 받은, 받는 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소득이래요. 어떻게 그게 소득이야. 내 아이 내가 키우는 돈으로 쓰겠다는데 그것도 소득이어서 수급비에서 깎인대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받으면 빨리 현금으로 빼고 다른 통장으로 돌리고.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동사무소에서 내가 일하는데. 심지어 내 옆의 담당자가 수급자 담당자님인데 그것마저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F2 - B4)

3인 가족을 봤을 때요, 대도시에서 사니까 적어도 300이나 350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250 정도 소득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투잡도 뛰어보고 밤에는 알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참 그거를 기준하고 최저 생계비 잡아가지고 국가에서 준다는 것은. 또 저걸 해줘야지, 상송을 해서 해줘야지, 저거는 너무 부족해요. 힘들고. 진짜 사람 죽지 않을 정도로 그 금액을 갖고 한다는 건. (F3 - C2)

애를 케어하면서 적금도 들고, 뭐하고. 이게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더 나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200 정도 버는 상황에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면, 적금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나아질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계속 제자리걸음인 거 같아요. (F3 - C3)

② 양육비 이행 강제화 및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 대한 거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F1 - A3)

친구는 이제 해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다 했는데 달라고 했더라고요. 판사가 판결 내리기를 한 달에 30만 원씩 줘라,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것,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 이런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정말 강력하게. (F2 - B2)

자기 술 먹고 놀 돈은 있고, 명품 살 돈은 있고 줄 돈은 없대요. 네 달 동안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깐 금액이 100 단위가 아니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나라에서,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들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그 사람한테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F2 - B4)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국가 선지급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배우자한테 받는 게. 우리나라도 요즘 시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저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F3 - C1)

③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무료법률공단 시간도 맞춰야 되고. 나도 내 일정이 있고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그 사람 시간에 맞춰야 된대요. 그거 아니면 상담도 못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F2 - B4)

사실은 어떤 복지가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찾아서 알려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내가 몰라서 그냥 이게 혹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저도 아까 전에 옆에 분처럼 한번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기다려라. (F3 - C2)

직장생활하면은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가서 그 신청을 다 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면 또 그다음에 한 번 갔는데 서류를 또 뭘 때와라, 이러면은 그냥 두 번을 또 그냥 헛걸음을 해야 되고. 이런 게. (F3 - C3)

모르면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주민센터나 구청 차체에서도. 저는 이제 인터넷을 보고 그 소식을 알고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해당 사항이 되는 거냐 물어봤을 때도, 본인들이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F3 - C3)

④ 기타 정책의 지원 방식 개선

내 들어갈 때 아기가 만 6세 미만인가 만 7세 미만에 들어가면 한부모 일 때 우대를 해 주잖아요.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해주면 좋겠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됐는데 막 불안하고. (F1 - A2)

최고 120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라서 급여비, 이제 수급비 뭐 얼마 주고 또 일한 거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그것도 한 날짜에 주는 게 아니라 20일날 주고 말일날 주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F2 - B1)

만 25세가 지나면서 받던 청소년 한부모 수당이 줄면서 진짜 한 3달간은 진짜 어려웠어요. 근 한 40만 원, 50만 원이 확 줄어가지고. (F2 - B4)

(3) 추가적인 지원 필요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자녀 돌봄, 가사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의 특성상 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나아가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비슷한 조건의 한부모끼리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한편으로는 소득이나 생활 여건상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녀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짚어졌다.

① 돌봄 및 가사 지원

이런 자리도 좋아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기 놓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안 구해져가지고. 여기 오는 이런 것도 혼자 키우는 거에. (F1 - A2)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서비스.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때는 돌봄 서비스 썼고 뭐 그거 아니면 거의 저희는 아파트 옆 라인에 언니네, 큰언니네 저희가 이사를 가서 뭐 제가 늦게 끝나거나 그럴 때는 저녁을 먹여주거나 이런 거. (F2 - B5)

애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아니면 학교, 하교한 후에 가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오전부터 그렇게 뭐 하는 곳이 있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센터가 근처에 있으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을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F3 - C3)

내가 가사 노동할 시간이라도 좀 줄이면 그 시간에 애랑 조금이라도 더 놀아 줄 수 있고 덜 종종 거리면서 직장에서도 돌아올 수 있고 그 시간에 주말에 가사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친구라도 만날 수 있는데 뭔가 이 세 가지 영역이 너무 다 저한테만 오니까 너무 버거워요. 진짜. (F1 - A4)

② 전문가 상담, 한부모 멘토 제도 등 심리정서적 지원

저도 약간 항상 원래 시설 살 때도 저는 개인 상담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개인 상담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중간중간에 아기랑 둘이 살다 보니까 진짜 저 마음을 터놓을 때가 진짜로 없어서 저도 개인 상담할 때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터놓고 한 번 막 울기도 하고 이러다 마음이 확실히 좀 그냥 내가 뭐가 해결이 안 돼도 이게 좀. 근데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F1 - A2)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멘토 멘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살아가는데. (F1 - A3)

엄마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야지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편해야지 아이들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조금 약간의 우리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심리 상담 바우처를 좀 해주면 조금 속상한 얘기를 풀어내고 눈물 한 번 흘리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게 있거든요. 엄마들을 위한 그런 바우처

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F1 - A3)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좀 있어서 좀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서 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회복이 빨리 되지 않을까. (F2 - B3)

③ 자녀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애기 좀 컸을 때는 사실 예를 들면 진짜 남자애들은 축구 교실 이런 거 같은 거 참여하면 좋은 것처럼 약간 여자애들이랑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나누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것도 있고. (F1 - A2)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바로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진 거와 안 채워진 게 이제 와서는 자꾸 좀 보이더라고요. ... 무료 티켓 같은 거 그거 자리 남는데 그런 거 하나는 시에서 해주면 어차피 상영하는 거 자리 남는데 우리 애들 몇 명 간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혜택을 좀 비밀하게 준다면 뮤지컬 같은 거 그냥 뭐 대단한 공연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자리가 만석이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분명히 만석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문화적인 양식 마음이라 도 탄탄해질 것 같다. (F1 - A3)

2. 서비스 제공자 경험 분석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제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한부모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특성	한부모로서의 경험	- 폭력적인 경험으로 인한 한부모의 취약한 특성 - 준비 없이 양육책임자가 되어 지원이 요구됨 -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부모 확대 가능성 우려와 그들의 문제와 욕구 특성 - 취약계층인 한부모들 간 상호 연대하고자 하는 특성
	최근의 한부모 이슈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들에 대한 인식과 저항감 : 개인주의 성향 등 -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의지와 역량, 욕구의 차이가 다양해지고 있음
	한부모의 사회 관계적 특성	- 사회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 경험 -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 한부모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에서의 편견과 차별

주제	하위주제	주요 내용
중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문제와 욕구	경제적 취약성	-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의 욕구이자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의 조건 - 한부모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급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어려움 - 주거 및 취업 등 경제적 기반 취약으로 어려움 - 경제적 관리역량 부족으로 빈곤의 악순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욕구	- 사회적 참여를 위해 자녀 돌봄 문제해결 요구됨 - 돌봄 우선순위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돌봄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한 욕구 - 양육 기술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
	심리 정서적 취약성	- 사회적 좌절과 위축에 대한 심리적 지지 필요 - 스트레스 등 치료적 접근까지 요구됨 - 삶에 대한 지원 필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욕구	- 장애가 있는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 - 고령의 미혼모의 복합적 욕구 - 다문화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 - 사례관리 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
한부모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어려움	빈곤정책과 연계된 제도적 한계	- 자립을 추구하기 힘들게 하는 제도적 한계 - 한부모의 욕구와 문제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라기보다 저소득 가족을 선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어려움
	현행 한부모 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려움	- 시설중심의 서비스로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만 한계가 있고, 서비스 만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한부모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가 일시적이고, 단편적 이고, 사후적인 서비스에 그쳐 한계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달체계가 없어 통합적 접근에 한계 - 한부모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도 미흡하여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려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한부모 정책목표의 변화	- 저소득 대상으로 경제적 욕구를 보충하려는 한부모 관련 정책의 관점 변화 필요 - 저소득 한부모 제도에 의존이 아닌 자립이 되도록 지속적 인 과정의 서비스 개선 필요 - 탈수급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 빈곤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관련 논의	- 한부모 중 특별한 욕구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극복하 고, 한부모를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 적 전달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반면, 한부모 전담기관보다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 는 서비스 기관들의 연계 강화 강조 - 한부모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은 인 테이크 창구와 플랫폼의 역할을, 민간은 한부모의 특 별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접근으로 민간의 협력적 네 트워크 강화 필요

1)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의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의 특성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한부모가 된 후의 경험적 특성으로 이는 한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부모 이슈들과 한부모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한부모의 삶에 주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1) 한부모로서의 경험

한부모 관련 기관 종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의 다양한 경험을 한부모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부모가 되기 전의 삶에서부터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폭력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한부모의 태도나 성향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 관련 서비스 주요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미혼모 집단에 주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미혼모들이 가정폭력 등으로 지지체계가 불안하고, 성매매나 불안정한 관계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성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대상들이 상담해보면 대부분 최근에는 조금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많이 한 분들이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원치 않는 임신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니 얘기가 생겼더라. 어떤 그냥 짧은 만남에 그런 관계들로 해서 좀 생긴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성애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관계의 아이들이 또 사실 많았고 그 아이들을 또 역으로 또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가정사 자체도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렸거나 그래서 가출했거나 그리고 방황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지하면서 만난 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림을 받거나 (F4 - A5)

기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온전한 집에서 평화롭게 자란 친구보다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비행 청소년일 수도 있고 자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에 연루돼서 그 와중에 또 임신까지 해서 입양은 차마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기관을 찾아오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와서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엄마가 과연 아기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F4 - A1)

이들은 폭력적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양육모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미흡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미혼모인 한부모들이 양육책임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에 연루돼서 그 와중에 또 임신까지 해서 입양은 차마 못 하고 이제 이렇게 기관을 찾아오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와서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이 엄마가 과연 아기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F4 - A1)

지금 엄마들은, 물론 성매매로 인해서 임신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원래 어리다 보니까 출산 때까지 본인이 임신한 것도 모르고 정말 119 실려 가면서 간신히 7~8개월 만에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르지는 않은데. 그냥 (종사자로서) 요즘 엄마들이 그냥 좀 힘들다는 게 뭐만 해도 이게...(예전에는) 아기는 내가 키워야지 어떻게든 아기 아빠한테 안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엄마는 내가 애 때문에 왜 직업도 못 갖고, 희생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F4 - A1)

엄마의 역할을 이제 아빠가, 또는 아빠의 역할을 엄마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역할 과잉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양육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당하시고 사실 그렇게 큰 양육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정폭력,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비일관적인 그런 양육 태도에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양육 기술 부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혼모나 미혼부, 또는 이제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간접적인 약간 돌봄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을 할 것인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방법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하시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조금 생애주기 별로 좀 이제 그런 장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초기 자립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4 - A4)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도 한부모 가정의 주요 유형으로 주목하는데, 연구참여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외부의 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 내 숨겨진 가정폭력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서 폭력에 의한 한부모 발생이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에 의한 한부모 다수가 폭력적인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우선 일시보호의 상태에서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오랜 폭력 피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도 공격성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도 많이 줄고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정들이 또 와서 뭐 가정폭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폭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보호 인원은. (F4 - A3)

(가정폭력 피해자로 이혼 전 분들은) 일시적인 한부모이기 때문에 (제도권의 서비스 이용에) 제

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있었지만 퇴소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한부모가족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요. 이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깐. (제도적인 지원이) 별로 없어요. 이혼도 안 되고, 자녀는 키워야 하고, 남편으로부터 피해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F4 - A3)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시달려서 오시는 어머니들이다 보니. 우리 기관에서 생활하실 때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간혹 좀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머니들한테도 공격하고, 아니면 직원들한테도 그냥 뭔가 생활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다 불만이 쌓여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때도 있고. (F4 - A3)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한부모들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음을 중요시하고, 기관과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가 신축해서 입주하면서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좀 집값이 싸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되게 인근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터를 잡으신 분 중에 이제 다른 또 이제 한부모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시게끔 해서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F5 -B3)

저희가 A라는 분을 과정, 관리하면서 사실 이제 비공식 자원 이제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웃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연결 연결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발굴하거나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는 대상자분들이 이제 의뢰해주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F5 -B4)

(2) 최근 한부모의 이슈

한부모 관련 연구를 보면, 이혼하여 중등 과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유형이 가장 많지만, 우리나라의 명시적인 한부모 관련 지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최근 한부모 이슈는 대체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한부모, 미혼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실천 경험과

는 다른 것이 요구되고,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용자와는 다른 특성을 다루어야 하는 것을 어렵게 인식하고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육책임자라기보다는 자율권이 중요한 개인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한부모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호 사이에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서비스 내용이 필요하고, 현재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저항감도 있다.

오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내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것도 항상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요. 다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젊은 어머니들, 젊은 직원분들 얘기를 좀 들으려고는 하지만 못 쫓아가겠는 경우도 솔직히 저도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조금씩 생겨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계속 이제 그런 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F4 - A3)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마들이 다 성인이지만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반된 가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실은 시설에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자율권을 줘라 하지만 실은 이 자율권이 과연 엄마만을 위한 자율권인지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또 한편으로 시설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것들도 시설에는 의무 사항으로 많이들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실은 그것도 엄마들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은 엄마의 심리 상태나 아이에 대한 어떤 행동 양상을 봤을 때 이 엄마는 개인 심리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실은 상담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해하고 늘상 하던 것인 양 이게 항상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도도 없고,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F4 - A4)

또 최근 젊은 한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은 공통되지만, 자립 의지와 역량, 욕구가 다양해서, 이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한부모들은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정보 탐색과 활용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 서비스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자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험과 기술, 의지 등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공통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정보나 기회 제공, 양육과 주거 지원 등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만으로는 한부모들의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30대 젊은, 상당하러 오시는 한부모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막 유관 기관 홍보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성 창업’ 을 탐색해서 (스스로 찾아) 오 시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잘 쓰시고. 단지 이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형태는 잘하시는데 저희가 면접 보고 이렇게 해보면 실질적인 경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공 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예전보다 젊어진 만큼 학력도 높 아졌고 또 그런 정보들도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으로 안 가서 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고 (F5 - B1)

(자활) 사업을 추진할 때 리더 역할을 젊은 친구들이 해주는 거죠. 그 사업의 리더의 역할을 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마을 기업에서 창업을 지원해 주듯이 저희 도 자활 기업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리더가 돼서 자리를, 취업 자리를 또 얻지 않아 도 되고 안정적으로 가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리더로 같이 갔을 때.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끈기 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40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책임감이 생겨서. 어차피 한부모로서 책임 을 다하고 있어서, 끝까지 그 사업단에서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도 직장 생활하면 생기는 트러블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수틀리면 그냥 나가요. 왜? 자활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어디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소득 정도로만 신고하고 수급 유지할 수 있어서. 친구들이 그 런 제도의 활용도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이런 데 가서 돌봄 서비스도 받고. 오히려 저희 보다 더 많은 서비스 자원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F5 - B2)

사실은 엄마들이 올 때 아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학력이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 이 길러지지 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조금 부족한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 래서 엄마들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엄마들이 조금 더 원할 때는 인턴이나 실습 같은 것들 통해서 자립 활동 도와주고 있는데, 실은 조금 현실적으 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F4 - A4)

(3) 한부모의 사회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 개인으로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존재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선, 연 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위 축되고, 단절과 고립을 경험함을 강조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다가갈 때도 사실 스스로가 갖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 때 문에 이제 저희랑 관계를 형성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이 조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뭔가 이제 자립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5 - B4)

아무래도 외로움하고, 아이들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폭력 때문에 헤어진 가족들 이 많으세요. 경제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단절이

죠. 애하고도 만나지 않고 이런 단절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단절이 되면, 친정하고도 단절되시더라고요. 친정하고 연결이 되면 그래도 좀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진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F5 - B2)

저희가 만나는 미혼모나 미혼부들의 경험상 제가 봤을 때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원 가족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원가족으로부터 이제 지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심리,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인 편차가 조금 심하시더라고요. 저희 센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의 약간 좀 안정적인 돌봄이라든지, 지원이 좀 이루어졌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혼모, 미혼부라고 하더라도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활동 이런 거에 제약이 좀 덜하신 편인데 그렇지 않고 사실 계획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그걸 시작으로 가족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족으로부터 전혀 원조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이나 통념 이런 거에다 이제 차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으세요. (F5 - B4)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연구참여자는 미혼모·부의 사회 참여의 배제에 주목한다.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과 취업에 요구되는 기술, 지식이 부족하여 취업이나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특히 미혼모·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에 진입하는 것이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이 자활사업 등의 유예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취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연령이 어려서 어린아이를 같이 이제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학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원가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조금 이렇게 쉽사리 원가 이제 접근하거나 원가를 이제 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F5 - B4)

조건유예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계시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벗어나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육아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6시에 퇴근시켜 드리지, 당연히 퇴근은 하지만 그전에 아이들이 하교하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하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으시면 혼자 고립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제로 참여를 반만 하세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통해 자활을) 도모해드리기 위해서는 전일제로 다 8시간 일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제로 하시다 보니까 또 불편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제대로 못 하시는 거고 그냥 조건유예를 위한 근로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중략>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학교에 간다거나 그러면 양육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유예를 신청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둘, 셋이 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유예를 하면서 4시간만 일을 하세요. (F5 - B2)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이 편견과 차별로 다양하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한부모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 인식 정도에서도 한부모, 특히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¹⁾

한부모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가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담당자들조차도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 한부모가족들을 많이 이제 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심으로써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F5 - B4)

2)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문제와 욕구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욕구로는 주요하게 경제적 취약성, 자녀 양육 관련 욕구, 심리·정서적 지원 욕구 등이 인식되었고, 이와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한부모가족의 유형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 경제적 취약성

한부모가족의 대표적인 욕구는 다수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연구참여자들도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욕구로 경제적 취약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한부모가족 대부분은 저소득 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으로서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거 지원이 생겨서 주거 지원에 연결해 드려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생활하시면서 취업을 한다고 전문직을 갖는 여성들은 거의 없고 어려운 그런 생계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F4 - A3)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금전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1) 2019년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중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처 : 여성가족부 카드 뉴스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7649)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까 뭐 둘 다 책임질 수 없어서 이제 한쪽이 이제 약간 파산 뭐 이런 뭐 개인 회생까지 하면서 한 쪽이 자녀를 또 양육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거였고 (F5 - B3)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한부모들이 오시는, 차상위계층까지. 한부모가족으로 측정이 되셔야 저희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세요. (F5 - B2)

대부분 입소하기 전부터 부채를 갖고 입소해서 어떤 친구는 입소기간 내내 그 부채만 갚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 이거 갚는 거 이 3년 동안 여기 없었으면 이것도 못 갚았다. 이거로 굉장히 너한테는 다행으로 생각해라. 지금부터라도 모으자. 이렇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F4 - A1)

한부모가족이 대표적인 저소득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가족 등 비공식 지원체계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공공부조 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벼랑에 내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서비스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출산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런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뭐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지만 그런 이제 수급권이 유지가 된단지 이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단받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병, 아니면 이제 기타 사유로 근로활동이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서. (F5 - B4)

절차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절차 과정이고 기간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안 돼요. 허무한 거죠.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된다. 안 된다는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한 달간, 두 달씩 걸려서 안 되네요. 라고 해 버리면 안타까운 거죠. (F4 - A1)

이렇게 한부모가족을 취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한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로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취약한 상태에 더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입소 기간이 좀 남았으면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은 기간만 살게 해달라고. 저희가 거절을 하든가 뭔가 잔여기간밖에 살 수 없는 이런 걸 설명해 드리지만, 그리고 자립 정착금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걸 자립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아니면 자기 시설을 퇴소하고 다른. (F4 - A2)

취업도 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격증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엄마들이 사회 경험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엄마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나 이런 건 있었지만 대부분 취업이 오래가지 못했던 건 엄마들의 의지 플러스 사업장에서 해고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잦은 실수가 누적되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하도록 해도 오래 유지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F4 - A4)

창업해서 무조건 다 설명,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한부모가 갖는 그것들 있죠. <중략> 저희 한부모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의 걱정이 그거거든요. 내가 소득이 확 늘어서 차라리 안 받으면 뭐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6개월,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서 이제 계속 그거 조사 나오면 주거(급여에서) 떨어질까 봐 제일 걱정, 그다음에 이제 아이 교육비는 뭐 요즘 워낙 그래도 조금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유예 기간들을 조금씩 좀 주시면 자립, 저희는 이제 자립에 초점을 많이 두니까 자립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략> 현재 본인이 내에 살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제 내 맨날 6개월, 1년에 한 번씩 조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이 소득 기준으로 잡지 않고 뭐 가게의 매출 기준으로 막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어요. 매출에서 뭐 임대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내가 가져가는 소득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분들은 뭐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낼 정도의 사업을 하면 굉장히, 그분들의 기준은 약간 뭐냐면 기초수급과 차상위 정도의 기준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당장에 집을 본인이 얻어야 하잖아요, 본인 돈으로. 그래서 그 텅이 정말 그걸 확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F5 - B1)

또 한부모들이 경제적인 관리능력도 미흡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입소 중에는 시설에서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한부모들이 퇴소하면 사후관리가 안되어 금세 복지 사각지대에 밀려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저축을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서 몇 천원을 모아서 퇴소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내 전세 임대 1억을 지원받고 보증금 더 없어서 좋은 쓰리룸 정도로 가라. 아니면 2천 정도 남겨 놓고, (2천만 원은) 너의 비상금이다. 어떻게든 잘 들고 있어야. 하지만 그냥 출라당 다 써버리는. 그러면 여기(한부모 생활시설)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그게 무너지는. 퇴소 후에도 일부터 걱정되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사례관리팀에 연결하고 이분 잘 좀 계속 지켜봐 달라,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하지만 금방 복지 사각지대에서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입소 전과 같은 상황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워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지역사회와 잘 연결이 돼야 하는데 (F4 - A2)

(2) 자녀 양육으로 인한 욕구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자녀 양육은 취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대한 욕구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돌봄은 보편적인 욕구로 인식되고, 다양한 돌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노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전히 돌봄 공백의 문제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은 아이들이 폐렴이나 이렇게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은 회사에서 일주일, 열흘씩 시간 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발생하는 양육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한 근무가 조금 어려워지는 (F4 - A4)

저희들도 사업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한부모를 만약에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면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타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돌봄센터를 가야 하는데 그게 있지도 않고 여건도 안 되고 또 시간이 오버가 되면 1인당 5천 원인가를 더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하세요. 네. 실질적인 사업으로는 연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할 수 있는, 아무리 최대 일을 해도. 그 이외 앞으로 땡기는 시간, 뒤로 늦추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F5 - B2)

한부모가 자립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녀 돌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문제가 한부모가족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이 제도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에 우선순위에 들기는 하지만, 아동 돌봄 서비스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허용 가능한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화시켜서 바우처 형태로 조금 이제 활용을 해서 낮은 비용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간이라도 좀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 그러니까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이제 뭐 한부모가족들이 조금 더 이제 뭐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을 때 양육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중략>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연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수가 차면 사실 이제 돌보미(돌봄) 선생님

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민간 자원으로 좀 돌려서 바우처 형태로라도 조금 더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F5 - B4)

자녀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욕구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부모들은 다중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돌봄 부담이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연구참여자는 특히 젊은 한부모들의 경우, 자녀 양육 기술이 미흡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모나 부나 어쨌든 이제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이 이제 부재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엄마의 역할을 이제 아빠가, 또는 아빠의 역할을 엄마가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역할 과잉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양육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당하시고 사실 그렇게 큰 양육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정폭력,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비일관적인 그런 양육 태도에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양육 기술 부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혼모나 미혼부, 또는 이제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간접적인 약간 돌봄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을 할 것인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방법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하시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조금 생애주기별로 좀 이제 그런 장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초기 자립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좀 모색이 되면 좋을 것 같다. (F5 - B4)

엄마들이 아무래도 10달 품고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감춰던 과정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걸어주더라고요. 아이가 웅얼이할 때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반응을 거의 해주지 않아요. 마치 친구나 어떤 성인을 대하듯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울면 왜 우냐고 물어보고. (아기를 양육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아기한테) 왜 울어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양육 태도나 기술 등)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관계 같은 것들도 낳은 결과 끝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것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실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편이고요. (F4 - A4)

(3) 심리 정서적 취약성

한부모들은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경험한다. 특히 미혼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 자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로 인해 양육의무자가 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한 사회적 좌절을 극복하도록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 스스로가 갖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이제 저희랑 관계를 형성하시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이 조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뭔가 이제 자립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본인이 이제 아이 양육 의지와 더불어서 이제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구조적인 좀 제한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많이 좌절감을 경험하시고요. 그로 인한 뭐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외의 이제 심리, 정서적인 그런 부분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조금 호소하셨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위급한 상황이 조금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자원이 없으시다 보니 이런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능이 조금 취약하신 편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조금 이제 있으셨던 것 같고 뭐 또 이제 학업,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대상자분이 이제 연령이 어려서 어린아이를 같이 이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뭔가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조금 이렇게 쉽사리 뭔가 이제 접근하거나 뭔가를 이제 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많이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F5 - B4)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러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를 해서 이게 바로 한 번에 나의 자녀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염색체 이상이 나올 경우에, 그거는 제대로 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차례 재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실 지원처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어쨌든 아이 아빠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책임을 지고 출생 신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니 그런 거에 대한 좌절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F5 - B4)

연구참여자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 많은 현실에 주목하였고, 이에 실제 저소득 한부모를 지원하는 체계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부모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폭력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문제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 학대로 연결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 정서적인 상담뿐 아니라 치료의 접근까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이제 저소득층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감정도 해소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자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발원에서 이제 복지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지역자활 한 센터에 1명씩은 배분을 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에요. 저희가 뒤늦게 후발 주자로 들어온 거예요. (F5 - B2)

저희가 뭐 이렇게 완전히 학대나 이런 정황이 생기면 당연히 신고하지만 그런 정황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 심리상담, 엄마의 심리를 먼저 먼저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성구의 정신건강 그쪽으로 연계를 좀 하거나 이제 사례 담당자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를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F5 - B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자립하려는 분들보다는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그분들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입장이 라는 게 뭐 이런 약물을 먹었을 때 그런 나의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항상 약에 취해 있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내가 내 몸이 힘들고 내 약 기운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 건 알지만 또 그렇게 쉽게 못 하거든요. (F5 - B3)

또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 등에 대한 접근과 함께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한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임을 강조하였다.

좀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여행을 한다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좀 많이 부족하셔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행시켜드리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카페라도 데리고 이렇게 여행 가면 어머니들이 살면서 이렇게 여유를 못 가지고 있었다고 되게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5 - A3)

쉼도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일 열심히 하고 가서 혼자 다 양육을 하려면. 한두 시간 어디서 좀, 어디서 놀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땡땡하면 이렇게 들어가. 반복적이니까 그 생활이. 정서 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못 보니까. 네. 시스템적으로는. (F5 - B2)

아이 돌봄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 이 시간만큼은 조금 이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F5 - B4)

저희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케이스가 있을 때 재단에서도 해주시고, 저희 광역자활에서도 하고. 그럴 때 (한부모와 자녀가) 같이 캠프 같이 보내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애들이 싫어는 해요, 가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기차 여행 이라고 한 번 갔다 오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F5 - B2)

(4)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욕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에게 공통으로 인식되는 욕구도 있지만, 현장의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이 몇 가지 특성과 욕구로 유형화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져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서 미혼모가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이 있는데 원가족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 나이가

많은 미혼모로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자립역량이 부족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이들 사례는 대다수의 한부모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인 특수 상황의 중첩되면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기관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한부모의 욕구와 문제 이외의 상황에 대한 개입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의 기능과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입소하시는 식구 한부모 분들이 점점 장애를 가지는. 그동안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워낙에 대기하고 있는 엄마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한 엄마가 1366을 통해서 긴급으로 입소를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입소하고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공무원에 힘을 빌려서 가족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서 지금 장애가 있는데도 수급자도 안 되고, 그럼 이 친구는 시설 밖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가 입소하진 않았지만 이 정신 장애나 아니면 신체적인 자격 이런 한부모도 분명히 앞으로 입소할 거라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가려면 우리가 과연 이 엄마들이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F4 - A1).

50대인 분들은 사례가 특이하긴 한데 많은 나이에 임신 출산 오신 분도 있고요. 그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미혼모 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연령대에 스스로 자립하실 수 없는 인지적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여러 사람, 여러 상황을 거쳐서 저희 쪽에 이렇게 소개로 오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면 그걸 헤쳐 나가실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나이 분들은 (시설에) 안 오실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 외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 오셔서 이제 일 다시 일 시작하시고 빚 같은 것도 또 많이 있으니까 빚 같은 거 청산하시고 주거 마련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F4 - A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구참여자들이 대체로 한부모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지원하는 기관의 연구참여자들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집단으로 지역사회사회복지기관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보통 한부모를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인테이크하는 게 아니라서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할 때 많이 만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업무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인이신 한부모 분, 또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 한부모이신 분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크게 나뉘거든요. <중략> 대부분 한부모의 원인으로는 뭐 폭력으로

이제 되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IMF 그때 이혼하신 경우, 그리고 질병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아니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리고 외도로 인한 이제 한부모 이런 한 다섯 가지 크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장 주 호소하는 내용들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폭력 가정의 경우에는 법적 싸움까지 있어서 아이가 이제 현장에 노출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아픈 경우. 뭐 ADHD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도 한부모 여성 가장도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뭐 불면증 뭐 이런 거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금전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의 사례였었는데요. 되게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여성분의 모국에 갔을 때 투석을 못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병세가 좀 악화돼서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은 아이들이 좀 어려졌는데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자립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남편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막상 남편분이 없었을 때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진짜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여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한국말을 더 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랑 소통을 더 잘하는 정도까지 돼서 이제 부모, 어머님도 이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많이 호소하시고 일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진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나 뭐 이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F5 - B3)

3) 한부모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어려움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이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으로는 한부모가족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소하기에 제도적, 현실적 한계들이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빈곤과 관련된 정책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와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 등이 해당한다.

(1) 빈곤정책과 연계된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은 대표적인 저소득 가족 유형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해져 가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현장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들을 빈곤에 머물게 하는 제도적 모순에 주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국면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거나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건이 간과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업해도 사실 직장인 이거 (월급)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직장인 정도의 수준인데 혼자 본인이 어쨌든 자녀 양육도 해야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하는데 소득만 조금 있으면 한부모 (지원 제도에서)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F5 - B1)

사례관리를 했을 때, 한부모 가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자립을 위해서 취업(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것도 참여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키우시고 아이들도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되게 잘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보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어야지만 이게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계속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하는(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안(저소득지원 제도)에 있고, 아이들의 학습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받아야 하고, 학습 기자재 같은 것도 받아야 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F5 - B3)

시설에 있는 동안 급여가 어느 정도 반의 수급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 그거만큼 저희가 저축을 하게끔 하겠다. 어쨌든 조건이 있어요. 수급비 받을 때 70%를 저축하게끔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유지해 주면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경력도 쌓을 텐데 그게 아무리 저희가 좀 설명해도 이 제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그런 게 좀 거주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래서 저축을 예를 들어 70%를 저축을 못 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면 수급비가 나와요. 70%를 저축하지 못하면 수급비가 안 나오는데 70% 저축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딜레마인데 70% 저축하지 못하면 수급비가 안 나오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수급비가 나와요. 그럼 어머니는 수급비 받는 걸 선택하는 상황이고 직장도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자활에 치중돼 있어요. 자활이 딱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자활에 많이 치중해요. 자활이 급여 조건도 좋고 사대보험에 연차 혜택도 좋고 또 수급비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 (F4 - A2)

한부모가족은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중에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원가족으로부터 배제된 미혼모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배제되는 경우, 자영 창업으로 탈수급 위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부모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보장기관을 통한 사회보장 수급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부모가족의 사례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초래되는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수요자의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구조는 결국 제도권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수급자로 머물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노인이랑 한부모 쪽은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모님 금융 정보를 조회하거든요. 근데 실은 미혼모들은 특성상 원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해서 이분을 수급자로 만들기에는 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이것과 또 다른 얘기로는 반대로 또 이렇게 수급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는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인 것 같아요. (F5 - B4)

이제 내 맨날 6개월, 1년에 한 번씩 조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이 소득 기준으로 잡지 않고 뭐 가게의 매출 기준으로 막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어요. 매출에서 뭐 임대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내가 가져가는 소득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분들은 뭐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낼 정도의 사업을 하면 굉장히, 그분들의 기준은 약간 뭐냐면 기초수급과 차상위 정도의 기준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당장에 집을 본인이 얻어야 되잖아요, 본인 돈으로. 이런 부분들. (F5 - B1)

실질적으로 사업 소득자한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절대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놔야. 그러니까 종소세를 가든지 개인 소득세 여차피 신고하니까 그걸로 가든지 뭔가 기준이 좀 명확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F5 - B2)

시설 수급자 되는 부분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거. 저희는 오늘 태어난 아기의 사회보장 수급 신청을 하는 데도 건강보험에서 한 달 반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되는 게 한 달이나 걸려, 이게 맞냐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떤 근로 능력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나. 그거를 재차 저희가 건의하고 문의를 드렸음에도 알겠다는 답변만 듣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저희 담당 공무원을 조금 닦달하면 조금 빨라지는데 아기까지 조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자꾸 외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되고, 했다가 취소돼서 다시 결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시설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냥 시설 수급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경제 능력이 사실은 있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없어서 들어왔고, 그 (시설 수급자 판정) 기간이 사실 짧았으면 좋겠는데 길게는 한 달 반씩 또 걸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들어왔다가 금방금방 빠지기도 해요. 짧게는 정말 한 달만 있다가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설 수급이 되기 전에도 들어 왔다가 나가버리면 저희는 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의하는 데도 그런 게 조금. (신청받아) 올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하는 기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어렵게 하고 있어요. (F4 - A5)

(2) 한부모 관련 서비스 현장에서 경험하는 한계와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여러 한계를 경험하였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의 일

시적인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을 통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이 있어 매우 제한된 서비스 지원²⁾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상황은 다양해지고 있고, 그 특성도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이라는 공간을 통해 특정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당면한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만, 서비스 만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혼을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임신했을 수도 있고, 아이 아빠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아빠지만 이혼 준비 중이거나 임신한 상황에 그런 케이스가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올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케이스가 처음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있고, 임신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난감했던 건 제도는 바뀌었지만, 시설 규모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제도로 설계가 되었다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아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아동을 보는 보육교사 아니면 어린이집 연계 그다음에 어떤 안전상 그런 부분들이 마련됐을 텐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바뀌었고 저희가 (아동 동반한 임신, 출산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왔어요. 원래는 그런 케이스 있으면 저희는 동반해서 입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설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도는 바뀌었고 케이스는 생겼기 때문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 구조상, 본관과 신관이 있는데 본관은 주로 임신부들이 거주하고요. 신관은 양육하는 엄마들이고, 3층 건물이에요. 1층은 출산을 한 몸조리하는 신생아들 엄마 그다음에 2층, 3층은 양육하는 엄마들인데 계단이에요. 또 그 아이를 동반한 엄마가 입소했을 당시에 방이 없었어요. <중략> 누워 있는 아기를 다 밟을 수도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층을 분리해서 3층을 (배정)했는데, 또 안전 때문에 걱정, 그래서 그 계단에 다시 CCTV를 달고 그다음에 보호막을 치고 막 안전망을 치고, 안전 문을 달고도 했는데 아이가 4살 정도 됐거든요. 자기가 열어요. 열고, 계단도 올라가고. 또 엄마가 이제 임신한 상태, 거의 만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여력도 없었고. 남자애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차서 그걸 쫓아다닐 수도 없었고. 생활 지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도맡아서 볼 수도 없었고 (F4 - A5)

실은 예전에는 같이 지내는 게 저희도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면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서로 의지도 하고, 공동 양육자들끼리 얘기도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엄마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지만 저는 그냥 흐름이라고 느껴져요. 자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중요한 친구들이라서 지금 이런 공동생활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섞여서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대한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 지원비(교육, 원동, 문화체험 등), 양성평등 기금지원으로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 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 및 미혼모부의 초기 지원 등이 한부모 유형 중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은 약간 무리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실은 시설 입소를 더 꺼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 누구랑 방 써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은 엄마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만 실은 지금의 프로그램 조건들이 워낙 방대해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만족도가 낮냐 높냐의 차이지 실은 엄마들의 욕구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해 주거나 이행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F4 - A1)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한부모 혹은 한부모가족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아니라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일부의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로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성이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은 장기간의 시설지원보다는 자립을 중요시하지만,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열심히 돕기는 하나 일시적이다 보니 그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중략> 최근에는 자립에 초점을 좀 두잖아요. 한부모가족, 그래서 주거 지원 사업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랑 연계해서 지원해드리고, 일시적인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퇴소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한부모가족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요. 별로 없어요. 이혼도 안 되고, 자녀는 키워야 하고 남편으로부터 피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F4 - A3)

(한부모가족의) 아이 같은 경우에 생애주기별로 장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기 자립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지원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5 - B4)

보호받아야 하는 분들이라 저희는 시설 관리 보호를 써서 지금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폭력 피해로 보호받는 것은) 문제가 일시적인 거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용 못 해. 금방 나갈 거잖아. 그리고 저희는 자립 정착금이 없어요. 다른 기관들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년 계속 얘기를 해요. 퇴소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자립 정착금을 주면 좀 얼마나 많이 힘이 되겠냐. 시설 보호 아동들도 종료 시점에 이렇게 자립 정착금 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고 그걸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일시라서.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어머니가 살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돕고 싶은 건데 타 기관에 프로포절해서 따가지고 와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거는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제도가 많이 있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부분은 도왔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커트 당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F4 - A3)

연구참여자는 한부모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에 비해 특별하게 갖게 되는 욕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발굴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사례관리 등의 대상이 되어야 사회복지 기관과 접촉하게 되고,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사례관리 외에도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조 모임, 또는 이제 그 외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례관리라는 게 뭐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사실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 부모, 또는 다문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연계를 함). 대상을 나누어서 뭐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그 정해진 예산안에서 그런 것들 기획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자조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부부 중심에서 양부모 중에 한 분이 오신다거나, 이제 한부모가 오셔서 같이 하시긴 하지만 한부모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특화시켜서 뭐 한부모이신 분들이 조금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게끔 구조를 조금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F5 - B4)

한부모이기 전에 그분들도 똑같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부모일 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에서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변 유관기관을 이용하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확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도 매년 욕구 조사를 하는데 (한부모가족의) 대상별 특성이 나오기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오늘을 계기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노인이거나 다문화 쪽으로 저희는 많이 이제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부모와 같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F5 - B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관에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없고,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저소득이면서 통합적인 욕구가 있는 한부모들이 공공부조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관공서를 접하게 되므로, 관공서가 한부모 서비스의 창구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이외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지만, 사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혼모나 미혼부 같은 경우에도 한부모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로테이션이 되고 전문 분야가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부모가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이런 지원이 필요해서, (관공서에) 가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 안내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5 - B4)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타겟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이제 한부모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추천받아요. 네. 저희 자력으로 발굴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중략>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부모 동행 캠프로 딱 한부모 가정만 캠프를 갔어요. 그런 캠프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부모를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다 정해져 있어요. 구청에서 다 정해서 주시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기획안을 내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 5개 복지관 중에 뭐 어디가 돼서 이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F5 - B3)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문제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 공백을 채우는 역할이 가능한 NGO 단체 등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장의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이에 대한 인식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유관기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가 의뢰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직접 의뢰해주시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회의에 가서 이제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이제 담당자들끼리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이제 대상자정을 저희가 A라는 분을 관리하면서 사실 비공식 자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웃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연결 연결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발굴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는 대상자분들이 이제 의뢰해주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중략>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마련이라든지. 실제로 저희도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라고 해서 지자체 또는 관련 복지관, 아니면 그 외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실무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대상분들이 일차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보통은 지자체 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제 검색. 정보를 얻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5 - B4)

일단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저희도 정기적으로 주민센터에 우편, 사업 설명에 대한 우편물은 정기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에서 받아보시는 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해의 접수 상담 문의가 달라져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전뿐 아니라 대전, 천안, 청주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천안 지역에서 왕창 문의가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내용이 없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가를 보니 거기 주민센터 분이 한 분이 정말 관내 한부모 관리하시는 분한테 문자를 다 뿌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자체, 그러니까 저기,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한부모 신청하러 갔다가 제도 어떤 거 지원 있어요? 했을 때 알려주는 게 제일 이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정보가 빠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게 많이 없어요, 일단은. (F5 - B1)

4)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FGI 참가자들은 최근 한부모의 특성과 욕구, 현장에서 경험하는 한계와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한부모의 정책목표의 변화를 제안하였고, 또한 한부모가족 관련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제안하였다.

(1) 한부모 정책목표의 변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목표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우선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립보다는 경제적 취약성을 보충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목표가 실제 한부모 당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경제적인 부분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차적으로 사실 생계가 해결돼야 그 이후의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부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뭐 이제 위급한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이동이나, 뭐 예를 들어 아이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 어린이집을 이제 등원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이제 차량, 그러니까 (차량) 소유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가 어쨌든 수급권이나 어쨌든 이제 공공부조 안에 들어오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시선 자체도.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 이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이 양육 시에는 이제 차량이라든지 어쨌든 이동 수단이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을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이제 취약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한부모인데 다자녀인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 계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를 생계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기능이 조금 취약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린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이제 받는 그런 정부 지원이 없을 시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F2 - B4)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나 심리전인데 아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출산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면 얼마를 주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사실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면 얼마 들어와요. 매달 얼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은 편이고 또 올해 들어서는 사실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는 바우처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나. (F1 - A5)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을 중요시하였다. 주체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연구참여자는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활 사업 등으로 정보와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창업 등을 지원하는 민간 자원 등이 연계되어 창업을 지원하면 자립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어려워지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일시적으로라도 유지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이는 한부모의 자립 관점과 다양한 체계와 서비스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였다.

민간 재단 지원인데 한부모 여성 가정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긴 해요. 자녀가 있는 한부모에 대한 창업지원.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도 이제 오시게 되는데, (선정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으세요, 일단 힘도 있으시고 양육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좀 있으시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지도 좀 있으시고. 오시는 한부모들이 저희한테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저소득 한부모고, 그다음에 신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디 가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빌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여 형태이긴 해요, 저희가.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형태이긴 한데, (금융권에서) 어쨌든 빌릴 수 없는 형태의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중략>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렇다고 오셔서 저희가 다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까다롭긴 하거든요. 어차피 소상공인 창업이라는 게 성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중략> 그러니까 자활이든 다른 곳에서 한부모를 접하는 곳에서 정보도 그렇고 이 사업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좀 막 해줬으면 본인이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가끔 했거든요. 이제 미리 좀 준비시켜서

일 시키면 어떨냐. 그런데 해보니까 사실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경험, 진짜 말 그대로 경험도 필요하고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이게,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중략>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정까지는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 오시는 분들은 의지도 높고. 그런데 개중에 이제 정말 힘든 분들은 말 그대로 수급받으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의지, 이게 의존도도 사실은 좀 높고 그다음에 이거를 약간 혼돈해서, 국가 지원하는 것과 저희(민간 지원) 거하고 혼돈해서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 해주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희는 이게 대여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면,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분들. 그런 것을 걸러내느라고 조금 힘들긴 한데, 굉장히 이제 시장 지향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F2 - B1)

만약에 창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일정 기간은 생계비 지원도 해줘야 해요. 그거 못 하면 교육 못 받거든요. 자활의 좋은 게 교육 훈련받으면서 일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1500이 됐든 1300이 됐든 급여가 나오니까. (F2 - B2)

이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를 빈곤에 빠뜨리거나 머무르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한부모 관련 서비스 수급 조건이 완화되어야 하며, 한부모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탈수급,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소득 기준에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을 굳이 그렇게, 그냥 어쨌든 한부모인데 소득 기준을 뒤야 할까. 그렇다고 이제 높은 소득 기준의 사람들은 사실은 또 그 편견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애매한 범위 내에 있어요. <중략> 꼭 저소득에 기준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저소득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애매한 선상에서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한부모 이꼴(=) 저소득이어야 해가 아닌 상황이니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폭넓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중략>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전시에서. 지금 계속 한부모 얘기 나오면 뭐 가족센터, 자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공적으로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 지원 수급권 기준안에) 들어가 계산 분들에게 대한 제도나 이런 지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 저희 같은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F2 - B1)

저희가 실무나 다른 일 때문에 직접적인 자원 개발은 어렵고 이제 (민간) 재단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사례관리를 하다가 뭐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더 필요하거나 또 (민간기관의

지원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몇 년 정도 잘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면 그리고 3년 후에는 한 500만 원 지원해줘도 되니 본인의 돈이 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재단도 있어서 그런 거, 그렇게 연계를 해서 성공시켜주면 이제 만족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LH의 보증금을 더 추가 해주면 이제 몇 프로 안 되잖아요.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줘도 한 달에 줄어드는 건 한 2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를 모아서 1년 되면 24만 원이고 3년이면 얼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여행을 가게끔 한번 해줄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렇게 연결되면 그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런 사례들. 또 이제 장학금, 한부모지만 미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부모지만 사회복지사 이제 공부하면서 취업하고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이버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또 장학재단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그것도 유성구에 있는 ****재단에서 연계가 들어와서 무조건 쓰자. 그렇게 해서 두 케이스 연결해서 또 지원해줬던 경우. 그래서 한 150만 원씩 두 가정 연결해 드렸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으세요. (F2 - B2)

만약에 (공공부조제도) 외부에 노출된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 그런 데(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런 역할(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같이 부여돼서 한다고 하면 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복지관에 메이지 않고 내가 저런 데 가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시도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서(일반 노동시장 진입에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수급 조건이) 오픈돼서 (수급권 외의) 한부모한테 뭐 지원이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자활은 이제 자활 속도 때문에 초반에 특례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적어도 특례 기간을 줘서 뭐 5년이든 유지할 수 있게끔 뭔가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것도 제도로 제도화시켜도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죠. 여기서 털어내고 일반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중략> 어느 정도 진짜 양육이 필요하고 주거가 어느 정도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 (F2 - B2)

연구참여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자립 지원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 과정에서의 생활 안정에 대한 방안을 중요시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연구참여자는 현재 민간이 지원하는 사례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자체가 한부모의 자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사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이제 대상 가정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야의 그런 취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자립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이제 수강료, 아이 돌봄 비용, 그리고 생계비 일부 이런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실제로 이·미용 쪽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쪽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지금 현재 개인 샵을 차려서 그렇게 이제 자립을 건강하게 이제 하신 그런 가족이 계신 데, 대전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쨌든 기업 홍보 차 생각보다 많은 이제 기업들이 그런 사회복지 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그런 사업 제안을 했을 때 또 이제 받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조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이제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기관 쪽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이제 취약 가족들을 위한 그런 이제 후원이라든지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연결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개별화된 서비스로 역제안을 해서 좀 그분들이 이제 자립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 활용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2 - B4)

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녀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녀는 가능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녀를 출산, 양육하다가 퇴소한 한부모 자녀는 가입이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소하여 경제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때에는 가입이 안 되고, 퇴소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야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부모들이 현재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에 밀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은 제안하였다.

수급자 애들 중 10만 원 넣으면 20~30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 3년 탈수급을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저희는 미리 가입을 퇴소 전 1~2년 전에 가입시켜서 찾을 때도 똑같아요. 드림 씨앗은 이제 기간이 길지만, 저희는 3년이니까 3년 뒤에 목적 자금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하죠. 집세, 보증금,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걸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매칭 금액이 꽤 크니까. 어머니들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 한부모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죠. (F2 - B2)

디딤돌 씨앗 통장. 그런데 이게 조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설에 있어서 사회보장 번호일 때는 가입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바깥에 살 때는 7살 이후가 돼야 가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희 시설에 머물러 있을 때 사회보장 번호로 입소하고, (퇴소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입을 구청에서 허락을 해줘서 몇 건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대상이 2차 시설에 가서 지냈는데 그거를 가입하지 않고 갔던 거예요. 않고 갔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후원을 매칭해 주고, 후원금을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고 했는데, 그걸 계속 홀랑 다 쓰니까 디딤돌 씨앗 통장을 좀 가입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알아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에서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잘못됐대요. 몇 년 전에 했었다. 했더니 잘못됐대요. 지금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안 되는 걸로 끝내는 거고, 이 친구들 7살이 넘어야 그 제도를 쓸 수 있어서 그 제도 자체가 아이들하고 매칭금, 정부에서 내가 얼마를 넣으면 그 매칭금이 자녀 이름으로 되는 거고 18세까지 해지를 할 수 없게. 부모는 절대 해지할 수 없고 자녀가 커서 결혼 자금이나 대학 자금 주택자금을 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그거를 원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7살이 넘어야지 할 수 있는. 그사이에 어떤 자립금이 사실은 내 돈이 자꾸 200, 300 모이는 데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제도가 더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공백을 뒀는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제도는 참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F1 - A5)

(2) 맞춤형 서비스 전달을 위한 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사회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이 다른 가족 유형과 달리 특수한 욕구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미혼모부, 부자가족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세분화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 주변에서만 봐도 이게 한부모 이꼴(=) 저소득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이 있으시다 보니 한부모인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한부모인데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있다거나 한 경우에 아니, 한 부모가 이렇게 잘 살고 뭐 한부모가 이렇게 어쨌든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의 그런 경제적 생활을 이제 영위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종종 들었어요. 사실 뭐 한부모도 다양한 한부모가 있듯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자립적인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 좀 포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한부모는 가난해야 하고, 한부모는 뭔가 역할, 어쨌든 역할 부재에 있어서 뭔가 이제 부모로서 이제 부족한 기능일 거야, 기능을 가졌을 거야. 약간 이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F2 - B4)

부모를 놓고만 봤을 때, 지금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심지어는 저희도 진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 같은 이런. 한 부모 안에서도 대상을 조금 쪼개기를 해서 사실 그렇게 지원 제도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상 쪼개기 과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지원에 있어서, 그런 대상을 쪼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2 - B4)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이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타 시도³⁾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제 뭐 한부모의 독특성도 있고, 정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부모 사업을 한다는 곳은 많아요. 센터도 있고, 자활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지만 한부모 사업이라 하기는 여러 복지 대상

3)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s://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visionGoal.do>

자 중에 그냥 깨 있는 거지 한부모라는 대상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부모가 가지는 특성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봤을 때 다른 저소득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이웃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자녀 돌봄 문제도 다르기도 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동료처럼 느끼는 자조 모임 같은 것들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서울시같이 이렇게(한부모 관련 사업을 통합)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선입견과 가족 안에서의 인식, 또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작은 자조 모임, 뭐 이렇게 개별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하고. 인식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힘도 생기고, 그게 당연시되면 별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선입견과의 약간 양날의 그거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도 이제 그냥 이렇게 모아지면 뭐 협회나 이런 것처럼 서울에 뭐 지원센터도 있기도 하지만 뭐 한부모 연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공식화된 게 차라리 있으면 오히려 인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해서. (F2 - B1)

이제 이게 약간 아까도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부모라는 게 약간 역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순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중복 있지만 뭐 단종복지관, 노복이나 장복 이런 게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도 하지만 단종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되게 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서비스에 대한 그런 안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2 - B3)

또 다른 한편의 연구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통합을 위한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관(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신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의 서비스 기관과의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등 전달체계에서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대전시의 한부모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명료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이제 건강가정센터가 있는데 굳이 센터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초도 비용 들어가느니, 건강가정센터에다가 한 꼭지를 더 줘서 보조금 사업을 하든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클릭 하나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두리 안에 청소년, 미혼모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편부, 편모가 됐으면 거기서(한부모 정보 플랫폼) 클릭 하나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르륵 이렇게 올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센터를 하나 다시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재원도 그렇고. 보조금 사업, 시에서 주는 시비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원 더 주고. 지금 인원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다 포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에 몇 개 센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다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셔서. 어차피 저희 센터도 구에 하나씩 있거든요. 구에 하나 있는 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 하나 있는 건 못 찾아가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F2 - B2)

저희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별도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기관의 역할을 조금 명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아마, 저희 **센터도 그렇지만 다른 복지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한부모가족 관련한 사업은 진행 중이실 거예요. 그게 대상이 특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그런 역할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조금 명확화해서 어쨌든 낭비되는 자원 없이 대상자들이 좀 원스톱으로 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F2 - B4)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우선 현재의 한부모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공공이 한부모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집적되는 체계로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일차적인 기능과 함께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각각 차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체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접촉하므로 공공의 역할로는 한부모 서비스 네트워크의 인테이크 창구와 정보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거(한부모 서비스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마련이라든지. 실제로 저희 센터 내에서도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해서 지자체 또는 이제 관련 복지관,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실무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상분들이 일차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보통은 지자체 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제 검색, 정보를 얻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한계성이 있다고, (F2 - B4)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예를 들어 대상자 명부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이제 대상자를 연계함에 있어서 그런 개인정보로 인해서 원가 이렇게 중간에 조금 연결이 이제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주신 것대로 저희도 요청했을 때 경험은 했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원가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라든지 이제 오셨을 때, 대면했을 때 그런 안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데까지가 이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하면서 원스톱으로 원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공에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에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조금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F2 - B4)

민간기관들은 공공과는 차별된 접근으로 특별한 상황과 욕구에 대한 접근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민간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일부로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이 최소한의 기초보장을 지원한다면 민간이 특정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효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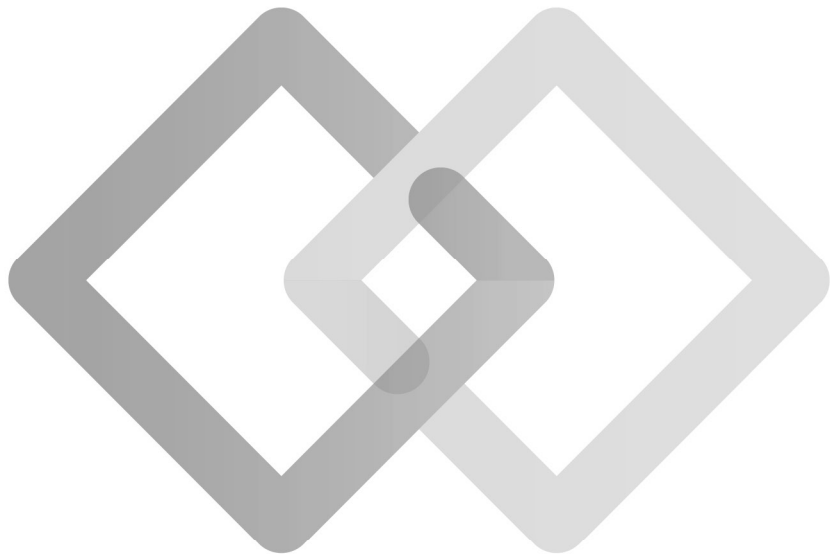
다른 부분은 공공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조건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나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지원하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해줬잖아 (최소 지원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런 단위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게 100단위가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게 10만 원씩 10번 쪼개서 주는 100만 원하고 100만 원 한 번에 싸주는 거 하고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또 이제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또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나 혼자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더라고요. (F2 - B2)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담 기관이 설립되던, 그렇지 못하던 연구참여자들은 공공에서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사각지대 발굴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저희도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서 유관기관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종복(종합복지관)이랑 장복(장애인복지관)이랑 노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서원(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사협(지역사회복지사협의체) 위원분들과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발굴 체계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사협(지역사회복지사협의체) 외에도 마을 지킴이라고 해서 주민 주도형 마을 활동가를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생활하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발굴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대상 중 하나가 이제 한부모인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게 요즘에는 발굴 많이 하고 있습니다. (F2 - B3)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총 응답자는 225명이며, 여성이 85.8%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37.8세이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48.9%)이 가장 많았다.

가족 유형은 성별에서 보았듯이 모자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 된 이유는 이혼(67.6%)이 가장 많았다. 한부모가 된 기간은 평균 5.8년이며, 대전에서 7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3.3%였다.

2)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63.1%로 가장 많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자녀를 제외하고 모(5.8%)와 부(4.0%) 등이었다. 자녀는 평균 1.4명이며, 평균 연령은 9.4세이다. 자녀의 72.1%가 초등학생 이하로 나타났다. 자녀 외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여성이 57.6%로 남성보다 많고 평균 연령은 46.6세였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57.6%가 취업 중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유형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미취학 자녀의 경우 직접 돌봄이 50.6%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21.2%, 유치원 20.0%, 조부모 4.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자녀의 경우 기관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교실이 34.6%로 가장 많고, 학원과 본인이 직접 돌봄이 각각 20.0% 등의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방과 후 혼자 보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19.4%,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의 51.4%,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55.9%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전 연령대에 걸쳐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 이상의 자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한부모의 8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여가활동은 TV 시청, 외식, 쇼핑, 문화예술평람이 많았다.

3)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한부모의 평일 활동시간은 돌봄 시간 4.3시간, 가사 시간 2.8시간, 여가 시간 1.5시간이며, 주말은 돌봄 시간 6.7시간, 가사 시간 4.0시간, 여가 시간 2.7시간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80.0%),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78.7%), 집안일 부담 증가(75.5%), 경제적 어려움(64.0%)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집안일, 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프거나 긴급할 일이 생길 때,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이 얻고 싶을 때가 부모 및 친인척의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한부모가 주위에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되지 않은 한부모만이 가족 및 친척, 학교나 보육시설, 공공기관, 직장 및 일터, 동네나 이웃주민에게 한부모임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 이들에게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받는 비율이 28~43% 수준으로 나타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경제활동

한부모의 69.8%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와 단

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임시직/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한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28.8시간이며,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비율은 48.7%이었다. 취업한 한부모의 34.4%만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한부모의 69.4%가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부모들이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은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5.4%),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23.6%),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21.0%) 등이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한부모의 29.4%가 일자리를 구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8.2%는 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45.8%가 상용직 시간제를 원한다고 답하였으며, 상용직 전일제 29.2%, 일시직 시간제 16.7% 등의 순이었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한부모들의 주된 사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최근 3년 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26.2%에 불과하였으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69.5%는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25.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19.9%, 기타 12.7%,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9.0% 등의 순이었다.

5) 건강

한부모들은 평소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울장애유병률(우울증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일 경우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43.6%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율은 60.4%였으며,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는 비율은 33.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병의원에 못간 주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45.3%), 진료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32.0%)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32.4%가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6) 경제상태

한부모가족의 58.2%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며, 주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이 과반수(58.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 또한 24.6%로 적지 않은 수가 정부지원으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61.3%가 2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식료품비가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녀교육비 24.9%, 주거 및 관리비 13.8%, 대출금 상환 10.2% 등의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56.9%가 부채가 있으며, 부채 사유로는 주거유지비, 생활비 등이었다.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33.3%로 가장 많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 25.3%,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 19.1% 등의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이 높고 근로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주거 환경

한부모가족의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가 27.1%, 보증금 있는 월세가 19.6%, 자가와 전세가 각각 14.2% 등의 순이었다. 자가 비율이 낮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의 주택 형태는 아파트(4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38.7%), 단독주택(14.7%) 등이었다.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의 한부모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제공이 19.1%, 주거비 지원은 18.2%로 나타났다.

8) 양육비

한부모의 과반수가 비양육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있다는 20.0%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41.3%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14.7%에 불과하였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가 29.5%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의 69.7%가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8.9%에 불과하였다.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34.6%),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18.9%),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14.2%) 등이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55.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21.3%),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8.4%) 등이 있었다.

9) 복지서비스

한부모의 48.0%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하는 비율은 12.4%에 불과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29.6%, 3년 이상~5년 미만 25.0%, 1년 미만 21.3% 등의 순이었다. 더 이상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가구원의 취업이나 창업,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등 수입이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는 41.8%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27.7%),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19.6%) 등의 순이었다.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방법(1순위)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42.9%), 구청 또는 주민센터(25.7%), 한부모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11.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하는 데 한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66.7%),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8.9%),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7.6%) 등이었다.

한부모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23.1%), 한부모가족지원센터(16.0%), 사회복지관(12.4%), 모자가족복지시설(11.1%) 등이었으며,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28.0%,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22.0%, 공동생활이 불편해서가 22.0% 등이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1순위)으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37.6%,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19.2%,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16.0% 등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부모가 경험한 어려움(1순위)은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37.3%,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16.4%, 자녀의 교육 문제 12.4%, 근로시간 단축 및 해고 등 일자리 문제 7.1%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69.8%,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11.1%,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5.8%,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5.8% 등이었다.

2. 초점집단면접 결과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와 한부모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총 5회의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주제와 14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는 일과 돌봄을 양립해야 하는 어려움,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한부모는 급여별 기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 내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느끼는 한부모의 경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부모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주된 지출 항목으로 꼽았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는 공통으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언급하였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에서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자녀가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었다. 또한 많은 한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나,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여유가 없었다. 특히 수급 시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때 탈수급되는 문제와 자립심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한계를 언급하였는데,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얘기하며 양육비 이행 강제화와 선지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정서적 지원, 자녀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특성,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부모 문제와 욕구, 한부모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어려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종사자들은 한부모의 다양한 경험이 한부모 삶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했던 한부모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미혼모부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부 또는 모로서의 의지가 미흡하며, 부모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한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단절과 고립을 경험한다고 강조하였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한부모의 문제와 욕구는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경제적 취약성, 자녀 양육 관련 욕구, 심리·정서적 지원 욕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욕구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주요하게 바라보았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표적인 경우로 다문화 한부모, 장애가 있는 한부모, 다자녀 한부모, 고령의 미혼모 사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관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종사자들은 한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현실적 한계들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한부모들이 수급자가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빈곤에 머물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부모는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립보다는 수급을 선택하여 장기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부모의 기초생활보장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업매출 기준으로 생계급여나 주거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립을 어렵게 함을 언급하였다.

종사자들은 한부모의 욕구와 상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특성도 변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시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고 토로하였다. 생활시설은 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 이외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에 여력이 없으며, 시설이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성이 있어 한부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용시설은 한부모들의 단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게 됨에 따라 한부모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종사자는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한부모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2절 제언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정책과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한부모가족 정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돌봄에 공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중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책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본적인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돌봄 등의 보편적인 욕구 외에도 주거, 문화·여가 생활, 차별 해소,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가족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과 정서·심리적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자녀돌봄 지원을 넘어 가족유형별로 다양하게 드러난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균형 있게 반영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대전광역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의 탈빈곤·탈수급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 탈출 외에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과 정책을 설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실천적 지원방안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제도적 개선방안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개정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내용이 매우 미흡하며, 다양한 사업을 제공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전을 위해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계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직업 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전기 및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제7조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족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위원회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초점집단면접 결과에서 나왔듯이, 대전광역시 한부모정책의 중장기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위원회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한부모가족의 근로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 방안 마련

한부모가족의 근로활동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의 69.8%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자는

34.4%에 그치고 있으며, 임시/일용/특수고용 근로자의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의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즉 많은 한부모가 생활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수준의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들은 소득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수급권 또는 한부모 지원이 박탈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많은 저소득 한부모들이 수급 유지를 위해 기준선 안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보 부족, 일시적 기준 소득 초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끊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면접조사에서 수급권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불안정한 고용 하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수급 지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가 본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늘어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한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활동을 하고 싶으나, 수입이 늘어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제도의 문제로 근로활동과 지원 중단 간의 상충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한부모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급권 및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상향과 더불어 소득기준이 넘어도 소득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고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재판, 추심까지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14.7%에 불과하였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도 양육비 이행 강제화와 더불어 선지급제 도입

을 제기하였다. 특히 정기적으로든 부정기적으로든 양육비를 어렵게 확보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선지급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양육 책임을 저버린 미혼 부·모를 추적해 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시행하여,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를 보내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양육비 강제집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장수정, 2021).

우리나라도 양육비 지급 거부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하거나,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이것이 한부모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비 이행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실천적 지원방안

(1)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전달체계 마련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대전광역시에는 한부모 43,401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11,661가구이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총 6곳의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 있다. 생활시설 외에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건소, 주민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관들이 한부모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청소년, 고령, 장애, 다문화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한부모의 등장과 비혼 출산 한부모, 집단적인 공동생활보다는 개별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한부모들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 머물기보다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

인 행위자로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시설 중심의 한부모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오진방, 2021),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흩어져 있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기준변화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 역시 한부모가족들은 특수한 욕구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 경남과 같이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남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상담지원, 네트워크, 생활교육,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유형, 자녀의 연령, 욕구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기관 신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고, 기존의 서비스 기관과의 차별을 갖추지 못하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등 전달체계에서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족센터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한부모가족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정착금 확대

한부모가족은 탈빈곤 및 자립이 삶의 큰 목표이지만, 자녀가 어릴 때 일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기 쉽지 않고, 자녀가 성장해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 마련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일을 해도 저축할 여유가 없거나 빚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있는 가족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사업을 용도나 투자, 자산형성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가 아닌 주거유지비 43.0%, 생활비 28.9% 등 생계나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탈빈곤을 위해 자산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외에도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청년저축계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의 아동과 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많은 한부모가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부모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제도에 한부모 혹은 그 자녀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퇴소하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가장 많이 우려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이 생계비 문제이다. 소득보장은 주거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과제이다.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에서도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시는 현재 시설을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에서 자립정착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대전광역시의 주거비 등 물가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향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정착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정책 확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의 비율이 14.2%로 한부모의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빚을 지게 된 주된 원인으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 주택

구입 등 주거유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주거서비스에 대해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에 비해 이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순위 배정 시 우선권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할 자격부여 등 주택공급방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현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관련 지원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 한부모가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고 자녀의 수나 연령, 가구원 수 등에서 주거 욕구가 큰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대전형 행복주택 대전드림타운 ‘다가온’을 건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형 행복주택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의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보수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부모가족의 가사지원서비스 마련

한부모가족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하므로 소득빈곤, 시간빈곤의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이 강화됨에 따라 한부모는 일, 양육, 가사 등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므로,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사 활동 시간은 평일 평균 2.8시간, 주말 평균 4.0시간으로 주말에 가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말에는 가사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활동 시간도 증가하였다. 면접조사에서도 일과 자녀양육, 가사까지 혼자 하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하거나 놀아줄 시간이 없고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기 어렵고, 기존에 맺어오던 관계들마저 단절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한부모의 일·삶·생활 균형을 위해 가사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8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실제 한부모가족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선행연구(장명선·이영호, 2020)에서도 가사서비스 지원이 시간빈곤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주어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며, 집안의 환경이 청결하고 정리가 됨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고 한부모 자신의 역량강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또한 202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부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므로 이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향후 가사지원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생애주기적 관점의 부모교육 지원

한부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됨에 따라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모자가족의 경우 아들을 키울 때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파의 부재로 인해 남자에 대한 롤모델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반면 부자가족의 경우 사춘기가 되면서 신체적 변화가 올 때 성교육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였다.

원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학교 및 직장생활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기회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 연령, 발달 단계별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자녀 코칭법,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부모교육은 한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부모가족의 정신건강 지원

한부모가족의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등 건강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응답이 19.6%로 나타났다. 치료가 권장되는 우울정도(10점 이상)를 보인 응답자가 43.5%로 확인되어 한부모의 우울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혼자서 참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치료, 지역사회 전문가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면접조사에서도 한부모들은 일, 육아, 가사 등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들은 사별, 이혼, 별거 등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우울 상태에 놓여 있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자녀양육,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고용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강은애·조선아, 2020; 오성은·김한성, 2020). 이러한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상담·심리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한부모가족이 손쉽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치료, 건강관리·유지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역시 중요하며, 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 편견의 노출, 비양육 부·모의 부재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게 이들의 심리·정서적 역량 강화 역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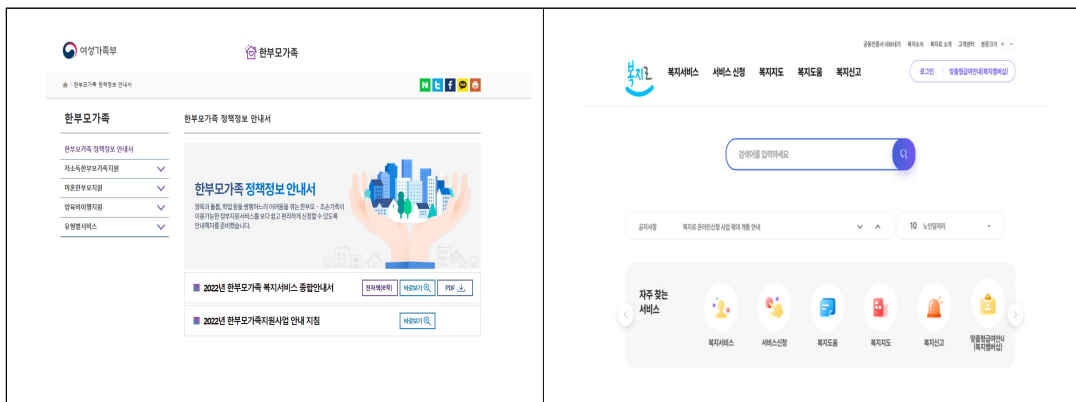
(7)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홍보 강화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

편히 검색할 수 있도록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복지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특성, 욕구에 따라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외에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 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홈페이지(<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그림 5-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홈페이지

더불어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정책 홍보 전략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반면,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거나 낮은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정보 취득에 익숙하지 않은 한 부모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책 내용의 설명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낮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구청 등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부모의 연령과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우편 발송,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는 등 가족들이 다시 한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한부모를 고려하여 병원, 보건소, 시설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8)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높은 수준의 편견과 낙인,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및 차별과도 싸워야 하는 한부모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주민센터나 구청이다. 한부모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없이 대해야 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찾아갔을 때 한 부모들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받는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가족 상황 노출 등 한부모가족임이 밝혀지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한부모가 지원받는 과정에 있어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민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만큼 한부모와의 접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이 여러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한부모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외에도 동네나 이웃주민, 직장 및 일터, 가족 및 친척, 학교나 보육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한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들까지 차별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 형태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9) 자조모임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은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한부모와의 연계가 중요한 지원체계가 된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한부모와의 만남이 심리·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 공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지하는 사람 중 가족, 친구를 제외하면 같은 한부모의

비용이 높으며, 도움을 받는 곳 역시 한부모단체 및 한부모 당사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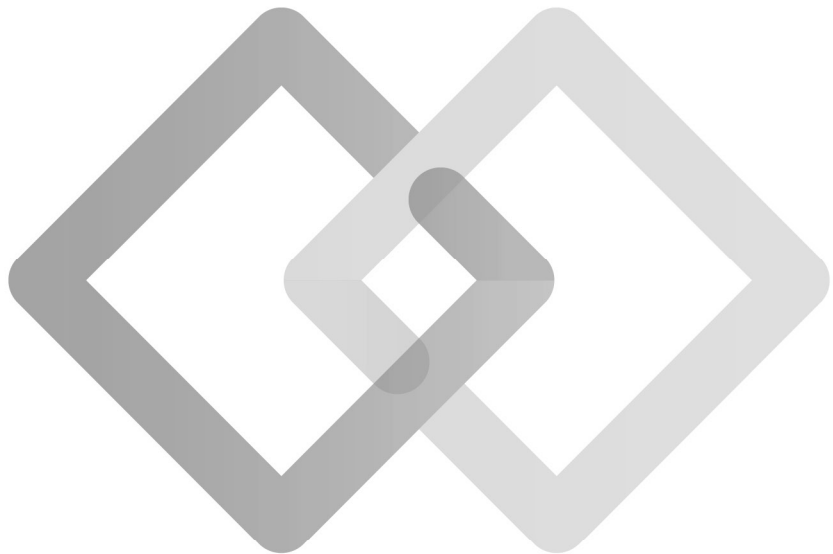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원체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에서 당사자의 역량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조모임은 당사자 모임이자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김영란 외, 2016; 김영정·김성희, 2017). 이에 자조모임이 일회성의 교육이나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한부모가족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임의 형식을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이 서로 폭넓게 교류하여 지속적인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연계, 가족캠프 등 다양한 모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공간은 정기적인 모임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 해준다. 공간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회원들이 찾아오고 모이게 되면서 자조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모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 지역사회 내 서비스 공급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소득보장, 자녀돌봄, 고용, 주거, 건강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복합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어느 한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문제와 정책욕구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한부모가족이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기관 간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및 자립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은애·조선아(2020).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명화·박민정·유은경(2021).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병인·이혜정·백경흔·장수정(2021). 비판사회정책, 72, 7-38.
-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영란·황정임·최진희·김은경(2016).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정·김성희(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지·송효진·정가원·배호중·최진희·성경·이상건·김영환·최현수·허용창(2019). 한부모가족지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혜정(2018). 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문은영·김보람(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박금식·홍미영·김혜정·박지영(2021).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배호중·정가원·박미진·선보영·성경(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12).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 손세희·한창근(2016).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과 부모 간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0(3), 117-141.
- 송이은(2018).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지원체계 마련 연구: 서울시 한부모 가족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수진·김현진·박종석·심혜선·장수정(2019). 인천 한부모 가족의 일·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202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오성은·김한성(2020). 사회적 배제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207-226.

오진방(2021). 시설중심 지원을 넘어선 한부모 정책이 필요한 이유. 월간 복지동향, 267, 27-31.

이선형·기나휘(202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장명선·이영호(2020).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젠더 법학, 12(2), 175-215.

장수정(2021).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1-34.

장수정·백경훈·김병인·이혜정·오진방(2021).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원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75-115.

정혜숙(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7(4), 251-277.

진혜민(2017). 가족내 돌봄노동 위기와 지원방안: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Morgan, D.L., & Krueger, R. A.(1998).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Sage.

Stewart, D. W., Shamdasani, P. N., & Rook, D. W.(2007).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17&datsClNo=1032&datsClCrit=WS>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s://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visionGoal.do>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s://www.kihf.or.kr/lay1/S1T338C550/contents.d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1610R&conn_path=I2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부록



[부록 1] 한부모 특성별 실태 및 욕구

1.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부표 1-1〉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		계	2명		3명		4명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42	63.1	57	25.3	26	11.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03	56.9	54	29.8	24	13.3
	부자가족	(32)	29	90.6	3	9.4	0	0.0
	청소년한부모	(12)	10	83.3	0	0.0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9	57.6	21	24.7	15	17.6
	초등학생	(88)	53	60.2	27	30.7	8	9.1
	중학생 이상	(52)	40	76.9	9	17.3	3	5.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41	70.7	9	15.5	8	13.8
	이혼	(152)	97	63.8	40	26.3	15	9.9
	사별	(15)	4	26.7	8	53.3	3	2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54	64.3	25	29.8	5	6.0
	임시직	(28)	17	60.7	9	32.1	2	7.1
	일용직	(11)	7	63.6	2	18.2	2	18.2
	자영업자	(10)	7	70.0	2	20.0	1	10.0
	기타 종사자	(24)	11	45.8	11	45.8	2	8.3
	무직	(68)	46	67.6	8	11.8	14	20.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8	68.3	8	19.5	5	12.2
	100~200만원 미만	(90)	58	64.4	24	26.7	8	8.9
	200~300만원 미만	(31)	16	51.6	9	29.0	6	19.4
	300~400만원 미만	(20)	10	50.0	9	45.0	1	5.0
	400만원 이상	(26)	20	76.9	5	19.2	1	3.8
	잘 모름	(17)	10	58.8	2	11.8	5	29.4

〈부표 1-2〉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본인이 직접		조부모		친인척		돌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베이비 시터		학습지, 방문과외 등		이웃, 친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85)	60	70.6	17	20.0	5	5.9	36	42.4	25	29.4	3	3.5	18	21.2	2	2.4	0	0.0	1	1.2	3	3.5
		(70)	51	72.9	14	20.0	3	4.3	30	42.9	22	31.4	3	4.3	11	15.7	2	2.9	0	0.0	1	1.4	3	4.3
		(4)	3	75.0	2	50.0	1	25.0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	6	54.5	1	9.1	1	9.1	5	45.5	2	18.2	0	0.0	7	63.6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8)	25	65.8	4	10.5	2	5.3	19	50.0	8	21.1	3	7.9	13	34.2	1	2.6	0	0.0	0	0.0	1	2.6
		(43)	31	72.1	13	30.2	3	7.0	16	37.2	14	32.6	0	0.0	5	11.6	1	2.3	0	0.0	1	2.3	2	4.7
		(4)	4	100.0	0	0.0	0	0.0	1	25.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	12	54.5	10	45.5	1	4.5	11	50.0	7	31.8	0	0.0	3	13.6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임시직	(11)	3	27.3	1	9.1	1	9.1	5	45.5	5	45.5	2	18.2	4	36.4	1	9.1	0	0.0	0	0.0	0	0.0
		(1)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3	75.0	1	25.0	0	0.0	2	50.0	0	0.0	0	0.0	2	50.0	0	0.0	0	0.0	0	0.0	0	0.0
		(9)	8	88.9	0	0.0	0	0.0	1	11.1	6	66.7	0	0.0	1	11.1	0	0.0	0	0.0	0	0.0	2	22.2
소득 수준	기타 종사자	(38)	33	86.8	5	13.2	3	7.9	17	44.7	6	15.8	1	2.6	8	21.1	1	2.6	0	0.0	1	2.6	1	2.6
		(15)	13	86.7	3	20.0	1	6.7	6	40.0	3	20.0	0	0.0	3	20.0	1	6.7	0	0.0	0	0.0	0	0.0
		(31)	23	74.2	4	12.9	1	3.2	12	38.7	12	38.7	2	6.5	6	19.4	0	0.0	0	0.0	1	3.2	1	3.2
		(11)	5	45.5	5	45.5	0	0.0	4	36.4	5	45.5	1	9.1	2	18.2	0	0.0	0	0.0	0	0.0	0	0.0
		(4)	4	100.0	1	25.0	1	25.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잘 모름	400만원 이상	(11)	7	63.6	3	27.3	1	9.1	6	54.5	3	27.3	0	0.0	1	9.1	1	9.1	0	0.0	0	0.0	0	0.0
		(13)	8	61.5	1	7.7	1	7.7	8	61.5	1	7.7	0	0.0	6	46.2	0	0.0	0	0.0	0	0.0	1	7.7

〈부표 1-3〉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1+2순위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시설/기관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용 부담 되어서		보낼 수 있는 시설/기관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3)	7	30.4	5	21.7	4	17.4	3	13.0	3	13.0	2	8.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	4	23.5	4	23.5	4	23.5	2	11.8	3	17.6	2	11.8
	부자가족	(2)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4)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0)	3	30.0	1	10.0	1	10.0	0	0.0	2	20.0	1	10.0
	이혼	(13)	4	30.8	4	30.8	3	23.1	3	23.1	1	7.7	1	7.7
	사별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	3	75.0	2	50.0	0	0.0	1	25.0	0	0.0	0	0.0
	임시직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2)	0	0.0	1	50.0	1	50.0	1	5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15)	4	26.7	2	13.3	2	13.3	1	6.7	3	20.0	1	6.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6)	1	16.7	2	33.3	1	16.7	0	0.0	1	16.7	0	0.0
	100~200만원 미만	(7)	3	42.9	2	28.6	2	28.6	1	14.3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2)	1	50.0	0	0.0	0	0.0	1	50.0	1	50.0	1	50.0
	400만원 이상	(2)	0	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잘 모름	(4)	1	25.0	0	0.0	0	0.0	0	0.0	1	25.0	0	0.0

〈부표 1-3〉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1+2순위 종합 (2))

단위 : 명, %

구분		계	보육시설 및 기관을 믿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 없어서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양육수당 받기 위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3)	2	8.7	1	4.3	3	13.0	5	21.7	1	4.3	10	43.5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	0	0.0	1	5.9	3	17.6	5	29.4	0	0.0	6	35.3
	부자가족	(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4)	2	50.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0)	2	20.0	0	0.0	0	0.0	2	20.0	1	10.0	7	70.0
	이혼	(13)	0	0.0	1	7.7	3	23.1	3	23.1	0	0.0	3	23.1
	사별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	0	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임시직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2)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무직	(15)	2	13.3	0	0.0	2	13.3	3	20.0	1	6.7	9	6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6)	1	16.7	0	0.0	1	16.7	2	33.3	0	0.0	3	50.0
	100~200만원 미만	(7)	1	14.3	0	0.0	1	14.3	0	0.0	0	0.0	4	57.1
	200~300만원 미만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2)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잘 모름	(4)	0	0.0	0	0.0	0	0.0	2	50.0	1	25.0	3	75.0

〈부표 1-4〉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4)	16	19.0	68	81.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69)	14	20.3	55	79.7
	부자가족	(4)	1	25.0	3	75.0
	청소년한부모	(11)	1	9.1	10	90.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7)	10	27.0	27	73.0
	이혼	(43)	6	14.0	37	86.0
	사별	(4)	0	0.0	4	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	5	22.7	17	77.3
	임시직	(11)	2	18.2	9	81.8
	일용직	(1)	1	100.0	0	0.0
	자영업자	(4)	1	25.0	3	75.0
	기타 종사자	(8)	1	12.5	7	87.5
	무직	(38)	6	15.8	32	84.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5)	4	26.7	11	73.3
	100~200만원 미만	(31)	3	9.7	28	90.3
	200~300만원 미만	(11)	3	27.3	8	72.7
	300~400만원 미만	(3)	1	33.3	2	66.7
	400만원 이상	(11)	3	27.3	8	72.7
	잘 모름	(13)	2	15.4	11	84.6

〈부표 1-5〉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계	4시간 미만		4시간~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3)	5	38.5	6	46.2	2	15.4	4.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2)	4	33.3	6	50.0	2	16.7	4.9
	부자가족	(1)	1	100.0	0	0.0	0	0.0	2.7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7)	3	42.9	2	28.6	2	28.6	5.0
	이혼	(6)	2	33.3	4	66.7	0	0.0	4.3
	사별	(0)	0	0.0	0	0.0	0	0.0	-
종사상 지위	상용직	(5)	2	40.0	2	40.0	1	20.0	4.6
	임시직	(2)	1	50.0	1	50.0	0	0.0	3.5
	일용직	(1)	1	100.0	0	0.0	0	0.0	2.0
	자영업자	(1)	1	100.0	0	0.0	0	0.0	2.0
	기타 종사자	(1)	0	0.0	1	100.0	0	0.0	5.0
	무직	(3)	0	0.0	2	66.7	1	33.3	7.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	1	33.3	2	66.7	0	0.0	4.3
	100~200만원 미만	(2)	1	50.0	0	0.0	1	50.0	5.0
	200~300만원 미만	(3)	2	66.7	0	0.0	1	33.3	3.7
	300~400만원 미만	(1)	1	100.0	0	0.0	0	0.0	2.0
	400만원 이상	(3)	0	0.0	3	100.0	0	0.0	6.0
	잘 모름	(1)	0	0.0	1	100.0	0	0.0	7.0

〈부표 1-6〉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보육 서비스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키즈폰 등 비상통신 수단지원		아이모니터링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4)	56	66.7	38	45.2	29	34.5	18	21.4	8	9.5	18	21.4	1	1.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44	63.8	31	44.9	27	39.1	14	20.3	7	10.1	15	21.7	0	0.0
	부자가족	3	75.0	3	75.0	0	0.0	2	5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9	81.8	4	36.4	2	18.2	2	18.2	1	9.1	3	27.3	1	9.1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5	67.6	14	37.8	9	24.3	10	27.0	5	13.5	10	27.0	1	2.7
	이혼	28	65.1	21	48.8	18	41.9	8	18.6	3	7.0	8	18.6	0	0.0
	사별	3	75.0	3	75.0	2	5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	50.0	13	59.1	9	40.9	5	22.7	0	0.0	6	27.3	0	0.0
	임시직	7	63.6	5	45.5	2	18.2	2	18.2	3	27.3	3	27.3	0	0.0
	일용직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자영업자	3	75.0	1	25.0	1	25.0	2	50.0	0	0.0	1	25.0	0	0.0
	기타 종사자	7	87.5	4	50.0	5	62.5	0	0.0	0	0.0	0	0.0	0	0.0
	무직	27	71.1	15	39.5	12	31.6	9	23.7	5	13.2	7	18.4	1	2.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3	86.7	5	33.3	4	26.7	3	20.0	1	6.7	4	26.7	0	0.0
	100~200만원 미만	19	61.3	15	48.4	13	41.9	4	12.9	4	12.9	6	19.4	1	3.2
	200~300만원 미만	5	45.5	8	72.7	4	36.4	1	9.1	1	9.1	3	27.3	0	0.0
	300~400만원 미만	2	66.7	1	33.3	0	0.0	2	66.7	1	33.3	0	0.0	0	0.0
	400만원 이상	7	63.6	5	45.5	5	45.5	3	27.3	1	9.1	1	9.1	0	0.0
잘 모름	(13)	10	76.9	4	30.8	3	23.1	5	38.5	0	0.0	4	30.8	0	0.0

〈부표 1-7〉 초등학교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돌봄 공동체		학원		조부모		친인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5)	47	44.8	23	21.9	0	0.0	45	42.9	13	12.4	5	4.8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5)	41	43.2	21	22.1	0	0.0	38	40.0	12	12.6	4	4.2
	부자가족	(9)	6	66.7	1	11.1	0	0.0	6	66.7	1	11.1	1	11.1
	청소년한부모	(1)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8	40.0	9	45.0	0	0.0	8	40.0	2	10.0	2	10.0
	이혼	(75)	36	48.0	12	16.0	0	0.0	33	44.0	10	13.3	3	4.0
	사별	(10)	3	30.0	2	20.0	0	0.0	4	40.0	1	1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	26	56.5	9	19.6	0	0.0	20	43.5	8	17.4	3	6.5
	임시직	(14)	3	21.4	4	28.6	0	0.0	6	42.9	1	7.1	0	0.0
	일용직	(7)	2	28.6	2	28.6	0	0.0	3	42.9	2	28.6	1	14.3
	자영업자	(4)	1	25.0	0	0.0	0	0.0	3	75.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2)	7	58.3	2	16.7	0	0.0	5	41.7	0	0.0	0	0.0
	무직	(22)	8	36.4	6	27.3	0	0.0	8	36.4	2	9.1	1	4.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4)	8	33.3	6	25.0	0	0.0	9	37.5	4	16.7	2	8.3
	100~200만원 미만	(37)	15	40.5	11	29.7	0	0.0	15	40.5	1	2.7	2	5.4
	200~300만원 미만	(15)	6	40.0	2	13.3	0	0.0	7	46.7	3	20.0	0	0.0
	300~400만원 미만	(14)	9	64.3	3	21.4	0	0.0	5	35.7	4	28.6	0	0.0
	400만원 이상	(11)	7	63.6	1	9.1	0	0.0	7	63.6	0	0.0	1	9.1
	잘 모름	(4)	2	50.0	0	0.0	0	0.0	2	50.0	1	25.0	0	0.0

〈부표 1-7〉 초등학교 자녀 돌봄 유형(1+2순위 종합 (2))

단위: 명, %

구분		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베이비 시터		학습지, 방문과외 등		본인이 직접 돌봄		이웃, 친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5)	8	7.6	0	0.0	11	10.5	43	41.0	4	3.8	8	7.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5)	8	8.4	0	0.0	11	11.6	41	43.2	3	3.2	8	8.4
	부자가족	(9)	0	0.0	0	0.0	0	0.0	2	22.2	1	11.1	0	0.0
	청소년한부모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2	10.0	0	0.0	0	0.0	9	45.0	0	0.0	0	0.0
	이혼	(75)	6	8.0	0	0.0	9	12.0	31	41.3	0	0.0	7	9.3
	사별	(10)	0	0.0	0	0.0	2	20.0	3	30.0	4	40.0	1	1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	5	10.9	0	0.0	5	10.9	12	26.1	1	2.2	3	6.5
	임시직	(14)	0	0.0	0	0.0	2	14.3	9	64.3	0	0.0	2	14.3
	일용직	(7)	0	0.0	0	0.0	1	14.3	1	14.3	1	14.3	1	14.3
	자영업자	(4)	1	25.0	0	0.0	1	25.0	2	5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2)	1	8.3	0	0.0	1	8.3	6	50.0	1	8.3	1	8.3
	무직	(22)	1	4.5	0	0.0	1	4.5	13	59.1	1	4.5	1	4.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4)	2	8.3	0	0.0	0	0.0	12	50.0	0	0.0	4	16.7
	100~200만원 미만	(37)	2	5.4	0	0.0	6	16.2	17	45.9	2	5.4	1	2.7
	200~300만원 미만	(15)	2	13.3	0	0.0	2	13.3	6	40.0	0	0.0	2	13.3
	300~400만원 미만	(14)	1	7.1	0	0.0	2	14.3	3	21.4	1	7.1	0	0.0
	400만원 이상	(11)	1	9.1	0	0.0	0	0.0	4	36.4	1	9.1	0	0.0
	잘 모름	(4)	0	0.0	0	0.0	1	25.0	1	25.0	0	0.0	1	25.0

〈부표 1-8〉 초등학교 자녀를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시설/기관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용 부담 되어서		보낼 수 있는 시설/기관 물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 없어서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1)	3	5.9	4	7.8	1	2.0	5	9.8	5	9.8	2	3.9	2	3.9	1	2.0	3	5.9	21	41.2	4	7.8
	(48)	3	6.3	4	8.3	1	2.1	4	8.3	5	10.4	2	4.2	2	4.2	1	2.1	3	6.3	19	39.6	4	8.3
	(3)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유형	(8)	0	0.0	1	12.5	0	0.0	3	37.5	0	0.0	0	0.0	0	0.0	0	0.0	0	0.0	2	25.0	2	25.0
	(37)	3	8.1	3	8.1	1	2.7	1	2.7	4	10.8	2	5.4	2	5.4	1	2.7	3	8.1	15	40.5	2	5.4
	(6)	0	0.0	0	0.0	0	0.0	1	16.7	1	16.7	0	0.0	0	0.0	0	0.0	0	0.0	4	66.7	0	0.0
	(18)	0	0.0	1	5.6	0	0.0	3	16.7	3	16.7	1	5.6	1	5.6	0	0.0	0	0.0	7	38.9	2	11.1
종사자 지위	(9)	0	0.0	0	0.0	0	0.0	1	11.1	0	0.0	1	11.1	0	0.0	0	0.0	1	11.1	5	55.6	1	11.1
	(5)	0	0.0	1	20.0	1	20.0	0	0.0	2	4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3)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4)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2	50.0	0	0.0
기타 종사자	(12)	1	8.3	2	16.7	0	0.0	1	8.3	0	0.0	0	0.0	1	8.3	0	0.0	2	16.7	4	33.3	1	8.3
	무직																						

구분	계	시설/기관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용 부담 되어서		보낼 수 있는 시설/기관 물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가까운 곳에 회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회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 없어서		교육은 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51)	3	5.9	4	7.8	1	2.0	5	9.8	5	9.8	2	3.9	2	3.9	1	2.0	3	5.9	21	41.2	4	7.8
	100만원 미만	(15)	0	0.0	2	13.3	1	6.7	1	6.7	0	0.0	1	6.7	2	13.3	0	0.0	2	13.3	5	33.3	1	6.7
	100~200만원 미만	(17)	1	5.9	2	11.8	0	0.0	2	11.8	2	11.8	1	5.9	0	0.0	1	5.9	0	0.0	7	41.2	1	5.9
	200~300만원 미만	(9)	0	0.0	0	0.0	0	0.0	1	11.1	2	22.2	0	0.0	0	0.0	0	0.0	1	11.1	3	33.3	2	22.2
	300~400만원 미만	(4)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3	75.0	0	0.0
	400만원 이상	(4)	2	5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잘 모름	(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부표 1-9〉 초등학교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5)	54	51.4	51	48.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5)	53	55.8	42	44.2
	부자가족	(9)	1	11.1	8	88.9
	청소년한부모	(1)	0	0.0	1	10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7	35.0	13	65.0
	이혼	(75)	41	54.7	34	45.3
	사별	(10)	6	60.0	4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	23	50.0	23	50.0
	임시직	(14)	8	57.1	6	42.9
	일용직	(7)	7	100.0	0	0.0
	자영업자	(4)	2	50.0	2	50.0
	기타 종사자	(12)	7	58.3	5	41.7
	무직	(22)	7	31.8	15	68.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4)	12	50.0	12	50.0
	100~200만원 미만	(37)	22	59.5	15	40.5
	200~300만원 미만	(15)	9	60.0	6	40.0
	300~400만원 미만	(14)	5	35.7	9	64.3
	400만원 이상	(11)	4	36.4	7	63.6
	잘 모름	(4)	2	50.0	2	50.0

〈부표 1-10〉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계	4시간 미만		4시간~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3)	30	56.6	20	37.7	3	5.7	3.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2)	29	55.8	20	38.5	3	5.8	3.3
	부자가족	(1)	1	100.0	0	0.0	0	0.0	3.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7)	6	85.7	1	14.3	0	0.0	2.4
	이혼	(40)	22	55.0	16	40.0	2	5.0	3.3
	사별	(6)	2	33.3	3	50.0	1	16.7	4.2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	14	63.6	7	31.8	1	4.5	3.2
	임시직	(8)	4	50.0	4	50.0	0	0.0	3.3
	일용직	(7)	3	42.9	3	42.9	1	14.3	3.9
	자영업자	(2)	0	0.0	2	100.0	0	0.0	4.0
	기타 종사자	(7)	5	71.4	2	28.6	0	0.0	2.9
	무직	(7)	4	57.1	2	28.6	1	14.3	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2)	7	58.3	3	25.0	2	16.7	3.4
	100~200만원 미만	(22)	11	50.0	10	45.5	1	4.5	3.5
	200~300만원 미만	(8)	4	50.0	4	50.0	0	0.0	3.4
	300~400만원 미만	(5)	4	80.0	1	20.0	0	0.0	2.6
	400만원 이상	(4)	4	100.0	0	0.0	0	0.0	2.3
	잘 모름	(2)	0	0.0	2	100.0	0	0.0	4.0

〈부표 1-11〉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라디오/ 음악청취, 잡지/책 독서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형제/ 친구들과 논다		가사 도움/ 가족 돌봄		휴식/수면		숙제 등 공부		학원/과외		청소년 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종교활동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54)	7	13.0	33	61.1	2	3.7	0	0.0	0	0.0	8	14.8	4	7.4	0	0.0	0	0.0	0	0.0
	모자기족	(53)	7	13.2	33	62.3	2	3.8	0	0.0	0	0.0	7	13.2	4	7.5	0	0.0	0	0.0	0	0.0
	부자기족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7)	0	0.0	5	71.4	1	14.3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이혼	(41)	7	17.1	24	58.5	1	2.4	0	0.0	0	0.0	6	14.6	3	7.3	0	0.0	0	0.0	0	0.0
	사별	(6)	0	0.0	4	66.7	0	0.0	0	0.0	0	0.0	1	16.7	1	16.7	0	0.0	0	0.0	0	0.0
		(23)	4	17.4	12	52.2	0	0.0	0	0.0	0	0.0	5	21.7	2	8.7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	1	12.5	5	62.5	0	0.0	0	0.0	0	0.0	1	12.5	1	12.5	0	0.0	0	0.0	0	0.0
	임시직	(7)	1	14.3	5	71.4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일용직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7)	0	0.0	3	42.9	2	28.6	0	0.0	0	0.0	2	28.6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7)	0	0.0	7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7)	0	0.0	7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구분	계	TV시청, 라디오/음악청취, 잡지/책 독서		게임/컴퓨터/스마트폰		형제/친구들과 논다		가사 도움/가족 돌봄		휴식/수면		숙제 등 공부		학원/과외		청소년 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아르바이트		봉사활동/종교활동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54)	7	13.0	33	61.1	2	3.7	0	0.0	0	0.0	8	14.8	4	7.4	0	0.0	0	0.0	0	0.0	0	0.0
	100만원 미만	(12)	1	8.3	11	9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22)	2	9.1	15	68.2	1	4.5	0	0.0	0	0.0	1	4.5	3	13.6	0	0.0	0	0.0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9)	4	44.4	4	44.4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5)	0	0.0	0	0.0	1	20.0	0	0.0	0	0.0	3	60.0	1	2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4)	0	0.0	1	25.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2)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1-12〉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	초등 돌봄교실 · 방과후 교실 활성화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자녀 등하교 서비스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아이 모니터링 위한 가정 CCTV 설치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비상연락망 서비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05)	66	62.9	19	18.1	23	21.9	27	25.7	11	10.5	13	12.4	38	36.2	8	7.6	3	2.9	1	1.0	1	1.0
	모자가족	(95)	63	66.3	14	14.7	19	20.0	24	25.3	11	11.6	11	11.6	36	37.9	8	8.4	2	2.1	1	1.1	1	1.1
	부자가족	(9)	3	33.3	4	44.4	4	44.4	3	33.3	0	0.0	0	0.0	1	11.1	2	22.2	0	0.0	1	11.1	0	0.0
	청소년한부모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9	45.0	4	20.0	5	25.0	7	35.0	2	10.0	5	25.0	6	30.0	2	10.0	0	0.0	0	0.0	0	0.0
	이혼	(75)	52	69.3	12	16.0	16	21.3	17	22.7	9	12.0	7	9.3	28	37.3	5	6.7	3	4.0	1	1.3	0	0.0
	사별	(10)	5	50.0	3	30.0	2	20.0	3	30.0	0	0.0	1	10.0	4	40.0	1	10.0	0	0.0	0	0.0	1	10.0
		(46)	30	65.2	12	26.1	13	28.3	11	23.9	5	10.9	4	8.7	12	26.1	4	8.7	0	0.0	1	2.2	0	0.0
종사상 지위	임시직	(14)	7	50.0	3	21.4	2	14.3	2	14.3	4	28.6	1	7.1	5	35.7	1	7.1	2	14.3	0	0.0	1	7.1
	일용직	(7)	5	71.4	1	14.3	1	14.3	2	28.6	0	0.0	1	14.3	4	57.1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4)	1	25.0	0	0.0	0	0.0	3	75.0	0	0.0	1	25.0	3	75.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2)	8	66.7	1	8.3	2	16.7	2	16.7	0	0.0	2	16.7	8	66.7	1	8.3	0	0.0	0	0.0	0	0.0
	무직	(22)	15	68.2	2	9.1	5	22.7	7	31.8	2	9.1	4	18.2	6	27.3	2	9.1	1	4.5	0	0.0	0	0.0

구분	계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		초등 돌봄교실 · 방과후 교실 활성화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자녀 등하교 서비스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아이 모니터링 위한 가정 CCTV 설치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비상연락망 서비스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105)	66	62.9	19	18.1	23	21.9	27	25.7	11	10.5	13	12.4	38	36.2	8	7.6	3	2.9	1	1.0	1	1.0
	100만원 미만	(24)	16	66.7	2	8.3	4	16.7	8	33.3	2	8.3	5	20.8	7	29.2	2	8.3	2	8.3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37)	25	67.6	8	21.6	7	18.9	6	16.2	5	13.5	5	13.5	17	45.9	0	0.0	1	2.7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5)	10	66.7	2	13.3	3	20.0	4	26.7	4	26.7	0	0.0	4	26.7	3	2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4)	10	71.4	3	21.4	4	28.6	2	14.3	0	0.0	1	7.1	5	35.7	2	14.3	0	0.0	1	7.1	0	0.0
	400만원 이상	(11)	3	27.3	4	36.4	5	45.5	4	36.4	0	0.0	2	18.2	4	36.4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4)	2	50.0	0	0.0	0	0.0	3	75.0	0	0.0	0	0.0	1	25.0	1	25.0	0	0.0	0	0.0	1	25.0

〈부표 1-13〉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 어려움 수준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자녀와 대화 어려움	자녀 학업 성적	양육비, 교육비 부담	진로지도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생활지도 어려움	이성, 성문제 어려움	양육, 교육 관련 정보부족
전체		(105)	2.6	2.2	2.7	3.6	3.1	2.9	1.9	1.4	2.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5)	2.6	2.2	2.7	3.7	3.1	3.0	1.9	1.4	2.8
	부자가족	(9)	2.2	1.7	2.4	2.6	2.3	2.3	2.0	1.7	2.0
	청소년한부모	(1)	2.0	1.0	3.0	3.0	3.0	3.0	1.0	1.0	1.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2.5	2.2	2.5	3.5	3.0	3.0	2.0	1.5	2.5
	이혼	(75)	2.6	2.2	2.8	3.6	3.2	3.0	1.8	1.5	2.8
	사별	(10)	2.5	1.5	2.6	3.4	2.7	2.6	2.2	1.3	2.7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	2.5	2.0	2.7	3.3	3.0	2.8	1.9	1.5	2.7
	임시직	(14)	2.8	2.5	2.9	3.8	3.4	3.3	2.1	1.8	2.7
	일용직	(7)	2.9	2.6	3.0	3.9	3.0	3.3	2.1	1.6	3.1
	자영업자	(4)	3.1	3.0	3.5	4.0	3.8	3.5	3.0	1.3	3.0
	기타 종사자	(12)	2.2	1.5	2.1	3.7	2.8	2.4	1.3	1.3	2.8
	무직	(22)	2.6	2.2	2.6	3.8	3.2	3.0	1.8	1.3	2.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4)	2.7	2.2	2.6	3.9	3.3	3.2	1.9	1.3	2.8
	100~200만원 미만	(37)	2.6	2.4	2.8	3.8	3.1	3.0	1.9	1.4	2.7
	200~300만원 미만	(15)	2.7	2.2	3.1	3.5	3.1	3.3	1.7	1.4	2.9
	300~400만원 미만	(14)	2.3	1.7	2.3	2.9	2.6	2.4	1.7	1.6	2.4
	400만원 이상	(11)	2.4	1.9	2.5	3.1	2.7	2.3	2.2	1.9	2.6
	잘 모름	(4)	2.9	2.0	3.0	3.8	3.8	3.3	2.3	1.3	3.8

주: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부표 1-14〉 한부모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수준: 초등학교

단위: 명, 점

구분		N	전체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나의 관계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자녀의 심리/ 정서적 상태
전체		(105)	3.3	3.1	3.4	3.3	3.2	3.2	3.3	3.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5)	3.3	3.0	3.4	3.3	3.2	3.1	3.3	2.9
	부자가족	(9)	3.5	3.6	3.7	3.7	3.3	3.4	3.2	3.4
	청소년한부모	(1)	5.4	.	5.0	5.0	5.0	5.0	5.0	4.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3.3	2.9	3.2	3.3	3.3	3.4	3.3	3.1
	이혼	(75)	3.3	3.2	3.4	3.4	3.2	3.1	3.3	3.0
	사별	(10)	3.4	2.9	3.7	3.3	3.1	3.2	3.4	2.8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	3.4	3.2	3.4	3.6	3.2	3.2	3.3	3.0
	임시직	(14)	3.0	2.8	3.2	3.0	3.0	2.9	3.0	2.8
	일용직	(7)	3.1	2.9	3.6	3.0	3.1	3.0	3.4	3.0
	자영업자	(4)	2.5	2.8	2.8	2.8	2.3	2.5	2.5	2.3
	기타 종사자	(12)	3.4	3.2	3.8	3.3	3.3	3.2	3.3	2.9
	무직	(22)	3.4	3.1	3.3	3.3	3.5	3.4	3.5	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4)	3.5	3.2	3.5	3.5	3.5	3.3	3.5	3.2
	100~200만원 미만	(37)	3.2	3.0	3.4	3.2	3.2	3.1	3.2	2.8
	200~300만원 미만	(15)	3.2	3.1	3.4	3.3	3.3	3.1	3.3	2.8
	300~400만원 미만	(14)	3.4	3.2	3.4	3.6	3.2	3.3	3.2	3.1
	400만원 이상	(11)	3.2	3.1	3.2	3.2	3.0	3.1	3.1	3.1
	잘 모름	(4)	3.0	3.0	3.5	2.8	2.5	3.0	3.3	3.0

주: 5점 척도(1=매우 나빠졌다, 2=나빠진 편이다, 3=변화가 없다, 4=좋아진 편이다, 5=매우 좋아졌다)

〈부표 1-15〉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1)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문화예술관람		컴퓨터 게임		쇼핑		외식		놀이공원 가기		산책		스포츠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04)	48	46.2	29	27.9	10	9.6	24	23.1	34	32.7	12	11.5	18	17.3	7	6.7
	모자가족	(94)	42	44.7	25	26.6	8	8.5	23	24.5	32	34.0	11	11.7	17	18.1	6	6.4
	부자가족	(9)	5	55.6	4	44.4	2	22.2	1	11.1	2	22.2	1	11.1	0	0.0	1	11.1
	청소년한부모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12	60.0	6	30.0	3	15.0	6	30.0	5	25.0	2	10.0	3	15.0	2	10.0
	이혼	(74)	32	43.2	20	27.0	7	9.5	18	24.3	25	33.8	8	10.8	14	18.9	5	6.8
	사별	(10)	4	40.0	3	30.0	0	0.0	0	0.0	4	40.0	2	20.0	1	10.0	0	0.0
	상용직	(45)	21	46.7	13	28.9	7	15.6	10	22.2	12	26.7	5	11.1	8	17.8	3	6.7
종사상 지위	임시직	(14)	5	35.7	5	35.7	2	14.3	2	14.3	4	28.6	1	7.1	2	14.3	1	7.1
	일용직	(7)	3	42.9	2	28.6	0	0.0	2	28.6	3	42.9	2	28.6	1	14.3	0	0.0
	자영업자	(4)	2	50.0	0	0.0	0	0.0	2	50.0	0	0.0	1	25.0	0	0.0	1	25.0
	기타 종사자	(12)	4	33.3	4	33.3	1	8.3	3	25.0	7	58.3	0	0.0	1	8.3	1	8.3
	무직	(22)	13	59.1	5	22.7	0	0.0	5	22.7	8	36.4	3	13.6	6	27.3	1	4.5
	100만원 미만	(24)	15	62.5	6	25.0	3	12.5	7	29.2	10	41.7	0	0.0	4	16.7	0	0.0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37)	10	27.0	13	35.1	1	2.7	7	18.9	12	32.4	9	24.3	10	27.0	3	8.1
	200~300만원 미만	(14)	6	42.9	4	28.6	0	0.0	2	14.3	6	42.9	0	0.0	2	14.3	2	14.3
	300~400만원 미만	(14)	9	64.3	3	21.4	1	7.1	6	42.9	3	21.4	2	14.3	2	14.3	0	0.0
	400만원 이상	(11)	7	63.6	3	27.3	5	45.5	1	9.1	2	18.2	0	0.0	0	0.0	1	9.1
	잘 모름	(4)	1	25.0	0	0.0	0	0.0	1	25.0	1	25.0	1	25.0	0	0.0	1	25.0

〈부표 1-15〉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2)

단위 : 명, %

구분	계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종교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4)	2	1.9	15	14.4	1	1.0	2	1.9	0	0.0	1	1.0	0	0.0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2	2.1	13	13.8	1	1.1	2	2.1	0	0.0	1	1.1	0	0.0
	부자기족	0	0.0	2	22.2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0	0.0	1	5.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혼	2	2.7	10	13.5	1	1.4	2	2.7	0	0.0	0	0.0	0	0.0
	사별	0	0.0	4	40.0	0	0.0	0	0.0	0	0.0	1	1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2.2	9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0	1	7.1	1	7.1	2	14.3	0	0.0	1	7.1	0	0.0
	일용직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0	2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1	4.5	1	4.5	0	0.0	0	0.0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	4.2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0	0.0	5	13.5	1	2.7	2	5.4	0	0.0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	7.1	4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0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0	2	18.2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4)	0	0.0	1	25.0	0	0.0	0	0.0	0	0.0	1	25.0	0	0.0

〈부표 1-16〉 향후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1)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문화예술관람		컴퓨터 게임		쇼핑		외식		놀이공원 가기		산책		스포츠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5)	3	2.9	51	48.6	2	1.9	18	17.1	23	21.9	36	34.3	4	3.8	21	20.0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3	3.2	48	50.5	2	2.1	16	16.8	19	20.0	30	31.6	3	3.2	18	18.9
	부자기족	0	0.0	2	22.2	0	0.0	2	22.2	4	44.4	5	55.6	1	11.1	3	33.3
	청소년한부모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0	0.0	5	25.0	0	0.0	3	15.0	5	25.0	10	50.0	0	0.0	6	30.0
	이혼	2	2.7	41	54.7	2	2.7	15	20.0	17	22.7	24	32.0	4	5.3	11	14.7
	사별	1	10.0	5	50.0	0	0.0	0	0.0	1	10.0	2	20.0	0	0.0	4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2.2	22	47.8	0	0.0	10	21.7	14	30.4	15	32.6	1	2.2	12	26.1
	임시직	1	7.1	7	50.0	1	7.1	3	21.4	2	14.3	1	7.1	0	0.0	4	28.6
	일용직	0	0.0	4	57.1	0	0.0	1	14.3	1	14.3	2	28.6	1	14.3	0	0.0
	자영업자	0	0.0	1	25.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0	6	50.0	0	0.0	0	0.0	3	25.0	8	66.7	1	8.3	1	8.3
	무직	1	4.5	11	50.0	1	4.5	4	18.2	3	13.6	7	31.8	1	4.5	4	18.2
	100만원 미만	0	0.0	10	41.7	0	0.0	5	20.8	5	20.8	11	45.8	2	8.3	3	12.5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1	2.7	21	56.8	2	5.4	4	10.8	5	13.5	10	27.0	1	2.7	9	24.3
	200~300만원 미만	0	0.0	9	60.0	0	0.0	3	20.0	6	40.0	2	13.3	0	0.0	3	20.0
	300~400만원 미만	1	7.1	6	42.9	0	0.0	3	21.4	3	21.4	7	50.0	1	7.1	3	21.4
	400만원 이상	0	0.0	5	45.5	0	0.0	3	27.3	4	36.4	6	54.5	0	0.0	2	18.2
	잘 모름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부표 1-16〉 향후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2)

단위 : 명, %

구분	계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종교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5)	9	8.6	31	29.5	0	0.0	7	6.7	2	1.9	0	0.0	0	0.0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9	9.5	30	31.6	0	0.0	7	7.4	2	2.1	0	0.0	0	0.0
	부자기족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	15.0	6	30.0	0	0.0	1	5.0	1	5.0	0	0.0	0	0.0
	이혼	6	8.0	20	26.7	0	0.0	4	5.3	1	1.3	0	0.0	0	0.0
	사별	0	0.0	5	50.0	0	0.0	2	2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2.2	12	26.1	0	0.0	1	2.2	1	2.2	0	0.0	0	0.0
	임시직	4	28.6	3	21.4	0	0.0	2	14.3	0	0.0	0	0.0	0	0.0
	일용직	1	14.3	3	42.9	0	0.0	1	14.3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	8.3	3	25.0	0	0.0	1	8.3	0	0.0	0	0.0	0	0.0
	무직	2	9.1	7	31.8	0	0.0	2	9.1	1	4.5	0	0.0	0	0.0
	100만원 미만	3	12.5	7	29.2	0	0.0	2	8.3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5	13.5	13	35.1	0	0.0	3	8.1	0	0.0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	6.7	5	33.3	0	0.0	0	0.0	1	6.7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0	3	21.4	0	0.0	1	7.1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0	0	0.0	0	0.0	1	9.1	0	0.0	0	0.0	0	0.0
	잘 모름	0	0.0	3	75.0	0	0.0	0	0.0	1	25.0	0	0.0	0	0.0

〈부표 1-17〉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38	55.9	30	44.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0)	35	70.0	15	30.0
	부자가족	(18)	3	16.7	15	83.3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4	80.0	1	20.0
	이혼	(59)	31	52.5	28	47.5
	사별	(4)	3	75.0	1	2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19	73.1	7	26.9
	임시직	(6)	4	66.7	2	33.3
	일용직	(6)	4	66.7	2	33.3
	자영업자	(3)	1	33.3	2	66.7
	기타 종사자	(9)	6	66.7	3	33.3
	무직	(18)	4	22.2	14	77.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6	66.7	3	33.3
	100~200만원 미만	(37)	16	43.2	21	56.8
	200~300만원 미만	(10)	9	90.0	1	10.0
	300~400만원 미만	(5)	2	40.0	3	60.0
	400만원 이상	(6)	4	66.7	2	33.3
	잘 모름	(1)	1	100.0	0	0.0

〈부표 1-18〉 중학생 이상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혼자 있는 평균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계	4시간 미만		4시간~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8)	15	39.5	20	52.6	3	7.9	3.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35)	15	42.9	17	48.6	3	8.6	3.6
	부자가족	(3)	0	0.0	3	100.0	0	0.0	4.7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	2	50.0	2	50.0	0	0.0	3.3
	이혼	(31)	12	38.7	17	54.8	2	6.5	3.7
	사별	(3)	1	33.3	1	33.3	1	33.3	4.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	8	42.1	11	57.9	0	0.0	3.5
	임시직	(4)	1	25.0	2	50.0	1	25.0	4.3
	일용직	(4)	1	25.0	2	50.0	1	25.0	4.3
	자영업자	(1)	1	100.0	0	0.0	0	0.0	3.0
	기타 종사자	(6)	2	33.3	3	50.0	1	16.7	4.0
	무직	(4)	2	50.0	2	50.0	0	0.0	3.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6)	1	16.7	3	50.0	2	33.3	4.8
	100~200만원 미만	(16)	7	43.8	8	50.0	1	6.3	3.6
	200~300만원 미만	(9)	4	44.4	5	55.6	0	0.0	3.2
	300~400만원 미만	(2)	1	50.0	1	50.0	0	0.0	3.5
	400만원 이상	(4)	1	25.0	3	75.0	0	0.0	4.0
	잘 모름	(1)	1	100.0	0	0.0	0	0.0	3.0

〈부표 1-19〉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1+2순위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음악청취, 잡지/책 독서		게임/컴퓨터		형제/ 친구들과 논다		가사도움/ 가족돌봄		휴식/수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14	20.6	31	45.6	15	22.1	7	10.3	19	27.9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0)	11	22.0	27	54.0	9	18.0	0	0.0	15	30.0
	부자가족	(18)	3	16.7	4	22.2	6	33.3	7	38.9	4	22.2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1	20.0	3	60.0	0	0.0	0	0.0	0	0.0
	이혼	(59)	11	18.6	28	47.5	14	23.7	6	10.2	17	28.8
	사별	(4)	2	50.0	0	0.0	1	25.0	1	25.0	2	5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6	23.1	14	53.8	1	3.8	0	0.0	9	34.6
	임시직	(6)	1	16.7	3	50.0	1	16.7	0	0.0	2	33.3
	일용직	(6)	1	16.7	3	50.0	3	50.0	0	0.0	1	16.7
	자영업자	(3)	2	66.7	0	0.0	0	0.0	0	0.0	2	66.7
	기타 종사자	(9)	1	11.1	6	66.7	4	44.4	0	0.0	2	22.2
	무직	(18)	3	16.7	5	27.8	6	33.3	7	38.9	3	16.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3	33.3	6	66.7	3	33.3	0	0.0	1	11.1
	100~200만원 미만	(37)	6	16.2	14	37.8	11	29.7	7	18.9	11	29.7
	200~300만원 미만	(10)	2	20.0	3	30.0	1	10.0	0	0.0	4	40.0
	300~400만원 미만	(5)	2	40.0	3	6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6)	1	16.7	4	66.7	0	0.0	0	0.0	3	50.0
	잘 모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부표 1-19〉 중학생 이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 일(1+2순위 종합 (2))

단위 : 명, %

구분		계	숙제 등 공부		학원/과외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프로그램 참여		아르바이트		동아리, 봉사활동, 종교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22	32.4	24	35.3	1	1.5	0	0.0	1	1.5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0)	12	24.0	22	44.0	1	2.0	0	0.0	1	2.0
	부자가족	(18)	10	55.6	2	11.1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3	60.0	2	40.0	1	20.0	0	0.0	0	0.0
	이혼	(59)	19	32.2	20	33.9	0	0.0	0	0.0	1	1.7
	사별	(4)	0	0.0	2	5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6	23.1	14	53.8	0	0.0	0	0.0	1	3.8
	임시직	(6)	1	16.7	2	33.3	1	16.7	0	0.0	0	0.0
	일용직	(6)	1	16.7	3	5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3)	1	33.3	1	33.3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9)	2	22.2	3	33.3	0	0.0	0	0.0	0	0.0
	무직	(18)	11	61.1	1	5.6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2	22.2	3	33.3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37)	14	37.8	9	24.3	1	2.7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0)	2	20.0	6	60.0	0	0.0	0	0.0	1	10.0
	300~400만원 미만	(5)	2	40.0	3	6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6)	2	33.3	2	33.3	0	0.0	0	0.0	0	0.0
	잘 모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부표 1-20〉 중학생 자녀의 양육 어려움 수준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자녀와 대화 어려움	자녀 학업 성적	양육비, 교육비 부담	진로지도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생활지도 어려움	이성, 성문제 어려움	양육, 교육 관련 정보 부족
전체		(68)	2.7	2.3	2.8	3.5	3.3	2.9	2.0	1.8	2.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0)	2.6	2.2	2.9	3.7	3.3	2.8	1.7	1.5	2.8
	부자가족	(18)	2.9	2.4	2.6	3.0	3.5	3.3	2.7	2.7	2.7
	청소년한부모	(0)	.	.	.	.	.	.	.	.	.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2.9	2.4	3.2	4.0	3.6	3.2	2.2	2.0	2.8
	이혼	(59)	2.7	2.3	2.7	3.5	3.3	2.9	2.0	1.8	2.7
	사별	(4)	2.7	2.3	3.3	3.5	3.8	3.0	1.5	1.3	3.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2.6	2.3	2.9	3.6	3.4	2.8	1.6	1.4	2.8
	임시직	(6)	2.4	2.0	2.7	3.8	3.0	2.7	1.5	1.2	2.7
	일용직	(6)	2.8	3.0	2.8	4.0	3.2	3.2	1.7	1.8	3.0
	자영업자	(3)	2.3	1.7	3.0	3.0	3.3	2.7	1.7	1.3	2.0
	기타 종사자	(9)	2.3	1.9	2.3	3.7	3.0	2.2	1.6	1.1	2.3
	무직	(18)	3.1	2.4	2.9	3.2	3.6	3.5	3.1	2.9	2.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2.8	2.4	3.0	3.8	3.2	2.9	2.2	2.0	2.8
	100~200만원 미만	(37)	2.7	2.3	2.8	3.4	3.3	3.0	2.2	2.0	2.7
	200~300만원 미만	(10)	2.6	2.2	2.8	3.7	3.4	3.0	1.7	1.4	2.9
	300~400만원 미만	(5)	2.5	2.2	2.8	3.4	3.4	3.0	1.4	1.2	2.8
	400만원 이상	(6)	2.2	1.7	2.3	3.5	3.3	2.0	1.2	1.2	2.3
	잘 모름	(1)	3.9	4.0	4.0	3.0	4.0	4.0	4.0	4.0	4.0

주: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부표 1-21〉 한부모 된 이후 자녀의 변화 수준: 중학생

단위: 명, 점

구분		N	전체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나의 관계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자녀의 심리/ 정서적 상태
전체		(68)	3.4	3.1	3.5	3.3	3.5	3.3	3.5	3.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0)	3.3	3.1	3.4	3.1	3.3	3.1	3.3	3.1
	부자가족	(18)	3.6	2.9	3.8	3.8	3.8	4.0	3.9	3.2
	청소년한부모	(0)	.	.	.	.	.	.	.	.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3.7	3.3	3.6	3.0	3.6	3.4	3.4	3.6
	이혼	(59)	3.3	3.1	3.5	3.3	3.5	3.3	3.5	3.0
	사별	(4)	3.2	2.5	3.3	3.0	3.5	3.3	3.5	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3.1	3.0	3.4	3.1	3.1	3.0	3.2	2.8
	임시직	(6)	3.2	3.0	3.2	2.8	3.3	3.0	3.3	2.8
	일용직	(6)	3.6	3.7	3.7	3.2	4.0	3.7	3.5	3.5
	자영업자	(3)	3.8	3.0	4.0	3.3	4.0	4.3	4.0	3.7
	기타 종사자	(9)	3.4	3.2	3.7	3.3	3.6	3.3	3.7	3.3
	무직	(18)	3.5	2.9	3.6	3.7	3.7	3.7	3.6	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3.5	2.7	3.6	3.0	3.8	3.3	3.4	3.4
	100~200만원 미만	(37)	3.5	3.2	3.7	3.5	3.6	3.6	3.6	3.2
	200~300만원 미만	(10)	2.9	3.1	3.0	2.7	2.9	2.7	3.0	2.8
	300~400만원 미만	(5)	2.9	3.0	3.0	3.2	3.0	2.8	3.0	2.6
	400만원 이상	(6)	3.5	2.8	4.0	3.3	3.5	3.7	3.7	3.2
	잘 모름	(1)	2.4	3.0	3.0	3.0	2.0	2.0	2.0	2.0

주: 5점 척도(1=매우 나빠졌다, 2=나빠진 편이다, 3=변화가 없다, 4=좋아진 편이다, 5=매우 좋아졌다)

〈부표 1-22〉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문화예술훈람		컴퓨터 게임		쇼핑		외식		산책		스포츠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21	30.9	18	26.5	4	5.9	25	36.8	18	26.5	5	7.4	7	10.3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19	38.0	16	32.0	2	4.0	22	44.0	15	30.0	4	8.0	2	4.0
	부자기족	2	11.1	2	11.1	2	11.1	3	16.7	3	16.7	1	5.6	5	27.8
	청소년한부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	60.0	2	40.0	1	20.0	2	40.0	0	0.0	1	20.0	0	0.0
	이혼	17	28.8	16	27.1	3	5.1	22	37.3	17	28.8	7	11.9	4	6.8
	사별	1	25.0	0	0.0	0	0.0	1	25.0	1	25.0	0	0.0	2	5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9	34.6	10	38.5	1	3.8	13	50.0	8	30.8	3	11.5	0	0.0
	임시직	1	16.7	2	33.3	1	16.7	2	33.3	3	50.0	0	0.0	1	16.7
	일용직	1	16.7	1	16.7	0	0.0	2	33.3	2	33.3	1	16.7	0	0.0
	자영업자	2	66.7	2	66.7	0	0.0	2	66.7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5	55.6	2	22.2	0	0.0	3	33.3	2	22.2	0	0.0	1	11.1
	무직	3	16.7	1	5.6	2	11.1	3	16.7	3	16.7	2	11.1	5	27.8
	100만원 미만	4	44.4	2	22.2	1	11.1	4	44.4	2	22.2	0	0.0	1	11.1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8	21.6	9	24.3	1	2.7	10	27.0	8	21.6	4	10.8	5	13.5
	200~300만원 미만	5	50.0	2	20.0	1	10.0	6	60.0	2	20.0	1	1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20.0	3	60.0	0	0.0	3	60.0	2	4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3	50.0	2	33.3	1	16.7	2	33.3	3	50.0	1	16.7	0	0.0
	잘 모름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부표 1~22〉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종합 (2)

단위 : 명, %

구분	계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종교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5	7.4	11	16.2	6	8.8	1	1.5	1	1.5	0	0.0	1	1.5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50)	2	4.0	7	14.0	3	6.0	0	0.0	0	0.0	0	1	2.0
	부자기족	(18)	3	16.7	4	22.2	3	16.7	1	5.6	1	5.6	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	0.0
	이혼	(59)	5	8.5	9	15.3	5	8.5	0	0.0	1	1.7	0	1	1.7
	사별	(4)	0	0.0	1	25.0	1	25.0	1	25.0	0	0.0	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1	3.8	2	7.7	1	3.8	0	0.0	0	0.0	0	1	3.8
	임시직	(6)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	0.0
	일용직	(6)	1	16.7	2	33.3	0	0.0	0	0.0	0	0.0	0	0	0.0
	자영업자	(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기타 종사자	(9)	1	11.1	2	22.2	1	11.1	0	0.0	0	0.0	0	0	0.0
	무직	(18)	2	11.1	5	27.8	3	16.7	1	5.6	1	5.6	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0	0.0	2	22.2	1	11.1	0	0.0	0	0.0	0	0	0.0
	100~200만원 미만	(37)	4	10.8	7	18.9	5	13.5	1	2.7	1	2.7	0	1	2.7
	200~300만원 미만	(10)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	0.0
	300~400만원 미만	(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400만원 이상	(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잘 모름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1-23〉 향후 중학생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TV시청		문화예술관람		컴퓨터 게임		쇼핑		외식		산책		스포츠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1	1.5	31	45.6	2	2.9	16	23.5	18	26.5	6	8.8	18	26.5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	2.0	30	60.0	0	0.0	13	26.0	13	26.0	7	14.0	4	8.0
	부자가족	0	0.0	1	5.6	2	11.1	3	16.7	5	27.8	3	16.7	2	11.1
	청소년한부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0	0.0	4	80.0	0	0.0	1	20.0	1	20.0	1	20.0	1	20.0
	이혼	1	1.7	24	40.7	2	3.4	14	23.7	17	28.8	8	13.6	5	8.5
	사별	0	0.0	3	75.0	0	0.0	1	25.0	0	0.0	1	25.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3.8	14	53.8	1	3.8	5	19.2	4	15.4	5	19.2	1	3.8
	임시직	0	0.0	5	83.3	0	0.0	1	16.7	2	33.3	1	16.7	1	16.7
	일용직	0	0.0	3	50.0	0	0.0	3	50.0	3	50.0	0	0.0	1	16.7
	자영업자	0	0.0	1	33.3	1	33.3	1	33.3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0	4	44.4	0	0.0	2	22.2	3	33.3	1	11.1	0	0.0
	무직	0	0.0	4	22.2	0	0.0	4	22.2	6	33.3	3	16.7	3	16.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0	0.0	7	77.8	0	0.0	2	22.2	1	11.1	1	11.1	1	11.1
	100~200만원 미만	0	0.0	11	29.7	1	2.7	9	24.3	12	32.4	5	13.5	4	10.8
	200~300만원 미만	0	0.0	7	70.0	0	0.0	3	30.0	3	30.0	3	3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20.0	3	60.0	0	0.0	2	40.0	1	2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0	2	33.3	1	16.7	0	0.0	1	16.7	1	16.7	1	16.7
잘 모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1~23〉 향후 중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 종합 (2)

단위 : 명, %

구분	계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종교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68)	8	11.8	15	22.1	1	1.5	3	4.4	5	7.4	0	0.0	0	0.0
	모자가족	(50)	4	8.0	13	26.0	0	0.0	1	2.0	5	10.0	0	0.0	0	0.0
	부자가족	(18)	4	22.2	2	11.1	1	5.6	2	11.1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혼	(59)	7	11.9	13	22.0	1	1.7	3	5.1	5	8.5	0	0.0	0	0.0
	사별	(4)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	2	7.7	8	30.8	0	0.0	0	0.0	2	7.7	0	0.0	0	0.0
	임시직	(6)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6)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3)	0	0.0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기타 종사자	(9)	1	11.1	3	33.3	0	0.0	1	11.1	2	22.2	0	0.0	0	0.0
소득 수준	무직	(18)	4	22.2	2	11.1	1	5.6	2	11.1	0	0.0	0	0.0	0	0.0
	100만원 미만	(9)	1	11.1	2	22.2	0	0.0	0	0.0	2	22.2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37)	7	18.9	8	21.6	1	2.7	2	5.4	2	5.4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0)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5)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6)	0	0.0	1	16.7	0	0.0	1	16.7	1	16.7	0	0.0	0	0.0
잘 모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생활세계 및 사회적 관계

〈부표 2-1〉 평일 활동 시간: 가사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3)	41	19.2	119	55.9	53	24.9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4)	28	16.1	103	59.2	43	24.7
	부자가족	(28)	10	35.7	13	46.4	5	17.9
	청소년한부모	(11)	3	27.3	3	27.3	5	45.5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0)	17	21.3	38	47.5	25	31.3
	초등학생	(85)	13	15.3	49	57.6	23	27.1
	중학생 이상	(48)	11	22.9	32	66.7	5	10.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6)	8	14.3	31	55.4	17	30.4
	이혼	(145)	31	21.4	80	55.2	34	23.4
	사별	(12)	2	16.7	8	66.7	2	1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2)	16	19.5	54	65.9	12	14.6
	임시직	(26)	6	23.1	14	53.8	6	23.1
	일용직	(11)	1	9.1	7	63.6	3	27.3
	자영업자	(9)	4	44.4	3	33.3	2	22.2
	기타 종사자	(24)	5	20.8	15	62.5	4	16.7
	무직	(61)	9	14.8	26	42.6	26	42.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0)	5	12.5	15	37.5	20	50.0
	100~200만원 미만	(83)	17	20.5	48	57.8	18	21.7
	200~300만원 미만	(28)	9	32.1	15	53.6	4	14.3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15	75.0	3	15.0
	400만원 이상	(26)	6	23.1	15	57.7	5	19.2
	잘 모름	(16)	2	12.5	11	68.8	3	18.8

〈부표 2-2〉 주말 활동 시간: 가사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미만		4시간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7)	18	10.2	58	32.8	68	38.4	33	18.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43)	14	9.8	49	34.3	52	36.4	28	19.6
	부자가족	(28)	3	10.7	7	25.0	14	50.0	4	14.3
	청소년한부모	(6)	1	16.7	2	33.3	2	33.3	1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9)	5	8.5	19	32.2	23	39.0	12	20.3
	초등학생	(71)	6	8.5	22	31.0	28	39.4	15	21.1
	중학생 이상	(47)	7	14.9	17	36.2	17	36.2	6	12.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3)	6	14.0	11	25.6	21	48.8	5	11.6
	이혼	(125)	10	8.0	45	36.0	42	33.6	28	22.4
	사별	(9)	2	22.2	2	22.2	5	55.6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72)	5	6.9	27	37.5	28	38.9	12	16.7
	임시직	(21)	0	0.0	4	19.0	12	57.1	5	23.8
	일용직	(9)	3	33.3	2	22.2	4	44.4	0	0.0
	자영업자	(6)	2	33.3	1	16.7	3	50.0	0	0.0
	기타 종사자	(20)	1	5.0	8	40.0	5	25.0	6	30.0
	무직	(49)	7	14.3	16	32.7	16	32.7	10	20.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9)	6	20.7	6	20.7	8	27.6	9	31.0
	100~200만원 미만	(67)	5	7.5	19	28.4	30	44.8	13	19.4
	200~300만원 미만	(26)	3	11.5	12	46.2	7	26.9	4	15.4
	300~400만원 미만	(19)	2	10.5	6	31.6	9	47.4	2	10.5
	400만원 이상	(21)	1	4.8	9	42.9	7	33.3	4	19.0
	잘 모름	(15)	1	6.7	6	40.0	7	46.7	1	6.7

〈부표 2-3〉 평일 활동 시간: 돌봄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미만		4시간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2)	40	18.9	59	27.8	62	29.2	51	24.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4)	29	16.7	51	29.3	52	29.9	42	24.1
	부자가족	(28)	9	32.1	8	28.6	6	21.4	5	17.9
	청소년한부모	(10)	2	20.0	0	0.0	4	40.0	4	4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79)	10	12.7	15	19.0	25	31.6	29	36.7
	초등학생	(85)	11	12.9	29	34.1	25	29.4	20	23.5
	중학생 이상	(48)	19	39.6	15	31.3	12	25.0	2	4.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5)	8	14.5	12	21.8	18	32.7	17	30.9
	이혼	(145)	29	20.0	43	29.7	41	28.3	32	22.1
	사별	(12)	3	25.0	4	33.3	3	25.0	2	1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2)	22	26.8	18	22.0	27	32.9	15	18.3
	임시직	(26)	6	23.1	11	42.3	5	19.2	4	15.4
	일용직	(11)	1	9.1	6	54.5	3	27.3	1	9.1
	자영업자	(9)	2	22.2	5	55.6	0	0.0	2	22.2
	기타 종사자	(24)	1	4.2	6	25.0	11	45.8	6	25.0
	무직	(60)	8	13.3	13	21.7	16	26.7	23	38.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0)	1	2.5	10	25.0	14	35.0	15	37.5
	100~200만원 미만	(82)	20	24.4	26	31.7	21	25.6	15	18.3
	200~300만원 미만	(28)	7	25.0	9	32.1	9	32.1	3	10.7
	300~400만원 미만	(20)	4	20.0	3	15.0	8	40.0	5	25.0
	400만원 이상	(26)	6	23.1	9	34.6	4	15.4	7	26.9
	잘 모름	(16)	2	12.5	2	12.5	6	37.5	6	37.5

〈부표 2-4〉 주말 활동 시간: 돌봄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4시간 미만		4시간 ~ 8시간 미만		8시간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6)	19	10.8	37	21.0	26	14.8	94	53.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43)	16	11.2	27	18.9	19	13.3	81	56.6
	부자가족	(28)	1	3.6	10	35.7	6	21.4	11	39.3
	청소년한부모	(5)	2	40.0	0	0.0	1	20.0	2	4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8)	5	8.6	3	5.2	10	17.2	40	69.0
	초등학생	(71)	6	8.5	15	21.1	11	15.5	39	54.9
	중학생 이상	(47)	8	17.0	19	40.4	5	10.6	15	31.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3)	6	14.0	7	16.3	9	20.9	21	48.8
	이혼	(124)	11	8.9	26	21.0	16	12.9	71	57.3
	사별	(9)	2	22.2	4	44.4	1	11.1	2	22.2
종사상 지위	상용직	(70)	6	8.6	14	20.0	13	18.6	37	52.9
	임시직	(22)	3	13.6	4	18.2	4	18.2	11	50.0
	일용직	(9)	2	22.2	4	44.4	0	0.0	3	33.3
	자영업자	(6)	1	16.7	2	33.3	0	0.0	3	50.0
	기타 종사자	(20)	0	0.0	1	5.0	1	5.0	18	90.0
	무직	(49)	7	14.3	12	24.5	8	16.3	22	44.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0)	4	13.3	7	23.3	3	10.0	16	53.3
	100~200만원 미만	(65)	9	13.8	18	27.7	10	15.4	28	43.1
	200~300만원 미만	(26)	3	11.5	7	26.9	1	3.8	15	57.7
	300~400만원 미만	(19)	1	5.3	2	10.5	4	21.1	12	63.2
	400만원 이상	(22)	1	4.5	3	13.6	5	22.7	13	59.1
	잘 모름	(14)	1	7.1	0	0.0	3	21.4	10	71.4

〈부표 2-5〉 평일 활동 시간: 여가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3)	115	54.0	82	38.5	16	7.5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4)	99	56.9	67	38.5	8	4.6
	부자가족	(28)	11	39.3	12	42.9	5	17.9
	청소년한부모	(11)	5	45.5	3	27.3	3	27.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0)	52	65.0	24	30.0	4	5.0
	초등학생	(85)	44	51.8	36	42.4	5	5.9
	중학생 이상	(48)	19	39.6	22	45.8	7	14.6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6)	32	57.1	18	32.1	6	10.7
	이혼	(145)	78	53.8	62	42.8	5	3.4
	사별	(12)	5	41.7	2	16.7	5	41.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2)	43	52.4	35	42.7	4	4.9
	임시직	(26)	14	53.8	10	38.5	2	7.7
	일용직	(11)	5	45.5	5	45.5	1	9.1
	자영업자	(9)	6	66.7	3	33.3	0	0.0
	기타 종사자	(24)	15	62.5	8	33.3	1	4.2
	무직	(61)	32	52.5	21	34.4	8	1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0)	20	50.0	16	40.0	4	10.0
	100~200만원 미만	(83)	48	57.8	27	32.5	8	9.6
	200~300만원 미만	(28)	19	67.9	8	28.6	1	3.6
	300~400만원 미만	(20)	9	45.0	10	50.0	1	5.0
	400만원 이상	(26)	11	42.3	14	53.8	1	3.8
	잘 모름	(16)	8	50.0	7	43.8	1	6.3

〈부표 2-6〉 주말 활동 시간: 여가 시간

단위: 명, %

구분		계	2시간 미만		2시간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8)	54	30.3	72	40.4	52	29.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43)	43	30.1	63	44.1	37	25.9
	부자가족	(28)	6	21.4	8	28.6	14	50.0
	청소년한부모	(7)	5	71.4	1	14.3	1	14.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0)	32	53.3	19	31.7	9	15.0
	초등학생	(71)	12	16.9	37	52.1	22	31.0
	중학생 이상	(47)	10	21.3	16	34.0	21	44.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4)	21	47.7	11	25.0	12	27.3
	이혼	(125)	31	24.8	59	47.2	35	28.0
	사별	(9)	2	22.2	2	22.2	5	5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72)	16	22.2	27	37.5	29	40.3
	임시직	(21)	4	19.0	9	42.9	8	38.1
	일용직	(9)	5	55.6	2	22.2	2	22.2
	자영업자	(6)	2	33.3	3	50.0	1	16.7
	기타 종사자	(20)	4	20.0	14	70.0	2	10.0
	무직	(50)	23	46.0	17	34.0	10	2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0)	12	40.0	14	46.7	4	13.3
	100~200만원 미만	(67)	19	28.4	24	35.8	24	35.8
	200~300만원 미만	(26)	7	26.9	12	46.2	7	26.9
	300~400만원 미만	(19)	4	21.1	8	42.1	7	36.8
	400만원 이상	(21)	4	19.0	8	38.1	9	42.9
	잘 모름	(15)	8	53.3	6	40.0	1	6.7

〈부표 2-7〉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집안일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0	44.4	125	55.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76	42.0	105	58.0
	부자가족	(32)	19	59.4	13	40.6
	청소년한부모	(12)	5	41.7	7	58.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3	50.6	42	49.4
	초등학생	(88)	36	40.9	52	59.1
	중학생 이상	(52)	21	40.4	31	59.6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4	41.4	34	58.6
	이혼	(152)	71	46.7	81	53.3
	사별	(15)	5	33.3	10	6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7	44.0	47	56.0
	임시직	(28)	11	39.3	17	60.7
	일용직	(11)	7	63.6	4	36.4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0	41.7	14	58.3
	무직	(68)	31	45.6	37	5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5	36.6	26	63.4
	100~200만원 미만	(90)	37	41.1	53	58.9
	200~300만원 미만	(31)	13	41.9	18	58.1
	300~400만원 미만	(20)	9	45.0	11	55.0
	400만원 이상	(26)	17	65.4	9	34.6
	잘 모름	(17)	9	52.9	8	47.1

〈부표 2-8〉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돈이 필요할 때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8	48.0	117	52.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84	46.4	97	53.6
	부자가족	(32)	16	50.0	16	50.0
	청소년한부모	(12)	8	66.7	4	3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4	51.8	41	48.2
	초등학생	(88)	41	46.6	47	53.4
	중학생 이상	(52)	23	44.2	29	55.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7	46.6	31	53.4
	이혼	(152)	75	49.3	77	50.7
	사별	(15)	6	40.0	9	6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44	52.4	40	47.6
	임시직	(28)	14	50.0	14	50.0
	일용직	(11)	5	45.5	6	54.5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8	33.3	16	66.7
	무직	(68)	33	48.5	35	51.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7	41.5	24	58.5
	100~200만원 미만	(90)	44	48.9	46	51.1
	200~300만원 미만	(31)	12	38.7	19	61.3
	300~400만원 미만	(20)	10	50.0	10	50.0
	400만원 이상	(26)	17	65.4	9	34.6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2-9〉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본인이 아플 때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42	63.1	83	36.9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16	64.1	65	35.9
	부자가족	(32)	17	53.1	15	46.9
	청소년한부모	(12)	9	75.0	3	2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5	64.7	30	35.3
	초등학생	(88)	57	64.8	31	35.2
	중학생 이상	(52)	30	57.7	22	42.3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2	55.2	26	44.8
	이혼	(152)	101	66.4	51	33.6
	사별	(15)	9	60.0	6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63	75.0	21	25.0
	임시직	(28)	17	60.7	11	39.3
	일용직	(11)	7	63.6	4	36.4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6	66.7	8	33.3
	무직	(68)	35	51.5	33	48.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4	58.5	17	41.5
	100~200만원 미만	(90)	55	61.1	35	38.9
	200~300만원 미만	(31)	18	58.1	13	41.9
	300~400만원 미만	(20)	16	80.0	4	20.0
	400만원 이상	(26)	20	76.9	6	23.1
	잘 모름	(17)	9	52.9	8	47.1

〈부표 2-10〉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아이가 아플 때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40	62.2	85	37.8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16	64.1	65	35.9
	부자가족	(32)	15	46.9	17	53.1
	청소년한부모	(12)	9	75.0	3	2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4	63.5	31	36.5
	초등학생	(88)	58	65.9	30	34.1
	중학생 이상	(52)	28	53.8	24	46.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2	55.2	26	44.8
	이혼	(152)	99	65.1	53	34.9
	사별	(15)	9	60.0	6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66	78.6	18	21.4
	임시직	(28)	18	64.3	10	35.7
	일용직	(11)	5	45.5	6	54.5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6	66.7	8	33.3
	무직	(68)	31	45.6	37	5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3	56.1	18	43.9
	100~200만원 미만	(90)	49	54.4	41	45.6
	200~300만원 미만	(31)	20	64.5	11	35.5
	300~400만원 미만	(20)	18	90.0	2	10.0
	400만원 이상	(26)	20	76.9	6	23.1
	잘 모름	(17)	10	58.8	7	41.2

〈부표 2-11〉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여부: 생활관련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32	58.7	93	41.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09	60.2	72	39.8
	부자가족	(32)	14	43.8	18	56.3
	청소년한부모	(12)	9	75.0	3	2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2	61.2	33	38.8
	초등학생	(88)	51	58.0	37	42.0
	중학생 이상	(52)	29	55.8	23	44.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6	62.1	22	37.9
	이혼	(152)	89	58.6	63	41.4
	사별	(15)	7	46.7	8	5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50	59.5	34	40.5
	임시직	(28)	21	75.0	7	25.0
	일용직	(11)	8	72.7	3	27.3
	자영업자	(10)	3	30.0	7	70.0
	기타 종사자	(24)	15	62.5	9	37.5
	무직	(68)	35	51.5	33	48.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6	63.4	15	36.6
	100~200만원 미만	(90)	53	58.9	37	41.1
	200~300만원 미만	(31)	16	51.6	15	48.4
	300~400만원 미만	(20)	9	45.0	11	55.0
	400만원 이상	(26)	19	73.1	7	26.9
	잘 모름	(17)	9	52.9	8	47.1

〈부표 2-12〉 도음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집인일(1+2순위 종합)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95)	68.4	48	50.5	8	8.4	27	28.4	11	11.6	11	11.6	14	14.7	0	0.0	5	5.3
	모자기족	(71)	71.8	38	53.5	4	5.6	21	29.6	5	7.0	8	11.3	9	12.7	0	0.0	5	7.0
	부자기족	(19)	52.6	6	31.6	4	21.1	6	31.6	6	31.6	3	15.8	3	15.8	0	0.0	0	0.0
	청소난한부모	(5)	80.0	4	80.0	0	0.0	0	0.0	0	0.0	0	0.0	2	4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0)	72.5	21	52.5	1	2.5	11	27.5	1	2.5	7	17.5	9	22.5	0	0.0	1	2.5
	초등학교	(35)	82.9	18	51.4	4	11.4	10	28.6	2	5.7	1	2.9	1	2.9	0	0.0	4	11.4
	중학생 이상	(20)	35.0	9	45.0	3	15.0	6	30.0	8	40.0	3	15.0	4	20.0	0	0.0	0	0.0
	미(비)혼 모/부	(23)	73.9	11	47.8	0	0.0	8	34.8	0	0.0	2	8.7	7	30.4	0	0.0	1	4.3
한부모 된 이유	이혼	(67)	68.7	36	53.7	7	10.4	16	23.9	11	16.4	9	13.4	6	9.0	0	0.0	2	3.0
	사별	(5)	40.0	1	20.0	1	20.0	3	60.0	0	0.0	0	0.0	1	20.0	0	0.0	2	40.0
	상용직	(37)	81.1	19	51.4	3	8.1	11	29.7	4	10.8	2	5.4	2	5.4	0	0.0	3	8.1
종사상 지위	임시직	(10)	80.0	5	50.0	1	10.0	3	30.0	1	10.0	1	10.0	0	0.0	0	0.0	1	10.0
	일용직	(7)	57.1	3	42.9	1	14.3	2	28.6	1	14.3	1	14.3	1	14.3	0	0.0	0	0.0
	자영업자	(3)	66.7	2	66.7	0	0.0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기타 종사자	(9)	55.6	7	77.8	2	22.2	2	22.2	0	0.0	1	11.1	1	11.1	0	0.0	0	0.0
	무직	(29)	55.2	12	41.4	1	3.4	9	31.0	5	17.2	5	17.2	9	31.0	0	0.0	1	3.4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5)	65	68.4	48	50.5	8	8.4	27	28.4	11	11.6	11	11.6	14	14.7	0	0.0	5	5.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60.0	9	60.0	1	6.7	4	26.7	1	6.7	2	13.3	3	20.0	0	0.0	1	6.7
	100~200만원 미만	17	51.5	16	48.5	2	6.1	13	39.4	6	18.2	4	12.1	6	18.2	0	0.0	1	3.0
	200~300만원 미만	11	84.6	9	69.2	1	7.7	4	30.8	1	7.7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8	88.9	4	44.4	1	11.1	3	33.3	1	11.1	0	0.0	0	0.0	0	0.0	1	11.1
	400만원 이상	14	87.5	8	50.0	2	12.5	2	12.5	2	12.5	3	18.8	1	6.3	0	0.0	0	0.0
잘 모름	(9)	6	66.7	2	22.2	1	11.1	1	11.1	0	0.0	2	22.2	4	44.4	0	0.0	2	22.2

〈부표 2-13〉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돈이 필요할 때(1+2순위 종합)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3)	76	73.8	66	64.1	6	5.8	33	32.0	6	5.8	5	4.9	8	7.8	0	0.0	5	4.9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59	74.7	54	68.4	5	6.3	22	27.8	2	2.5	4	5.1	6	7.6	0	0.0	5	6.3
	부자기족	10	62.5	8	50.0	1	6.3	7	43.8	4	25.0	1	6.3	1	6.3	0	0.0	0	0.0
	형식한부모	7	87.5	4	50.0	0	0.0	4	50.0	0	0.0	0	0.0	1	12.5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1	72.1	28	65.1	2	4.7	13	30.2	1	2.3	4	9.3	5	11.6	0	0.0	2	4.7
	초등학교	31	81.6	24	63.2	2	5.3	14	36.8	1	2.6	0	0.0	1	2.6	0	0.0	2	5.3
	중학생 이상	14	63.6	14	63.6	2	9.1	6	27.3	4	18.2	1	4.5	2	9.1	0	0.0	1	4.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9	70.4	15	55.6	0	0.0	12	44.4	2	7.4	2	7.4	4	14.8	0	0.0	0	0.0
	이혼	54	76.1	47	66.2	6	8.5	19	26.8	4	5.6	3	4.2	3	4.2	0	0.0	5	7.0
	사별	3	60.0	4	80.0	0	0.0	2	4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36	81.8	29	65.9	4	9.1	12	27.3	2	4.5	0	0.0	2	4.5	0	0.0	2	4.5
	임시직	10	83.3	8	66.7	0	0.0	5	41.7	0	0.0	0	0.0	1	8.3	0	0.0	0	0.0
	일용직	3	60.0	3	60.0	0	0.0	2	4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자영업자	4	100.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기타 종사자	5	71.4	6	85.7	1	14.3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18	58.1	17	54.8	1	3.2	12	38.7	3	9.7	5	16.1	4	12.9	0	0.0	2	6.5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3)	76	73.8	66	64.1	6	5.8	33	32.0	6	5.8	5	4.9	8	7.8	0	0.0	5	4.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2	75.0	10	62.5	3	18.8	3	18.8	1	6.3	1	6.3	1	6.3	0	0.0	1	6.3
	100~200만원 미만	26	61.9	29	69.0	0	0.0	16	38.1	3	7.1	3	7.1	5	11.9	0	0.0	2	4.8
	200~300만원 미만	9	75.0	8	66.7	1	8.3	3	25.0	1	8.3	0	0.0	1	8.3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9	90.0	6	60.0	1	10.0	4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15	93.8	11	68.8	1	6.3	3	18.8	1	6.3	0	0.0	0	0.0	0	0.0	1	6.3
잘 모름	(7)	5	71.4	2	28.6	0	0.0	4	57.1	0	0.0	1	14.3	1	14.3	0	0.0	1	14.3

〈부표 2-14〉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본인이 아플 때(1+2순위 종합)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42)	98	69.0	74	52.1	11	7.7	46	32.4	11	7.7	8	5.6	18	12.7	3	2.1	11	7.7
	모자기족	(116)	81	69.8	62	53.4	6	5.2	36	31.0	9	7.8	8	6.9	13	11.2	2	1.7	11	9.5
	부자기족	(17)	11	64.7	5	29.4	5	29.4	8	47.1	2	11.8	0	0.0	2	11.8	1	5.9	0	0.0
	청소년한부모	(9)	6	66.7	7	77.8	0	0.0	2	22.2	0	0.0	0	0.0	3	33.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5)	38	69.1	30	54.5	3	5.5	14	25.5	2	3.6	4	7.3	11	20.0	0	0.0	5	9.1
	초등학교생	(57)	40	70.2	31	54.4	4	7.0	21	36.8	5	8.8	3	5.3	5	8.8	1	1.8	3	5.3
	중학생 이상	(30)	20	66.7	13	43.3	4	13.3	11	36.7	4	13.3	1	3.3	2	6.7	2	6.7	3	1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2)	18	56.3	14	43.8	0	0.0	13	40.6	2	6.3	3	9.4	10	31.3	0	0.0	3	9.4
	이혼	(101)	75	74.3	55	54.5	11	10.9	28	27.7	8	7.9	4	4.0	8	7.9	2	2.0	8	7.9
	사별	(9)	5	55.6	5	55.6	0	0.0	5	55.6	1	11.1	1	11.1	0	0.0	1	11.1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63)	48	76.2	35	55.6	7	11.1	18	28.6	5	7.9	2	3.2	6	9.5	1	1.6	4	6.3
	임시직	(17)	11	64.7	6	35.3	1	5.9	8	47.1	0	0.0	1	5.9	4	23.5	1	5.9	1	5.9
	일용직	(7)	5	71.4	4	57.1	0	0.0	3	42.9	1	14.3	1	14.3	0	0.0	0	0.0	0	0.0
	자영업자	(4)	4	100.0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6)	11	68.8	12	75.0	1	6.3	3	18.8	1	6.3	1	6.3	0	0.0	0	0.0	2	12.5
	무직	(35)	19	54.3	13	37.1	2	5.7	14	40.0	4	11.4	3	8.6	8	22.9	1	2.9	4	11.4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2)	98	69.0	74	52.1	11	7.7	46	32.4	11	7.7	8	5.6	18	12.7	3	2.1	11	7.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6	66.7	13	54.2	2	8.3	6	25.0	2	8.3	2	8.3	6	25.0	0	0.0	1	4.2
	100~200만원 미만	34	61.8	27	49.1	1	1.8	22	40.0	5	9.1	4	7.3	5	9.1	2	3.6	7	12.7
	200~300만원 미만	15	83.3	13	72.2	2	11.1	4	22.2	0	0.0	0	0.0	1	5.6	1	5.6	0	0.0
	300~400만원 미만	13	81.3	6	37.5	3	18.8	6	37.5	2	12.5	0	0.0	1	6.3	0	0.0	1	6.3
	400만원 이상	14	70.0	11	55.0	3	15.0	6	30.0	2	10.0	0	0.0	2	10.0	0	0.0	1	5.0
잘 모름	(9)	6	66.7	4	44.4	0	0.0	2	22.2	0	0.0	2	22.2	3	33.3	0	0.0	1	11.1

〈부표 2-15〉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아이가 아플 때(1+2순위 종합)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40)	90	64.3	72	51.4	27	19.3	37	26.4	7	5.0	8	5.7	22	15.7	3	2.1	9	6.4
	모자기족	(116)	75	64.7	63	54.3	20	17.2	28	24.1	7	6.0	6	5.2	18	15.5	2	1.7	8	6.9
	부자기족	(15)	8	53.3	4	26.7	7	46.7	7	46.7	0	0.0	2	13.3	1	6.7	1	6.7	0	0.0
	형식한부모	(9)	7	77.8	5	55.6	0	0.0	2	22.2	0	0.0	0	0.0	3	33.3	0	0.0	1	11.1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4)	38	70.4	29	53.7	7	13.0	12	22.2	3	5.6	2	3.7	11	20.4	1	1.9	3	5.6
	초등학교생	(58)	38	65.5	28	48.3	12	20.7	19	32.8	2	3.4	2	3.4	8	13.8	1	1.7	4	6.9
	중학생 이상	(28)	14	50.0	15	53.6	8	28.6	6	21.4	2	7.1	4	14.3	3	10.7	1	3.6	2	7.1
	미(비)혼 모/부	(32)	19	59.4	13	40.6	1	3.1	11	34.4	2	6.3	2	6.3	13	40.6	0	0.0	2	6.3
한부모 된 이유	이혼	(99)	65	65.7	53	53.5	26	26.3	22	22.2	4	4.0	6	6.1	8	8.1	3	3.0	7	7.1
	사별	(9)	6	66.7	6	66.7	0	0.0	4	44.4	1	11.1	0	0.0	1	11.1	0	0.0	0	0.0
	상용직	(66)	46	69.7	35	53.0	16	24.2	18	27.3	3	4.5	2	3.0	9	13.6	0	0.0	2	3.0
	임시직	(18)	11	61.1	7	38.9	4	22.2	5	27.8	0	0.0	1	5.6	3	16.7	2	11.1	2	11.1
종사상 지위	일용직	(5)	4	80.0	3	60.0	0	0.0	2	4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자영업자	(4)	4	100.0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6)	9	56.3	11	68.8	4	25.0	2	12.5	1	6.3	1	6.3	1	6.3	0	0.0	2	12.5
	무직	(31)	16	51.6	13	41.9	2	6.5	10	32.3	3	9.7	4	12.9	8	25.8	1	3.2	3	9.7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0)	90	64.3	72	51.4	27	19.3	37	26.4	7	5.0	8	5.7	22	15.7	3	2.1	9	6.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3	56.5	12	52.2	6	26.1	4	17.4	2	8.7	2	8.7	6	26.1	0	0.0	1	4.3
	100~200만원 미만	28	57.1	27	55.1	4	8.2	14	28.6	3	6.1	4	8.2	8	16.3	2	4.1	4	8.2
	200~300만원 미만	13	65.0	13	65.0	5	25.0	7	35.0	0	0.0	0	0.0	2	1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5	83.3	7	38.9	3	16.7	6	33.3	2	11.1	0	0.0	2	11.1	0	0.0	1	5.6
	400만원 이상	13	65.0	10	50.0	7	35.0	5	25.0	0	0.0	1	5.0	1	5.0	1	5.0	1	5.0
잘 모름	(10)	8	80.0	3	30.0	2	20.0	1	10.0	0	0.0	1	10.0	3	30.0	0	0.0	2	20.0

〈부표 2-16〉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기관: 생활관련(1+2순위 종합)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28)	52	40.6	58	45.3	6	4.7	58	45.3	9	7.0	28	21.9	34	26.6	7	5.5	4	3.1
	모자기족	(105)	40	38.1	48	45.7	4	3.8	50	47.6	9	8.6	25	23.8	26	24.8	5	4.8	3	2.9
	부자기족	(14)	7	50.0	8	57.1	2	14.3	6	42.9	0	0.0	2	14.3	2	14.3	1	7.1	0	0.0
	형식한부모	(9)	5	55.6	2	22.2	0	0.0	2	22.2	0	0.0	1	11.1	6	66.7	1	11.1	1	11.1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0)	22	44.0	15	30.0	2	4.0	17	34.0	2	4.0	14	28.0	22	44.0	2	4.0	4	8.0
	초등학교생	(49)	18	36.7	28	57.1	3	6.1	25	51.0	3	6.1	9	18.4	8	16.3	4	8.2	0	0.0
	중학생 이상	(29)	12	41.4	15	51.7	1	3.4	16	55.2	4	13.8	5	17.2	4	13.8	1	3.4	0	0.0
	미(비)혼 모/부	(36)	16	44.4	11	30.6	1	2.8	10	27.8	2	5.6	11	30.6	18	50.0	2	5.6	1	2.8
한부모 된 이유	이혼	(85)	35	41.2	43	50.6	5	5.9	43	50.6	5	5.9	16	18.8	15	17.6	5	5.9	3	3.5
	사별	(7)	1	14.3	4	57.1	0	0.0	5	71.4	2	28.6	1	14.3	1	14.3	0	0.0	0	0.0
	상용직	(50)	24	48.0	30	60.0	4	8.0	26	52.0	6	12.0	4	8.0	6	12.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임시직	(19)	2	10.5	4	21.1	1	5.3	9	47.4	1	5.3	7	36.8	10	52.6	3	15.8	1	5.3
	일용직	(8)	2	25.0	4	50.0	0	0.0	4	50.0	1	12.5	3	37.5	2	25.0	0	0.0	0	0.0
	자영업자	(3)	1	33.3	2	66.7	0	0.0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기타 종사자	(15)	9	60.0	7	46.7	0	0.0	8	53.3	1	6.7	2	13.3	1	6.7	1	6.7	1	6.7
	무직	(33)	14	42.4	11	33.3	1	3.0	10	30.3	0	0.0	11	33.3	14	42.4	3	9.1	2	6.1

구분	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전 배우자		친구/동료		이웃		공공기관		민간기관		한부모 가족모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8)	52	40.6	58	45.3	6	4.7	58	45.3	9	7.0	28	21.9	34	26.6	7	5.5	4	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0	40.0	10	40.0	1	4.0	10	40.0	2	8.0	6	24.0	9	36.0	1	4.0	1	4.0
	100~200만원 미만	16	32.0	22	44.0	1	2.0	25	50.0	3	6.0	13	26.0	15	30.0	4	8.0	1	2.0
	200~300만원 미만	7	43.8	9	56.3	1	6.3	6	37.5	3	18.8	3	18.8	3	18.8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6	66.7	6	66.7	1	11.1	3	33.3	0	0.0	2	22.2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8	42.1	10	52.6	2	10.5	11	57.9	1	5.3	1	5.3	3	15.8	1	5.3	1	5.3
잘 모름	(9)	5	55.6	1	11.1	0	0.0	3	33.3	0	0.0	3	33.3	4	44.4	1	11.1	1	11.1

〈부표 2-17〉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동네/이웃주민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79	35.1	146	64.9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66	36.5	115	63.5
	부자가족	(32)	7	21.9	25	78.1
	청소년한부모	(12)	6	50.0	6	5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9	34.1	56	65.9
	초등학생	(88)	41	46.6	47	53.4
	중학생 이상	(52)	9	17.3	43	82.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8	31.0	40	69.0
	이혼	(152)	54	35.5	98	64.5
	사별	(15)	7	46.7	8	5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1	36.9	53	63.1
	임시직	(28)	15	53.6	13	46.4
	일용직	(11)	2	18.2	9	81.8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7	29.2	17	70.8
	무직	(68)	20	29.4	48	70.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4	34.1	27	65.9
	100~200만원 미만	(90)	28	31.1	62	68.9
	200~300만원 미만	(31)	8	25.8	23	74.2
	300~400만원 미만	(20)	9	45.0	11	55.0
	400만원 이상	(26)	12	46.2	14	53.8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2-18〉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학교/보육시설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92	40.9	133	59.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77	42.5	104	57.5
	부자가족	(32)	8	25.0	24	75.0
	청소년한부모	(12)	7	58.3	5	41.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7	43.5	48	56.5
	초등학생	(88)	42	47.7	46	52.3
	중학생 이상	(52)	13	25.0	39	75.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1	36.2	37	63.8
	이혼	(152)	64	42.1	88	57.9
	사별	(15)	7	46.7	8	5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5	41.7	49	58.3
	임시직	(28)	13	46.4	15	53.6
	일용직	(11)	5	45.5	6	54.5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2	50.0	12	50.0
	무직	(68)	23	33.8	45	66.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9	46.3	22	53.7
	100~200만원 미만	(90)	34	37.8	56	62.2
	200~300만원 미만	(31)	9	29.0	22	71.0
	300~400만원 미만	(20)	8	40.0	12	60.0
	400만원 이상	(26)	15	57.7	11	42.3
	잘 모름	(17)	7	41.2	10	58.8

〈부표 2-19〉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가족/친척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11	49.3	114	50.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89	49.2	92	50.8
	부자가족	(32)	12	37.5	20	62.5
	청소년한부모	(12)	10	83.3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8	56.5	37	43.5
	초등학생	(88)	45	51.1	43	48.9
	중학생 이상	(52)	18	34.6	34	65.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1	53.4	27	46.6
	이혼	(152)	72	47.4	80	52.6
	사별	(15)	8	53.3	7	4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43	51.2	41	48.8
	임시직	(28)	18	64.3	10	35.7
	일용직	(11)	4	36.4	7	63.6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2	50.0	12	50.0
	무직	(68)	30	44.1	38	55.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7	41.5	24	58.5
	100~200만원 미만	(90)	43	47.8	47	52.2
	200~300만원 미만	(31)	15	48.4	16	51.6
	300~400만원 미만	(20)	11	55.0	9	45.0
	400만원 이상	(26)	16	61.5	10	38.5
	잘 모름	(17)	9	52.9	8	47.1

〈부표 2-20〉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직장/일터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80	35.6	145	64.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67	37.0	114	63.0
	부자가족	(32)	8	25.0	24	75.0
	청소년한부모	(12)	5	41.7	7	58.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9	34.1	56	65.9
	초등학생	(88)	38	43.2	50	56.8
	중학생 이상	(52)	13	25.0	39	75.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0	34.5	38	65.5
	이혼	(152)	52	34.2	100	65.8
	사별	(15)	8	53.3	7	4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7	32.1	57	67.9
	임시직	(28)	16	57.1	12	42.9
	일용직	(11)	4	36.4	7	63.6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0	41.7	14	58.3
	무직	(68)	19	27.9	49	72.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8	43.9	23	56.1
	100~200만원 미만	(90)	28	31.1	62	68.9
	200~300만원 미만	(31)	8	25.8	23	74.2
	300~400만원 미만	(20)	7	35.0	13	65.0
	400만원 이상	(26)	12	46.2	14	53.8
	잘 모름	(17)	7	41.2	10	58.8

〈부표 2-21〉 한부모 임을 주위에 밝힘: 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81	36.0	144	64.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69	38.1	112	61.9
	부자가족	(32)	5	15.6	27	84.4
	청소년한부모	(12)	7	58.3	5	41.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2	37.6	53	62.4
	초등학생	(88)	40	45.5	48	54.5
	중학생 이상	(52)	9	17.3	43	82.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4	41.4	34	58.6
	이혼	(152)	49	32.2	103	67.8
	사별	(15)	8	53.3	7	4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7	32.1	57	67.9
	임시직	(28)	16	57.1	12	42.9
	일용직	(11)	4	36.4	7	63.6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10	41.7	14	58.3
	무직	(68)	20	29.4	48	70.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7	41.5	24	58.5
	100~200만원 미만	(90)	30	33.3	60	66.7
	200~300만원 미만	(31)	6	19.4	25	80.6
	300~400만원 미만	(20)	6	30.0	14	70.0
	400만원 이상	(26)	14	53.8	12	46.2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2-22〉 부당한 일, 차별 경험: 동네/이웃주민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9)	34	43.0	45	57.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66)	34	51.5	32	48.5
	부자가족	(7)	0	0.0	7	100.0
	청소년한부모	(6)	0	0.0	6	10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29)	12	41.4	17	58.6
	초등학생	(41)	19	46.3	22	53.7
	중학생 이상	(9)	3	33.3	6	66.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8)	7	38.9	11	61.1
	이혼	(54)	24	44.4	30	55.6
	사별	(7)	3	42.9	4	57.1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	13	41.9	18	58.1
	임시직	(15)	8	53.3	7	46.7
	일용직	(2)	1	50.0	1	50.0
	자영업자	(4)	1	25.0	3	75.0
	기타 종사자	(7)	2	28.6	5	71.4
	무직	(20)	9	45.0	11	55.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4)	8	57.1	6	42.9
	100~200만원 미만	(28)	14	50.0	14	50.0
	200~300만원 미만	(8)	5	62.5	3	37.5
	300~400만원 미만	(9)	2	22.2	7	77.8
	400만원 이상	(12)	2	16.7	10	83.3
	잘 모름	(8)	3	37.5	5	62.5

〈부표 2-23〉 부당한 일, 차별 경험: 학교/보육시설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2)	26	28.3	66	71.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77)	25	32.5	52	67.5
	부자가족	(8)	1	12.5	7	87.5
	청소년한부모	(7)	0	0.0	7	10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7)	9	24.3	28	75.7
	초등학생	(42)	12	28.6	30	71.4
	중학생 이상	(13)	5	38.5	8	61.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1)	6	28.6	15	71.4
	이혼	(64)	19	29.7	45	70.3
	사별	(7)	1	14.3	6	85.7
종사상 지위	상용직	(35)	10	28.6	25	71.4
	임시직	(13)	4	30.8	9	69.2
	일용직	(5)	2	40.0	3	60.0
	자영업자	(4)	2	50.0	2	50.0
	기타 종사자	(12)	2	16.7	10	83.3
	무직	(23)	6	26.1	17	73.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8	42.1	11	57.9
	100~200만원 미만	(34)	11	32.4	23	67.6
	200~300만원 미만	(9)	3	33.3	6	66.7
	300~400만원 미만	(8)	2	25.0	6	75.0
	400만원 이상	(15)	0	0.0	15	100.0
	잘 모름	(7)	2	28.6	5	71.4

〈부표 2-24〉 부당한 일, 차별 경험: 가족/친척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11)	36	32.4	75	67.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89)	32	36.0	57	64.0
	부자가족	(12)	1	8.3	11	91.7
	청소년한부모	(10)	3	30.0	7	7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8)	19	39.6	29	60.4
	초등학생	(45)	12	26.7	33	73.3
	중학생 이상	(18)	5	27.8	13	72.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1)	13	41.9	18	58.1
	이혼	(72)	21	29.2	51	70.8
	사별	(8)	2	25.0	6	7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3)	9	20.9	34	79.1
	임시직	(18)	10	55.6	8	44.4
	일용직	(4)	1	25.0	3	75.0
	자영업자	(4)	1	25.0	3	75.0
	기타 종사자	(12)	4	33.3	8	66.7
	무직	(30)	11	36.7	19	6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7)	5	29.4	12	70.6
	100~200만원 미만	(43)	21	48.8	22	51.2
	200~300만원 미만	(15)	5	33.3	10	66.7
	300~400만원 미만	(11)	0	0.0	11	100.0
	400만원 이상	(16)	2	12.5	14	87.5
	잘 모름	(9)	3	33.3	6	66.7

〈부표 2-25〉 부당한 일, 차별 경험: 직장/일터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0)	30	37.5	50	62.5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67)	28	41.8	39	58.2
	부자가족	(8)	1	12.5	7	87.5
	청소년한부모	(5)	1	20.0	4	8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29)	10	34.5	19	65.5
	초등학생	(38)	14	36.8	24	63.2
	중학생 이상	(13)	6	46.2	7	53.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0)	10	50.0	10	50.0
	이혼	(52)	18	34.6	34	65.4
	사별	(8)	2	25.0	6	7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	7	25.9	20	74.1
	임시직	(16)	7	43.8	9	56.3
	일용직	(4)	2	50.0	2	50.0
	자영업자	(4)	1	25.0	3	75.0
	기타 종사자	(10)	3	30.0	7	70.0
	무직	(19)	10	52.6	9	47.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8)	13	72.2	5	27.8
	100~200만원 미만	(28)	9	32.1	19	67.9
	200~300만원 미만	(8)	4	50.0	4	50.0
	300~400만원 미만	(7)	2	28.6	5	71.4
	400만원 이상	(12)	0	0.0	12	100.0
	잘 모름	(7)	2	28.6	5	71.4

〈부표 2-26〉 부당한 일, 차별 경험: 공공기관

단위: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1)	30	37.0	51	63.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69)	30	43.5	39	56.5
	부자가족	(5)	0	0.0	5	100.0
	청소년한부모	(7)	0	0.0	7	10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2)	9	28.1	23	71.9
	초등학생	(40)	18	45.0	22	55.0
	중학생 이상	(9)	3	33.3	6	66.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4)	8	33.3	16	66.7
	이혼	(49)	19	38.8	30	61.2
	사별	(8)	3	37.5	5	62.5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	12	44.4	15	55.6
	임시직	(16)	7	43.8	9	56.3
	일용직	(4)	1	25.0	3	75.0
	자영업자	(4)	2	50.0	2	50.0
	기타 종사자	(10)	2	20.0	8	80.0
	무직	(20)	6	30.0	14	7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7)	8	47.1	9	52.9
	100~200만원 미만	(30)	14	46.7	16	53.3
	200~300만원 미만	(6)	2	33.3	4	66.7
	300~400만원 미만	(6)	2	33.3	4	66.7
	400만원 이상	(14)	1	7.1	13	92.9
	잘 모름	(8)	3	37.5	5	62.5

〈부표 2-27〉 한부모가 된 이후 변화 수준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역할에서 감당	집안일 부담 증가	형제 자매 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갈등해짐	일터에서 자유감 상실
전체	(225)	3.7	3.9	4.1	4.1	2.7	3.4	4.2	3.7	3.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8	4.1	4.3	4.2	2.7	3.5	4.3	3.2
	부자가족	(32)	3.2	2.8	3.2	3.6	2.8	3.1	3.5	3.2
	청소년한부모	(12)	3.4	2.4	3.8	3.5	2.2	3.0	3.5	4.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7	3.8	4.2	4.1	2.8	3.5	4.2	3.1
	초등학생	(88)	3.7	4.0	4.3	4.2	2.5	3.4	4.4	3.2
	중학생 이상	(52)	3.5	3.7	3.7	3.9	2.9	3.3	3.8	3.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6	3.7	4.1	4.0	2.6	3.5	4.2	3.1
	이혼	(152)	3.7	3.9	4.1	4.1	2.7	3.4	4.2	3.3
	사별	(15)	3.6	3.9	4.0	3.9	3.2	3.7	3.9	2.5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6	3.7	4.1	4.1	2.4	3.2	4.1	3.6
	임시직	(28)	3.8	3.9	4.3	4.3	2.9	3.7	4.3	3.2
	일용직	(11)	3.8	4.5	4.4	4.3	2.4	3.7	4.3	3.1
	자영업자	(10)	3.9	3.8	4.6	4.6	2.6	3.7	4.5	3.3
	기타 종사자	(24)	3.6	4.2	4.2	3.8	2.5	3.3	4.1	3.0
	무직	(68)	3.7	3.9	3.9	3.9	3.1	3.6	4.1	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8	4.2	4.4	4.2	2.5	3.6	4.5	3.4
	100~200만원 미만	(90)	3.8	4.1	4.2	4.2	3.0	3.7	4.2	3.2
	200~300만원 미만	(31)	3.5	3.8	4.0	4.0	2.6	3.3	4.0	3.0
	300~400만원 미만	(20)	3.4	3.6	4.0	4.1	2.3	2.8	3.9	3.6
	400만원 이상	(26)	3.4	3.2	3.7	3.7	2.6	3.0	3.9	3.0
	잘 모름	(17)	3.6	2.9	4.2	3.8	2.4	3.5	4.1	3.7

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

3. 경제활동

〈부표 3-1〉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57	69.8	68	30.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36	75.1	45	24.9
	부자가족	(32)	18	56.3	14	43.8
	청소년한부모	(12)	3	25.0	9	7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7	55.3	38	44.7
	초등학생	(88)	74	84.1	14	15.9
	중학생 이상	(52)	36	69.2	16	30.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7	46.6	31	53.4
	이혼	(152)	120	78.9	32	21.1
	사별	(15)	10	66.7	5	3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84	100.0	0	0.0
	임시직	(28)	28	100.0	0	0.0
	일용직	(11)	11	100.0	0	0.0
	자영업자	(10)	10	100.0	0	0.0
	기타 종사자	(24)	24	100.0	0	0.0
	무직	(68)	0	0.0	68	10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9	46.3	22	53.7
	100~200만원 미만	(90)	57	63.3	33	36.7
	200~300만원 미만	(31)	28	90.3	3	9.7
	300~400만원 미만	(20)	19	95.0	1	5.0
	400만원 이상	(26)	26	100.0	0	0.0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3-2〉 직업

단위 : 명, %

구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57)	1	0.6	21	13.4	48	30.6	27	17.2	19	12.1	0	0.0	0	0.0	4	2.5	19	12.1	18	11.5
	모자기족	(136)	1	0.7	20	14.7	40	29.4	24	17.6	15	11.0	0	0.0	0	0.0	1	0.7	19	14.0	16	11.8
	부자기족	(18)	0	0.0	1	5.6	8	44.4	2	11.1	4	22.2	0	0.0	0	0.0	3	16.7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3)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0	0.0	5	10.6	9	19.1	10	21.3	9	19.1	0	0.0	0	0.0	0	0.0	4	8.5	10	21.3
	초등학생	(74)	1	1.4	12	16.2	25	33.8	12	16.2	5	6.8	0	0.0	0	0.0	3	4.1	10	13.5	6	8.1
	중학생 이상	(36)	0	0.0	4	11.1	14	38.9	5	13.9	5	13.9	0	0.0	0	0.0	1	2.8	5	13.9	2	5.6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0	0.0	3	11.1	9	33.3	3	11.1	2	7.4	0	0.0	0	0.0	0	0.0	3	11.1	7	25.9
	이혼	(120)	1	0.8	17	14.2	37	30.8	21	17.5	16	13.3	0	0.0	0	0.0	3	2.5	14	11.7	11	9.2
	사별	(10)	0	0.0	1	10.0	2	20.0	3	30.0	1	10.0	0	0.0	0	0.0	1	10.0	2	2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	1.2	12	14.3	39	46.4	15	17.9	2	2.4	0	0.0	0	0.0	3	3.6	6	7.1	6	7.1
	임시직	(28)	0	0.0	5	17.9	6	21.4	3	10.7	3	10.7	0	0.0	0	0.0	0	0.0	7	25.0	4	14.3
	일용직	(11)	0	0.0	0	0.0	1	9.1	3	27.3	2	18.2	0	0.0	0	0.0	1	9.1	3	27.3	1	9.1
	자영업자	(10)	0	0.0	1	10.0	0	0.0	3	30.0	4	40.0	0	0.0	0	0.0	0	0.0	1	10.0	1	10.0
	기타 종사자	(24)	0	0.0	3	12.5	2	8.3	3	12.5	8	33.3	0	0.0	0	0.0	0	0.0	2	8.3	6	25.0

〈부표 3-3〉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기타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84	53.5	28	17.8	11	7.0	10	6.4	24	15.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6)	68	50.0	26	19.1	9	6.6	9	6.6	24	17.6
	부자가족	(18)	15	83.3	0	0.0	2	11.1	1	5.6	0	0.0
	청소년한부모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22	46.8	11	23.4	2	4.3	4	8.5	8	17.0
	초등학생	(74)	43	58.1	12	16.2	6	8.1	3	4.1	10	13.5
	중학생 이상	(36)	19	52.8	5	13.9	3	8.3	3	8.3	6	16.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13	48.1	7	25.9	1	3.7	2	7.4	4	14.8
	이혼	(120)	67	55.8	18	15.0	9	7.5	8	6.7	18	15.0
	사별	(10)	4	40.0	3	30.0	1	10.0	0	0.0	2	2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4	21.1	3	15.8	3	15.8	0	0.0	9	47.4
	100~200만원 미만	(57)	20	35.1	18	31.6	7	12.3	4	7.0	8	14.0
	200~300만원 미만	(28)	24	85.7	2	7.1	0	0.0	1	3.6	1	3.6
	300~400만원 미만	(19)	17	89.5	0	0.0	1	5.3	0	0.0	1	5.3
	400만원 이상	(26)	16	61.5	2	7.7	0	0.0	4	15.4	4	15.4
	잘 모름	(8)	3	37.5	3	37.5	0	0.0	1	12.5	1	12.5

〈부표 3-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 명, %

구분		계	10시간 미만		10시간~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6)	43	27.6	37	23.7	76	48.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5)	40	29.6	33	24.4	62	45.9
	부자가족	(18)	2	11.1	3	16.7	13	72.2
	청소년한부모	(3)	1	33.3	1	33.3	1	3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6)	11	23.9	17	37.0	18	39.1
	초등학생	(74)	19	25.7	13	17.6	42	56.8
	중학생 이상	(36)	13	36.1	7	19.4	16	44.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10	37.0	5	18.5	12	44.4
	이혼	(119)	29	24.4	30	25.2	60	50.4
	사별	(10)	4	40.0	2	20.0	4	40.0
종사상 자위	상용직	(84)	21	25.0	12	14.3	51	60.7
	임시직	(28)	12	42.9	7	25.0	9	32.1
	일용직	(11)	3	27.3	4	36.4	4	36.4
	자영업자	(10)	1	10.0	3	30.0	6	60.0
	기타 종사자	(23)	6	26.1	11	47.8	6	26.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6	31.6	12	63.2	1	5.3
	100~200만원 미만	(57)	15	26.3	12	21.1	30	52.6
	200~300만원 미만	(28)	8	28.6	2	7.1	18	64.3
	300~400만원 미만	(19)	5	26.3	2	10.5	12	63.2
	400만원 이상	(26)	5	19.2	8	30.8	13	50.0
	잘 모름	(7)	4	57.1	1	14.3	2	28.6

〈부표 3-5〉 월평균 수입

단위 : 명, %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26	16.6	33	21.0	44	28.0	25	15.9	17	10.8	12	7.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6)	26	19.1	31	22.8	39	28.7	23	16.9	11	8.1	6	4.4
	부자가족	(18)	0	0.0	0	0.0	4	22.2	2	11.1	6	33.3	6	33.3
	청소년한부모	(3)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8	17.0	12	25.5	15	31.9	8	17.0	2	4.3	2	4.3
	초등학생	(74)	13	17.6	14	18.9	17	23.0	11	14.9	12	16.2	7	9.5
	중학생 이상	(36)	5	13.9	7	19.4	12	33.3	6	16.7	3	8.3	3	8.3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3	11.1	13	48.1	3	11.1	4	14.8	2	7.4	2	7.4
	이혼	(120)	22	18.3	18	15.0	38	31.7	20	16.7	12	10.0	10	8.3
	사별	(10)	1	10.0	2	20.0	3	30.0	1	10.0	3	3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	2.4	12	14.3	23	27.4	21	25.0	17	20.2	9	10.7
	임시직	(28)	7	25.0	11	39.3	8	28.6	2	7.1	0	0.0	0	0.0
	일용직	(11)	5	45.5	2	18.2	4	36.4	0	0.0	0	0.0	0	0.0
	자영업자	(10)	0	0.0	1	10.0	7	70.0	0	0.0	0	0.0	2	20.0
	기타 종사자	(24)	12	50.0	7	29.2	2	8.3	2	8.3	0	0.0	1	4.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15	78.9	4	21.1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57)	7	12.3	20	35.1	29	50.9	1	1.8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28)	0	0.0	2	7.1	7	25.0	19	67.9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9)	0	0.0	0	0.0	2	10.5	3	15.8	14	73.7	0	0.0
	400만원 이상	(26)	2	7.7	3	11.5	4	15.4	2	7.7	3	11.5	12	46.2
	잘 모름	(8)	2	25.0	4	50.0	2	25.0	0	0.0	0	0.0	0	0.0

〈부표 3-6〉 일주일 중 휴무일 수

단위 : 명, %

구분		계	매 1주마다 이틀휴무 (주5일제)		토요일 격주휴무 · 일요일 매주 휴무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정해진 휴일 없음 (불규칙함)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109	69.4	11	7.0	22	14.0	1	0.6	12	7.6	2	1.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6)	97	71.3	7	5.1	17	12.5	1	0.7	12	8.8	2	1.5
	부자가족	(18)	10	55.6	4	22.2	4	22.2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3)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29	61.7	6	12.8	6	12.8	0	0.0	6	12.8	0	0.0
	초등학생	(74)	55	74.3	3	4.1	9	12.2	1	1.4	4	5.4	2	2.7
	중학생 이상	(36)	25	69.4	2	5.6	7	19.4	0	0.0	2	5.6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20	74.1	2	7.4	2	7.4	0	0.0	3	11.1	0	0.0
	이혼	(120)	81	67.5	9	7.5	19	15.8	1	0.8	8	6.7	2	1.7
	사별	(10)	8	80.0	0	0.0	1	10.0	0	0.0	1	1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62	73.8	6	7.1	11	13.1	0	0.0	4	4.8	1	1.2
	임시직	(28)	21	75.0	2	7.1	4	14.3	0	0.0	1	3.6	0	0.0
	일용직	(11)	6	54.5	1	9.1	3	27.3	0	0.0	1	9.1	0	0.0
	자영업자	(10)	6	60.0	1	10.0	2	20.0	0	0.0	1	10.0	0	0.0
	기타 종사자	(24)	14	58.3	1	4.2	2	8.3	1	4.2	5	20.8	1	4.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12	63.2	2	10.5	1	5.3	1	5.3	2	10.5	1	5.3
	100~200만원 미만	(57)	39	68.4	3	5.3	12	21.1	0	0.0	3	5.3	0	0.0
	200~300만원 미만	(28)	22	78.6	1	3.6	3	10.7	0	0.0	2	7.1	0	0.0
	300~400만원 미만	(19)	15	78.9	0	0.0	2	10.5	0	0.0	2	10.5	0	0.0
	400만원 이상	(26)	16	61.5	5	19.2	3	11.5	0	0.0	2	7.7	0	0.0
	잘 모름	(8)	5	62.5	0	0.0	1	12.5	0	0.0	1	12.5	1	12.5

〈부표 3-7〉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계	자녀양육 시간 부족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불투명한 직업 전망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자녀를 돌보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57)	30	19.1	33	21.0	0	0.0	18	11.5	55	35.0	10	6.4	0	0.0	4	2.5	7	4.5
	모자기족	(136)	22	16.2	31	22.8	0	0.0	16	11.8	51	37.5	7	5.1	0	0.0	4	2.9	5	3.7
	부자기족	(18)	7	38.9	2	11.1	0	0.0	1	5.6	3	16.7	3	16.7	0	0.0	0	0.0	2	11.1
	청소년한부모	(3)	1	33.3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15	31.9	8	17.0	0	0.0	5	10.6	15	31.9	3	6.4	0	0.0	1	2.1	0	0.0
	초등학생	(74)	12	16.2	13	17.6	0	0.0	7	9.5	30	40.5	6	8.1	0	0.0	3	4.1	3	4.1
	중학생 이상	(36)	3	8.3	12	33.3	0	0.0	6	16.7	10	27.8	1	2.8	0	0.0	0	0.0	4	11.1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5	18.5	8	29.6	0	0.0	1	3.7	9	33.3	2	7.4	0	0.0	1	3.7	1	3.7
	이혼	(120)	24	20.0	24	20.0	0	0.0	16	13.3	41	34.2	6	5.0	0	0.0	3	2.5	6	5.0
	사별	(10)	1	10.0	1	10.0	0	0.0	1	10.0	5	50.0	2	20.0	0	0.0	0	0.0	0	0.0

구분	계	자녀양육 시간 부족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불투명한 직업 전망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자녀를 돌보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사상 지위	전체	(157)	30	19.1	33	21.0	0	0.0	18	11.5	55	35.0	10	6.4	0	0.0	4	2.5	7	4.5
	상용직	(84)	20	23.8	18	21.4	0	0.0	9	10.7	27	32.1	6	7.1	0	0.0	0	0.0	4	4.8
	임시직	(28)	1	3.6	6	21.4	0	0.0	5	17.9	12	42.9	1	3.6	0	0.0	2	7.1	1	3.6
	일용직	(11)	4	36.4	2	18.2	0	0.0	3	27.3	1	9.1	1	9.1	0	0.0	0	0.0	0	0.0
	자영업자	(10)	3	30.0	4	40.0	0	0.0	0	0.0	2	20.0	0	0.0	0	0.0	0	0.0	1	10.0
	기타 종사자	(24)	2	8.3	3	12.5	0	0.0	1	4.2	13	54.2	2	8.3	0	0.0	2	8.3	1	4.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1	5.3	1	5.3	0	0.0	3	15.8	10	52.6	1	5.3	0	0.0	1	5.3	2	10.5
	100~200만원 미만	(57)	11	19.3	19	33.3	0	0.0	4	7.0	18	31.6	2	3.5	0	0.0	2	3.5	1	1.8
	200~300만원 미만	(28)	5	17.9	7	25.0	0	0.0	4	14.3	9	32.1	2	7.1	0	0.0	0	0.0	1	3.6
	300~400만원 미만	(19)	5	26.3	1	5.3	0	0.0	2	10.5	10	52.6	1	5.3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26)	5	19.2	4	15.4	0	0.0	4	15.4	5	19.2	4	15.4	0	0.0	1	3.8	3	11.5
	잘 모름	(8)	3	37.5	1	12.5	0	0.0	1	12.5	3	37.5	0	0.0	0	0.0	0	0.0	0	0.0

〈부표 3-8〉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계	취업 정보 부족, 잘 몰라서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부모 편견과 차별 때문에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		근무시간/근무환경 맞지 않아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7)	12	7.6	40	25.5	5	3.2	20	12.7	33	21.0	37	23.6	10	6.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6)	9	6.6	36	26.5	5	3.7	15	11.0	29	21.3	32	23.5	10	7.4
	부자가족	(18)	2	11.1	3	16.7	0	0.0	5	27.8	3	16.7	5	27.8	0	0.0
	청소년한부모	(3)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2	4.3	5	10.6	2	4.3	8	17.0	13	27.7	14	29.8	3	6.4
	초등학생	(74)	5	6.8	24	32.4	3	4.1	7	9.5	12	16.2	18	24.3	5	6.8
	중학생 이상	(36)	5	13.9	11	30.6	0	0.0	5	13.9	8	22.2	5	13.9	2	5.6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2	7.4	7	25.9	3	11.1	4	14.8	6	22.2	4	14.8	1	3.7
	이혼	(120)	10	8.3	29	24.2	2	1.7	16	13.3	26	21.7	28	23.3	9	7.5
	사별	(10)	0	0.0	4	40.0	0	0.0	0	0.0	1	10.0	5	5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6	7.1	25	29.8	4	4.8	9	10.7	17	20.2	18	21.4	5	6.0
	임시직	(28)	3	10.7	8	28.6	0	0.0	5	17.9	5	17.9	5	17.9	2	7.1
	일용직	(11)	1	9.1	4	36.4	0	0.0	1	9.1	2	18.2	3	27.3	0	0.0
	자영업자	(10)	0	0.0	2	20.0	1	10.0	3	30.0	0	0.0	3	30.0	1	10.0
	기타 종사자	(24)	2	8.3	1	4.2	0	0.0	2	8.3	9	37.5	8	33.3	2	8.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	2	10.5	4	21.1	1	5.3	0	0.0	7	36.8	4	21.1	1	5.3
	100~200만원 미만	(57)	4	7.0	15	26.3	1	1.8	9	15.8	13	22.8	12	21.1	3	5.3
	200~300만원 미만	(28)	1	3.6	11	39.3	1	3.6	6	21.4	4	14.3	4	14.3	1	3.6
	300~400만원 미만	(19)	2	10.5	5	26.3	1	5.3	2	10.5	2	10.5	6	31.6	1	5.3
	400만원 이상	(26)	2	7.7	3	11.5	1	3.8	2	7.7	7	26.9	9	34.6	2	7.7
	잘 모름	(8)	1	12.5	2	25.0	0	0.0	1	12.5	0	0.0	2	25.0	2	25.0

〈부표 3-9〉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구해본 적 있다		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 원한다		일자리 원하지 않는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8)	20	29.4	26	38.2	22	32.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45)	18	40.0	20	44.4	7	15.6
	부자가족	(14)	1	7.1	3	21.4	10	71.4
	청소년한부모	(9)	1	11.1	3	33.3	5	55.6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8)	12	31.6	17	44.7	9	23.7
	초등학생	(14)	6	42.9	5	35.7	3	21.4
	중학생 이상	(16)	2	12.5	4	25.0	10	62.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1)	11	35.5	13	41.9	7	22.6
	이혼	(32)	8	25.0	11	34.4	13	40.6
	사별	(5)	1	20.0	2	40.0	2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무직	(68)	20	29.4	26	38.2	22	32.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2)	8	36.4	9	40.9	5	22.7
	100~200만원 미만	(33)	7	21.2	11	33.3	15	45.5
	200~300만원 미만	(3)	1	33.3	1	33.3	1	33.3
	300~400만원 미만	(1)	1	10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잘 모름	(9)	3	33.3	5	55.6	1	11.1

〈부표 3-10〉 구직 경로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회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여성사회 교육기관 방문		고용안정 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 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		친척, 친구, 동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	2	10.0	5	25.0	1	5.0	10	50.0	0	0.0	2	10.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	2	11.1	5	27.8	1	5.6	8	44.4	0	0.0	2	11.1
	부자가족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2)	2	16.7	4	33.3	1	8.3	4	33.3	0	0.0	1	8.3
	초등학생	(6)	0	0.0	1	16.7	0	0.0	4	66.7	0	0.0	1	16.7
	중학생 이상	(2)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1)	2	18.2	3	27.3	1	9.1	5	45.5	0	0.0	0	0.0
	이혼	(8)	0	0.0	2	25.0	0	0.0	4	50.0	0	0.0	2	25.0
	사별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20)	2	10.0	5	25.0	1	5.0	10	50.0	0	0.0	2	1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8)	0	0.0	4	50.0	0	0.0	3	37.5	0	0.0	1	12.5
	100~200만원 미만	(7)	1	14.3	0	0.0	1	14.3	4	57.1	0	0.0	1	14.3
	200~3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3)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부표 3-11〉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분		계	취업 정보 부족, 잘 몰라서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부모 편견과 차별 때문에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		근무시간/근무환경 맞지 않아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	1	5.0	4	20.0	0	0.0	0	0.0	9	45.0	6	30.0	0	0.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	1	5.6	4	22.2	0	0.0	0	0.0	7	38.9	6	33.3	0	0.0
	부자가족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2)	1	8.3	2	16.7	0	0.0	0	0.0	5	41.7	4	33.3	0	0.0
	초등학생	(6)	0	0.0	1	16.7	0	0.0	0	0.0	3	50.0	2	33.3	0	0.0
	중학생 이상	(2)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1)	1	9.1	1	9.1	0	0.0	0	0.0	5	45.5	4	36.4	0	0.0
	이혼	(8)	0	0.0	3	37.5	0	0.0	0	0.0	3	37.5	2	25.0	0	0.0
	사별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20)	1	5.0	4	20.0	0	0.0	0	0.0	9	45.0	6	30.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8)	0	0.0	3	37.5	0	0.0	0	0.0	4	50.0	1	12.5	0	0.0
	100~200만원 미만	(7)	0	0.0	1	14.3	0	0.0	0	0.0	3	42.9	3	42.9	0	0.0
	200~3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3)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0	0.0

〈부표 3-12〉 원하는 지위의 일치여

단위 : 명, %

구분	계	상용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시간제		상용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일제		임시직 (계약기간 1개월 ~ 1년 미만) 시간제		임시직 (계약기간 1개월 ~ 1년 미만) 전일제		일용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일용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전일제		자영업자		기타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4)	11	45.8	7	29.2	4	16.7	0	0.0	0	0.0	0	1	4.2	1	4.2
	모자기족	(21)	9	42.9	6	28.6	4	19.0	0	0.0	0	0.0	0	1	4.8	1	4.8
	부자기족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8)	8	44.4	5	27.8	4	22.2	0	0.0	0	0.0	0	1	5.6	0	0.0
	초등학교생	(5)	2	40.0	2	40.0	0	0.0	0	0.0	0	0.0	0	0	0.0	1	20.0
	중학생 이상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	0.0	0	0.0
	미(비)혼 모/부	(15)	10	66.7	4	26.7	1	6.7	0	0.0	0	0.0	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7)	1	14.3	2	28.6	2	28.6	0	0.0	0	0.0	0	1	14.3	1	14.3
	사별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	0.0	0	0.0

구분	계	상용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시간제		상용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일제		임시직 (계약기간 1개월 ~ 1년 미만) 시간제		임시직 (계약기간 1개월 ~ 1년 미만) 전일제		일용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일용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전일제		자영업자		기타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상 지위	전체	(24)	11	45.8	7	29.2	4	16.7	0	0.0	0	0.0	0	0.0	1	4.2	1	4.2
	상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무직	(24)	11	45.8	7	29.2	4	16.7	0	0.0	0	0.0	0	0.0	1	4.2	1	4.2
	100만원 미만	(12)	7	58.3	2	16.7	2	16.7	0	0.0	0	0.0	0	0.0	0	0.0	1	8.3
	100~200만원 미만	(6)	1	16.7	2	33.3	2	33.3	0	0.0	0	0.0	0	0.0	1	16.7	0	0.0
	200~300만원 미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 모름		(5)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3-13〉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아이를 돌보려고		가사일 때문에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	1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3)	1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자가족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2)	1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초등학생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학생 이상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1)	1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혼	(3)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별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15)	1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9)	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3)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3)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3-1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가족 중 간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수입, 근로시간, 임무 등이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	0	0.0	0	0.0	2	9.1	6	27.3	4	18.2	1	4.5	7	31.8	1	4.5	1	4.5
	모자기족	(7)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5	71.4	1	14.3	0	0.0
	부자기족	(10)	0	0.0	0	0.0	2	20.0	3	30.0	2	20.0	1	10.0	2	2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5)	0	0.0	0	0.0	0	0.0	3	60.0	1	20.0	0	0.0	0	0.0	0	0.0	1	2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9)	0	0.0	0	0.0	0	0.0	3	33.3	2	22.2	0	0.0	2	22.2	1	11.1	1	11.1
	초등학생	(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중학생 이상	(10)	0	0.0	0	0.0	2	20.0	3	30.0	2	20.0	1	10.0	2	2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7)	0	0.0	0	0.0	0	0.0	3	42.9	2	28.6	0	0.0	1	14.3	0	0.0	1	14.3
	이혼	(13)	0	0.0	0	0.0	2	15.4	2	15.4	2	15.4	1	7.7	6	46.2	0	0.0	0	0.0
	사별	(2)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구분	계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수입, 근로시간, 업무 등이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까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	0 0.0	0 0.0	0 0.0	2 9.1	6 27.3	4 18.2	1 4.5	7 31.8	1 4.5	1 4.5	1 4.5	1 4.5	1 4.5	1 4.5	1 4.5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직	(22)	0 0.0	0 0.0	0 0.0	2 9.1	6 27.3	4 18.2	1 4.5	7 31.8	1 4.5	1 4.5	1 4.5	1 4.5	1 4.5	1 4.5	1 4.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5)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4 8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15)	0 0.0	0 0.0	0 0.0	2 13.3	5 33.3	4 26.7	1 6.7	3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부표 3-15〉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59	26.2	166	73.8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55	30.4	126	69.6
	부자가족	(32)	0	0.0	32	100.0
	청소년한부모	(12)	4	33.3	8	6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9	34.1	56	65.9
	초등학생	(88)	23	26.1	65	73.9
	중학생 이상	(52)	7	13.5	45	86.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5	43.1	33	56.9
	이혼	(152)	31	20.4	121	79.6
	사별	(15)	3	20.0	12	8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3	15.5	71	84.5
	임시직	(28)	12	42.9	16	57.1
	일용직	(11)	2	18.2	9	81.8
	자영업자	(10)	2	20.0	8	80.0
	기타 종사자	(24)	4	16.7	20	83.3
	무직	(68)	26	38.2	42	61.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7	41.5	24	58.5
	100~200만원 미만	(90)	27	30.0	63	70.0
	200~300만원 미만	(31)	6	19.4	25	80.6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18	90.0
	400만원 이상	(26)	3	11.5	23	88.5
	잘 모름	(17)	4	23.5	13	76.5

〈부표 3-16〉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9)	2	3.4	16	27.1	32	54.2	9	15.3	2.8	0.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55)	2	3.6	15	27.3	29	52.7	9	16.4	2.8	0.7
	부자가족	(0)	0	0.0	0	0.0	0	0.0	0	0.0	.	.
	청소년한부모	(4)	0	0.0	1	25.0	3	75.0	0	0.0	2.8	0.5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29)	1	3.4	5	17.2	20	69.0	3	10.3	2.9	0.6
	초등학생	(23)	1	4.3	8	34.8	8	34.8	6	26.1	2.8	0.9
	중학생 이상	(7)	0	0.0	3	42.9	4	57.1	0	0.0	2.6	0.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5)	1	4.0	6	24.0	14	56.0	4	16.0	2.8	0.7
	이혼	(31)	1	3.2	9	29.0	16	51.6	5	16.1	2.8	0.7
	사별	(3)	0	0.0	1	33.3	2	66.7	0	0.0	2.7	0.6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	0	0.0	7	53.8	5	38.5	1	7.7	2.5	0.7
	임시직	(12)	1	8.3	3	25.0	7	58.3	1	8.3	2.7	0.8
	일용직	(2)	0	0.0	0	0.0	1	50.0	1	50.0	3.5	0.7
	자영업자	(2)	0	0.0	0	0.0	1	50.0	1	50.0	3.5	0.7
	기타 종사자	(4)	0	0.0	1	25.0	2	50.0	1	25.0	3.0	0.8
	무직	(26)	1	3.8	5	19.2	16	61.5	4	15.4	2.9	0.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7)	1	5.9	3	17.6	10	58.8	3	17.6	2.9	0.8
	100~200만원 미만	(27)	0	0.0	10	37.0	14	51.9	3	11.1	2.7	0.7
	200~300만원 미만	(6)	1	16.7	2	33.3	3	50.0	0	0.0	2.3	0.8
	300~400만원 미만	(2)	0	0.0	0	0.0	1	50.0	1	50.0	3.5	0.7
	400만원 이상	(3)	0	0.0	1	33.3	2	66.7	0	0.0	2.7	0.6
	잘 모름	(4)	0	0.0	0	0.0	2	50.0	2	50.0	3.5	0.6

〈부표 3-17〉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전문성 부족		불투명한 직업 전망		교육운영/관리부실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 부족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8)	3	16.7	4	22.2	0	0.0	9	50.0	0	0.0	2	11.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7)	3	17.6	3	17.6	0	0.0	9	52.9	0	0.0	2	11.8
	부자가족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	2	33.3	2	33.3	0	0.0	2	33.3	0	0.0	0	0.0
	초등학생	(9)	1	11.1	2	22.2	0	0.0	4	44.4	0	0.0	2	22.2
	중학생 이상	(3)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7)	1	14.3	3	42.9	0	0.0	3	42.9	0	0.0	0	0.0
	이혼	(10)	2	20.0	0	0.0	0	0.0	6	60.0	0	0.0	2	20.0
	사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7)	2	28.6	1	14.3	0	0.0	4	57.1	0	0.0	0	0.0
	임시직	(4)	1	25.0	0	0.0	0	0.0	2	50.0	0	0.0	1	25.0
	일용직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무직	(6)	0	0.0	3	50.0	0	0.0	2	33.3	0	0.0	1	16.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	0	0.0	2	50.0	0	0.0	1	25.0	0	0.0	1	25.0
	100~200만원 미만	(10)	2	20.0	2	20.0	0	0.0	5	50.0	0	0.0	1	10.0
	200~300만원 미만	(3)	1	33.3	0	0.0	0	0.0	2	66.7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잘 모름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3-1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시간이 없어서		근처에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부담되어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으로 훈련을 받아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66)	43	25.9	3	1.8	6	3.6	7	4.2	14	8.4	9	5.4	15	9.0	33	19.9	8	4.8	7	4.2	21	12.7
		(126)	34	27.0	2	1.6	4	3.2	7	5.6	9	7.1	4	3.2	11	8.7	31	24.6	4	3.2	4	3.2	16	12.7
		(32)	8	25.0	1	3.1	1	3.1	0	0.0	5	15.6	5	15.6	3	9.4	1	3.1	4	12.5	1	3.1	3	9.4
		(8)	1	12.5	0	0.0	1	12.5	0	0.0	0	0.0	0	0.0	1	12.5	1	12.5	0	0.0	2	25.0	2	2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6)	11	19.6	1	1.8	3	5.4	3	5.4	3	5.4	1	1.8	10	17.9	8	14.3	2	3.6	4	7.1	10	17.9
	초등학생	(65)	25	38.5	1	1.5	1	1.5	3	4.6	3	4.6	1	1.5	1	1.5	19	29.2	3	4.6	1	1.5	7	10.8
	중학생 이상	(45)	7	15.6	1	2.2	2	4.4	1	2.2	8	17.8	7	15.6	4	8.9	6	13.3	3	6.7	2	4.4	4	8.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3)	10	30.3	0	0.0	1	3.0	1	3.0	1	3.0	2	6.1	3	9.1	4	12.1	2	6.1	3	9.1	6	18.2
	이혼	(121)	30	24.8	3	2.5	4	3.3	5	4.1	12	9.9	6	5.0	11	9.1	27	22.3	5	4.1	3	2.5	15	12.4
	사별	(12)	3	25.0	0	0.0	1	8.3	1	8.3	1	8.3	1	8.3	1	8.3	2	16.7	1	8.3	1	8.3	0	0.0

구분	계	시간이 없어서		근처에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부담되어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으로 훈련을 받아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전체	(166)	43	25.9	3	1.8	6	3.6	7	4.2	14	8.4	9	5.4	15	9.0	33	19.9	8	4.8	7	4.2	21	12.7
	상용직	(71)	30	42.3	0	0.0	4	5.6	1	1.4	5	7.0	0	0.0	2	2.8	14	19.7	3	4.2	2	2.8	10	14.1
	임시직	(16)	2	12.5	1	6.3	1	6.3	0	0.0	2	12.5	1	6.3	1	6.3	5	31.3	2	12.5	1	6.3	0	0.0
	일용직	(9)	2	22.2	0	0.0	0	0.0	1	11.1	0	0.0	2	22.2	1	11.1	2	22.2	0	0.0	0	0.0	1	11.1
	자영업자	(8)	4	50.0	1	12.5	0	0.0	0	0.0	0	0.0	0	0.0	1	12.5	1	12.5	1	12.5	0	0.0	0	0.0
	기타 종사자	(20)	1	5.0	1	5.0	0	0.0	4	20.0	2	10.0	1	5.0	2	10.0	5	25.0	0	0.0	1	5.0	3	15.0
소득 수준	무직	(42)	4	9.5	0	0.0	1	2.4	1	2.4	5	11.9	5	11.9	8	19.0	6	14.3	2	4.8	3	7.1	7	16.7
	100만원 미만	(24)	3	12.5	1	4.2	0	0.0	2	8.3	1	4.2	0	0.0	1	4.2	9	37.5	1	4.2	0	0.0	6	25.0
	100~200만원 미만	(63)	10	15.9	2	3.2	2	3.2	2	3.2	5	7.9	8	12.7	12	19.0	16	25.4	2	3.2	2	3.2	2	3.2
	200~300만원 미만	(25)	9	36.0	0	0.0	0	0.0	2	8.0	2	8.0	0	0.0	1	4.0	6	24.0	0	0.0	2	8.0	3	12.0
	300~400만원 미만	(18)	9	50.0	0	0.0	1	5.6	0	0.0	2	11.1	0	0.0	0	0.0	1	5.6	2	11.1	0	0.0	3	16.7
	400만원 이상	(23)	10	43.5	0	0.0	1	4.3	1	4.3	3	13.0	0	0.0	0	0.0	1	4.3	2	8.7	1	4.3	4	17.4
잘 모름		(13)	2	15.4	0	0.0	2	15.4	0	0.0	1	7.7	1	7.7	1	7.7	0	0.0	1	7.7	2	15.4	3	23.1

4. 건강

〈부표 4-1〉 평소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	4.4	93	41.3	100	44.4	22	9.8	2.6	0.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7	3.9	75	41.4	79	43.6	20	11.0	2.6	0.7
	부자가족	(32)	2	6.3	11	34.4	19	59.4	0	0.0	2.5	0.6
	청소년한부모	(12)	1	8.3	7	58.3	2	16.7	2	16.7	2.4	0.9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	2.4	38	44.7	35	41.2	10	11.8	2.6	0.7
	초등학생	(88)	5	5.7	36	40.9	38	43.2	9	10.2	2.6	0.8
	중학생 이상	(52)	3	5.8	19	36.5	27	51.9	3	5.8	2.6	0.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	3.4	23	39.7	26	44.8	7	12.1	2.7	0.7
	이혼	(152)	8	5.3	62	40.8	68	44.7	14	9.2	2.6	0.7
	사별	(15)	0	0.0	8	53.3	6	40.0	1	6.7	2.5	0.6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4	4.8	49	58.3	25	29.8	6	7.1	2.4	0.7
	임시직	(28)	1	3.6	8	28.6	15	53.6	4	14.3	2.8	0.7
	일용직	(11)	0	0.0	6	54.5	4	36.4	1	9.1	2.5	0.7
	자영업자	(10)	1	10.0	2	20.0	7	70.0	0	0.0	2.6	0.7
	기타 종사자	(24)	3	12.5	7	29.2	13	54.2	1	4.2	2.5	0.8
	무직	(68)	1	1.5	21	30.9	36	52.9	10	14.7	2.8	0.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	7.3	9	22.0	22	53.7	7	17.1	2.8	0.8
	100~200만원 미만	(90)	2	2.2	29	32.2	50	55.6	9	10.0	2.7	0.7
	200~300만원 미만	(31)	1	3.2	17	54.8	11	35.5	2	6.5	2.5	0.7
	300~400만원 미만	(20)	0	0.0	16	80.0	4	20.0	0	0.0	2.2	0.4
	400만원 이상	(26)	3	11.5	14	53.8	7	26.9	2	7.7	2.3	0.8
	잘 모름	(17)	1	5.9	8	47.1	6	35.3	2	11.8	2.5	0.8

주: 4점 척도(1=매우 좋다, 2=좋은 편이다, 3=나쁜 편이다, 4=매우 나쁘다)

〈부표 4-2〉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제한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44	19.6	181	80.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40	22.1	141	77.9
	부자가족	(32)	3	9.4	29	90.6
	청소년한부모	(12)	1	8.3	11	91.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3	15.3	72	84.7
	초등학생	(88)	25	28.4	63	71.6
	중학생 이상	(52)	6	11.5	46	88.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8	13.8	50	86.2
	이혼	(152)	32	21.1	120	78.9
	사별	(15)	4	26.7	11	7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5	17.9	69	82.1
	임시직	(28)	4	14.3	24	85.7
	일용직	(11)	4	36.4	7	63.6
	자영업자	(10)	0	0.0	10	100.0
	기타 종사자	(24)	5	20.8	19	79.2
	무직	(68)	16	23.5	52	76.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6	39.0	25	61.0
	100~200만원 미만	(90)	14	15.6	76	84.4
	200~300만원 미만	(31)	5	16.1	26	83.9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18	90.0
	400만원 이상	(26)	5	19.2	21	80.8
	잘 모름	(17)	2	11.8	15	88.2

〈부표 4-3〉 건강검진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36	60.4	89	39.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21	66.9	60	33.1
	부자가족	(32)	9	28.1	23	71.9
	청소년한부모	(12)	6	50.0	6	5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4	51.8	41	48.2
	초등학생	(88)	59	67.0	29	33.0
	중학생 이상	(52)	33	63.5	19	36.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2	55.2	26	44.8
	이혼	(152)	94	61.8	58	38.2
	사별	(15)	10	66.7	5	3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62	73.8	22	26.2
	임시직	(28)	19	67.9	9	32.1
	일용직	(11)	6	54.5	5	45.5
	자영업자	(10)	8	80.0	2	20.0
	기타 종사자	(24)	14	58.3	10	41.7
	무직	(68)	27	39.7	41	60.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5	61.0	16	39.0
	100~200만원 미만	(90)	52	57.8	38	42.2
	200~300만원 미만	(31)	25	80.6	6	19.4
	300~400만원 미만	(20)	14	70.0	6	30.0
	400만원 이상	(26)	16	61.5	10	38.5
	잘 모름	(17)	4	23.5	13	76.5

〈부표 4-4〉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75	33.3	150	66.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72	39.8	109	60.2
	부자가족	(32)	1	3.1	31	96.9
	청소년한부모	(12)	2	16.7	10	8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3	38.8	52	61.2
	초등학생	(88)	31	35.2	57	64.8
	중학생 이상	(52)	11	21.2	41	78.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1	36.2	37	63.8
	이혼	(152)	49	32.2	103	67.8
	사별	(15)	5	33.3	10	6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7	32.1	57	67.9
	임시직	(28)	12	42.9	16	57.1
	일용직	(11)	3	27.3	8	72.7
	자영업자	(10)	4	40.0	6	60.0
	기타 종사자	(24)	8	33.3	16	66.7
	무직	(68)	21	30.9	47	69.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6	39.0	25	61.0
	100~200만원 미만	(90)	38	42.2	52	57.8
	200~300만원 미만	(31)	7	22.6	24	77.4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18	90.0
	400만원 이상	(26)	7	26.9	19	73.1
	잘 모름	(17)	5	29.4	12	70.6

〈부표 4-5〉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중상이 가벼워서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75)	34	45.3	1	1.3	12	16.0	0	0.0	24	32.0	1	1.3	0	0.0	3	4.0
	모자기족	(72)	32	44.4	1	1.4	11	15.3	0	0.0	24	33.3	1	1.4	0	0.0	3	4.2
	부자기족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3)	14	42.4	0	0.0	10	30.3	0	0.0	7	21.2	1	3.0	0	0.0	1	3.0
	초등학교생	(31)	15	48.4	1	3.2	2	6.5	0	0.0	11	35.5	0	0.0	0	0.0	2	6.5
	중학생 이상	(11)	5	45.5	0	0.0	0	0.0	0	0.0	6	54.5	0	0.0	0	0.0	0	0.0
	미(비)혼 모/부	(21)	11	52.4	0	0.0	5	23.8	0	0.0	4	19.0	0	0.0	0	0.0	1	4.8
한부모 된 이유	이혼	(49)	19	38.8	1	2.0	7	14.3	0	0.0	19	38.8	1	2.0	0	0.0	2	4.1
	사별	(5)	4	8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상용직	(27)	6	22.2	0	0.0	3	11.1	0	0.0	16	59.3	0	0.0	0	0.0	2	7.4
	임시직	(12)	7	58.3	0	0.0	1	8.3	0	0.0	3	25.0	1	8.3	0	0.0	0	0.0
총상장 지위	일용직	(3)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자영업자	(4)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8)	4	50.0	0	0.0	0	0.0	0	0.0	4	50.0	0	0.0	0	0.0	0	0.0
	무직	(21)	13	61.9	0	0.0	7	33.3	0	0.0	0	0.0	0	0.0	0	0.0	1	4.8

구분	계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중상이 가벼워서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5)	34	45.3	1	1.3	12	16.0	0	0.0	24	32.0	1	1.3	0	0.0	3	4.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2	75.0	0	0.0	1	6.3	0	0.0	2	12.5	0	0.0	0	0.0	1	6.3
	100~200만원 미만	16	42.1	1	2.6	7	18.4	0	0.0	13	34.2	0	0.0	0	0.0	1	2.6
	200~300만원 미만	3	42.9	0	0.0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1	14.3	0	0.0	2	28.6	0	0.0	2	28.6	1	14.3	0	0.0	1	14.3
잘 모름	(5)	1	20.0	0	0.0	2	40.0	0	0.0	2	40.0	0	0.0	0	0.0	0	0.0

〈부표 4-6〉 규칙적인 운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달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73	32.4	38	16.9	40	17.8	29	12.9	20	8.9	8	3.6	5	2.2	5	2.2	7	3.1
	모자기족	(181)	67	37.0	30	16.6	27	14.9	23	12.7	14	7.7	5	2.8	5	2.8	4	2.2	6	3.3
	부자기족	(32)	2	6.3	6	18.8	9	28.1	6	18.8	5	15.6	3	9.4	0	0.0	1	3.1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청소년한부모	(12)	4	33.3	2	16.7	4	33.3	0	0.0	1	8.3	0	0.0	0	0.0	0	0.0	1	8.3
	미취학 아동	(85)	38	44.7	13	15.3	11	12.9	9	10.6	5	5.9	3	3.5	2	2.4	1	1.2	3	3.5
	초등학교생	(88)	25	28.4	16	18.2	15	17.0	10	11.4	12	13.6	3	3.4	2	2.3	3	3.4	2	2.3
한부모 된 이유	중학생 이상	(52)	10	19.2	9	17.3	14	26.9	10	19.2	3	5.8	2	3.8	1	1.9	1	1.9	2	3.8
	미(비)혼 모/부	(58)	23	39.7	7	12.1	11	19.0	6	10.3	5	8.6	1	1.7	2	3.4	0	0.0	3	5.2
	이혼	(152)	48	31.6	27	17.8	26	17.1	21	13.8	13	8.6	6	3.9	2	1.3	5	3.3	4	2.6
총사상 지위	사별	(15)	2	13.3	4	26.7	3	20.0	2	13.3	2	13.3	1	6.7	1	6.7	0	0.0	0	0.0
	상용직	(84)	21	25.0	19	22.6	16	19.0	11	13.1	6	7.1	4	4.8	2	2.4	3	3.6	2	2.4
	임시직	(28)	10	35.7	5	17.9	3	10.7	4	14.3	4	14.3	1	3.6	0	0.0	0	0.0	1	3.6
	일용직	(11)	1	9.1	2	18.2	2	18.2	2	18.2	2	18.2	1	9.1	1	9.1	0	0.0	0	0.0
	자영업자	(10)	4	40.0	3	30.0	0	0.0	2	20.0	0	0.0	0	0.0	0	0.0	1	10.0	0	0.0
	기타 종사자	(24)	17	70.8	3	12.5	1	4.2	1	4.2	0	0.0	0	0.0	1	4.2	0	0.0	1	4.2
무직	(68)	20	29.4	6	8.8	18	26.5	9	13.2	8	11.8	2	2.9	1	1.5	1	1.5	3	4.4	

구분	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달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73	32.4	38	16.9	40	17.8	29	12.9	20	8.9	8	3.6	5	2.2	5	2.2	7	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7	41.5	5	12.2	7	17.1	4	9.8	3	7.3	0	0.0	1	2.4	1	2.4	3	7.3
	100~200만원 미만	32	35.6	11	12.2	16	17.8	12	13.3	11	12.2	2	2.2	3	3.3	1	1.1	2	2.2
	200~300만원 미만	8	25.8	10	32.3	3	9.7	5	16.1	3	9.7	1	3.2	0	0.0	1	3.2	0	0.0
	300~400만원 미만	4	20.0	2	10.0	8	40.0	3	15.0	0	0.0	2	10.0	0	0.0	1	5.0	0	0.0
	400만원 이상	7	26.9	7	26.9	3	11.5	5	19.2	1	3.8	2	7.7	1	3.8	0	0.0	0	0.0
잘 모름	(17)	5	29.4	3	17.6	3	17.6	0	0.0	2	11.8	1	5.9	0	0.0	1	5.9	2	11.8

〈부표 4-7〉 우울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0~4점		5~9점		10~14점		15~19점		20~27점		총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59	26.2	68	30.2	49	21.8	30	13.3	19	8.4	9.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46	25.4	57	31.5	39	21.5	21	11.6	18	9.9	9.5
	부자가족	(32)	9	28.1	5	15.6	9	28.1	9	28.1	0	0.0	9.5
	청소년한부모	(12)	4	33.3	6	50.0	1	8.3	0	0.0	1	8.3	7.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1	24.7	27	31.8	14	16.5	13	15.3	10	11.8	9.9
	초등학생	(88)	24	27.3	29	33.0	22	25.0	5	5.7	8	9.1	8.8
	중학생 이상	(52)	14	26.9	12	23.1	13	25.0	12	23.1	1	1.9	9.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4	24.1	21	36.2	6	10.3	10	17.2	7	12.1	9.8
	이혼	(152)	41	27.0	42	27.6	40	26.3	18	11.8	11	7.2	9.3
	사별	(15)	4	26.7	5	33.3	3	20.3	2	13.3	1	6.7	8.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9	34.5	29	34.5	17	20.2	6	7.1	3	3.6	7.4
	임시직	(28)	7	25.0	9	32.1	6	21.4	4	14.3	2	7.1	9.6
	일용직	(11)	2	18.2	6	54.5	2	18.2	0	0.0	1	9.1	8.5
	자영업자	(10)	2	20.0	2	20.0	5	50.0	1	10.0	0	0.0	8.7
	기타 종사자	(240)	6	25.0	10	41.7	7	29.2	0	0.0	1	4.2	7.8
	무직	(68)	13	19.1	12	17.6	12	17.6	19	27.9	12	17.6	12.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5	12.2	10	24.4	8	19.5	7	17.1	11	26.8	13.4
	100~200만원 미만	(90)	20	22.2	27	30.0	22	24.4	17	18.9	4	4.4	9.7
	200~300만원 미만	(31)	7	22.6	12	38.7	9	29.0	1	3.2	2	6.5	8.6
	300~400만원 미만	(20)	9	45.0	9	45.0	2	10.0	0	0.0	0	0.0	4.8
	400만원 이상	(26)	12	46.2	5	19.2	4	15.4	3	11.5	2	7.7	7.4
	잘 모름	(17)	6	35.3	5	29.4	4	23.5	2	11.8	0	0.0	7.9

주1: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그렇다 1점, 일주일 이상 그렇다 2점, 거의 매일 그렇다 3점

주2: 총점 0점~4점: 우울증상 없음, 5점~9점: 가벼운 우울, 10점~14점: 중간 정도 우울(치료 권장), 15점~19점: 중간 정도 우울(치료 권장), 20점~27점: 심한 우울(적극적 치료 필요)

〈부표 4-8〉 우울감 해소 방법

단위 : 명, %

구분	계	혼자서 참는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 한다		술을 마신다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의료기관 치료를 받는다. (의사진단, 약 처방 등)		지역사회 전문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복지관 등)와 상담한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46.2	42	18.7	31	13.8	29	12.9	11	4.9	2	0.9	6	2.7
	모자가족	(181)	51.4	31	17.1	22	12.2	21	11.6	6	3.3	2	1.1	6	3.3
	부자가족	(32)	15.6	8	25.0	8	25.0	7	21.9	4	12.5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12)	50.0	3	25.0	1	8.3	1	8.3	1	8.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8.8	8	9.4	11	12.9	11	12.9	3	3.5	0	0.0	2	2.4
	초등학교생	(88)	45.5	24	27.3	11	12.5	8	9.1	2	2.3	1	1.1	2	2.3
	중학생 이상	(52)	26.9	10	19.2	9	17.3	10	19.2	6	11.5	1	1.9	2	3.8
	미(비)혼 모/부	(58)	58.6	11	19.0	3	5.2	6	10.3	3	5.2	0	0.0	1	1.7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52)	40.8	29	19.1	27	17.8	21	13.8	6	3.9	2	1.3	5	3.3
	사별	(15)	53.3	2	13.3	1	6.7	2	13.3	2	13.3	0	0.0	0	0.0
	상용직	(84)	45.2	26	31.0	11	13.1	7	8.3	0	0.0	0	0.0	2	2.4
	임시직	(28)	46.4	5	17.9	6	21.4	3	10.7	0	0.0	1	3.6	0	0.0
총사상 지위	일용직	(11)	36.4	2	18.2	3	27.3	1	9.1	0	0.0	1	9.1	0	0.0
	자영업자	(10)	50.0	1	10.0	1	10.0	1	10.0	2	2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24)	50.0	4	16.7	2	8.3	2	8.3	1	4.2	0	0.0	3	12.5
	무직	(68)	47.1	4	5.9	8	11.8	15	22.1	8	11.8	0	0.0	1	1.5

구분	계	혼자서 참는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 한다		술을 마신다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의료기관 치료를 받는다. (의사진단, 약 처방 등)		지역사회 전문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복지관 등)와 상담한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4	46.2	42	18.7	31	13.8	29	12.9	11	4.9	2	0.9	6	2.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1	51.2	5	12.2	5	12.2	3	7.3	2	4.9	1	2.4	4	9.8
	100~200만원 미만	43	47.8	9	10.0	16	17.8	14	15.6	7	7.8	1	1.1	0	0.0
	200~300만원 미만	14	45.2	8	25.8	4	12.9	3	9.7	1	3.2	0	0.0	1	3.2
	300~400만원 미만	6	30.0	9	45.0	3	15.0	2	1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12	46.2	8	30.8	3	11.5	2	7.7	1	3.8	0	0.0	0	0.0
잘 모름	(17)	8	47.1	3	17.6	0	0.0	5	29.4	0	0.0	0	0.0	1	5.9

5. 경제상태

〈부표 5-1〉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잘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41	18.2	90	40.0	31	13.8	20	8.9	26	11.6	17	7.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7	20.4	70	38.7	30	16.6	14	7.7	18	9.9	12	6.6
	부자가족	(32)	1	3.1	16	50.0	1	3.1	6	18.8	8	25.0	0	0.0
	청소년한부모	(12)	3	25.0	4	33.3	0	0.0	0	0.0	0	0.0	5	41.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5	17.6	31	36.5	11	12.9	4	4.7	11	12.9	13	15.3
	초등학생	(88)	20	22.7	27	30.7	14	15.9	14	15.9	10	11.4	3	3.4
	중학생 이상	(52)	6	11.5	32	61.5	6	11.5	2	3.8	5	9.6	1	1.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6	27.6	19	32.8	5	8.6	4	6.9	3	5.2	11	19.0
	이혼	(152)	24	15.8	65	42.8	23	15.1	13	8.6	22	14.5	5	3.3
	사별	(15)	1	6.7	6	40.0	3	20.0	3	20.0	1	6.7	1	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4	4.8	20	23.8	24	28.6	17	20.2	16	19.0	3	3.6
	임시직	(28)	3	10.7	18	64.3	2	7.1	0	0.0	2	7.1	3	10.7
	일용직	(11)	3	27.3	7	63.6	0	0.0	1	9.1	0	0.0	0	0.0
	자영업자	(10)	0	0.0	4	40.0	1	10.0	0	0.0	4	40.0	1	10.0
	기타 종사자	(24)	9	37.5	8	33.3	1	4.2	1	4.2	4	16.7	1	4.2
	무직	(68)	22	32.4	33	48.5	3	4.4	1	1.5	0	0.0	9	13.2

〈부표 5-2〉 주 소득원(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본인 근로소득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같이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정부지원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개인적 빚을 얻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4)	160	71.4	36	16.1	23	10.3	39	17.4	123	54.9	29	12.9	20	8.9	3	1.3	11	4.9
		(180)	137	76.1	28	15.6	14	7.8	22	12.2	106	58.9	22	12.2	17	9.4	2	1.1	10	5.6
		(32)	18	56.3	8	25.0	7	21.9	13	40.6	6	18.8	7	21.9	3	9.4	0	0.0	0	0.0
		(12)	5	41.7	0	0.0	2	16.7	4	33.3	11	91.7	0	0.0	0	0.0	1	8.3	1	8.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2	61.2	14	16.5	11	12.9	17	20.0	55	64.7	10	11.8	3	3.5	2	2.4	5	5.9
		(87)	71	81.6	14	16.1	5	5.7	16	18.4	43	49.4	10	11.5	9	10.3	1	1.1	4	4.6
		(52)	37	71.2	8	15.4	7	13.5	6	11.5	25	48.1	9	17.3	8	15.4	0	0.0	2	3.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4	58.6	3	5.2	4	6.9	13	22.4	45	77.6	8	13.8	3	5.2	1	1.7	4	6.9
		(152)	116	76.3	32	21.1	18	11.8	22	14.5	71	46.7	21	13.8	15	9.9	1	0.7	5	3.3
		(14)	10	71.4	1	7.1	1	7.1	4	28.6	7	50.0	0	0.0	2	14.3	1	7.1	2	14.3

구분	계	본인 근로소득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같이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정부지원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개인적 빚을 얻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전체	(224)	160	71.4	36	16.1	23	10.3	39	17.4	123	54.9	29	12.9	20	8.9	3	1.3	11	4.9
	상용직	(84)	80	95.2	18	21.4	5	6.0	14	16.7	26	31.0	10	11.9	9	10.7	0	0.0	4	4.8
	임시직	(27)	25	92.6	2	7.4	4	14.8	3	11.1	16	59.3	2	7.4	1	3.7	1	3.7	0	0.0
	일용직	(11)	10	90.9	2	18.2	2	18.2	0	0.0	8	72.7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10)	8	80.0	0	0.0	1	10.0	0	0.0	3	30.0	3	30.0	4	40.0	0	0.0	1	10.0
	기타 종사자	(24)	22	91.7	2	8.3	1	4.2	1	4.2	18	75.0	1	4.2	3	12.5	0	0.0	0	0.0
	무직	(68)	15	22.1	12	17.6	10	14.7	21	30.9	52	76.5	13	19.1	3	4.4	2	2.9	6	8.8
	100만원 미만	(41)	20	48.8	5	12.2	1	2.4	9	22.0	36	87.8	4	9.8	2	4.9	1	2.4	4	9.8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90)	60	66.7	14	15.6	9	10.0	16	17.8	57	63.3	11	12.2	8	8.9	1	1.1	2	2.2
	200~300만원 미만	(31)	29	93.5	6	19.4	5	16.1	3	9.7	11	35.5	2	6.5	5	16.1	0	0.0	1	3.2
	300~400만원 미만	(20)	19	95.0	4	20.0	2	10.0	4	20.0	1	5.0	4	20.0	2	10.0	0	0.0	3	15.0
	400만원 이상	(26)	24	92.3	6	23.1	2	7.7	4	15.4	5	19.2	6	23.1	3	11.5	1	3.8	0	0.0
	잘 모름	(16)	8	50.0	1	6.3	4	25.0	3	18.8	13	81.3	2	12.5	0	0.0	0	0.0	1	6.3

〈부표 5-3〉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 명, %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잘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47	20.9	91	40.4	49	21.8	13	5.8	15	6.7	10	4.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3	18.2	78	43.1	42	23.2	10	5.5	12	6.6	6	3.3
	부자가족	(32)	11	34.4	8	25.0	6	18.8	3	9.4	3	9.4	1	3.1
	청소년한부모	(12)	3	25.0	5	41.7	1	8.3	0	0.0	0	0.0	3	2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2	25.9	32	37.6	15	17.6	3	3.5	5	5.9	8	9.4
	초등학생	(88)	10	11.4	38	43.2	23	26.1	8	9.1	7	8.0	2	2.3
	중학생 이상	(52)	15	28.8	21	40.4	11	21.2	2	3.8	3	5.8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9	32.8	22	37.9	7	12.1	3	5.2	1	1.7	6	10.3
	이혼	(152)	26	17.1	66	43.4	35	23.0	7	4.6	14	9.2	4	2.6
	사별	(15)	2	13.3	3	20.0	7	46.7	3	20.0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7	8.3	30	35.7	29	34.5	8	9.5	9	10.7	1	1.2
	임시직	(28)	4	14.3	16	57.1	6	21.4	1	3.6	1	3.6	0	0.0
	일용직	(11)	2	18.2	8	72.7	1	9.1	0	0.0	0	0.0	0	0.0
	자영업자	(10)	1	10.0	3	30.0	1	10.0	1	10.0	2	20.0	2	20.0
	기타 종사자	(24)	9	37.5	7	29.2	4	16.7	1	4.2	3	12.5	0	0.0
	무직	(68)	24	35.3	27	39.7	8	11.8	2	2.9	0	0.0	7	10.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0	48.8	16	39.0	3	7.3	1	2.4	0	0.0	1	2.4
	100~200만원 미만	(90)	18	20.0	56	62.2	14	15.6	1	1.1	0	0.0	1	1.1
	200~300만원 미만	(31)	3	9.7	7	22.6	17	54.8	2	6.5	2	6.5	0	0.0
	300~400만원 미만	(20)	1	5.0	3	15.0	10	50.0	4	20.0	2	10.0	0	0.0
	400만원 이상	(26)	1	3.8	5	19.2	4	15.4	5	19.2	10	38.5	1	3.8
	잘 모름	(17)	4	23.5	4	23.5	1	5.9	0	0.0	1	5.9	7	41.2

〈부표 5-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식료품비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자녀교육비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학비, 직업훈련비 등)		주거 및 관리비 (집세,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의료비/보험료		교통통신비 (교통비, 핸드폰비 등)		문화생활비 (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대출금 상환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115	51.1	44	19.6	102	45.3	21	9.3	70	31.1	31	13.8	16	7.1	8	3.6	42	18.7	0	0.0
		(181)	97	53.6	31	17.1	81	44.8	15	8.3	62	34.3	20	11.0	12	6.6	6	3.3	37	20.4	0	0.0
		(32)	11	34.4	8	25.0	20	62.5	5	15.6	7	21.9	8	25.0	2	6.3	1	3.1	2	6.3	0	0.0
		(12)	7	58.3	5	41.7	1	8.3	1	8.3	1	8.3	3	25.0	2	16.7	1	8.3	3	25.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2	49.4	23	27.1	30	35.3	7	8.2	26	30.6	14	16.5	10	11.8	4	4.7	13	15.3	0	0.0
		(88)	48	54.5	15	17.0	42	47.7	7	8.0	29	33.0	7	8.0	3	3.4	3	3.4	22	25.0	0	0.0
		(52)	25	48.1	6	11.5	30	57.7	7	13.5	15	28.8	10	19.2	3	5.8	1	1.9	7	13.5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3	56.9	14	24.1	19	32.8	1	1.7	19	32.8	8	13.8	9	15.5	3	5.2	9	15.5	0	0.0
		(152)	73	48.0	28	18.4	77	50.7	17	11.2	45	29.6	21	13.8	7	4.6	5	3.3	31	20.4	0	0.0
		(15)	9	60.0	2	13.3	6	40.0	3	20.0	6	40.0	2	13.3	0	0.0	0	0.0	2	13.3	0	0.0

구분	계	식료품비		의료, 신발, 가정용품비		자녀교육비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학비, 직업훈련비 등)		주거 및 관리비 (집세,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의료비/보혐료		교통통신비 (교통비, 핸드폰비 등)		문화생활비 (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대출금 상환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사상 지위	전체	(225)	115	51.1	44	19.6	102	45.3	21	9.3	70	31.1	31	13.8	16	7.1	8	3.6	42	18.7	0	0.0
	상용직	(84)	47	56.0	11	13.1	45	53.6	8	9.5	25	29.8	10	11.9	4	4.8	2	2.4	16	19.0	0	0.0
	임시직	(28)	14	50.0	6	21.4	10	35.7	5	17.9	10	35.7	4	14.3	2	7.1	1	3.6	4	14.3	0	0.0
	일용직	(11)	6	54.5	2	18.2	6	54.5	2	18.2	3	27.3	0	0.0	0	0.0	1	9.1	2	18.2	0	0.0
	자영업자	(10)	4	40.0	0	0.0	6	60.0	1	10.0	4	40.0	1	10.0	1	10.0	0	0.0	3	30.0	0	0.0
	기타 종사자	(24)	14	58.3	3	12.5	14	58.3	1	4.2	6	25.0	2	8.3	1	4.2	0	0.0	6	25.0	0	0.0
소득 수준	무직	(68)	30	44.1	22	32.4	21	30.9	4	5.9	22	32.4	14	20.6	8	11.8	4	5.9	11	16.2	0	0.0
	100만원 미만	(41)	18	43.9	13	31.7	15	36.6	2	4.9	14	34.1	5	12.2	2	4.9	4	9.8	9	22.0	0	0.0
	100~200만원 미만	(90)	43	47.8	16	17.8	44	48.9	10	11.1	30	33.3	13	14.4	6	6.7	2	2.2	15	16.7	0	0.0
	200~300만원 미만	(31)	16	51.6	4	12.9	11	35.5	5	16.1	10	32.3	7	22.6	1	3.2	0	0.0	8	25.8	0	0.0
	300~400만원 미만	(20)	11	55.0	2	10.0	13	65.0	1	5.0	4	20.0	2	10.0	1	5.0	1	5.0	5	25.0	0	0.0
	400만원 이상	(26)	18	69.2	3	11.5	14	53.8	3	11.5	8	30.8	2	7.7	1	3.8	0	0.0	3	11.5	0	0.0
잘 모름		(17)	9	52.9	6	35.3	5	29.4	0	0.0	4	23.5	2	11.8	5	29.4	1	5.9	2	11.8	0	0.0

〈부표 5-5〉 부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28	56.9	97	43.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17	64.6	64	35.4
	부자가족	(32)	8	25.0	24	75.0
	청소년한부모	(12)	3	25.0	9	75.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1	48.2	44	51.8
	초등학생	(88)	62	70.5	26	29.5
	중학생 이상	(52)	25	48.1	27	51.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7	46.6	31	53.4
	이혼	(152)	92	60.5	60	39.5
	사별	(15)	9	60.0	6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52	61.9	32	38.1
	임시직	(28)	16	57.1	12	42.9
	일용직	(11)	9	81.8	2	18.2
	자영업자	(10)	5	50.0	5	50.0
	기타 종사자	(24)	17	70.8	7	29.2
	무직	(68)	29	42.6	39	57.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5	61.0	16	39.0
	100~200만원 미만	(90)	48	53.3	42	46.7
	200~300만원 미만	(31)	24	77.4	7	22.6
	300~400만원 미만	(20)	11	55.0	9	45.0
	400만원 이상	(26)	12	46.2	14	53.8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5-6〉 빚을 지게 된 원인

단위: 명, %

구분		계	주거유지비 (전월세 보증금 마련, 주택 구입 등)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생활비 (식료품, 의복 등 생필품, 공과금 지불)		휴대전화 명의대여 및 소액결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8)	55	43.0	9	7.0	4	3.1	37	28.9	5	3.9	18	14.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17)	50	42.7	9	7.7	3	2.6	35	29.9	3	2.6	17	14.5
	부자가족	(8)	5	62.5	0	0.0	1	12.5	1	12.5	0	0.0	1	12.5
	청소년한부모	(3)	0	0.0	0	0.0	0	0.0	1	33.3	2	66.7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1)	15	36.6	4	9.8	1	2.4	11	26.8	4	9.8	6	14.6
	초등학생	(62)	29	46.8	3	4.8	1	1.6	18	29.0	1	1.6	10	16.1
	중학생 이상	(25)	11	44.0	2	8.0	2	8.0	8	32.0	0	0.0	2	8.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8	29.6	2	7.4	1	3.7	7	25.9	4	14.8	5	18.5
	이혼	(92)	43	46.7	7	7.6	3	3.3	26	28.3	1	1.1	12	13.0
	사별	(9)	4	44.4	0	0.0	0	0.0	4	44.4	0	0.0	1	11.1
종사상 지위	상용직	(52)	28	53.8	3	5.8	0	0.0	15	28.8	0	0.0	6	11.5
	임시직	(16)	8	50.0	0	0.0	1	6.3	4	25.0	1	6.3	2	12.5
	일용직	(9)	1	11.1	3	33.3	0	0.0	4	44.4	0	0.0	1	11.1
	자영업자	(5)	4	80.0	1	2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7)	7	41.2	0	0.0	2	11.8	4	23.5	1	5.9	3	17.6
	무직	(29)	7	24.1	2	6.9	1	3.4	10	34.5	3	10.3	6	20.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5)	7	28.0	2	8.0	3	12.0	3	12.0	1	4.0	9	36.0
	100~200만원 미만	(48)	18	37.5	6	12.5	0	0.0	17	35.4	1	2.1	6	12.5
	200~300만원 미만	(24)	15	62.5	0	0.0	0	0.0	8	33.3	0	0.0	1	4.2
	300~400만원 미만	(11)	8	72.7	0	0.0	0	0.0	3	27.3	0	0.0	0	0.0
	400만원 이상	(12)	7	58.3	1	8.3	1	8.3	2	16.7	0	0.0	1	8.3
	잘 모름	(8)	0	0.0	0	0.0	0	0.0	4	50.0	3	37.5	1	12.5

〈부표 5-7〉 월평균 부채 상환 금액

단위 : 명,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6)	63	50.0	39	31.0	15	11.9	9	7.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15)	58	50.4	35	30.4	13	11.3	9	7.8
	부자가족	(8)	4	50.0	2	25.0	2	25.0	0	0.0
	청소년한부모	(3)	1	33.3	2	66.7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0)	20	50.0	12	30.0	6	15.0	2	5.0
	초등학생	(61)	31	50.8	21	34.4	5	8.2	4	6.6
	중학생 이상	(25)	12	48.0	6	24.0	4	16.0	3	12.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7)	14	51.9	11	40.7	1	3.7	1	3.7
	이혼	(91)	47	51.6	24	26.4	12	13.2	8	8.8
	사별	(8)	2	25.0	4	50.0	2	25.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52)	24	46.2	16	30.8	7	13.5	5	9.6
	임시직	(16)	9	56.3	3	18.8	3	18.8	1	6.3
	일용직	(9)	5	55.6	2	22.2	1	11.1	1	11.1
	자영업자	(4)	3	75.0	1	25.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7)	9	52.9	4	23.5	3	17.6	1	5.9
	무직	(28)	13	46.4	13	46.4	1	3.6	1	3.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5)	15	60.0	6	24.0	3	12.0	1	4.0
	100~200만원 미만	(47)	27	57.4	11	23.4	7	14.9	2	4.3
	200~300만원 미만	(24)	9	37.5	11	45.8	3	12.5	1	4.2
	300~400만원 미만	(11)	4	36.4	5	45.5	1	9.1	1	9.1
	400만원 이상	(11)	4	36.4	3	27.3	1	9.1	3	27.3
	잘 모름	(8)	4	50.0	3	37.5	0	0.0	1	12.5

〈부표 5-8〉 신용불량 상태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56	24.9	169	75.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53	29.3	128	70.7
	부자가족	(32)	1	3.1	31	96.9
	청소년한부모	(12)	2	16.7	10	8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3	27.1	62	72.9
	초등학생	(88)	28	31.8	60	68.2
	중학생 이상	(52)	5	9.6	47	90.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8	31.0	40	69.0
	이혼	(152)	36	23.7	116	76.3
	사별	(15)	2	13.3	13	8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2	14.3	72	85.7
	임시직	(28)	9	32.1	19	67.9
	일용직	(11)	7	63.6	4	36.4
	자영업자	(10)	0	0.0	10	100.0
	기타 종사자	(24)	6	25.0	18	75.0
	무직	(68)	22	32.4	46	67.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6	39.0	25	61.0
	100~200만원 미만	(90)	25	27.8	65	72.2
	200~300만원 미만	(31)	5	16.1	26	83.9
	300~400만원 미만	(20)	1	5.0	19	95.0
	400만원 이상	(26)	2	7.7	24	92.3
	잘 모름	(17)	7	41.2	10	58.8

〈부표 5-9〉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분	계	소득이 높은 일자리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미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지원		직업훈련, 취업교육, 알선 등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		일할 수 있을 정도 건강한 마음		실직이나 휴업 시 보조금 지급		한부모 가정 사회적 편견 개선		기타		
		소득이 높은 일자리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미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지원		직업훈련, 취업교육, 알선 등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		일할 수 있을 정도 건강한 마음		실직이나 휴업 시 보조금 지급		한부모 가정 사회적 편견 개선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83	36.9	118	52.4	104	46.2	22	9.8	41	18.2	31	13.8	35	15.6	9	4.0	7	3.1
	모자기족	(181)	68	37.6	99	54.7	79	43.6	14	7.7	37	20.4	22	12.2	30	16.6	7	3.9	6	3.3
	부자기족	(32)	9	28.1	10	31.3	18	56.3	8	25.0	4	12.5	8	25.0	5	15.6	1	3.1	1	3.1
	청소년한부모	(12)	6	50.0	9	75.0	7	58.3	0	0.0	0	0.0	1	8.3	0	0.0	1	8.3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0	35.3	49	57.6	51	60.0	4	4.7	10	11.8	6	7.1	13	15.3	5	5.9	2	2.4
	초등학교생	(88)	33	37.5	49	55.7	36	40.9	7	8.0	20	22.7	13	14.8	13	14.8	1	1.1	4	4.5
	중학생 이상	(52)	20	38.5	20	38.5	17	32.7	11	21.2	11	21.2	12	23.1	9	17.3	3	5.8	1	1.9
	미(비)혼 모/부	(58)	20	34.5	37	63.8	31	53.4	4	6.9	7	12.1	6	10.3	7	12.1	3	5.2	1	1.7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52)	59	38.8	73	48.0	65	42.8	15	9.9	31	20.4	23	15.1	26	17.1	6	3.9	6	3.9
	사별	(15)	4	26.7	8	53.3	8	53.3	3	20.0	3	20.0	2	13.3	2	13.3	0	0.0	0	0.0
	상용직	(84)	37	44.0	42	50.0	38	45.2	9	10.7	13	15.5	10	11.9	12	14.3	3	3.6	4	4.8
	임시직	(28)	9	32.1	18	64.3	10	35.7	2	7.1	6	21.4	4	14.3	6	21.4	1	3.6	0	0.0
종사상 지위	일용직	(11)	6	54.5	5	45.5	5	45.5	0	0.0	2	18.2	3	27.3	1	9.1	0	0.0	0	0.0
	자영업자	(10)	1	10.0	6	60.0	8	80.0	1	10.0	0	0.0	2	20.0	1	10.0	1	10.0	0	0.0
	기타 종사자	(24)	8	33.3	11	45.8	13	54.2	2	8.3	7	29.2	2	8.3	3	12.5	0	0.0	2	8.3
	무직	(68)	22	32.4	36	52.9	30	44.1	8	11.8	13	19.1	10	14.7	12	17.6	4	5.9	1	1.5

구분	계	소득이 높은 일자리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미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지원		직업훈련, 취업교육, 알선 등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마음		실직이나 휴업 시 보조금 지급		한부모 가정 사회적 편견 개선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225)	83	36.9	118	52.4	104	46.2	22	9.8	41	18.2	31	13.8	35	15.6	9	4.0	7	3.1
	100만원 미만	(41)	13	31.7	24	58.5	17	41.5	1	2.4	11	26.8	9	22.0	6	14.6	1	2.4	0	0.0
	100~200만원 미만	(90)	38	42.2	42	46.7	36	40.0	12	13.3	18	20.0	12	13.3	15	16.7	5	5.6	2	2.2
	200~300만원 미만	(31)	12	38.7	14	45.2	13	41.9	3	9.7	4	12.9	6	19.4	8	25.8	1	3.2	1	3.2
	300~400만원 미만	(20)	8	40.0	11	55.0	12	60.0	1	5.0	5	25.0	0	0.0	2	10.0	1	5.0	0	0.0
	400만원 이상	(26)	7	26.9	15	57.7	17	65.4	5	19.2	2	7.7	2	7.7	1	3.8	0	0.0	3	11.5
잘 모름	(17)	5	29.4	12	70.6	9	52.9	0	0.0	1	5.9	2	11.8	3	17.6	1	5.9	1	5.9	

6. 주거 환경

〈부표 6-1〉 주거 형태

단위 : 명, %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무상으로 친구 집에서		공공임대		복지시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32	14.2	32	14.2	44	19.6	9	4.0	25	11.1	0	0.0	61	27.1	22	9.8	0	0.0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26	14.4	26	14.4	39	21.5	2	1.1	16	8.8	0	0.0	56	30.9	16	8.8	0	0.0
	부자기족	5	15.6	6	18.8	5	15.6	7	21.9	7	21.9	0	0.0	2	6.3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1	8.3	0	0.0	0	0.0	0	0.0	2	16.7	0	0.0	3	25.0	6	5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0	11.8	8	9.4	19	22.4	1	1.2	7	8.2	0	0.0	24	28.2	16	18.8	0	0.0
	초등학교생	17	19.3	16	18.2	15	17.0	1	1.1	10	11.4	0	0.0	23	26.1	6	6.8	0	0.0
	중학생 이상	5	9.6	8	15.4	10	19.2	7	13.5	8	15.4	0	0.0	14	26.9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	5.2	9	15.5	9	15.5	1	1.7	2	3.4	0	0.0	19	32.8	15	25.9	0	0.0
	이혼	27	17.8	20	13.2	33	21.7	8	5.3	19	12.5	0	0.0	38	25.0	7	4.6	0	0.0
	사별	2	13.3	3	20.0	2	13.3	0	0.0	4	26.7	0	0.0	4	26.7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4	28.6	22	26.2	12	14.3	0	0.0	6	7.1	0	0.0	16	19.0	4	4.8	0	0.0
	임시직	3	10.7	3	10.7	3	10.7	1	3.6	2	7.1	0	0.0	11	39.3	5	17.9	0	0.0
	일용직	0	0.0	1	9.1	3	27.3	1	9.1	2	18.2	0	0.0	3	27.3	1	9.1	0	0.0
	지영업자	1	10.0	1	10.0	6	60.0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0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무상으로 친구 집에서		공공임대		복지시설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32	14.2	32	14.2	44	19.6	9	4.0	25	11.1	0	0.0	61	27.1	22	9.8	0	0.0
기타 종사자 무직	(24)	2	8.3	3	12.5	4	16.7	1	4.2	5	20.8	0	0.0	7	29.2	2	8.3	0	0.0
	(68)	2	2.9	2	2.9	16	23.5	6	8.8	8	11.8	0	0.0	24	35.3	10	14.7	0	0.0
소득 수준	(41)	0	0.0	1	2.4	10	24.4	0	0.0	4	9.8	0	0.0	19	46.3	7	17.1	0	0.0
	(90)	6	6.7	8	8.9	19	21.1	8	8.9	10	11.1	0	0.0	31	34.4	8	8.9	0	0.0
	(31)	8	25.8	8	25.8	5	16.1	0	0.0	4	12.9	0	0.0	5	16.1	1	3.2	0	0.0
	(20)	8	40.0	9	45.0	1	5.0	0	0.0	1	5.0	0	0.0	1	5.0	0	0.0	0	0.0
	(26)	9	34.6	6	23.1	5	19.2	1	3.8	2	7.7	0	0.0	2	7.7	1	3.8	0	0.0
	(17)	1	5.9	0	0.0	4	23.5	0	0.0	4	23.5	0	0.0	3	17.6	5	29.4	0	0.0
잘 모름																			

〈부표 6-2〉 주택 형태

단위 : 명, %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33	14.7	90	40.0	87	38.7	5	2.2	4	1.8	6	2.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0	16.6	77	42.5	69	38.1	0	0.0	1	0.6	4	2.2
	부자가족	(32)	1	3.1	11	34.4	12	37.5	5	15.6	3	9.4	0	0.0
	청소년한부모	(12)	2	16.7	2	16.7	6	50.0	0	0.0	0	0.0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1	12.9	27	31.8	40	47.1	0	0.0	2	2.4	5	5.9
	초등학생	(88)	8	9.1	46	52.3	33	37.5	0	0.0	0	0.0	1	1.1
	중학생 이상	(52)	14	26.9	17	32.7	14	26.9	5	9.6	2	3.8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0	17.2	13	22.4	31	53.4	0	0.0	0	0.0	4	6.9
	이혼	(152)	20	13.2	71	46.7	52	34.2	4	2.6	3	2.0	2	1.3
	사별	(15)	3	20.0	6	40.0	4	26.7	1	6.7	1	6.7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1	13.1	49	58.3	22	26.2	0	0.0	1	1.2	1	1.2
	임시직	(28)	5	17.9	13	46.4	9	32.1	0	0.0	0	0.0	1	3.6
	일용직	(11)	3	27.3	4	36.4	3	27.3	0	0.0	1	9.1	0	0.0
	자영업자	(10)	0	0.0	7	70.0	3	3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24)	3	12.5	6	25.0	15	62.5	0	0.0	0	0.0	0	0.0
	무직	(68)	11	16.2	11	16.2	35	51.5	5	7.4	2	2.9	4	5.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8	19.5	7	17.1	24	58.5	0	0.0	0	0.0	2	4.9
	100~200만원 미만	(90)	13	14.4	28	31.1	38	42.2	5	5.6	4	4.4	2	2.2
	200~300만원 미만	(31)	5	16.1	20	64.5	6	19.4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14	70.0	4	2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26)	2	7.7	16	61.5	8	30.8	0	0.0	0	0.0	0	0.0
	잘 모름	(17)	3	17.6	5	29.4	7	41.2	0	0.0	0	0.0	2	11.8

〈부표 6-3〉 주택 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5	6.7	75	33.3	95	42.2	31	13.8	9	4.0	2.8	0.9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0	5.5	60	33.1	75	41.4	27	14.9	9	5.0	2.8	0.9
	부자가족	(32)	2	6.3	9	28.1	17	53.1	4	12.5	0	0.0	2.7	0.8
	청소년한부모	(12)	3	25.0	6	50.0	3	25.0	0	0.0	0	0.0	2.0	0.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8	9.4	32	37.6	32	37.6	9	10.6	4	4.7	2.6	1.0
	초등학생	(88)	6	6.8	27	30.7	39	44.3	14	15.9	2	2.3	2.8	0.9
	중학생 이상	(52)	1	1.9	16	30.8	24	46.2	8	15.4	3	5.8	2.9	0.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6	10.3	26	44.8	18	31.0	4	6.9	4	6.9	2.6	1.0
	이혼	(152)	9	5.9	46	30.3	72	47.4	21	13.8	4	2.6	2.8	0.9
	사별	(15)	0	0.0	3	20.0	5	33.3	6	40.0	1	6.7	3.3	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8	9.5	35	41.7	34	40.5	6	7.1	1	1.2	2.5	0.8
	임시직	(28)	1	3.6	10	35.7	13	46.4	3	10.7	1	3.6	2.8	0.8
	일용직	(11)	0	0.0	1	9.1	6	54.5	3	27.3	1	9.1	3.4	0.8
	자영업자	(10)	0	0.0	2	20.0	7	70.0	1	10.0	0	0.0	2.9	0.6
	기타 종사자	(24)	2	8.3	11	45.8	7	29.2	4	16.7	0	0.0	2.5	0.9
	무직	(68)	4	5.9	16	23.5	28	41.2	14	20.6	6	8.8	3.0	1.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	4.9	8	19.5	20	48.8	8	19.5	3	7.3	3.0	0.9
	100~200만원 미만	(90)	3	3.3	27	30.0	41	45.6	14	15.6	5	5.6	2.9	0.9
	200~300만원 미만	(31)	2	6.5	10	32.3	14	45.2	5	16.1	0	0.0	2.7	0.8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8	40.0	8	40.0	1	5.0	1	5.0	2.6	0.9
	400만원 이상	(26)	2	7.7	14	53.8	9	34.6	1	3.8	0	0.0	2.3	0.7
	잘 모름	(17)	4	23.5	8	47.1	3	17.6	2	11.8	0	0.0	2.2	1.0

주: 5점 척도(1=매우 만족한다, 2=만족한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부표 6-4〉 주거 환경 평가 수준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가원수 대비 공간 적당함	통풍 및 채광 좋음	냉방상태 좋음	방음상태 좋음	생활 편의시설 좋음	대중교통 접근 용이	교육환경 좋음	치안상태 좋음
전체		(225)	3.3	3.2	3.5	3.6	2.9	3.0	3.6	3.3	3.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2	3.2	3.5	3.6	2.8	2.8	3.5	3.2	3.3
	부자가족	(32)	3.5	3.1	3.4	3.4	3.5	3.9	3.9	3.7	3.5
	청소년한부모	(12)	3.8	3.6	4.1	4.2	2.9	3.8	3.8	3.8	4.1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4	3.3	3.6	3.7	2.9	3.1	3.5	3.3	3.4
	초등학생	(88)	3.3	3.3	3.5	3.6	2.9	2.9	3.6	3.3	3.4
	중학생 이상	(52)	3.3	2.9	3.3	3.4	3.1	3.2	3.6	3.4	3.3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4	3.4	3.7	3.9	2.8	3.1	3.7	3.4	3.7
	이혼	(152)	3.3	3.1	3.5	3.5	3.0	3.1	3.5	3.3	3.3
	사별	(15)	3.0	3.2	3.0	3.1	2.6	2.6	3.5	3.1	3.1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5	3.4	3.6	3.7	3.1	3.4	3.7	3.5	3.5
	임시직	(28)	3.3	3.2	3.5	3.5	2.7	2.9	3.5	3.3	3.7
	일용직	(11)	3.3	3.2	3.6	3.6	2.5	3.0	3.8	3.5	3.4
	자영업자	(10)	3.5	3.9	3.6	3.7	2.9	3.4	4.1	3.1	3.3
	기타 종사자	(24)	3.1	3.0	3.5	3.6	3.0	2.4	3.3	3.0	3.1
	무직	(68)	3.2	3.0	3.3	3.5	2.9	2.9	3.3	3.1	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0	3.1	3.2	3.5	2.6	2.5	3.3	2.9	3.1
	100~200만원 미만	(90)	3.2	3.1	3.4	3.4	2.8	2.9	3.5	3.2	3.4
	200~300만원 미만	(31)	3.4	3.2	3.7	3.6	2.8	3.5	3.7	3.5	3.5
	300~400만원 미만	(20)	3.6	3.3	3.6	3.7	3.5	3.5	3.9	3.8	3.8
	400만원 이상	(26)	3.6	3.7	3.8	3.9	3.6	3.3	3.8	3.5	3.5
	잘 모름	(17)	3.5	3.2	3.8	4.0	2.8	3.4	3.6	3.6	3.7

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

〈부표 6-5〉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공공임대 등 주택 제공

단위: 명, %

구분		계	현재 이용함		이용한 적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56	24.9	22	9.8	104	46.2	43	19.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53	29.3	11	6.1	82	45.3	35	19.3
	부자가족	(32)	1	3.1	11	34.4	16	50.0	4	12.5
	청소년한부모	(12)	2	16.7	0	0.0	6	50.0	4	3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0	23.5	0	0.0	45	52.9	20	23.5
	초등학생	(88)	25	28.4	7	8.0	40	45.5	16	18.2
	중학생 이상	(52)	11	21.2	15	28.8	19	36.5	7	13.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19	32.8	2	3.4	23	39.7	14	24.1
	이혼	(152)	34	22.4	17	11.2	78	51.3	23	15.1
	사별	(15)	3	20.0	3	20.0	3	20.0	6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5	17.9	6	7.1	50	59.5	13	15.5
	임시직	(28)	12	42.9	2	7.1	10	35.7	4	14.3
	일용직	(11)	2	18.2	3	27.3	3	27.3	3	27.3
	자영업자	(10)	1	10.0	0	0.0	6	60.0	3	30.0
	기타 종사자	(24)	8	33.3	1	4.2	12	50.0	3	12.5
	무직	(68)	18	26.5	10	14.7	23	33.8	17	25.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15	36.6	1	2.4	17	41.5	8	19.5
	100~200만원 미만	(90)	29	32.2	19	21.1	33	36.7	9	10.0
	200~300만원 미만	(31)	5	16.1	1	3.2	20	64.5	5	16.1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0	0.0	10	50.0	8	40.0
	400만원 이상	(26)	4	15.4	1	3.8	19	73.1	2	7.7
	잘 모름	(17)	1	5.9	0	0.0	5	29.4	11	64.7

〈부표 6-6〉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주거비 지원

단위: 명, %

구분		계	현재 이용함		이용한 적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74	32.9	14	6.2	96	42.7	41	18.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70	38.7	10	5.5	70	38.7	31	17.1
	부자가족	(32)	0	0.0	4	12.5	22	68.8	6	18.8
	청소년한부모	(12)	4	33.3	0	0.0	4	33.3	4	33.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26	30.6	3	3.5	38	44.7	18	21.2
	초등학생	(88)	30	34.1	7	8.0	35	39.8	16	18.2
	중학생 이상	(52)	18	34.6	4	7.7	23	44.2	7	13.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5	43.1	6	10.3	16	27.6	11	19.0
	이혼	(152)	47	30.9	7	4.6	74	48.7	24	15.8
	사별	(15)	2	13.3	1	6.7	6	40.0	6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8	21.4	5	6.0	46	54.8	15	17.9
	임시직	(28)	14	50.0	2	7.1	9	32.1	3	10.7
	일용직	(11)	4	36.4	3	27.3	2	18.2	2	18.2
	자영업자	(10)	3	30.0	2	20.0	4	40.0	1	10.0
	기타 종사자	(24)	9	37.5	1	4.2	10	41.7	4	16.7
	무직	(68)	26	38.2	1	1.5	25	36.8	16	23.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2	53.7	1	2.4	11	26.8	7	17.1
	100~200만원 미만	(90)	39	43.3	7	7.8	35	38.9	9	10.0
	200~300만원 미만	(31)	7	22.6	1	3.2	15	48.4	8	25.8
	300~400만원 미만	(20)	1	5.0	2	10.0	9	45.0	8	40.0
	400만원 이상	(26)	0	0.0	3	11.5	21	80.8	2	7.7
	잘 모름	(17)	5	29.4	0	0.0	5	29.4	7	41.2

7. 양육비

〈부표 7-1〉 비양육부모와 교류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	정기적 만남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만남		이메일, 전화 연락만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연락하지 않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27	12.0	45	20.0	25	11.1	12	5.3	113	50.2	3	1.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22	12.2	35	19.3	16	8.8	5	2.8	100	55.2	3	1.7
	부자가족	(32)	3	9.4	10	31.3	9	28.1	7	21.9	3	9.4	0	0.0
	청소년한부모	(12)	2	16.7	0	0.0	0	0.0	0	0.0	10	83.3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3	15.3	16	18.8	6	7.1	2	2.4	47	55.3	1	1.2
	초등학생	(88)	10	11.4	18	20.5	9	10.2	4	4.5	45	51.1	2	2.3
	중학생 이상	(52)	4	7.7	11	21.2	10	19.2	6	11.5	21	40.4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	5.2	9	15.5	0	0.0	1	1.7	45	77.6	0	0.0
	이혼	(152)	23	15.1	35	23.0	25	16.4	10	6.6	56	36.8	3	2.0
	사별	(15)	1	6.7	1	6.7	0	0.0	1	6.7	12	8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4	16.7	19	22.6	11	13.1	3	3.6	36	42.9	1	1.2
	임시직	(28)	6	21.4	6	21.4	2	7.1	0	0.0	13	46.4	1	3.6
	일용직	(11)	0	0.0	4	36.4	3	27.3	1	9.1	3	27.3	0	0.0
	자영업자	(10)	1	10.0	1	10.0	0	0.0	1	10.0	7	70.0	0	0.0
	기타 종사자	(24)	4	16.7	5	20.8	2	8.3	0	0.0	12	50.0	1	4.2
	무직	(68)	2	2.9	10	14.7	7	10.3	7	10.3	42	61.8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5	12.2	6	14.6	3	7.3	0	0.0	26	63.4	1	2.4
	100~200만원 미만	(90)	7	7.8	15	16.7	13	14.4	9	10.0	44	48.9	2	2.2
	200~300만원 미만	(31)	6	19.4	7	22.6	4	12.9	2	6.5	12	38.7	0	0.0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4	20.0	2	10.0	0	0.0	12	60.0	0	0.0
	400만원 이상	(26)	4	15.4	10	38.5	2	7.7	1	3.8	9	34.6	0	0.0
	잘 모름	(17)	3	17.6	3	17.6	1	5.9	0	0.0	10	58.8	0	0.0

〈부표 7-2〉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정기적으로 받는다		부정기적으로 받는다		일시적으로 받았다		받지 않는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33	14.7	37	16.4	23	10.2	132	58.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32	17.7	30	16.6	13	7.2	106	58.6
	부자가족	(32)	1	3.1	7	21.9	10	31.3	14	43.8
	청소년한부모	(12)	0	0.0	0	0.0	0	0.0	12	10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6	18.8	10	11.8	3	3.5	56	65.9
	초등학생	(88)	13	14.8	15	17.0	13	14.8	47	53.4
	중학생 이상	(52)	4	7.7	12	23.1	7	13.5	29	55.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	3.4	3	5.2	5	8.6	48	82.8
	이혼	(152)	30	19.7	32	21.1	18	11.8	72	47.4
	사별	(15)	1	6.7	2	13.3	0	0.0	12	8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9	22.6	11	13.1	13	15.5	41	48.8
	임시직	(28)	5	17.9	5	17.9	0	0.0	18	64.3
	일용직	(11)	0	0.0	3	27.3	1	9.1	7	63.6
	자영업자	(10)	1	10.0	1	10.0	1	10.0	7	70.0
	기타 종사자	(24)	3	12.5	7	29.2	1	4.2	13	54.2
	무직	(68)	5	7.4	10	14.7	7	10.3	46	67.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	7.3	4	9.8	2	4.9	32	78.0
	100~200만원 미만	(90)	12	13.3	18	20.0	9	10.0	51	56.7
	200~300만원 미만	(31)	8	25.8	5	16.1	3	9.7	15	48.4
	300~400만원 미만	(20)	3	15.0	3	15.0	2	10.0	12	60.0
	400만원 이상	(26)	6	23.1	4	15.4	7	26.9	9	34.6
	잘 모름	(17)	1	5.9	3	17.6	0	0.0	13	76.5

〈부표 7-3〉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친부/친모를 인지하지 못함		친부/친모를 인지하였으나 양육비 청구 불편/어려움으로 청구인함		전 배우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양육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32)	39	29.5	18	13.6	5	3.8	4	3.0	17	12.9	3	2.3	14	10.6	23	17.4	9	6.8
	모자기족	(106)	35	33.0	11	10.4	2	1.9	3	2.8	15	14.2	3	2.8	12	11.3	18	17.0	7	6.6
	부자기족	(14)	2	14.3	6	42.9	2	14.3	0	0.0	1	7.1	0	0.0	2	14.3	1	7.1	0	0.0
	청소년한부모	(12)	2	16.7	1	8.3	1	8.3	1	8.3	1	8.3	0	0.0	0	0.0	4	33.3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6)	15	26.8	4	7.1	3	5.4	2	3.6	7	12.5	1	1.8	4	7.1	16	28.6	4	7.1
	초등학생	(47)	19	40.4	7	14.9	0	0.0	2	4.3	4	8.5	1	2.1	6	12.8	4	8.5	4	8.5
	중학생 이상	(29)	5	17.2	7	24.1	2	6.9	0	0.0	6	20.7	1	3.4	4	13.8	3	10.3	1	3.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8)	8	16.7	3	6.3	3	6.3	3	6.3	4	8.3	0	0.0	3	6.3	18	37.5	6	12.5
	이혼	(72)	31	43.1	14	19.4	2	2.8	1	1.4	3	4.2	3	4.2	11	15.3	5	6.9	2	2.8
	사별	(12)	0	0.0	1	8.3	0	0.0	0	0.0	10	83.3	0	0.0	0	0.0	0	0.0	1	8.3

구분	계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친부/친모를 인지하지 못함		친부/친모를 인지하였으나 양육비 청구 불편/어려움으로 청구인함		전 배우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양육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전체	(132)	39	29.5	18	13.6	5	3.8	4	3.0	17	12.9	3	2.3	14	10.6	23	17.4	9	6.8
	상용직	(41)	12	29.3	8	19.5	0	0.0	2	4.9	4	9.8	2	4.9	3	7.3	6	14.6	4	9.8
	임시직	(18)	6	33.3	3	16.7	0	0.0	0	0.0	2	11.1	0	0.0	3	16.7	4	22.2	0	0.0
	일용직	(7)	3	42.9	0	0.0	1	14.3	0	0.0	1	14.3	0	0.0	2	28.6	0	0.0	0	0.0
	자영업자	(7)	3	42.9	0	0.0	1	14.3	0	0.0	0	0.0	1	14.3	2	28.6	0	0.0	0	0.0
	기타 종사자	(13)	4	30.8	0	0.0	0	0.0	1	7.7	3	23.1	0	0.0	3	23.1	1	7.7	1	7.7
소득 수준	무직	(46)	11	23.9	7	15.2	3	6.5	1	2.2	7	15.2	0	0.0	1	2.2	12	26.1	4	8.7
	100만원 미만	(32)	12	37.5	3	9.4	0	0.0	0	0.0	2	6.3	0	0.0	3	9.4	9	28.1	3	9.4
	100~200만원 미만	(51)	14	27.5	6	11.8	4	7.8	2	3.9	9	17.6	0	0.0	6	11.8	7	13.7	3	5.9
	200~300만원 미만	(15)	4	26.7	3	20.0	0	0.0	1	6.7	3	20.0	0	0.0	2	13.3	0	0.0	2	13.3
	300~400만원 미만	(12)	5	41.7	2	16.7	0	0.0	0	0.0	2	16.7	1	8.3	1	8.3	1	8.3	0	0.0
	400만원 이상	(9)	2	22.2	2	22.2	0	0.0	0	0.0	1	11.1	1	11.1	2	22.2	1	11.1	0	0.0
잘 모름		(13)	2	15.4	2	15.4	1	7.7	1	7.7	0	0.0	1	7.7	0	0.0	5	38.5	1	7.7

〈부표 7-4〉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8)	145	69.7	63	30.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66)	125	75.3	41	24.7
	부자가족	(31)	11	35.5	20	64.5
	청소년한부모	(11)	9	81.8	2	18.2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78)	53	67.9	25	32.1
	초등학생	(84)	67	79.8	17	20.2
	중학생 이상	(46)	25	54.3	21	45.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4)	40	74.1	14	25.9
	이혼	(149)	103	69.1	46	30.9
	사별	(5)	2	40.0	3	6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0)	59	73.8	21	26.3
	임시직	(26)	19	73.1	7	26.9
	일용직	(10)	7	70.0	3	30.0
	자영업자	(10)	8	80.0	2	20.0
	기타 종사자	(21)	19	90.5	2	9.5
	무직	(61)	33	54.1	28	45.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9)	33	84.6	6	15.4
	100~200만원 미만	(81)	50	61.7	31	38.3
	200~300만원 미만	(28)	20	71.4	8	28.6
	300~400만원 미만	(18)	16	88.9	2	11.1
	400만원 이상	(25)	18	72.0	7	28.0
	잘 모름	(17)	8	47.1	9	52.9

〈부표 7-5〉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

단위 :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8)	81	38.9	127	61.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66)	74	44.6	92	55.4
	부자가족	(31)	4	12.9	27	87.1
	청소년한부모	(11)	3	27.3	8	72.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78)	33	42.3	45	57.7
	초등학생	(84)	36	42.9	48	57.1
	중학생 이상	(46)	12	26.1	34	73.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4)	19	35.2	35	64.8
	이혼	(149)	59	39.6	90	60.4
	사별	(5)	3	60.0	2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0)	31	38.8	49	61.3
	임시직	(26)	10	38.5	16	61.5
	일용직	(10)	6	60.0	4	40.0
	자영업자	(10)	5	50.0	5	50.0
	기타 종사자	(21)	6	28.6	15	71.4
	무직	(61)	23	37.7	38	62.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9)	20	51.3	19	48.7
	100~200만원 미만	(81)	29	35.8	52	64.2
	200~300만원 미만	(28)	12	42.9	16	57.1
	300~400만원 미만	(18)	7	38.9	11	61.1
	400만원 이상	(25)	9	36.0	16	64.0
	잘 모름	(17)	4	23.5	13	76.5

〈부표 7-6〉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 정보를 얻지 못해서		양육비 이행 서비스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27)	10	7.9	5	3.9	24	18.9	14	11.0	18	14.2	44	34.6	8	6.3	4	3.1
	모자가족	(92)	9	9.8	1	1.1	19	20.7	10	10.9	12	13.0	30	32.6	7	7.6	4	4.3
	부자가족	(27)	1	3.7	4	14.8	4	14.8	4	14.8	6	22.2	7	25.9	1	3.7	0	0.0
	청소년한부모	(8)	0	0.0	0	0.0	1	12.5	0	0.0	0	0.0	7	87.5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5)	3	6.7	2	4.4	8	17.8	3	6.7	4	8.9	20	44.4	4	8.9	1	2.2
	초등학생	(48)	6	12.5	1	2.1	8	16.7	5	10.4	8	16.7	17	35.4	1	2.1	2	4.2
	중학생 이상	(34)	1	2.9	2	5.9	8	23.5	6	17.6	6	17.6	7	20.6	3	8.8	1	2.9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5)	1	2.9	2	5.7	7	20.0	2	5.7	0	0.0	16	45.7	5	14.3	2	5.7
	이혼	(90)	9	10.0	3	3.3	17	18.9	12	13.3	17	18.9	28	31.1	3	3.3	1	1.1
	사별	(2)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구분	계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 정보를 얻지 못해서		양육비 이행 서비스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출 형편이 안되어서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전체	(127)	10	7.9	5	3.9	24	18.9	14	11.0	18	14.2	44	34.6	8	6.3	4	3.1
	상용직	(49)	8	16.3	3	6.1	7	14.3	5	10.2	6	12.2	17	34.7	2	4.1	1	2.0
	임시직	(16)	1	6.3	0	0.0	3	18.8	1	6.3	2	12.5	6	37.5	2	12.5	1	6.3
	일용직	(4)	0	0.0	1	25.0	1	25.0	0	0.0	2	5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5)	0	0.0	0	0.0	3	60.0	0	0.0	1	20.0	1	2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5)	0	0.0	0	0.0	5	33.3	2	13.3	2	13.3	5	33.3	0	0.0	1	6.7
	무직	(38)	1	2.6	1	2.6	5	13.2	6	15.8	5	13.2	15	39.5	4	10.5	1	2.6
	100만원 미만	(19)	0	0.0	0	0.0	4	21.1	1	5.3	2	10.5	10	52.6	1	5.3	1	5.3
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52)	1	1.9	2	3.8	12	23.1	7	13.5	10	19.2	14	26.9	4	7.7	2	3.8
	200~300만원 미만	(16)	3	18.8	1	6.3	2	12.5	1	6.3	4	25.0	3	18.8	1	6.3	1	6.3
	300~400만원 미만	(11)	3	27.3	0	0.0	2	18.2	2	18.2	1	9.1	3	27.3	0	0.0	0	0.0
	400만원 이상	(16)	2	12.5	2	12.5	3	18.8	2	12.5	0	0.0	7	43.8	0	0.0	0	0.0
	잘 모름	(13)	1	7.7	0	0.0	1	7.7	1	7.7	1	7.7	7	53.8	2	15.4	0	0.0

〈부표 7-7〉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명, %

구분		계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24	55.1	18	8.0	19	8.4	48	21.3	16	7.1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04	57.5	11	6.1	11	6.1	39	21.5	16	8.8
	부자가족	(32)	10	31.3	6	18.8	7	21.9	9	28.1	0	0.0
	청소년한부모	(12)	10	83.3	1	8.3	1	8.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52	61.2	6	7.1	4	4.7	20	23.5	3	3.5
	초등학생	(88)	51	58.0	7	8.0	7	8.0	14	15.9	9	10.2
	중학생 이상	(52)	21	40.4	5	9.6	8	15.4	14	26.9	4	7.7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8	65.5	3	5.2	4	6.9	10	17.2	3	5.2
	이혼	(152)	81	53.3	14	9.2	15	9.9	34	22.4	8	5.3
	사별	(15)	5	33.3	1	6.7	0	0.0	4	26.7	5	3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41	48.8	10	11.9	8	9.5	18	21.4	7	8.3
	임시직	(28)	16	57.1	2	7.1	1	3.6	6	21.4	3	10.7
	일용직	(11)	5	45.5	2	18.2	1	9.1	2	18.2	1	9.1
	자영업자	(10)	4	40.0	0	0.0	1	10.0	5	50.0	0	0.0
	기타 종사자	(24)	18	75.0	2	8.3	1	4.2	1	4.2	2	8.3
	무직	(68)	40	58.8	2	2.9	7	10.3	16	23.5	3	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1	75.6	2	4.9	1	2.4	3	7.3	4	9.8
	100~200만원 미만	(90)	48	53.3	5	5.6	11	12.2	20	22.2	6	6.7
	200~300만원 미만	(31)	17	54.8	1	3.2	5	16.1	6	19.4	2	6.5
	300~400만원 미만	(20)	10	50.0	2	10.0	0	0.0	6	30.0	2	10.0
	400만원 이상	(26)	9	34.6	4	15.4	2	7.7	11	42.3	0	0.0
	잘 모름	(17)	9	52.9	4	23.5	0	0.0	2	11.8	2	11.8

8. 복지서비스

〈부표 8-1〉 한부모가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현재 받고 있음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8	48.0	23	10.2	66	29.3	28	12.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97	53.6	16	8.8	47	26.0	21	11.6
	부자가족	(32)	2	6.3	7	21.9	18	56.3	5	15.6
	청소년한부모	(12)	9	75.0	0	0.0	1	8.3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7	55.3	6	7.1	21	24.7	11	12.9
	초등학생	(88)	43	48.9	8	9.1	28	31.8	9	10.2
	중학생 이상	(52)	18	34.6	9	17.3	17	32.7	8	15.4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39	67.2	5	8.6	10	17.2	4	6.9
	이혼	(152)	64	42.1	15	9.9	52	34.2	21	13.8
	사별	(15)	5	33.3	3	20.0	4	26.7	3	2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1	25.0	7	8.3	46	54.8	10	11.9
	임시직	(28)	18	64.3	2	7.1	5	17.9	3	10.7
	일용직	(11)	8	72.7	1	9.1	1	9.1	1	9.1
	자영업자	(10)	3	30.0	3	30.0	1	10.0	3	30.0
	기타 종사자	(24)	16	66.7	4	16.7	2	8.3	2	8.3
	무직	(68)	42	61.8	6	8.8	11	16.2	9	13.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6	87.8	1	2.4	2	4.9	2	4.9
	100~200만원 미만	(90)	47	52.2	11	12.2	22	24.4	10	11.1
	200~300만원 미만	(31)	9	29.0	3	9.7	14	45.2	5	16.1
	300~400만원 미만	(20)	2	10.0	3	15.0	12	60.0	3	15.0
	400만원 이상	(26)	5	19.2	4	15.4	14	53.8	3	11.5
	잘 모름	(17)	9	52.9	1	5.9	2	11.8	5	29.4

〈부표 8-2〉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생계급여

단위: 명, %

구분		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8)	77	71.3	31	28.7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7)	66	68.0	31	32.0
	부자가족	(2)	2	100.0	0	0.0
	청소년한부모	(9)	9	10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40	85.1	7	14.9
	초등학생	(43)	28	65.1	15	34.9
	중학생 이상	(18)	9	50.0	9	5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9)	36	92.3	3	7.7
	이혼	(64)	38	59.4	26	40.6
	사별	(5)	3	60.0	2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9	42.9	12	57.1
	임시직	(18)	13	72.2	5	27.8
	일용직	(8)	5	62.5	3	37.5
	자영업자	(3)	2	66.7	1	33.3
	기타 종사자	(16)	11	68.8	5	31.3
	무직	(42)	37	88.1	5	11.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6)	31	86.1	5	13.9
	100~200만원 미만	(47)	28	59.6	19	40.4
	200~300만원 미만	(9)	5	55.6	4	44.4
	300~400만원 미만	(2)	1	50.0	1	50.0
	400만원 이상	(5)	3	60.0	2	40.0
	잘 모름	(9)	9	100.0	0	0.0

〈부표 8-3〉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의료급여

단위: 명, %

구분		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8)	70	64.8	38	35.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7)	60	61.9	37	38.1
	부자가족	(2)	1	50.0	1	50.0
	청소년한부모	(9)	9	10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35	74.5	12	25.5
	초등학생	(43)	27	62.8	16	37.2
	중학생 이상	(18)	8	44.4	10	55.6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9)	37	94.9	2	5.1
	이혼	(64)	30	46.9	34	53.1
	사별	(5)	3	60.0	2	4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8	38.1	13	61.9
	임시직	(18)	14	77.8	4	22.2
	일용직	(8)	4	50.0	4	50.0
	자영업자	(3)	1	33.3	2	66.7
	기타 종사자	(16)	9	56.3	7	43.8
	무직	(42)	34	81.0	8	19.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6)	25	69.4	11	30.6
	100~200만원 미만	(47)	31	66.0	16	34.0
	200~300만원 미만	(9)	4	44.4	5	55.6
	300~400만원 미만	(2)	0	0.0	2	100.0
	400만원 이상	(5)	2	40.0	3	60.0
	잘 모름	(9)	8	88.9	1	11.1

〈부표 8-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주거급여

단위: 명, %

구분		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8)	89	82.4	19	17.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7)	79	81.4	18	18.6
	부자가족	(2)	1	50.0	1	50.0
	청소년한부모	(9)	9	10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35	74.5	12	25.5
	초등학생	(43)	38	88.4	5	11.6
	중학생 이상	(18)	16	88.9	2	11.1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9)	34	87.2	5	12.8
	이혼	(64)	51	79.7	13	20.3
	사별	(5)	4	80.0	1	2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19	90.5	2	9.5
	임시직	(18)	16	88.9	2	11.1
	일용직	(8)	6	75.0	2	25.0
	자영업자	(3)	1	33.3	2	66.7
	기타 종사자	(16)	11	68.8	5	31.3
	무직	(42)	36	85.7	6	14.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6)	30	83.3	6	16.7
	100~200만원 미만	(47)	42	89.4	5	10.6
	200~300만원 미만	(9)	8	88.9	1	11.1
	300~400만원 미만	(2)	1	50.0	1	50.0
	400만원 이상	(5)	1	20.0	4	80.0
	잘 모름	(9)	7	77.8	2	22.2

〈부표 8-5〉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는 급여: 교육급여

단위: 명, %

구분		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8)	87	80.6	21	19.4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7)	80	82.5	17	17.5
	부자가족	(2)	2	100.0	0	0.0
	청소년한부모	(9)	5	55.6	4	44.4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26	55.3	21	44.7
	초등학생	(43)	43	100.0	0	0.0
	중학생 이상	(18)	18	10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9)	25	64.1	14	35.9
	이혼	(64)	57	89.1	7	10.9
	사별	(5)	5	10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20	95.2	1	4.8
	임시직	(18)	15	83.3	3	16.7
	일용직	(8)	8	100.0	0	0.0
	자영업자	(3)	3	100.0	0	0.0
	기타 종사자	(16)	14	87.5	2	12.5
	무직	(42)	27	64.3	15	35.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6)	28	77.8	8	22.2
	100~200만원 미만	(47)	40	85.1	7	14.9
	200~300만원 미만	(9)	8	88.9	1	11.1
	300~400만원 미만	(2)	2	100.0	0	0.0
	400만원 이상	(5)	3	60.0	2	40.0
	잘 모름	(9)	6	66.7	3	33.3

〈부표 8-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단위: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8)	23	21.3	32	29.6	27	25.0	20	18.5	6	5.6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7)	18	18.6	30	30.9	23	23.7	20	20.6	6	6.2
	부자가족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9)	4	44.4	2	22.2	3	33.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7)	14	29.8	15	31.9	11	23.4	6	12.8	1	2.1
	초등학생	(43)	7	16.3	13	30.2	13	30.2	9	20.9	1	2.3
	중학생 이상	(18)	2	11.1	4	22.2	3	16.7	5	27.8	4	22.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9)	6	15.4	9	23.1	10	25.6	10	25.6	4	10.3
	이혼	(64)	17	26.6	23	35.9	15	23.4	7	10.9	2	3.1
	사별	(5)	0	0.0	0	0.0	2	40.0	3	6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2	9.5	5	23.8	6	28.6	7	33.3	1	4.8
	임시직	(18)	5	27.8	5	27.8	5	27.8	2	11.1	1	5.6
	일용직	(8)	1	12.5	3	37.5	2	25.0	1	12.5	1	12.5
	자영업자	(3)	0	0.0	1	33.3	2	66.7	0	0.0	0	0.0
	기타 종사자	(16)	3	18.8	7	43.8	1	6.3	5	31.3	0	0.0
	무직	(42)	12	28.6	11	26.2	11	26.2	5	11.9	3	7.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6)	8	22.2	10	27.8	8	22.2	7	19.4	3	8.3
	100~200만원 미만	(47)	9	19.1	15	31.9	12	25.5	9	19.1	2	4.3
	200~300만원 미만	(9)	1	11.1	3	33.3	3	33.3	2	22.2	0	0.0
	300~400만원 미만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5)	2	40.0	2	40.0	1	20.0	0	0.0	0	0.0
	잘 모름	(9)	2	22.2	2	22.2	2	22.2	2	22.2	1	11.1

〈부표 8-7〉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본인 포함) 가구원 취·창업 및 하고 있던 일 수입 증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가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 증가		친인척이 줄 더 도와주어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보내서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받게 되어서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가족의 병이 나아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3)	10	43.5	3	13.0	1	4.3	2	8.7	3	13.0	2	8.7	0	0.0	0	0.0	1	4.3	1	4.3
	모자기족	(16)	9	56.3	3	18.8	1	6.3	0	0.0	0	0.0	1	6.3	0	0.0	0	0.0	1	6.3	1	6.3
	부자기족	(7)	1	14.3	0	0.0	0	0.0	2	28.6	3	42.9	1	14.3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	4	66.7	1	16.7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초등학생	(8)	3	37.5	1	12.5	1	12.5	0	0.0	1	12.5	0	0.0	0	0.0	0	0.0	1	12.5	1	12.5
	중학생 이상	(9)	3	33.3	1	11.1	0	0.0	2	22.2	2	22.2	1	11.1	0	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4	8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혼	(15)	4	26.7	2	13.3	1	6.7	2	13.3	2	13.3	2	13.3	0	0.0	0	0.0	1	6.7	1	6.7
	사별	(3)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구분	계	(본인 포함) 가구원 취·창업 및 하고 있던 일 수입 증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가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 증가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보내서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받게 되어서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가족의 병이 나아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상 지위	전체	(23)	10	43.5	3	13.0	1	4.3	2	8.7	3	13.0	2	8.7	0	0.0	0	0.0	1	4.3	1	4.3
	상용직	(7)	4	57.1	1	14.3	1	14.3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임시직	(2)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일용직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자영업자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4)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소득 수준	무직	(6)	1	16.7	0	0.0	0	0.0	2	33.3	2	33.3	1	16.7	0	0.0	0	0.0	0	0.0	0	0.0
	100만원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11)	3	27.3	2	18.2	0	0.0	2	18.2	2	18.2	1	9.1	0	0.0	0	0.0	1	9.1	0	0.0
	200~300만원 미만	(3)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300~400만원 미만	(3)	1	33.3	0	0.0	1	33.3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4)	3	75.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8-8〉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분		계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관련 지원		자활관련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3)	5	21.7	7	30.4	8	34.8	3	13.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6)	3	18.8	6	37.5	6	37.5	1	6.3
	부자가족	(7)	2	28.6	1	14.3	2	28.6	2	28.6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	2	33.3	1	16.7	3	50.0	0	0.0
	초등학생	(8)	2	25.0	5	62.5	1	12.5	0	0.0
	중학생 이상	(9)	1	11.1	1	11.1	4	44.4	3	33.3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	0	0.0	2	40.0	3	60.0	0	0.0
	이혼	(15)	4	26.7	3	20.0	5	33.3	3	20.0
	사별	(3)	1	33.3	2	66.7	0	0.0	0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7)	1	14.3	2	28.6	4	57.1	0	0.0
	임시직	(2)	1	50.0	1	50.0	0	0.0	0	0.0
	일용직	(1)	0	0.0	1	100.0	0	0.0	0	0.0
	자영업자	(3)	2	66.7	0	0.0	1	33.3	0	0.0
	기타 종사자	(4)	0	0.0	3	75.0	0	0.0	1	25.0
	무직	(6)	1	16.7	0	0.0	3	50.0	2	3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	0	0.0	0	0.0	0	0.0	1	100.0
	100~200만원 미만	(11)	2	18.2	2	18.2	5	45.5	2	18.2
	200~300만원 미만	(3)	0	0.0	1	33.3	2	66.7	0	0.0
	300~400만원 미만	(3)	1	33.3	2	66.7	0	0.0	0	0.0
	400만원 이상	(4)	2	50.0	2	50.0	0	0.0	0	0.0
	잘 모름	(1)	0	0.0	0	0.0	1	100.0	0	0.0

〈부표 8-9〉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단위 : 명, %

구분		계	현재 받고 있음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94	41.8	18	8.0	63	28.0	50	22.2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87	48.1	11	6.1	48	26.5	35	19.3
	부자가족	(32)	2	6.3	7	21.9	14	43.8	9	28.1
	청소년한부모	(12)	5	41.7	0	0.0	1	8.3	6	5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34	40.0	7	8.2	19	22.4	25	29.4
	초등학생	(88)	42	47.7	6	6.8	28	31.8	12	13.6
	중학생 이상	(52)	18	34.6	5	9.6	16	30.8	13	25.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6	44.8	4	6.9	8	13.8	20	34.5
	이혼	(152)	63	41.4	13	8.6	50	32.9	26	17.1
	사별	(15)	5	33.3	1	6.7	5	33.3	4	2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25	29.8	5	6.0	43	51.2	11	13.1
	임시직	(28)	16	57.1	2	7.1	6	21.4	4	14.3
	일용직	(11)	6	54.5	2	18.2	1	9.1	2	18.2
	자영업자	(10)	3	30.0	2	20.0	3	30.0	2	20.0
	기타 종사자	(24)	14	58.3	3	12.5	4	16.7	3	12.5
	무직	(68)	30	44.1	4	5.9	6	8.8	28	41.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7	65.9	0	0.0	4	9.8	10	24.4
	100~200만원 미만	(90)	44	48.9	8	8.9	18	20.0	20	22.2
	200~300만원 미만	(31)	11	35.5	3	9.7	12	38.7	5	16.1
	300~400만원 미만	(20)	3	15.0	1	5.0	12	60.0	4	20.0
	400만원 이상	(26)	3	11.5	6	23.1	15	57.7	2	7.7
	잘 모름	(17)	6	35.3	0	0.0	2	11.8	9	52.9

〈부표 8-10〉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단위 : 명, %

구분	계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비우체, 스포츠바우처 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94)	36.2	22	23.4	4	4.3	23	24.5	5	5.3	3	3.2	3	3.2
	모자기족	(87)	35.6	20	23.0	4	4.6	23	26.4	3	3.4	3	3.4	3	3.4
	부자기족	(2)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5)	40.0	2	40.0	0	0.0	0	0.0	1	2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4)	26.5	10	29.4	2	5.9	8	23.5	3	8.8	1	2.9	1	2.9
	초등학교생	(42)	42.9	10	23.8	0	0.0	11	26.2	0	0.0	1	2.4	2	4.8
	중학생 이상	(18)	38.9	2	11.1	2	11.1	4	22.2	2	11.1	1	5.6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26)	38.5	7	26.9	2	7.7	6	23.1	1	3.8	0	0.0	0	0.0
	이혼	(63)	36.5	13	20.6	2	3.2	15	23.8	4	6.3	3	4.8	3	4.8
	사별	(5)	20.0	2	40.0	0	0.0	2	40.0	0	0.0	0	0.0	0	0.0
	상용직	(25)	48.0	9	36.0	1	4.0	2	8.0	0	0.0	1	4.0	0	0.0
종사상 지위	임시직	(16)	18.8	3	18.8	0	0.0	8	50.0	1	6.3	1	6.3	0	0.0
	일용직	(6)	16.7	0	0.0	0	0.0	4	66.7	0	0.0	0	0.0	1	16.7
	자영업자	(3)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4)	42.9	2	14.3	1	7.1	3	21.4	1	7.1	0	0.0	1	7.1
	무직	(30)	33.3	8	26.7	2	6.7	5	16.7	3	10.0	1	3.3	1	3.3

구분	계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비우체, 스포츠비우체 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4)	34	36.2	22	23.4	4	4.3	23	24.5	5	5.3	3	3.2	3	3.2
100만원 미만	(27)	10	37.0	4	14.8	2	7.4	9	33.3	0	0.0	0	0.0	2	7.4
100~200만원 미만	(44)	16	36.4	9	20.5	2	4.5	11	25.0	3	6.8	2	4.5	1	2.3
200~300만원 미만	(11)	4	36.4	3	27.3	0	0.0	3	27.3	0	0.0	1	9.1	0	0.0
300~400만원 미만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6)	1	16.7	3	50.0	0	0.0	0	0.0	2	33.3	0	0.0	0	0.0

〈부표 8-11〉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본인 포함) 가구원 취·창업 및 하고 있던 일 수입 증가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 증가		친인척이 출 더 도와주어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보내서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받게 되어서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가족의 병이 나아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되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모자기족 부자기족 청소년한부모	(18)	5	27.8	2	11.1	0	0.0	0	0.0	4	22.2	2	11.1	2	11.1	2	11.1	1	5.6
		(11)	4	36.4	1	9.1	0	0.0	0	0.0	1	9.1	0	0.0	2	18.2	2	18.2	1	9.1
		(7)	1	14.3	1	14.3	0	0.0	0	0.0	3	42.9	2	28.6	0	0.0	0	0.0	0	0.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7)	4	57.1	1	14.3	0	0.0	0	0.0	1	14.3	0	0.0	1	14.3	0	0.0	0	0.0
		(6)	1	16.7	1	16.7	0	0.0	0	0.0	0	0.0	0	0.0	1	16.7	2	33.3	1	16.7
		(5)	0	0.0	0	0.0	0	0.0	0	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이혼 사별	(4)	1	25.0	2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13)	3	23.1	0	0.0	0	0.0	0	0.0	4	30.8	2	15.4	2	15.4	1	7.7	1	7.7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구분	계	(본인 포함) 가구원 취·창업 및 하고 있던 일 수입 증가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 증가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보내서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받게 되어서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가족의 병이 나아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되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사상 지위	전체	(18)	5	27.8	2	11.1	0	0.0	0	0.0	4	22.2	2	11.1	0	0.0	2	11.1	2	11.1	1	5.6
	상용직	(5)	2	40.0	1	20.0	0	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임시직	(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일용직	(2)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자영업자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3)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무직	(4)	0	0.0	0	0.0	0	0.0	0	0.0	2	50.0	2	50.0	0	0.0	0	0.0	0	0.0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8)	0	0.0	1	12.5	0	0.0	0	0.0	3	37.5	2	25.0	0	0.0	0	0.0	2	25.0	0	0.0
	200~300만원 미만	(3)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1	33.3	0	0.0	1	33.3
	300~400만원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6)	4	66.7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잘 모름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8-12〉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계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8)	3	16.7	4	22.2		5	27.8	2	11.1	3	16.7	0	0.0	1	5.6					
	모자기족	(11)	2	18.2	3	27.3		3	27.3	1	9.1	1	9.1	0	0.0	1	9.1					
	부자기족	(7)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0	0.0	0	0.0					
	청소년한부모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7)	1	14.3	2	28.6		3	42.9	1	14.3	0	0.0	0	0.0	0	0.0					
	초등학교생	(6)	2	33.3	2	33.3		0	0.0	0	0.0	1	16.7	0	0.0	1	16.7					
	중학생 이상	(5)	0	0.0	0	0.0		2	40.0	1	20.0	2	40.0	0	0.0	0	0.0					
	미(비)혼 모/부	(4)	1	25.0	1	25.0		1	25.0	0	0.0	0	0.0	0	0.0	1	25.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3)	2	15.4	2	15.4		4	30.8	2	15.4	3	23.1	0	0.0	0	0.0					
	사별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상용직	(5)	2	40.0	1	20.0		1	20.0	1	20.0	0	0.0	0	0.0	0	0.0					
	임시직	(2)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종사상 지위	일용직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3)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무직	(4)	0	0.0	0	0.0		1	25.0	1	25.0	2	50.0	0	0.0	0	0.0					

구분	계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8)	3	16.7	4	22.2	5	27.8	2	11.1	3	16.7	0	0.0	1	5.6
100만원 미만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8)	0	0.0	1	12.5	3	37.5	1	12.5	2	25.0	0	0.0	1	12.5
200~300만원 미만	(3)	1	33.3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6)	1	16.7	3	50.0	2	33.3	0	0.0	0	0.0	0	0.0	0	0.0
잘 모름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8-13〉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 명, %

구분	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찾기 어려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12)	31	27.7	18	16.1	22	19.6	15	13.4	15	13.4	6	5.4	5	4.5
	모자기족	(98)	29	29.6	18	18.4	18	18.4	12	12.2	11	11.2	5	5.1	5	5.1
	부자기족	(9)	1	11.1	0	0.0	1	11.1	2	22.2	4	44.4	1	11.1	0	0.0
	청소년한부모	(5)	1	20.0	0	0.0	3	60.0	1	20.0	0	0.0	0	0.0	0	0.0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41)	12	29.3	4	9.8	11	26.8	5	12.2	4	9.8	2	4.9	3	7.3
	초등학생	(48)	13	27.1	9	18.8	7	14.6	7	14.6	8	16.7	2	4.2	2	4.2
	중학생 이상	(23)	6	26.1	5	21.7	4	17.4	3	13.0	3	13.0	2	8.7	0	0.0
	미(비)혼 모/부	(30)	7	23.3	5	16.7	10	33.3	2	6.7	3	10.0	0	0.0	3	10.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76)	21	27.6	12	15.8	12	15.8	13	17.1	12	15.8	5	6.6	1	1.3
	사별	(6)	3	50.0	1	16.7	0	0.0	0	0.0	0	0.0	1	16.7	1	16.7
	상용직	(30)	7	23.3	8	26.7	7	23.3	3	10.0	2	6.7	1	3.3	2	6.7
	임시직	(18)	3	16.7	3	16.7	4	22.2	4	22.2	1	5.6	2	11.1	1	5.6
총사상 지위	일용직	(8)	4	50.0	1	12.5	1	12.5	0	0.0	2	25.0	0	0.0	0	0.0
	자영업자	(5)	1	20.0	3	60.0	0	0.0	0	0.0	1	2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17)	7	41.2	2	11.8	3	17.6	1	5.9	2	11.8	2	11.8	0	0.0
	무직	(34)	9	26.5	1	2.9	7	20.6	7	20.6	7	20.6	1	2.9	2	5.9

구분	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찾기 어려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발취야 하는 부담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112)	31	27.7	18	16.1	22	19.6	15	13.4	15	13.4	6	5.4	5	4.5
	100만원 미만	(27)	14	51.9	4	14.8	4	14.8	2	7.4	2	7.4	1	3.7	0	0.0
	100~200만원 미만	(52)	10	19.2	6	11.5	9	17.3	10	19.2	11	21.2	3	5.8	3	5.8
	200~300만원 미만	(14)	4	28.6	3	21.4	3	21.4	1	7.1	1	7.1	1	7.1	1	7.1
	300~400만원 미만	(4)	0	0.0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9)	2	22.2	1	11.1	2	22.2	1	11.1	1	11.1	1	11.1	1	11.1
잘 모름	(6)	1	16.7	1	16.7	3	50.0	1	16.7	0	0.0	0	0.0	0	0.0	

〈부표 8-1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온라인카페		구청/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한부모모임		사회복지관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기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75)	20	11.4	107	61.1	77	44.0	19	10.9	39	22.3	9	5.1	1	0.6	4	2.3	28	16.0	39	22.3	1	0.6
	모자기족	(146)	16	11.0	88	60.3	66	45.2	14	9.6	31	21.2	7	4.8	0	0.0	3	2.1	24	16.4	36	24.7	1	0.7
	부자기족	(23)	4	17.4	16	69.6	8	34.8	4	17.4	4	17.4	2	8.7	1	4.3	1	4.3	4	17.4	2	8.7	0	0.0
	청소년한부모	(6)	0	0.0	3	50.0	3	50.0	1	16.7	4	66.7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0)	5	8.3	36	60.0	29	48.3	7	11.7	15	25.0	4	6.7	0	0.0	2	3.3	5	8.3	12	20.0	1	1.7
	초등학생	(76)	13	17.1	48	63.2	33	43.4	8	10.5	16	21.1	1	1.3	0	0.0	1	1.3	14	18.4	16	21.1	0	0.0
	중학생 이상	(39)	2	5.1	23	59.0	15	38.5	4	10.3	8	20.5	4	10.3	1	2.6	1	2.6	9	23.1	11	28.2	0	0.0
	미(비)혼 모/부	(38)	4	10.5	16	42.1	18	47.4	5	13.2	17	44.7	3	7.9	0	0.0	0	0.0	3	7.9	9	23.7	0	0.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26)	14	11.1	86	68.3	52	41.3	12	9.5	20	15.9	5	4.0	1	0.8	4	3.2	23	18.3	29	23.0	1	0.8
	사별	(11)	2	18.2	5	45.5	7	63.6	2	18.2	2	18.2	1	9.1	0	0.0	0	0.0	2	18.2	1	9.1	0	0.0
	상용직	(73)	13	17.8	51	69.9	27	37.0	7	9.6	13	17.8	4	5.5	0	0.0	1	1.4	14	19.2	14	19.2	0	0.0
	임시직	(24)	2	8.3	9	37.5	14	58.3	3	12.5	7	29.2	1	4.2	0	0.0	1	4.2	3	12.5	7	29.2	0	0.0
종사상 지위	일용직	(9)	2	22.2	6	66.7	3	33.3	1	11.1	1	11.1	0	0.0	0	0.0	1	11.1	3	33.3	1	11.1	0	0.0
	자영업자	(8)	0	0.0	5	62.5	4	50.0	2	25.0	1	12.5	1	12.5	0	0.0	0	0.0	2	25.0	1	12.5	0	0.0
	기타 종사자	(21)	0	0.0	12	57.1	13	61.9	1	4.8	5	23.8	0	0.0	0	0.0	0	0.0	2	9.5	8	38.1	1	4.8
	무직	(40)	3	7.5	24	60.0	16	40.0	5	12.5	12	30.0	3	7.5	1	2.5	1	2.5	4	10.0	8	20.0	0	0.0

구분	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온라인카페		구청/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한부모모임		사회복지관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수준	전체	(175)	20	11.4	107	61.1	77	44.0	19	10.9	39	22.3	9	5.1	1	0.6	4	2.3	28	16.0	39	22.3	1	0.6	
	100만원 미만	(31)	3	9.7	18	58.1	13	41.9	2	6.5	10	32.3	1	3.2	0	0.0	0	0.0	3	9.7	10	32.3	0	0.0	
	100~200만원 미만	(70)	4	5.7	43	61.4	35	50.0	8	11.4	14	20.0	3	4.3	1	1.4	3	4.3	13	18.6	13	18.6	0	0.0	
	200~300만원 미만	(26)	3	11.5	15	57.7	9	34.6	4	15.4	6	23.1	4	15.4	0	0.0	0	0.0	4	15.4	6	23.1	0	0.0	
	300~400만원 미만	(16)	3	18.8	10	62.5	7	43.8	2	12.5	1	6.3	0	0.0	0	0.0	0	0.0	6	37.5	3	18.8	0	0.0	
	400만원 이상	(24)	6	25.0	18	75.0	10	41.7	2	8.3	4	16.7	1	4.2	0	0.0	1	4.2	2	8.3	4	16.7	0	0.0	
잘 모름		(8)	1	12.5	3	37.5	3	37.5	1	12.5	4	50.0	0	0.0	0	0.0	0	0.0	0	0.0	3	37.5	1	12.5	

〈부표 8-15〉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를 돌보는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 차별 개선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자조모임		심리·정서적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170	75.6	58	25.8	51	22.7	72	32.0	33	14.7	18	8.0	15	6.7	14	6.2	4	1.8	12	5.3	2	0.9
	모자기족	(181)	146	80.7	48	26.5	35	19.3	64	35.4	24	13.3	12	6.6	11	6.1	8	4.4	1	0.6	10	5.5	2	1.1
	부자기족	(32)	13	40.6	10	31.3	11	34.4	5	15.6	7	21.9	6	18.8	2	6.3	6	18.8	2	6.3	2	6.3	0	0.0
	청소년한부모	(12)	11	91.7	0	0.0	5	41.7	3	25.0	2	16.7	0	0.0	2	16.7	0	0.0	1	8.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67	78.8	16	18.8	29	34.1	27	31.8	10	11.8	1	1.2	7	8.2	3	3.5	2	2.4	6	7.1	1	1.2
	초등학생	(88)	75	85.2	27	30.7	16	18.2	28	31.8	11	12.5	6	6.8	4	4.5	5	5.7	0	0.0	3	3.4	1	1.1
	중학생 이상	(52)	28	53.8	15	28.8	6	11.5	17	32.7	12	23.1	11	21.2	4	7.7	6	11.5	2	3.8	3	5.8	0	0.0
	미(비)혼 모/부	(58)	46	79.3	12	20.7	14	24.1	22	37.9	11	19.0	3	5.2	3	5.2	3	5.2	1	1.7	1	1.7	0	0.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52)	111	73.0	41	27.0	34	22.4	45	29.6	21	13.8	14	9.2	12	7.9	9	5.9	3	2.0	11	7.2	2	1.3
	사별	(15)	13	86.7	5	33.3	3	20.0	5	33.3	1	6.7	1	6.7	0	0.0	2	13.3	0	0.0	0	0.0	0	0.0

구분	계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 차별 개선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자조모임		심리·정서적 지원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사업자 지위	전체	(225)	170	75.6	58	25.8	51	22.7	72	32.0	33	14.7	18	8.0	15	6.7	14	6.2	4	1.8	12	5.3	2	0.9
	상용직	(84)	63	75.0	30	35.7	25	29.8	22	26.2	8	9.5	7	8.3	2	2.4	5	6.0	0	0.0	6	7.1	0	0.0
	임시직	(28)	22	78.6	6	21.4	6	21.4	7	25.0	8	28.6	1	3.6	3	10.7	1	3.6	1	3.6	1	3.6	0	0.0
	일용직	(11)	9	81.8	2	18.2	3	27.3	4	36.4	2	18.2	0	0.0	1	9.1	0	0.0	0	0.0	0	0.0	1	9.1
	자영업자	(10)	8	80.0	2	20.0	1	10.0	4	40.0	1	10.0	0	0.0	2	20.0	0	0.0	0	0.0	2	20.0	0	0.0
	기타 종사자	(24)	22	91.7	7	29.2	5	20.8	9	37.5	1	4.2	0	0.0	2	8.3	1	4.2	0	0.0	1	4.2	0	0.0
	무직	(68)	46	67.6	11	16.2	11	16.2	26	38.2	13	19.1	10	14.7	5	7.4	7	10.3	3	4.4	2	2.9	1	1.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6	87.8	11	26.8	5	12.2	13	31.7	5	12.2	5	12.2	2	4.9	2	4.9	0	0.0	2	4.9	1	2.4
	100~200만원 미만	(90)	65	72.2	16	17.8	20	22.2	29	32.2	17	18.9	11	12.2	8	8.9	8	8.9	2	2.2	2	2.2	1	1.1
	200~300만원 미만	(31)	25	80.6	10	32.3	6	19.4	10	32.3	6	19.4	0	0.0	1	3.2	1	3.2	0	0.0	3	9.7	0	0.0
	300~400만원 미만	(20)	15	75.0	7	35.0	10	50.0	4	20.0	0	0.0	1	5.0	1	5.0	0	0.0	0	0.0	2	10.0	0	0.0
	400만원 이상	(26)	16	61.5	11	42.3	6	23.1	7	26.9	4	15.4	1	3.8	2	7.7	2	7.7	1	3.8	2	7.7	0	0.0
	잘 모름	(17)	13	76.5	3	17.6	4	23.5	9	52.9	1	5.9	0	0.0	1	5.9	1	5.9	1	5.9	1	5.9	0	0.0

〈부표 8-16〉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N=225)

단위 :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쉼터 등)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기타		이용한 적이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225)	11.1	3	1.3	48	21.3	24	10.7	36	16.0	24	10.7	28	12.4	2	0.9	100	44.4
	모자가족	(181)	11.6	1	0.6	34	18.8	12	6.6	24	13.3	21	11.6	23	12.7	2	1.1	91	50.3
	부자가족	(32)	6.3	2	6.3	5	15.6	11	34.4	11	34.4	3	9.4	4	12.5	0	0.0	8	25.0
	청소년한부모	(12)	16.7	0	0.0	9	75.0	1	8.3	1	8.3	0	0.0	1	8.3	0	0.0	1	8.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15.3	2	2.4	31	36.5	5	5.9	10	11.8	8	9.4	8	9.4	1	1.2	31	36.5
	초등학교생	(88)	9.1	0	0.0	14	15.9	7	8.0	16	18.2	11	12.5	10	11.4	0	0.0	44	50.0
	중학생 이상	(52)	7.7	1	1.9	3	5.8	12	23.1	10	19.2	5	9.6	10	19.2	1	1.9	25	48.1
	미(비)혼 모/부	(58)	19.0	0	0.0	38	65.5	5	8.6	11	19.0	9	15.5	4	6.9	0	0.0	9	15.5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52)	9.2	3	2.0	8	5.3	18	11.8	21	13.8	13	8.6	21	13.8	2	1.3	85	55.9
	사별	(15)	0.0	0	0.0	2	13.3	1	6.7	4	26.7	2	13.3	3	20.0	0	0.0	6	40.0
	상용직	(84)	8.3	2	2.4	11	13.1	6	7.1	16	19.0	10	11.9	8	9.5	1	1.2	45	53.6
	임시직	(28)	32.1	0	0.0	6	21.4	3	10.7	4	14.3	3	10.7	3	10.7	0	0.0	11	39.3
종사상 지위	일용직	(11)	0.0	1	9.1	2	18.2	2	18.2	1	9.1	2	18.2	2	18.2	0	0.0	5	45.5
	자영업자	(10)	10.0	0	0.0	1	10.0	1	10.0	0	0.0	1	10.0	0	0.0	0	0.0	7	70.0
	기타 종사자	(24)	16.7	0	0.0	3	12.5	2	8.3	2	8.3	3	12.5	4	16.7	0	0.0	12	50.0
	무직	(68)	5.9	0	0.0	25	36.8	10	14.7	13	19.1	5	7.4	11	16.2	1	1.5	20	29.4

구분	계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쉼터 등)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기타		이용한 적이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25	11.1	3	1.3	48	21.3	24	10.7	36	16.0	24	10.7	28	12.4	2	0.9	100	4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6	14.6	0	0.0	12	29.3	4	9.8	7	17.1	5	12.2	8	19.5	0	0.0	16	39.0
	100~200만원 미만	11	12.2	1	1.1	18	20.0	17	18.9	12	13.3	11	12.2	12	13.3	2	2.2	36	40.0
	200~300만원 미만	2	6.5	1	3.2	4	12.9	1	3.2	5	16.1	6	19.4	4	12.9	0	0.0	16	51.6
	300~400만원 미만	1	5.0	0	0.0	1	5.0	0	0.0	4	20.0	1	5.0	1	5.0	0	0.0	13	65.0
	400만원 이상	4	15.4	1	3.8	3	11.5	2	7.7	7	26.9	1	3.8	1	3.8	0	0.0	14	53.8
잘 모름	(17)	1	5.9	0	0.0	10	58.8	0	0.0	1	5.9	0	0.0	2	11.8	0	0.0	5	29.4

〈부표 8-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갈 곳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미혼 출산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인근 교통편리 등 접근성이 좋아서		주변 환경이 안전하여		좋은 시설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79)	18	22.8	10	12.7	15	19.0	6	7.6	13	16.5	11	13.9	5	6.3	1	1.3	0	0.0
	모자기족	(53)	15	28.3	6	11.3	10	18.9	4	7.5	9	17.0	8	15.1	0	0.0	1	1.9	0	0.0
	부자기족	(16)	0	0.0	1	6.3	2	12.5	2	12.5	3	18.8	3	18.8	5	31.3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청소년한부모	(10)	3	30.0	3	30.0	3	3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42)	11	26.2	7	16.7	9	21.4	2	4.8	8	19.0	5	11.9	0	0.0	0	0.0	0	0.0
	초등학교생	(21)	4	19.0	3	14.3	5	23.8	2	9.5	2	9.5	3	14.3	1	4.8	1	4.8	0	0.0
한부모 된 이유	중학생 이상	(16)	3	18.8	0	0.0	1	6.3	2	12.5	3	18.8	3	18.8	4	25.0	0	0.0	0	0.0
	미(비)혼 모/부	(42)	12	28.6	8	19.0	11	26.2	0	0.0	7	16.7	3	7.1	1	2.4	0	0.0	0	0.0
	이혼	(34)	6	17.6	2	5.9	3	8.8	6	17.6	6	17.6	7	20.6	3	8.8	1	2.9	0	0.0
종사상 지위	사별	(3)	0	0.0	0	0.0	1	33.3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상용직	(18)	4	22.2	3	16.7	3	16.7	1	5.6	1	5.6	5	27.8	1	5.6	0	0.0	0	0.0
	임시직	(13)	3	23.1	1	7.7	1	7.7	3	23.1	3	23.1	1	7.7	0	0.0	1	7.7	0	0.0
	일용직	(3)	0	0.0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자영업자	(2)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6)	2	33.3	1	16.7	2	33.3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무직	(37)	9	24.3	4	10.8	8	21.6	2	5.4	8	21.6	2	5.4	4	10.8	0	0.0	0	0.0	

|

가

|

구분	계	갈 곳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미혼 출산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인근 교통편리 등 접근성이 좋아서		주변 환경이 안전하여		좋은 시설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9)	18	22.8	10	12.7	15	19.0	6	7.6	13	16.5	11	13.9	5	6.3	1	1.3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5	27.8	4	22.2	2	11.1	1	5.6	4	22.2	1	5.6	0	0.0	1	5.6	0	0.0
	100~200만원 미만	9	25.0	3	8.3	6	16.7	3	8.3	7	19.4	4	11.1	4	11.1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0	0.0	1	14.3	1	14.3	1	14.3	1	14.3	3	42.9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400만원 이상	2	28.6	1	14.3	1	14.3	1	14.3	0	0.0	1	14.3	1	14.3	0	0.0	0	0.0
잘 모름	(10)	2	20.0	1	10.0	5	50.0	0	0.0	1	10.0	1	10.0	0	0.0	0	0.0	0	0.0

〈부표 8-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생계(생활) 지원 서비스		양육지원 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서비스		임신·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상담·심리 치료 지원 서비스		문화, 여가 지원 서비스		퇴소 후 사후 상담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73)	31	42.5	43	58.9	16	21.9	20	27.4	9	12.3	13	17.8	7	9.6	7	9.6
	모자기족	(55)	26	47.3	35	63.6	13	23.6	15	27.3	2	3.6	9	16.4	5	9.1	5	9.1
	부자기족	(16)	4	25.0	7	43.8	3	18.8	5	31.3	7	43.8	4	25.0	1	6.3	1	6.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청소년한부모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미취학 아동	(23)	10	43.5	10	43.5	6	26.1	5	21.7	2	8.7	5	21.7	3	13.0	5	21.7
	초등학생	(29)	13	44.8	23	79.3	6	20.7	7	24.1	1	3.4	5	17.2	2	6.9	1	3.4
한부모 된 이유	중학생 이상	(21)	8	38.1	10	47.6	4	19.0	8	38.1	6	28.6	3	14.3	2	9.5	1	4.8
	미(비)혼 모/부	(17)	7	41.2	8	47.1	4	23.5	5	29.4	2	11.8	3	17.6	2	11.8	3	17.6
	이혼	(48)	19	39.6	31	64.6	9	18.8	14	29.2	7	14.6	9	18.8	4	8.3	3	6.3
종사상 지위	사별	(8)	5	62.5	4	50.0	3	37.5	1	12.5	0	0.0	1	12.5	1	12.5	1	12.5
	상용직	(27)	11	40.7	19	70.4	10	37.0	7	25.9	2	7.4	4	14.8	1	3.7	0	0.0
	임시직	(10)	3	30.0	5	50.0	2	20.0	4	40.0	0	0.0	3	30.0	1	10.0	2	20.0
	일용직	(4)	4	100.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자영업자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7)	3	42.9	4	57.1	3	42.9	1	14.3	0	0.0	1	14.3	2	28.6	0	0.0
무직	(24)	9	37.5	12	50.0	1	4.2	8	33.3	7	29.2	4	16.7	3	12.5	4	16.7	

구분	계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생계(생활) 지원 서비스		양육지원 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여량강화 서비스		임신·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상담·심리 치료 지원 서비스		문화, 여가 지원 서비스		퇴소 후 사후 상담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3)	31	42.5	43	58.9	16	21.9	20	27.4	9	12.3	13	17.8	7	9.6	7	9.6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7	53.8	7	53.8	1	7.7	2	15.4	1	7.7	2	15.4	4	30.8	2	15.4
	100~200만원 미만	13	39.4	20	60.6	4	12.1	12	36.4	6	18.2	7	21.2	1	3.0	3	9.1
	200~300만원 미만	5	50.0	8	80.0	5	50.0	1	10.0	1	10.0	0	0.0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3	50.0	3	50.0	1	16.7	3	50.0	0	0.0	2	33.3	0	0.0	0	0.0
	400만원 이상	1	12.5	4	50.0	5	62.5	2	25.0	1	12.5	1	12.5	1	12.5	1	12.5
잘 모름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1	33.3

〈부표 8-19〉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시설이 너무 멀어서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부모 유형	전체	(100)	28	28.0	22	22.0	4	4.0	22	22.0	8	8.0	12	12.0	4	4.0
	모자기족	(91)	28	30.8	18	19.8	4	4.4	18	19.8	7	7.7	12	13.2	4	4.4
	부자기족	(8)	0	0.0	4	50.0	0	0.0	3	37.5	1	12.5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청소년한부모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31)	7	22.6	2	6.5	1	3.2	11	35.5	5	16.1	3	9.7	2	6.5
	초등학생	(44)	16	36.4	13	29.5	1	2.3	8	18.2	1	2.3	4	9.1	1	2.3
한부모 된 이유	중학생 이상	(25)	5	20.0	7	28.0	2	8.0	3	12.0	2	8.0	5	20.0	1	4.0
	미(비)혼 모/부	(9)	1	11.1	0	0.0	0	0.0	3	33.3	3	33.3	1	11.1	1	11.1
	이혼	(85)	24	28.2	20	23.5	4	4.7	18	21.2	5	5.9	11	12.9	3	3.5
종사상 지위	사별	(6)	3	50.0	2	33.3	0	0.0	1	16.7	0	0.0	0	0.0	0	0.0
	상용직	(45)	8	17.8	18	40.0	3	6.7	9	20.0	3	6.7	3	6.7	1	2.2
	임시직	(11)	2	18.2	2	18.2	1	9.1	3	27.3	1	9.1	2	18.2	0	0.0
	일용직	(5)	2	40.0	0	0.0	0	0.0	2	40.0	0	0.0	1	20.0	0	0.0
	자영업자	(7)	2	28.6	2	28.6	0	0.0	2	28.6	0	0.0	1	14.3	0	0.0
	기타 종사자	(12)	3	25.0	0	0.0	0	0.0	2	16.7	2	16.7	3	25.0	2	16.7
무직	(20)	11	55.0	0	0.0	0	0.0	4	20.0	2	10.0	2	10.0	1	5.0	

구분	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시설이 너무 멀어서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0)	28	28.0	22	22.0	4	4.0	22	22.0	8	8.0	12	12.0	4	4.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8	50.0	0	0.0	0	0.0	3	18.8	3	18.8	1	6.3	1	6.3
	100~200만원 미만	11	30.6	4	11.1	2	5.6	9	25.0	3	8.3	7	19.4	0	0.0
	200~300만원 미만	5	31.3	5	31.3	1	6.3	2	12.5	0	0.0	2	12.5	1	6.3
	300~400만원 미만	2	15.4	7	53.8	0	0.0	2	15.4	1	7.7	0	0.0	1	7.7
	400만원 이상	1	7.1	5	35.7	0	0.0	5	35.7	0	0.0	2	14.3	1	7.1
잘 모름	(5)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0	0.0	0	0.0

〈부표 8-20〉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계	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유관기관 연계(상담소, 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등)		친구 및 지인 소개		민간단체 소개(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		대전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시설 홍보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5)	16	12.8	27	21.6	22	17.6	13	10.4	6	4.8	38	30.4	2	1.6	1	0.8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10	11.1	21	23.3	15	16.7	9	10.0	2	2.2	32	35.6	0	0.0	1	1.1
	부자기족	5	20.8	3	12.5	4	16.7	4	16.7	4	16.7	2	8.3	2	8.3	0	0.0
	청소년한부모	1	9.1	3	27.3	3	27.3	0	0.0	0	0.0	4	36.4	0	0.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	11.1	14	25.9	10	18.5	3	5.6	1	1.9	19	35.2	0	0.0	1	1.9
	초등학교생	7	15.9	8	18.2	7	15.9	6	13.6	2	4.5	14	31.8	0	0.0	0	0.0
	중학생 이상	3	11.1	5	18.5	5	18.5	4	14.8	3	11.1	5	18.5	2	7.4	0	0.0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3	6.1	13	26.5	10	20.4	5	10.2	1	2.0	17	34.7	0	0.0	0	0.0
	이혼	9	13.4	11	16.4	11	16.4	8	11.9	5	7.5	20	29.9	2	3.0	1	1.5
	사별	4	44.4	3	33.3	1	11.1	0	0.0	0	0.0	1	11.1	0	0.0	0	0.0

구분	계	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유관기관 연계(상담소, 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등)		친구 및 지인 소개		민간단체 소개(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		대전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시설 홍보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사업 지위	전체	(125)	16	12.8	27	21.6	22	17.6	13	10.4	6	4.8	38	30.4	2	1.6	1	0.8
	상용직	(39)	9	23.1	9	23.1	5	12.8	5	12.8	2	5.1	9	23.1	0	0.0	0	0.0
	임시직	(17)	2	11.8	3	17.6	3	17.6	1	5.9	0	0.0	8	47.1	0	0.0	0	0.0
	일용직	(6)	0	0.0	1	16.7	1	16.7	2	33.3	1	16.7	1	16.7	0	0.0	0	0.0
	자영업자	(3)	0	0.0	0	0.0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기타 종사자	(12)	1	8.3	2	16.7	3	25.0	0	0.0	0	0.0	5	41.7	0	0.0	1	8.3
	무직	(48)	4	8.3	12	25.0	9	18.8	4	8.3	3	6.3	14	29.2	2	4.2	0	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5)	3	12.0	7	28.0	3	12.0	0	0.0	0	0.0	12	48.0	0	0.0	0	0.0
	100~200만원 미만	(54)	3	5.6	7	13.0	9	16.7	9	16.7	4	7.4	20	37.0	2	3.7	0	0.0
	200~300만원 미만	(15)	3	20.0	5	33.3	2	13.3	3	20.0	1	6.7	1	6.7	0	0.0	0	0.0
	300~400만원 미만	(7)	3	42.9	1	14.3	1	14.3	1	14.3	0	0.0	1	14.3	0	0.0	0	0.0
	400만원 이상	(12)	3	25.0	5	41.7	2	16.7	0	0.0	1	8.3	1	8.3	0	0.0	0	0.0
	잘 모름	(12)	1	8.3	2	16.7	5	41.7	0	0.0	0	0.0	3	25.0	0	0.0	1	8.3

〈부표 8-21〉 지원시설 서비스의 도움 수준

단위 : 명, 점

구분		N	전체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주거 도움	정서적 치유 도움	자녀 돌봄 도움	본인학업 및 취업 필요 교육	건강 유지 서비스	멘토 및 친구 만남
전체		(125)	3.5	3.5	3.6	3.5	3.8	3.5	3.5	3.3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90)	3.5	3.7	3.7	3.6	3.6	3.4	3.3	3.2
	부자가족	(24)	3.4	2.6	3.1	3.2	3.9	3.8	3.9	3.4
	청소년한부모	(11)	4.2	4.2	4.2	3.6	4.7	4.2	4.4	4.0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54)	3.6	3.7	3.8	3.5	3.8	3.5	3.5	3.2
	아동	(44)	3.6	3.9	3.8	3.7	3.7	3.5	3.3	3.3
	중학생 이상	(27)	3.4	2.6	3.1	3.3	3.7	3.7	3.9	3.5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49)	3.9	4.0	4.1	3.8	4.1	4.0	3.8	3.6
	이혼	(67)	3.3	3.2	3.4	3.3	3.5	3.3	3.3	3.1
	사별	(9)	3.1	3.1	3.0	3.3	3.4	2.8	3.1	3.1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	3.5	3.6	3.7	3.6	3.7	3.5	3.4	3.3
	임시직	(17)	3.6	4.1	4.0	3.7	3.9	3.3	3.3	3.1
	일용직	(6)	3.2	3.3	3.2	3.3	3.0	3.0	3.2	3.3
	자영업자	(3)	2.6	3.0	2.7	3.0	2.3	3.3	2.0	2.0
	기타 종사자	(12)	3.7	4.1	4.0	3.7	3.7	3.6	3.6	3.3
	무직	(48)	3.6	3.2	3.5	3.3	4.0	3.7	3.8	3.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5)	3.7	3.9	3.9	3.6	4.0	3.7	3.6	3.4
	100~200만원 미만	(54)	3.4	3.2	3.4	3.4	3.7	3.4	3.4	3.3
	200~300만원 미만	(15)	3.2	3.2	3.3	3.5	3.4	2.7	3.1	2.9
	300~400만원 미만	(7)	3.8	4.0	3.9	4.0	3.9	4.0	3.6	3.3
	400만원 이상	(12)	3.5	3.7	3.8	3.3	3.6	3.8	3.3	3.0
	잘 모름	(12)	4.1	4.2	4.2	3.8	4.3	4.3	4.3	3.8

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부표 8-2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단위 : 명, %

구분	계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5)	26	20.8	6	4.8	12	9.6	37	29.6	16	12.8	28	22.4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20	22.2	4	4.4	7	7.8	25	27.8	11	12.2	23	25.6
	부자기족	4	16.7	2	8.3	4	16.7	8	33.3	4	16.7	2	8.3
	청소년한부모	2	18.2	0	0.0	1	9.1	4	36.4	1	9.1	3	27.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11	20.4	0	0.0	5	9.3	15	27.8	11	20.4	12	22.2
	초등학생	11	25.0	5	11.4	4	9.1	12	27.3	2	4.5	10	22.7
	중학생 이상	4	14.8	1	3.7	3	11.1	10	37.0	3	11.1	6	22.2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13	26.5	2	4.1	1	2.0	15	30.6	6	12.2	12	24.5
	이혼	10	14.9	4	6.0	10	14.9	22	32.8	8	11.9	13	19.4
	사별	3	33.3	0	0.0	1	11.1	0	0.0	2	22.2	3	33.3
총사양 지위	상용직	10	25.6	4	10.3	5	12.8	10	25.6	3	7.7	7	17.9
	임시직	4	23.5	1	5.9	0	0.0	6	35.3	0	0.0	6	35.3
	일용직	1	16.7	0	0.0	0	0.0	3	50.0	0	0.0	2	33.3
	자영업자	0	0.0	0	0.0	1	33.3	1	33.3	1	33.3	0	0.0
	기타 종사자	5	41.7	1	8.3	2	16.7	2	16.7	1	8.3	1	8.3
	무직	6	12.5	0	0.0	4	8.3	15	31.3	11	22.9	12	25.0

구분	계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5)	26	20.8	6	4.8	12	9.6	37	29.6	16	12.8	28	22.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8	32.0	0	0.0	3	12.0	8	32.0	1	4.0	5	20.0
	100~200만원 미만	10	18.5	1	1.9	4	7.4	18	33.3	7	13.0	14	25.9
	200~300만원 미만	3	20.0	3	20.0	1	6.7	3	20.0	3	20.0	2	13.3
	300~400만원 미만	2	28.6	0	0.0	1	14.3	3	42.9	1	14.3	0	0.0
	400만원 이상	2	16.7	2	16.7	3	25.0	2	16.7	2	16.7	1	8.3
잘 모름	(12)	1	8.3	0	0.0	0	0.0	3	25.0	2	16.7	6	50.0

〈부표 8-2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사항(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확충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생활시설 입주 자격 기준 완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5)	63	50.4	52	41.6	34	27.2	25	20.0	45	36.0	25	20.0	6	4.8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50	55.6	28	31.1	26	28.9	13	14.4	37	41.1	21	23.3	5	5.6
	부자기족	5	20.8	16	66.7	7	29.2	11	45.8	7	29.2	2	8.3	0	0.0
	청소년한부모	8	72.7	8	72.7	1	9.1	1	9.1	1	9.1	2	18.2	1	9.1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32	59.3	23	42.6	13	24.1	8	14.8	18	33.3	10	18.5	4	7.4
	초등학생	24	54.5	18	40.9	10	22.7	8	18.2	17	38.6	9	20.5	2	4.5
	중학생 이상	7	25.9	11	40.7	11	40.7	9	33.3	10	37.0	6	22.2	0	0.0
	미(비)혼 모/부	28	57.1	21	42.9	13	26.5	6	12.2	11	22.4	15	30.6	4	8.2
한부모 된 이유	이혼	32	47.8	29	43.3	18	26.9	16	23.9	29	43.3	8	11.9	2	3.0
	사별	3	33.3	2	22.2	3	33.3	3	33.3	5	55.6	2	22.2	0	0.0
	상용직	22	56.4	16	41.0	11	28.2	9	23.1	12	30.8	6	15.4	2	5.1
종사상 지위	임시직	10	58.8	7	41.2	3	17.6	2	11.8	7	41.2	4	23.5	1	5.9
	일용직	2	33.3	3	50.0	1	16.7	1	16.7	2	33.3	3	50.0	0	0.0
	자영업자	2	66.7	0	0.0	1	33.3	2	66.7	1	33.3	0	0.0	0	0.0
	기타 종사자	5	41.7	3	25.0	6	50.0	1	8.3	6	50.0	3	25.0	0	0.0
	무직	22	45.8	23	47.9	12	25.0	10	20.8	17	35.4	9	18.8	3	6.3

구분	계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확충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생활시설 입주 자격 기준 완화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5)	63	50.4	52	41.6	34	27.2	25	20.0	45	36.0	25	20.0	6	4.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8	72.0	12	48.0	5	20.0	1	4.0	7	28.0	7	28.0	0	0.0
	100~200만원 미만	22	40.7	20	37.0	13	24.1	14	25.9	21	38.9	12	22.2	6	11.1
	200~300만원 미만	8	53.3	1	6.7	6	40.0	5	33.3	7	46.7	3	20.0	0	0.0
	300~400만원 미만	3	42.9	5	71.4	2	28.6	1	14.3	2	28.6	1	14.3	0	0.0
	400만원 이상	5	41.7	8	66.7	3	25.0	4	33.3	4	33.3	0	0.0	0	0.0
잘 모름	(12)	7	58.3	6	50.0	5	41.7	0	0.0	4	33.3	2	16.7	0	0.0

〈부표 8-24〉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순위 종합 (1))

단위 : 명, %

구분		계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가족 구성원 등 돌봄 문제		근로시간 단축 및 해고 등 일자리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 관계 문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08	48.0	65	28.9	41	18.2	68	30.2	41	18.2	9	4.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98	54.1	55	30.4	33	18.2	58	32.0	29	16.0	4	2.2
	부자가족	(32)	7	21.9	6	18.8	8	25.0	9	28.1	8	25.0	4	12.5
	청소년한부모	(12)	3	25.0	4	33.3	0	0.0	1	8.3	4	33.3	1	8.3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43	50.6	34	40.0	13	15.3	17	20.0	15	17.6	2	2.4
	초등학생	(88)	42	47.7	26	29.5	13	14.8	38	43.2	15	17.0	4	4.5
	중학생 이상	(52)	23	44.2	5	9.6	15	28.8	13	25.0	11	21.2	3	5.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26	44.8	18	31.0	7	12.1	13	22.4	12	20.7	4	6.9
	이혼	(152)	72	47.4	45	29.6	28	18.4	49	32.2	27	17.8	4	2.6
	사별	(15)	10	66.7	2	13.3	6	40.0	6	40.0	2	13.3	1	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35	41.7	27	32.1	13	15.5	30	35.7	15	17.9	2	2.4
	임시직	(28)	14	50.0	6	21.4	4	14.3	10	35.7	4	14.3	1	3.6
	일용직	(11)	5	45.5	3	27.3	4	36.4	5	45.5	3	27.3	0	0.0
	자영업자	(10)	8	80.0	6	60.0	2	20.0	2	20.0	1	10.0	0	0.0
	기타 종사자	(24)	17	70.8	9	37.5	5	20.8	6	25.0	2	8.3	0	0.0
	무직	(68)	29	42.6	14	20.6	13	19.1	15	22.1	16	23.5	6	8.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27	65.9	7	17.1	8	19.5	8	19.5	6	14.6	2	4.9
	100~200만원 미만	(90)	39	43.3	30	33.3	17	18.9	29	32.2	19	21.1	5	5.6
	200~300만원 미만	(31)	15	48.4	5	16.1	12	38.7	10	32.3	4	12.9	0	0.0
	300~400만원 미만	(20)	10	50.0	9	45.0	3	15.0	5	25.0	1	5.0	0	0.0
	400만원 이상	(26)	12	46.2	11	42.3	1	3.8	11	42.3	4	15.4	2	7.7
	잘 모름	(17)	5	29.4	3	17.6	0	0.0	5	29.4	7	41.2	0	0.0

〈부표 8-24〉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순위 종합 (2))

단위 : 명, %

구분		계	가사노동 등 집안일 부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		온라인 사용 어려움 (앱 설치/ 프로그램 활용 등)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기타		어려움이 없었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24	10.7	47	20.9	6	2.7	20	8.9	3	1.3	9	4.0
한부모 유형	모자가족	(181)	19	10.5	38	21.0	4	2.2	11	6.1	3	1.7	5	2.8
	부자가족	(32)	5	15.6	6	18.8	2	6.3	5	15.6	0	0.0	2	6.3
	청소년한부모	(12)	0	0.0	3	25.0	0	0.0	4	33.3	0	0.0	2	16.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85)	6	7.1	16	18.8	1	1.2	9	10.6	0	0.0	7	8.2
	초등학생	(88)	9	10.2	17	19.3	3	3.4	6	6.8	3	3.4	0	0.0
	중학생 이상	(52)	9	17.3	14	26.9	2	3.8	5	9.6	0	0.0	2	3.8
한부모 된 이유	미(비)혼 모/부	(58)	6	10.3	12	20.7	0	0.0	8	13.8	0	0.0	5	8.6
	이혼	(152)	18	11.8	34	22.4	6	3.9	12	7.9	3	2.0	3	2.0
	사별	(15)	0	0.0	1	6.7	0	0.0	0	0.0	0	0.0	1	6.7
종사상 지위	상용직	(84)	12	14.3	19	22.6	3	3.6	7	8.3	1	1.2	2	2.4
	임시직	(28)	2	7.1	10	35.7	1	3.6	3	10.7	1	3.6	0	0.0
	일용직	(11)	0	0.0	1	9.1	1	9.1	0	0.0	0	0.0	0	0.0
	자영업자	(1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종사자	(24)	3	12.5	4	16.7	0	0.0	0	0.0	0	0.0	1	4.2
	무직	(68)	7	10.3	12	17.6	1	1.5	10	14.7	1	1.5	6	8.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1)	3	7.3	12	29.3	0	0.0	6	14.6	1	2.4	1	2.4
	100~200만원 미만	(90)	8	8.9	18	20.0	2	2.2	8	8.9	1	1.1	2	2.2
	200~300만원 미만	(31)	4	12.9	6	19.4	2	6.5	1	3.2	1	3.2	1	3.2
	300~400만원 미만	(20)	4	20.0	5	25.0	0	0.0	1	5.0	0	0.0	1	5.0
	400만원 이상	(26)	4	15.4	3	11.5	1	3.8	1	3.8	0	0.0	1	3.8
	잘 모름	(17)	1	5.9	3	17.6	1	5.9	3	17.6	0	0.0	3	17.6

〈부표 8-2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필요한 지원(1+2순위 종합)

단위 : 명, %

구분	계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원이 필요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78	79.1	72	32.0	84	37.3	45	20.0	32	14.2	27	12.0	10	4.4
한부모 유형	모자기족	160	88.4	57	31.5	65	35.9	30	16.6	23	12.7	18	9.9	7	3.9
	부자기족	11	34.4	12	37.5	12	37.5	13	40.6	7	21.9	6	18.8	3	9.4
	청소년한부모	7	58.3	3	25.0	7	58.3	2	16.7	2	16.7	3	25.0	0	0.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미취학 아동	69	81.2	26	30.6	44	51.8	10	11.8	4	4.7	14	16.5	2	2.4
	초등학교생	76	86.4	31	35.2	32	36.4	16	18.2	14	15.9	3	3.4	4	4.5
	중학생 이상	33	63.5	15	28.8	8	15.4	19	36.5	14	26.9	10	19.2	4	7.7
	미(비)혼 모/부	43	74.1	16	27.6	29	50.0	13	22.4	8	13.8	7	12.1	0	0.0
한부모 된 이유	이혼	122	80.3	49	32.2	51	33.6	28	18.4	23	15.1	19	12.5	10	6.6
	사별	13	86.7	7	46.7	4	26.7	4	26.7	1	6.7	1	6.7	0	0.0
	상용직	66	78.6	35	41.7	35	41.7	10	11.9	8	9.5	9	10.7	4	4.8
총상 지위	임시직	22	78.6	5	17.9	12	42.9	4	14.3	5	17.9	6	21.4	2	7.1
	일용직	9	81.8	4	36.4	2	18.2	5	45.5	1	9.1	0	0.0	1	9.1
	자영업자	9	90.0	3	30.0	1	10.0	5	50.0	0	0.0	0	0.0	2	20.0
	기타 종사자	22	91.7	5	20.8	10	41.7	5	20.8	2	8.3	3	12.5	1	4.2
	무직	50	73.5	20	29.4	24	35.3	16	23.5	16	23.5	9	13.2	0	0.0

구분	계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원이 필요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5)	178	79.1	72	32.0	84	37.3	45	20.0	32	14.2	27	12.0	10	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7	90.2	13	31.7	14	34.1	8	19.5	5	12.2	5	12.2	0	0.0
	100~200만원 미만	70	77.8	22	24.4	35	38.9	23	25.6	16	17.8	9	10.0	4	4.4
	200~300만원 미만	27	87.1	10	32.3	10	32.3	4	12.9	5	16.1	5	16.1	1	3.2
	300~400만원 미만	16	80.0	10	50.0	9	45.0	1	5.0	1	5.0	2	10.0	1	5.0
	400만원 이상	17	65.4	11	42.3	9	34.6	5	19.2	4	15.4	1	3.8	4	15.4
잘 모름	(17)	11	64.7	6	35.3	7	41.2	4	23.5	1	5.9	5	29.4	0	0.0

[부록 2]

응답자코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 연구기관: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조사기관: ㈜에스티아이

< 개인정보 제공 및 면접참여 동의서 >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나이, 전화번호 등입니다.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설문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응답자 :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귀하

응답자		면담일자	2022년	월	일
조사자	(인)	관리자			(인)

스크리닝 문항

SQ1 귀하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SQ2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배우자와 함께 거주, 사실혼(동거) 포함 / 조사 중단) ② 아니오

1. 응답자 특성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출생년도 / 월	()년 ()월				
3.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② 중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③ 고등학교 졸업	
4. 거주지역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5. 대전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⑦ 15년 이상~20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⑤ 5년 이상~10년 미만 ⑧ 20년 이상~25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⑥ 10년 이상~15년 미만 ⑨ 25년 이상	
6. 장애 여부	① 있다. 장애 등록함(6-1번 문항으로) ② 있다. 장애 등록하지 않음(6-1번 문항으로) ③ 없다(7번 문항으로)				
6-1. 주된 장애유형 (1가지만 응답)	① 지체 ⑤ 청각 ⑨ 신장 ⑬ 안면	② 뇌병변 ⑥ 언어 ⑩ 심장 ⑭ 장루·요루	③ 지적 ⑦ 자폐성 ⑪ 호흡기 ⑮ 뇌전증	④ 시각 ⑧ 정신 ⑫ 간	
7. 출신국적	① 대한민국 ⑥ 베트남 ⑪ 러시아	② 중국 ⑦ 필리핀 ⑫ 미국	③ 중국(한국계) ⑧ 태국 ⑬ 유럽	④ 일본 ⑨ 캄보디아 ⑭ 기타()	⑤ 대만/홍콩 ⑩ 몽골
8. 한부모 가족이 된 이유	① 미(비)혼 모/부 ② 이혼 ③ 사별 ④ 기타()				
9. 한부모가 된 기간	총 ()년 ()개월				

2. 가족관계 및 자녀 돌봄

1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 본인과의 관계, 연령, 성별, 취업 여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1. 본인과의 관계	1-2. 연령	1-3. 성별	1-4. 교육 정도		1-5. 취업 여부	1-6. 장애 여부
				1) 학력	2) 졸업 여부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4		만 ()세					
5		만 ()세					
6		만 ()세					
7		만 ()세					

보기	
1-1. 본인과의 관계	① 자녀 ② 부 ③ 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1-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4. 교육 정도	1) 학력
	① 무학 ② 취학 전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교(전문대 포함) ⑦ 대학원 이상
	2) 졸업 여부
1-5. 취업 여부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종퇴 ⑤ 해당없음
1-6. 장애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은 미취학 연령(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귀하는 미취학 자녀를 주로 어떤 유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유형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본인이 직접	② 조부모
④ 돌봄보육시설(어린이집)	⑤ 유치원
⑦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⑧ 민간 베이비시터
⑩ 이웃이나 친구	⑪ 기타()
	③ 친인척
	⑥ 학원
	⑨ 학습지, 방문과의 등

→ ④, ⑤번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경우, 2-1번 문항으로 / ④, ⑤번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3번 문항으로

2-1

귀하가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주로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번	2순위()번
①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⑤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⑥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⑦ 보육시설 및 기관을 믿지 못해서	⑧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⑨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주지 않아서	⑩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⑪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⑫ 기타()

3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주말 제외)에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있다 → (하루 평균: 시간) ② 없다

4

귀하의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보육서비스 활성화(아간, 휴일 등)	② 자녀 등·하원 서비스 ③ 식사 제공 서비스
④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⑤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⑥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⑦ 기타()	

5

귀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2)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4) 자녀를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6) 자녀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교우관계 갈등, 미디어 중독, 부정적 학습관 등).	①	②	③	④
7)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 초등학생 연령(만7세 이상~만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7세~만13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6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어떤 유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유형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④ 학원	⑤ 조부모
⑦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⑧ 민간 베이비시터
⑩ 본인이 직접 돌봄	⑪ 이웃이나 친구
	③ 돌봄공동체
	⑥ 친인척
	⑨ 학습지, 방문과외 등
	⑫ 기타()

→ ①, ③번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경우, 6-1번 문항으로 / ①, ③번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7번 문항으로

6-1

귀하가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
| ③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몰라서 |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
| ⑤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 ⑥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 ⑦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 ⑧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 ⑨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주지 않아서 | ⑩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
| ⑪ 기타() | |

7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주말 제외)에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있다 → (하루 평균 : 시간) (7-1번 문항으로) ② 없다(8번 문항으로)

7-1

귀하의 자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 | | |
|-------------------------------------|---------------------------|
| ① TV 시청, 라디오나 음악 듣기, 잡지나 책을 읽으며 지낸다 | ②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면서 지낸다 |
| ③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 ④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돌본다 |
| ⑤ 쉬거나 잠을 잔다 | ⑥ 숙제 등 공부를 한다 |
| ⑦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 ⑧ 청소년 시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 ⑨ 아르바이트를 한다 | ⑩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한다 |
| ⑪ 기타() | |

8

귀하의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②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③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	④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⑤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⑥ 자녀 등하교 서비스
⑦ 자녀 식사 지원 서비스	⑧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⑨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서비스	⑩ 지역사회 비상연락망 서비스
⑪ 기타()	

9

귀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2) 자녀의 학업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
4)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
5)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
6)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①	②	③	④	-
7)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성매매, 성경험, 성범죄, 임신 및 낙태 등)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8)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

10

귀하는 한부모가 된 후 귀하의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자녀의 변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이다	변화가 없다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해당 없음
1) 자녀의 학교 성적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와 나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
3)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
4)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
5)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①	②	③	④	⑤	-
6)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	①	②	③	④	⑤	-

1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한 여가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 | | |
|-----------|------------------------------|-------------|
| ① TV시청 |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 ③ 컴퓨터 게임 |
| ④ 쇼핑 | ⑤ 외식 | ⑥ 놀이공원 가기 |
| ⑦ 산책 | ⑧ 스포츠 활동(등산 포함) | ⑨ 스포츠 경기 관람 |
| ⑩ 여행 | ⑪ 종교활동 | ⑫ 주말농장 가꾸기 |
| ⑬ 자원봉사 활동 | ⑭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 ⑮ 기타() |

귀하는 향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TV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연주회 등) ③ 컴퓨터 게임
④ 쇼핑 ⑤ 외식 ⑥ 놀이공원 가기
⑦ 산책 ⑧ 스포츠 활동(등산 포함) ⑨ 스포츠 경기 관람
⑩ 여행 ⑪ 종교활동 ⑫ 주말농장 가꾸기
⑬ 자원봉사 활동 ⑭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⑮ 기타()

※ 중학생 이상 연령(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주말 제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있다 → (하루 평균 : 시간) ② 없다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주로 하는 활동을 2가지만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TV시청, 음악듣기, 잡지나 책을 읽으며 지낸다	②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지낸다
③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④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돌본다
⑤ 쉬거나 잠을 잔다	⑥ 숙제 등 공부를 한다
⑦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⑧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⑨ 아르바이트를 한다	⑩ 동아리,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한다
⑪ 기타()	

귀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2) 자녀의 학습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
4)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
5)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
6)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①	②	③	④	-
7)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성매매, 성경험, 성범죄, 임신 및 낙태 등)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8)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

2

귀하가 다음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문항	2-1.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및 기관 여부		2-2.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순서대로 2가지 선택	
	있다	없다	1순위	2순위
1) 식사준비, 청소 등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①	②		
2)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①	②		
3)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4)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5)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①	②		

<보기>

① 부모	② 친인척(형제, 자매 등)	③ 전 배우자
④ 친구나 동료	⑤ 이웃(종교단체 포함)	⑥ 공공기관(주민센터, 건강센터 등)
⑦ 민간기관(한부모 관련단체 및 한부모복지시설)	⑧ 한부모자조모임	⑨ 기타()

3

귀하는 주위에 한부모가족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위에 말씀하셨다면,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한부모가족임을 주위에 말함		말했을 경우, 차별 경험 여부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 동네나 이웃주민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세, 전세, 계약 거부, 한부모 가족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①	②	①	②
2) 학교나 보육시설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있어 불이익, 학부모 모임 배제,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한 행사 개최 등)	①	②	①	②
3) 가족 및 친척 (가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말 또는 모욕적인 말 등)	①	②	①	②
4) 직장 및 일터 (한부모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 휴가/휴직 거부, 동료로부터 따돌림 등)	①	②	①	②
5) 공공기관 (한부모라는 이유로 냉대, 공개된 공간에서 사생활 노출 등)	①	②	①	②

4

한부모가 된 후 귀하는 다음의 변화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와 긴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일가 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활동

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9번 문항으로)

※ 다음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 일을 한 경우에는 주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일하지 않는 분은 9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

현재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 1)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예술가, 스포츠 등
3) 사무 종사자: 차장 이하 사무직, 초종교 교사, 6급 이하 공무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원, 미용사, 간병인, 조리사,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 기타 서비스 등
5) 판매 종사자: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운전기사, 세탁, 목공, 기능공, 기계 정비사, 재봉사, 제빵사 등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기관사, 택시·버스 기사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3

귀하의 종사자 직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②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 종사자

⑦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4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주간 평균 ()시간

5

귀하가 직장(사업체)에서 받는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50만원 미만 |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 ⑤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⑦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6

귀하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쉬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 | ②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
| ③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 ④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
| ⑤ 정해진 휴일 없음(불규칙함) | ⑥ 기타() |

7

현재 귀하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 ②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
| ③ 장시간 근로 | ④ 불투명한 직업 전망 |
| ⑤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 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
| ⑦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 ⑧ 기타() |
| ⑨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

8

귀하가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②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 ③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 ④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
|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 ⑥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
| ⑦ 기타() | |

→ 응답 후 11번 문항으로 이동

※ 다음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미취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9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직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구해본 적 있다(9-1번 문항으로) | ② 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9-3번 문항으로) |
| ③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10번 문항으로) | |

9-1

귀하는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을 알아보았습니까?

- | | |
|--------------------------------|--------------------------|
| ①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 방문 | ②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
| ③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 ④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를 통해 |
| ⑤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 | ⑥ 기타() |

9-2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②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③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 ④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 ⑥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 ⑦ 기타()

9-3

현재 귀하는 어떤 지위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십니까?

- ①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시간제 9-4번 문항으로
- ②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전일제 11번 문항으로
- ③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시간제 9-4번 문항으로
- ④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전일제 11번 문항으로
- ⑤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시간제 9-4번 문항으로
- ⑥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전일제 11번 문항으로
- ⑦ 자영업자 11번 문항으로
- ⑧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11번 문항으로

9-4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를 돌보려고
- ② 가사일 때문에
- ③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④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⑤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⑥ 기타()

→ 응답 후 11번 문항으로 이동

10

귀하가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 ②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 ③ 수입, 근로시간, 업무 등이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 ④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 ⑤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
- ⑥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예: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받지 못할까봐
-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⑧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 ⑨ 기타()

※ 다음은 모든 응답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최근 3년 이내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12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13번 문항으로)

12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12-1번 문항으로)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12-1번 문항으로)

③ 도움이 된 편이다(5장 건강 영역으로)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5장 건강 영역으로)

12-1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성 부족

② 불투명한 직업 전망

③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

④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⑤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 부족

⑥ 기타()

→ 응답 후 5장 건강 영역으로 이동

13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② 근처에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③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④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⑥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으로 훈련을 받아도 따라가기

⑦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워서

⑧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⑨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⑩ 기타()

⑪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5. 건강

1

귀하의 평소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2

귀하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귀하는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사업장 건강검진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는 최근 1년 내에 귀하가 병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4-1번 문항으로)

② 없다(5번 문항으로)

4-1

귀하가 원하는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병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③ 자녀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④ 교통편이 불편해서

⑤ 진료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⑥ 병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⑦ 증상이 가벼워서

⑧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⑨ 기타()

5

귀하는 요즘 규칙적인 운동(걷기, 등산, 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등)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운동횟수는 1일 1회 기준이며, 학생의 경우 학교 체육수업은 제외함.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하며, 일상생활의 걷기는 제외함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달에 2~3번 정도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번

⑤ 일주일에 3번

⑥ 일주일에 4번

⑦ 일주일에 5번

⑧ 일주일에 6번

⑨ 매일

6

귀하는 지난 2주 내에 아래 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①	②	③	④
4) 피곤감이 증가하고,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껴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귀하는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 ① 혼자서 참는다 ②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③ 술을 마신다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⑤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의사의 진단, 약처방 등) ⑥ 지역사회의 전문가(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와 상담한다
⑦ 기타()

8

귀하는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귀하의 자신감의 정도를 다음에서 선택하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어려운 과업을 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과민성 ¹⁾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신감이 아주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을 보통 스스로 결정해서 많이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때때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결심한 일에 관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계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결심한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황이 어렵게 보일 때,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일을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처음 시도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도하면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 때,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몇 가지 일에서 아주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력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불편함을 견딘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

6. 경제상태

1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 구성원의 소득 모두 포함)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이상 | ⑧ 잘 모름 |

2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주 소득원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본인 근로소득	②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③ 같이 사는 기구의 근로소득	④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⑤ 정부지원(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⑥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⑦ 금융기관 대출	⑧ 사채 등 개인적 빚을 얻어서
⑨ 기타()	

3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이상 | ⑧ 잘 모름 |

4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식료품비	②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③ 자녀교육비	④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학비, 직업훈련비 등)
⑤ 주거 및 관리비(집세,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⑥ 의료비 및 보험료
⑦ 교통통신비(교통비, 핸드폰비 등)	⑧ 문화생활비(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⑨ 대출금 상환	⑩ 기타()

5

귀하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 | | |
|-----------------|---------------|
| ① 있다(5-1번 문항으로) | ② 없다(6번 문항으로) |
|-----------------|---------------|

부채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주거유지비(전월세 보증금 마련, 주택 구입 등) ② 자녀 교육비
③ 가족 의료비 ④ 생활비(식료품, 의복 등 생활필수품, 공과금 지불)
⑤ 휴대전화 명의대여 및 소액결제 ⑥ 기타()

5-2

부채 상환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 월평균)

() ()

6

귀하는 대출금이나 신용 카드 이용 대금 등을 장기간 연체하였거나 이로 인해 신용상태가 나빠진 상태입니까?

- ① 예

7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소득이 높은 일자리	②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③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지원	④ 직업훈련, 취업교육, 알선 등
⑤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육체적 건강)	⑥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마음(심리적 건강)
⑦ 실직이나 휴업 시 보조금 지급	⑧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⑨ 기타()	

7. 주거 환경

1

귀하께서 살고 계신 주거(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⑤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⑥ 무상으로 친구집에서
⑦ 공공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⑧ 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쉼터)
⑨ 기타()

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주거전용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

3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은 어떠합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구원 수에 비해 공간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통풍 및 채광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난방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방음상태(충간소음, 외부소음 차단정도 등)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놀이터,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절도, 강도 등에 대한 치안 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한부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현재 이용함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1) 공공임대, 공공분야 등 주택 제공	①	②	③	④
2) 주거비 지원(전세자금 융자지원, 월 임대료 보조 등)	①	②	③	④

8. 양육비

1

귀하는 비양육부모와 연락 또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있다
③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④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듣는다
⑤ 연락하지 않는다 ⑥ 기타()

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3번 문항으로) ② 부정기적으로 받는다(3번 문항으로) ③ 일시적으로 받았다(3번 문항으로)
④ 받지 않는다(2-1번 문항으로)

2-1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받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 ②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 ③ 친부/친모를 인지하지 못함
- ④ 친부/친모를 인지하였으나, 양육비 청구에 따르는 불편/어려움으로 청구안함
- ⑤ 전 배우자(비양육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 5번 문항으로)
- ⑥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 ⑦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 ⑧ 비양육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 ⑨ 기타()

3

귀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또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서비스(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

귀하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서비스(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등)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5번 문항으로)
- ② 없다(4-1번 문항으로)

4-1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 ②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 정보를 얻지 못해서
- ③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④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 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
- ⑥ 비양육부모와 얹히는 것이 싫어서
- ⑦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봐
- ⑧ 기타()

5

귀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양육비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1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 ③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 ④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 ⑤ 기타()

2

귀하는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법(사업)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150%이하/기존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2%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 이하)에게 자녀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가족역량강화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① 현재 받고 있음(2-1번 문항으로) ②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2-2번 문항으로)
- ③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4번 문항으로) ④ 제도를 알지 못함(5번 문항으로)

2-1

귀하의 가구가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수입이 늘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등) 한가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양육비 지원 ② 자녀교육비 지원(고교생 교육비, 방과후보육 바우처 등)
- ③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④ 주거관련 지원
- ⑤ 창업자금 지원 ⑥ 취업교육 지원(직업전문학교 입학, 여성발전센터)
- ⑦ 기타()

→ 응답 후 3번 문항으로

2-2

귀하 가구가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취업,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③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④ 비양육부모(아이의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서
- ⑤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를 받게 되어서
- ⑥ 자녀나 다른 가구원이 성인이 되어서
- ⑦ 가족의 빚이 나아서
- ⑧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⑨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어서
- ⑩ 기타()

2-3

귀하 가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여러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양육비 지원 ② 자녀교육비 지원(고교생 교육비, 방과후보육 바우처 등)
③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지원 ④ 주거관련 지원
⑤ 창업자금 지원 ⑥ 취업교육 지원(직업전문학교 입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⑦ 기타()

3

2번 문항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②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어려움
 ③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④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
 ⑤ 담당자(공무원, 담당기관 직원 등)가 정책을 잘 모름 ⑥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⑦ 기타()

4

귀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주요 경로를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②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③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⑤ 한부모복지시설 및 한부모 모임	⑥ 사회복지관
⑦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⑧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⑨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⑩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⑪ 기타()	

5

귀하가 현재 생활하는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②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③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④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⑤ 직업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⑥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⑦ 사회적 인식, 차별 개선	⑧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⑨ 자조모임	⑩ 심리·정서적 지원
⑪ 기타()	

※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관련 문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생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 이용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6

귀하가 지금까지 이용하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④ 일시지원복지시설(쉼터 등) 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⑥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⑦ 사회복지관 ⑧ 기타() ⑨ 이용한 적이 없음

→ ①~④번 응답한 경우 6-1번 문항으로 / ⑤~⑧번 응답한 경우 7번 문항으로 / ⑨번을 응답한 경우 6-3번 문항으로

6-1

귀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갈 곳이 없어서 | ② 자녀 양육 때문에 |
| ③ 미혼 출산 때문에 | ④ 가정폭력 때문에 |
| ⑤ 경제적 어려움으로 | ⑥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
| ⑦ 인근 교통편리 등 접근성이 좋아서 | ⑧ 주변 환경이 안전하여 |
| ⑨ 좋은 시설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 ⑩ 기타() |

6-2

귀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② 생계(생활)지원 서비스
③ 양육지원 서비스	④ 자립에 필요한 역량강화 서비스
⑤ 임신·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⑥ 상담·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⑦ 문화, 여가 지원 서비스	⑧ 퇴소 후 사후 상담 서비스
⑨ 기타()	

→ 응답 후 7번 문항으로

6-3

귀하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 ② 시설 이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소득 기준 초과 등) |
| ③ 지원시설이 너무 멀어서 | ④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
| ⑤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 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
| ⑦ 기타() | |

→ 조사 완료

7

귀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 | | |
|-------------------|----------------------------------|
| ① 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 ② 유관기관 연계(상담소, 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 ③ 친구 및 지인 소개 | ④ 민간단체 소개(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 |
| ⑤ 대전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⑥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
| ⑦ 시설 홍보물 | ⑧ 기타() |

귀하가 지원시설에서 받은 서비스가 귀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본인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멘토 및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②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 ③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④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 ⑤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⑥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 ⑦ 기타()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②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③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④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⑤ 당사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⑥ 생활시설 입주 자격 기준 완화
⑦ 기타()	

※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2019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해(2021년) 전반적으로 경험했던 변화에 비추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	②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③ 근로시간 단축 및 해고 등 일자리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문제
⑤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⑥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
⑦ 가사노동 등 집안일 부담	⑧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
⑨ 온라인 사용 어려움(앱 설치 및 프로그램 활용 등)	⑩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⑪ 기타()	⑫ 어려움이 없었음

1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번	2순위()번
①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②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③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④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⑤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⑥ 심리상담 지원
⑦ 지원이 필요 없음	⑧ 기타()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2-7]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김인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5067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20-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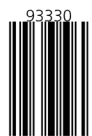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0층(대흥동)
Tel. 042)331-5067 Fax. 042)331-8924
<https://daejeon.pass.or.kr/>

비매품/무료



9 791192 238203

ISBN 979-11-92238-20-3



93330